

# 2013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초중고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 －

- Ⅰ 일시 \_ 2013년 7월 6일(토) 오후 1시 30분 ~ 7일(일) 오후 1시
- Ⅰ 장소 \_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본관3층 대회의실
- Ⅰ 주관 \_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 Ⅰ 주최 \_ 한국한문교육학회
- Ⅰ 후원 \_ 공주대학교, (재) 국제교류진흥회



## 2013年度 韓國漢文教育學會 夏季學術大會

### □ 대회 개요

- 일시: 2013년 7월 6일(토) 1시 30분 ~ 7일(일) 오후 1시
- 장소: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본관3층 대회의실
- 주제: 초중고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
- 주관: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 주최: 한국한문교육학회
- 후원: 공주대학교, (재) 국제교류진흥회

### □ 행사 일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6일 (토) 13:30 ~ 18:20	13:30 개회사(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13:40 환영사(공주대학교 총장)	개회 사회자: 김현옥(대전공고)
	<b>제1부 기획주제 발표 (본관3층 대회의실)</b> 발표① (기조발제) 자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자전의 필요성 발표자: 정재철(단국대) 발표② 자전 편찬의 실제와 과제 발표자: 이동철(용인대) 13:40 토론자: 양원석(한국고전번역원) ~15:00 발표③ 국내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특징 발표자: 이군선(원광대) 토론자: 김영주(성균관대) 발표④ 한문 교과 학습에 있어서 한문 자전의 활용 발표자: 조영호(정신여고) 토론자: 김성중(신갈중)	발표 사회자 : 김현옥(대전공고)
	15:00 휴식 ~15:10	
	<b>제2부 기획주제 발표 (본관3층 대회의실)</b> 발표⑤ 학습자전의 향방과 개발에 대한 提言 발표자: 강민구(경북대) 15:10 토론자: 윤채근(단국대) ~16:30 발표⑥ 한·중·일 漢字 字典의 字形 제시 기준 발표자: 김영옥(고려대) 토론자: 허연구(성균관대)	발표 사회자 : 김현옥(대전공고)

		발표⑦ 한문 학습자전 수록 한자의 대표 字義 및 意味項 선정과 조직 발표자: 이동재(공주대) 토론자: 김미선(청주대)	
	16:30 ~16:40	휴식	
	16:40 ~18:00	종합토론	종합토론 좌장: 진재교(성균관대)
7일 (일) 09:10 ~ 12:50	09:10 ~11:40	<b>제3부 기획주제 발표 (본관3층 대회의실)</b> 발표①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선정과 체제 발표자: 김우정(단국대)·김용재(성신여대) 토론자: 백광호(전주대) 발표② 한문 학습 字典 수록 ‘漢文’ 用例 選定 및 組織 발표자: 김왕규(한국교원대)·송병렬(영남대) 토론자: 김용재(성신여대) 발표③ 한문 학습 디지털 사전 구축의 실제 발표자: 허철(성균관대) 토론자: 한은수(서울난향초) 발표④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필순 발표자: 한연석(공주대) 토론자: 김태수(단국대)	발표 사회자 : 이성형(홍진고)
		<b>제3부 자유주제 발표 (본관3층 대회의실)</b> 발표① 韓國漢文教育의 方向과 課題 발표자: 류준경(성신여대) 토론자: 김병철(군포고)	
	11:40 ~11:50	휴식	
	11:50 ~12:50	종합토론	종합토론 좌장: 김일환(공주대)



# 목 차

## 제1부 기획주제 발표

【 기초발제 】 자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자전의 필요성(정재철) .....	1
자전 편찬의 실제와 과제(이동철) .....	23
국내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특징(이군선) .....	39
한문 교과 학습에 있어서 한문 자전의 활용(조영호) .....	59

## 제2부 기획주제 발표

학습자전의 향방과 개발에 대한提言(강민구) .....	77
한·중·일 漢字 字典의 字形 제시 기준(김영옥) .....	97
한문 학습자전 수록 한자의 대표 字義 및 意味項 선정과 조직(이동재) .....	127

### 제3부 기획주제 발표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선정과 체례(김우정·김용재) .....	145
한문 학습 字典 수록 ‘漢文’ 用例 選定 및 組織(김왕규·송병렬) .....	163
한문 학습 디지털 사전 구축의 실제(허철) .....	175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필순(한연석) .....	197

### 제4부 자유주제 발표

韓國漢文教育의 方向과 課題(류준경) .....	221
---------------------------	-----

이 발표논문집은 2013년도 (재)국제교류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제1부 기획주제 발표

【 기조발제 】 자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자전의 필요성(정재철) .....	1
자전 편찬의 실제와 과제(이동철) .....	23
국내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특징(이군선) .....	39
한문 교과 학습에 있어서 한문 자전의 활용(조영호) .....	59



## 【 기초발제 】

# 사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사전의 필요성

정재철(단국대)

- 
1. 머리말
  2. 사전류의 역사
    - 1) 韻書: 한자 음운의 규범
    - 2) 類書: 한자 어휘의 보고
    - 3) 玉篇: 한자 주석의 전형
    - 4) 辭典: 한자 어휘의 집성
  3. 한문 학습 사전의 필요성
    - 1) 문학 사전의 시대적 의미
    - 2) 한문 학습 사전의 지향점
  4. 맺음말
- 

## 1. 머리말

한자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다음 崔南善이 1915년에 간행된 『新字典』에 붙인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字書의 作이 진실로 容易치 아니한지라 剖明은 明敏한 頭腦를 要하며 思辨은 銳利한 判斷을 要하며 訓詁는 博學과 淹識을 要하며 撰輯은 快手와 敏腕을 要하며 色相心情萬類羣彙를 臨時發明함에는 三才를 府藏하고 四方을 庖廚하야 物理와 世故에 具諳并通함을 要하며 移動轉變千用萬例를 隨出輒應함에는 百家를 肴饌하고 六籍을 笙簧하야 字原과 文典에 兩精雙深함을 要하며 查覈證驗에는 裁判官의 心理를 要하며 搜討檢索에는 探險家의 發摘을 要하니 이엇지 尋常한 學者文人의 可能할 바!

라<sup>1)</sup>

위의 글에서 보듯이 한자 자전은 보통의 학자와 문인이 편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자 자전을 편찬하는 사람은 명민한 두뇌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밝혀야 하고, 예리한 판단으로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여 분석해야 한다. 또한 폭넓은 학문과 깊은 지식으로 경전이나 고서의 자구를 해석해야 하고, 통쾌하고 민첩한 솜씨로 사전의 내용을 편찬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色相과 心情을 發明하기 위해서는 物理와 世故에 모두 通達해야 하고, 사물의 千變萬化하는 이치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字源과 문헌에 모두 精深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듯이 사전의 내용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고, 탐험가가 새로운 것을 적발하듯이 사전의 자료를 수색하고 검토해야 한다. 한문 학습 사전도 예외는 아니다. 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못지않은 한문의 해석 능력과 함께 한문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한문 학습 사전의 편찬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사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자전류의 역사

한자 문화권에서는 언어사전을 흔히 字典이라 불러 왔다. 이것은 현대의 辭典에 해당하는 것인데, 편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字典을 字書, 類書, 韻書의 셋으로 나눈다. 字書는 한자의 字形을 기준으로 배열한 자전이다.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형에 대한 학습은 문자 학습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字書는 여러 자전 중에서 일찍부터 편찬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許慎의 『說文解字』(121)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자서로는 일제강점기에 朴瑄壽가 지은 『說文解字翼徵』(1912)과 權丙勳이 지은 『六書深源』(1940)이 있다. 類書는 삼라만상을 天文, 地理, 禽獸, 人體 등으로 나눈 다음 이를 기준으로 배열한 자전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爾雅』와 한국의 『訓蒙字會』, 『新增類合』 등이 있다. 韻書는 한 자음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한 자전을 가리킨다. 한자는 표음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韻書는 가장 늦게 편찬된다. 陸法言의 『切韻』(601)이나 한국의 『東國正韻』(1448)이 이에 속한다.<sup>2)</sup>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각 시기별로 다양한 내용으로 간행된 자전류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韻書: 한자 음운의 규범

조선의 실학자인 李圭景은 「韻書辨證說」에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이미 중국과 통하여 문인이 존재한 것을 예로 들어 당시에 韻書가 도입되었고, 고려 광종이 과거로 선비를 뽑을 때에 『切韻』(602)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았다.<sup>3)</sup> 그가 말한 『切韻』은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운서이다. 이 책은 隋 文帝 원

1) 崔南善(1915), 8면.

2) 이승재(2008), 9~10면.

3) 李圭景, 992면. “我東之有韻, 雖無史冊之可證, 然新羅·百濟·句麗, 既通中國, 三國亦有文人, 則韻書之來, 自必其時, 文獻無徵, 今不考. 勝朝光宗時, 設科取士, 則韻當用中國所行切韻, 而自此以下隨歷代所用矣.”

년에 陸法言이 간행한 것으로 한자의 운을 총 206운으로 분류하여 12,158자의 한자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唐 玄宗 때에 『廣韻』으로 개명되었다가 송 眞宗 때에 26,194자로 증보되었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힌 운서로는 宋 景佑 때에 간행된 『禮部韻略』(1037)이 있다. 이 책은 처음에는 206운에 9,590자를 수록하였는데, 金의 王文郁이 106운으로 줄여 『新刊韻略』을 간행하였고, 다시 南宋의 劉淵이 107운으로 『壬子新刊禮部韻略』(1252)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新刊排字禮部韻略』을 비롯하여 조선 숙종 때에 『排字禮部韻略』에 이르기까지 모두 8종 이상이 간행되었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운서로 元의 熊忠이 간행한 『古今韻會』를 黃公紹가 편집한 『古今韻會舉要』가 있다. 이 책은 세종 16년에 12책으로 복각되어 『東國正韻』의 저본이 되었다.<sup>4)</sup>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운서를 그대로 복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식의 운서를 편찬하였다. 특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훈민정음식 발음부호 체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운서를 편찬하거나 譯訓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조선에서 간행된 운서는 두 가지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는 종래와 같이 중국의 운서를 복각하거나 이와 유사한 운서를 편찬하는 것이고, 둘째는 훈민정음식 발음부호 체계로 한자음을 표기한 운서를 편찬하는 것이다. 첫째에 해당하는 운서로는 앞서 말한 8종의 『禮部韻略』과 『古今韻會舉要』, 『洪武正韻』 등이 있다. 둘째의 경우는 다시 중국의 전통음과 현실음을 적은 조선판 중국 운서와 이미 전래된 한자의 조선음을 적기 위해 편찬한 운서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해당하는 운서는 『洪武正音譯訓』·『四聲通考』·『四聲通解』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운서는 『東國正音』·『華東正音通釋韻考』·『華東叶韻通釋』·『三韻聲彙』·『奎章全韻』 등이 있다.<sup>5)</sup> 조선시대에 간행된 주요 운서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주요 韻書의 내용

서명 \ 내용	편찬자	간행년도	권수	수록자수	비고
東國正韻	申叔舟 等	1448년 (세종 30)	6권	14,243자	최초로 한글 음 표기
三韻通考	미상	미상	1책	9,732자	平·上·去聲 三段排列
三韻補遺	朴斗世	1702년 (숙종 28)	2권 1책	12,767자	平·上·去·入聲 分卷排列
增補三韻通考	金濟謙·成孝基	1702~1722년 (숙종 28~경종 2)	1책	11,632자	平·上·去聲 三段排列
華東正音 通釋韻考	朴性源	1747년 (영조 23)	2권 1책	11,632자	平·上·去聲 三段排列
三韻聲彙	洪啓禧	1751년 (영조 27)	2권 2책	12,965자	平·上·去聲 三段排列
奎章全韻	徐命膺 等	1796년 (정조 19)	1권 1책	13,345자	平·上·去·入聲 四端排列

『東國正音』은 역사상 처음으로 14,243자에 대하여 전승 한국 한자음을 표음문자로 기록한 韻書이다.

4) 정경일(1998), 497~502면.

5) 康寔鎭(1999), 1~2면.

이 책은 韻目을 15세기의 전승 漢字音의 韻母音을 기초로 하여 91韻으로 줄였으나, 이러한 인위적인 規範音을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았다.<sup>6)</sup> 『三韻通考』는 고려 때부터 과거시험용으로 널리 쓰인 106韻의 『排字禮部韻略』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이 책은 同韻字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平·上·去·入聲韻 순의 배열법에서 벗어나, 平·上·去聲의 舒聲韻만 한 면에 삼단으로 일괄 배열하고 入聲은 권말에 따로 수록하였다. 朴斗世가 편찬한 『三韻補遺』(1702)와 金濟謙·成孝基가 공동으로 편찬한 『增補三韻通考』(1702~1722)는 당시 조선에서 널리 유행하던 『古今韻會舉要』·『洪武正韻』·『字彙』·『龍龕手鏡』 등의 문서를 참고하여 『三韻通考』를 증보한 것이다.

朴性源이 편찬한 『華東正音通釋韻考』(1747)는 『增補三韻通考』를 저본으로 하여 崔世珍이 편찬한 『四聲通解』의 표음을 근거로 오른쪽에 화음을 표기하고 왼쪽에는 조선 한자음을 함께 표기하였다. 洪啓禧가 편찬한 『三韻聲彙』(1751)는 『增補三韻通考』를 저본으로 하여 한 면을 三段으로 나누어 平·上·去聲의 同韻을 함께 두었으나, 이에 속하는 한자는 字母順으로 하여 조선 한자음에 따라 먼저 배열하고 그 아래 중국 한자음을 배열하였다. 정조의 명에 의해 편찬된 『奎章全韻』(1792)은 기존의 『三韻通考』의 三段式 배치법이 四聲의 근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장에서 入聲韻을 사용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平·上·去·入聲을 한 면에 표시하는 전통식 四端 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책 또한 실재는 『三韻通考』의 수록자를 그대로 轉載하고 증보한 채 『三韻通考』의 三段式 배열에 入聲韻만 옮겨 왔을 뿐이다.<sup>7)</sup>

한자는 다른 문자와는 달리 한자 1자 1자가 고유의 聲調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자도 聲調의 차이에 따라 그 字義도 달라지는 문자이다. 따라서 한문의 바른 음독이나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이 韻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을 반드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문은 일찍부터 韻文과 散文으로 나뉘어 발달하였는데, 漢詩·辭賦·哀誄·詞曲 등은 모두 운문이며 한문 문학의 정수이면서 그 대중을 이루는 장르들이다. 이 같은 장르의 한문은 韻學에 관한 식견 없이는 지을 수도 없고 감상할 수도 없다.<sup>8)</sup> 특히 과거의 중요한 평가 영역인 詩와 賦를 주어진 운에 맞게 짓기 위해서는 한자의 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 20년에 치른 진사시에서는 古賦 + 韻詩를 지을 수 있도록 시험장에 韻書를 지참하는 것을 허락한 것<sup>9)</sup>에서 확인된다. 앞서 살폈듯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문서들은 대부분 平·上·去聲만 한 면에 三段으로 배열한 『三韻通考』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어문 생활에서 필수적인 시부를 지을 때에 同韻字의 검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 2) 類書: 한자 어휘의 보고

類書는 經史子集의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經史子集의 각 문헌에 걸쳐서 내용상 歷史事實, 人物前記, 事物源流, 政區沿革, 名物制度, 詩詞歌賦, 文章麗句, 成語典故, 심지어 醫卜星相, 天文地理, 日月星辰, 山川河流, 飛禽走獸, 花草蟲魚 등을 포괄하므로, 자연계 및 인류사회의 일체 지식을 망라한다.<sup>10)</sup>

6) 姜信沆(2000), 8~17면.

7) 康寔鎭(1999), 29~30면.

8) 金東吉(1988), 6면.

9) 『世宗實錄』 권80, 20年, 正月. “禮曹啓. 進士試取時, 古賦十韻詩, 舉子須考韻書, 請許挾入, 從之.”



한자 사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類書에 영향을 준 중국의 類書로는 『爾雅』와 『急就篇』을 들 수 있다. 『爾雅』는 『詩經』, 『書經』 등 고전의 문자를 추려 類義語와 字義 등을 해설한 책으로 고대 중국어의 어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고려시대에 國子監에서는 이 책을 『說文』, 『字林』, 『三倉』 등과 함께 학생들의 교양 과목에 넣어 교육하였다. 『急就篇』은 前漢 元帝 때 黃門令 史遊가 학동들의 문자 교육을 위해 지은 책이다. 이 책은 당시의 상용한자 약 1,900자를 姓氏·衣服·飲食·器皿·官職·法律·地理 등의 物名을 열거하여 글자를 배우는 동시에 사물들에 대한 간략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책은 3자구, 4자구, 또는 7자구로 배열한 다음 脚韻을 달아 놓았는데, 『訓蒙字會』와 『新增類合』에서 이를 본떠 1구 4자에 韻語를 넣어 간행하였다.

類書는 한 시대의 지식 형성에 기초가 되며, 기타 한학 기초학의 여러 저술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조선후기에 類書가 발달하는 것과 동시에 漢字分類語彙集이 발달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類書의 범주를 ①사물의 장실과 기원을 검색하기 위한 공구서: 文獻用語辭典, ②사물의 이름과 성질을 표시하는 어휘들을 의미적 상관에 따라 분류하고 간략한 訓釋을 붙인 공구서: 語彙分類詞典, ③아동의 한자 학습을 위한 공구서: 識字教科書, ④외국어 학습을 위한 공구서: 異國語間語彙對應辭典 등 네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sup>11)</sup> 위와 같은 네 유형의 類書類 중에서 한자 사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②와 ③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아동학습용 類書와 物名類 類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시대 주요 아동학습용 類書의 내용

서명 \ 내용	편찬자	간행년도	권수	수록자수	비고
類合	미상 (徐居正)	미상	1책	1,512자	최초의 독자적 한자 학습 교재
訓蒙字會	崔世珍	1522년 (중종 22)	3권 1책	3,360자	實字 중심의 한자 학습 교재
新增類合	柳希春	1576년 (선조 9)	2권 1책	3,000자	『類合』 수정·보완
兒學編	丁若鏞	미상	2권 1책	2,000자	『千字文』 수정·보완

『類合』은 『千字文』의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독자적 한자 학습용 교재이다. 이 책은 崔世珍이 「訓蒙字會引」에서 당시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집에서는 반드시 『千字文』을 먼저 익히고 다음에 『類合』을 학습한 후에 다른 책을 읽었다<sup>12)</sup>고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학습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 책은 종종 때에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아 16세기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訓蒙字會』(1522)는 최세진이 당시 한자 학습에 사용된 『千字文』과 『類合』의 내용이 경험세계와 직결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새·짐승·풀·나무의 이름과 같은 實字를 위주로 교육할 것을 주장하여 편

10) 심경호(2007), 86면.

11) 심경호(2007), 86~89면.

12) 崔世珍(1522), 11면. “臣竊見世之教童幼學書之家, 必先千字, 次及類合, 然後始讀諸書矣.”

찬한 책이다. 이 책은 상·중·하 3권에 1,120자씩 총 3,360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한자의 배열은 상권에 天文 이하 16문, 중권에 人類 이하 16문으로 주로 全實字를 수록하였고, 하권에는 雜語라 하여 半實半虛字를 수록하였다.

『新增類合』은 柳希春이 『類合』에 요긴한 한자가 많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존중하고 유교를 배척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 1576년 10월에 서문과 발문을 붙여 도서관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에는 卷上에 數目·天文·衆色 등 24항목 1,000자, 卷下에 心術·動止·事物의 3항목 2,000자 등 모두 3,000자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한자의 배열은 기본적인 한자에서부터 시작하되 4자씩 운을 맞추어 구절을 만들고, 다시 2구절씩 짝을 지어 놓았다. 『兒學編』은 정약옹이 당시 대표적인 한자 학습서인 『千字文』의 내용 및 체계상의 결점을 극복하고자 편찬한 것이다. 상권에는 구체적인 명사나 자연계·자연현상·실제적 현상에 부합하는 유형적인 개념을 담았고, 하권에는 추상명사·대명사·형용사·동사 및 계절·기구·방위개념 등의 무형적인 개념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편찬의 체계와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특히 편찬의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당시의 실학적 교육사상과 방법론의 탁월한 이상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sup>13)</sup>

[표 3] 조선시대 주요 物名類 類書의 내용

서명	내용	편찬자	간행년도	권수	표제어수	비고
物譜		李家煥·李載威	1802년 (순조 2)	1권 1책	한자품명 1,470여개	李家煥의 『物譜』 분류 정리
物名攷		柳僖	1820년대	5권 1책	1,660개	李晩永의 『財物譜』 정리 편찬
物名攷		丁若鏞	미상	1책	1,000~ 1,600개	『物名括』·『物名類』 등으로 불림
物名纂		柳氏	1980년 (고종 27)	1책	1,270개	19세기말 정음지역어 반영

『物譜』(1802)는 李家煥이 쓴 초고를 그의 아들 李載威가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이 책은 物名을 天生萬物과 人爲萬事로 구분하여 상편에 草木部·蟲魚部 등 4부 21목과 하편에 身體部·人道部 등 4부 28목 등 8부 49목의 물명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먼저 한자품명 1,470여개를 쓴 다음 국어품명 1천여 개를 써놓았다. 『物名攷』(1820년대)는 柳僖가 여러 가지의 物名을 모아 한글 또는 한문으로 풀이하여 놓은 것이다. 이 책은 李晩永이 편찬한 『財物譜』(1798)의 物譜와 地譜에서 그 표제어와 주해를 취사선택하여 편찬한 것으로, 먼저 有情類·無情類·不動類·不情類로 분류한 뒤에 羽蟲·手足 등 15개의 부류로 다시 나누어놓았다.

丁若鏞이 편찬한 『物名攷』는 『物名括』·『物名類』·『靑館物名攷』·『竹欄物名攷』 등 다양한 이름으로 편찬된 物名類의 類書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본에 따라 1,000~1,600개 정도의 표제어가 草木類·鳥獸類·蟲魚類 등 18개의 부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당시 국어 어휘연구에 중요

13) 李元浩(1991), 376면.

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物名纂』(1890)은 柳某가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物名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 책은 天類·人類·身類·衣類 등 모두 36개의 부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物名攷』나 『物譜』의 분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책에는 약 1,270개의 표제항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19세기말의 정읍 지역어를 반영하고 있어 方言史·語彙史·音韻史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sup>14)</sup>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대부분의 국어 어휘 자료들은 국어에 그 초점을 두고 편찬된 것이 아니라, 주로 중국의 原典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原典이란 대부분이 중국의 문헌이었기 때문에 중국 원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헌 속의 문자, 단어, 고유명사, 고제도, 고사성어, 풍속, 세시 등의 사항들을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15)</sup>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위 ‘名物度數’의 學이 성립되게 된다. 명물도수의 학이란 物件과 制度에 관한 학문을 말하는 것이다.<sup>16)</sup> 당시 새로운 중국 문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사물이나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나 어휘의 생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듯이 실학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편찬된 物名類의 類書들은 당시 중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 어휘들을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고증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한자 어휘 수용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다.

### 3) 玉篇: 한자 주석의 전형

중국 최초의 類書라 할 수 있는 『爾雅』에는 발음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온 字書인 『說文解字』는 9,353개의 표제자를 504부수로 분류하여 의미 정보와 자형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표제자들이 정의 정보 하나만 기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중국 최초의 본격적인 사전으로 梁의 顧野王이 편찬한 『玉篇』(543)을 든다. 이 사전은 16,917자의 표제자를 542개의 부수로 나누어 표제자의 발음, 의미, 용례 등을 정보를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玉篇’이라는 서명이 자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현대적인 체재를 갖춘 사전으로 淸의 康熙帝 때에 편찬된 『康熙字典』(1716)이 있다. 이 사전에서는 총 49,000개의 표제자를 214부수로 분류하고 배열하였으며, 반절법을 이용하여 표제자의 발음 정보를 기술하였다. 이후 나온 사전들은 대부분 이러한 분수 분류 방법, 발음 기술 방법, 의미 정보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sup>17)</sup>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韻書는 표제자를 四聲別로 나누고, 같은 성조를 가진 한자들을 韻別로 분류하고, 韻이 같은 한자들을 聲母別로 나누어 한자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자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서 자형이나 자획에 따라 표제자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운서의 보편인 玉篇을 만들어 사용하였다.<sup>18)</sup> 이러한 玉篇은 운서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어, 그 효용은 운서에 들어 있는 글자를 찾아내는 색인의 구실을 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곳에는 표제자 아래에 자음이나 자의에 대한 설명

14) 洪允杓(1992), 552면.

15) 洪允杓(2002), 139면.

16) 洪允杓(1990), 80면.

17) 박형익(2004), 10면.

18) 박형익(2004), 6면.

이 없고, 다만 출처만 세주로 명시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에 속하는 玉篇으로 崔世珍이 『古今韻會』를 자형에 따라 나누어 韻母를 붙이고 새로 풀이한 『韻會玉篇』(1536)이 있다. 그 후 『新刊排字禮部韻略』의 보편으로 『新刊排字禮部韻略玉篇』이 나왔고, 洪啓禧가 『三韻聲彙』의 보편으로 『三韻聲彙補玉篇』(1751)을 편찬하였다.

[표 4] 우리나라 주요 옥편(사전)의 내용

서명 \ 내용	편찬자	간행년도	출판사	수록자수	비고
全韻玉篇	未詳	정조 년 간	2권 212部首	10,840자	字典 형태 최초 사전
國漢文新玉篇	鄭益魯	1908년	平壤 耶蘇敎書院	10,963자	한글 음훈 최초 字典
字典釋要	池錫永	1909년	匯東書館	16,295자	1925년 16판 출간
新字典	柳瑾 等	1915년	新文館	14,865자	朝鮮光文會 편찬
字林補註	劉漢翼	1921년	上海 千頃堂書局	18,177자	휴대용 한자 사전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1992년	明文堂	50,000여자	국내 최대 한자 사전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7년	民衆書林	16,000자	휴대용 한자 사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자 사전으로서의 체제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 玉篇은 정조 때에 간행된 『全韻玉篇』이다. 이 책은 1796년에 간행된 『奎章全韻』을 母體로 하여 한자들을 부수에 따라 배열하였다. 각 항목에서는 한자의 음과 함께 그 韻도 따로 덧붙이고 있으며, 字義는 『奎章全韻』보다 더 자세하여 韻書와의 관계를 거의 떠난 것으로 보인다. 『全韻玉篇』에서 규범화된 한국 한자음은 대부분 1746년에 洪啓禧가 간행한 『三韻聲彙』와 같은데, 이는 18세기 말엽에 규범화된 한국 한자음의 최종 결과물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全韻玉篇』의 한자음은 현대의 한자 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에 대해서도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18세기 운서인 『全韻玉篇』에서 규범화된 한국 한자음은 현대 한자 자전의 한국 한자음에 대한 기본 틀이 되었다.<sup>19)</sup>

鄭益魯가 편찬한 『國漢文新玉篇』(1908)은 『全韻玉篇』의 체제를 계승하면서도 표제자의 뜻과 음을 우리말로 표기한 최초의 사전이다. 정익로는 東京에서 한인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자전을 출간하였는데, 당시 대중들에게 널리 읽히지는 못하였다. 池錫永이 간행한 『字典釋要』(1909)는 운서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서로 편찬되었으며, 각 字마다 음과 훈을 한글로 표시하였다. 이 책에서 문자의 선정은 『康熙字典』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字義는 『奎章全韻』을 근거로 하였다. 또한 正音과 俗音의 판별은 『全韻玉篇』을 따랐으나, ‘筭’와 같은 것은 관습에 따라 俗音 ‘차’를 버리고 ‘잡’을 썼다. 그리고 속자는 原註 외에 당시의 자음을 말미에 첨가하였고, 口蓋音化한 것은 구별하되 ○안에 原音を 표시하고 字義에서는 구개음화한 것을 보였다.<sup>20)</sup> 『字典釋要』는 1925년에 16판이 간행될 정도로 당시에 가장 널리 애용되었다.

『新字典』(1915)은 柳瑾이 李寅承·南基元 등의 도움을 받아 朝鮮光文會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청의 『康熙字典』을 대본으로 하고, 내외고금의 자전류를 참작하여 시대에 맞도록 빼고 더하고 바로잡아서 된 것이며, 국내 옥편은 1800년대에 성행하던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한자의

19) Rainer Dormels(1999), 126~128면.

20) 金敏洙(1992), 45면.

자획을 바로잡고, 진보적인 사전의 형식에 따라 종래에 없던 주석의 용례를 經籍에서 인용하였으며, 특수한 것은 삽화를 넣어서 주석을 보충하고, 끝에 조선 속자·新字를 붙인 점이다.<sup>21)</sup> 이 책은 『字典釋要』를 참조하고 『全韻玉篇』의 결함을 시대에 맞게 개선한 가장 현대적인 한자 사전이다. 『字林補註』(1922)는 劉漢翼이 휴대용으로 엮은 자전으로,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18,177자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부록으로 『康熙字典』에서 기이한 형태의 한자를 발췌하여 58개 조항으로 유별화해 놓은 『字林摭奇』가 붙어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全韻玉篇』의 체제를 모태로 『康熙字典』과 『新字典』을 절충하여 만든 매우 실용적인 자전이다.<sup>22)</sup>

우리나라의 어문생활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은 이전의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 전용으로 급속히 바뀌어 갔다. 사전 또한 1957년에 한글학회에서 『대사전』이 완간되면서 중·대형 한글 사전 여러 종이 잇따라 간행되었다. 한자 자전도 이와 같이 한글 시대에 맞는 편집 방식으로 여러 종이 간행되었다.<sup>23)</sup> 현대에 간행된 한자 자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전으로 明文堂에서 간행한 『明文漢韓大字典』(1992)이 있는데, 이곳에는 50,000여자에 달하는 한자에 대한 정보가 현대식 편집 방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재 휴대용 한자 자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전으로 民衆書館에 간행한 『漢韓大字典』(1997)이 있다. 이 자전은 1966년에 초판이 간행된 후 1977년에 제2판이 나왔으며, 이곳에는 초판본에서 4,000자를 추가하여 총 416,000자의 표제자가 수록되어 있다.

#### 4) 辭典: 한자 어휘의 집성

사전은 문자가 지닌 성질에 따라 편찬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진다. 한글 사전은 글자 자체가 지닌 뜻은 별로 없는 표음문자를 수록한 것이므로 그 글자로 구성되고 있는 어휘가 표제어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한자 사전은 문자 자체가 음과 뜻을 지니고 있는 표의문자를 수록한 것이므로 문자가 표제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자 사전은 文字(單字語)를 설명한 부분과 語彙(複字語)를 설명한 부분으로 나누어진 다. 문자에 대한 설명은 字典의 영역에 관한 문제이고, 어휘에 대한 설명은 辭典의 영역에 관한 문제이다.<sup>24)</sup> 동아시아 3국을 대표하는 사전은 일본에서 諸橋轍次가 완간한 『大漢和辭典』(1955), 臺灣 中國學術院에서 간행한 『中文大辭典』(1973), 中國 4개 省과 上海市의 대학과 연구기관 및 학자들이 참여한 『漢語大詞典』(1992)을 들 수 있다. 일본의 『大漢和辭典』은 전적으로 중국 고전을 해독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고, 『中文大辭典』은 주석조차 현대문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사전에는 약 40만개에 달하는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漢語大詞典』은 새로운 중국의 건설이라는 목표와 고급의 언어를 폭넓게 정리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현대문을 대폭 수용하였다.

21) 金敏洙(1992), 911면.

22) 田日周(2001), 398면.

23) 정재철(2009), 328면.

24) 金東吉(1986), 2면.

[표 5] 우리나라의 주요 사전의 내용

서명 \ 내용	편찬자	간행년도	출판사	수록자수	비고
大漢韓辭典	張三植	1964년	博文出版社	35,000자	1987년 개정판
東亞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82년	東亞出版社	26,000자 13萬 語彙	1999년 15판 출간
敎學漢韓大辭典	敎學社	1998년	敎學社	38,000자 15萬 語彙	색인 별책
漢韓大辭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년	53,667자	420,269개	15권

우리나라의 현대식 한자 사전의 편찬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새로 간행한 사전의 내용을 수용하고 각종 부록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내용과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 증보판을 간행해 오고 있다. 주요 한자 사전으로는 1964년에 張三植이 편찬한 『漢韓大辭典』, 1982년에 동아출판사에서 간행한 『東亞漢韓大辭典』, 1998년에 교학사가 간행한 『敎學漢韓大辭典』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사전들은 색인을 제외하고 모두 단행본으로 출판하기 때문에 수록된 문자나 어휘가 국외 사전들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sup>25)</sup>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간행한 『漢韓大辭典』의 부수는 『康熙字典』의 214부수를 채택하였다. 字形은 甲骨文, 金文, 小篆의 순서로 일정한 체재에 따라 제시하여 한자의 생성과 발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字音은, 한국음은 한글로 중국음은 漢語併音으로 적시하였고, 韻은 『廣韻』, 『集韻』 등에 의거하여 四聲, 半切, 直音を 제시하였다. 어휘는 일반어, 파생어, 합성어, 고사숙어, 격언, 속담 등을 모두 수록하였고, 어휘의 주석은 필수 요건으로서 標題語, 讀音, 語義, 보조 요건으로서 보충 설명, 관련어, 참고어 및 출전과 예문으로 구성하였다. 출전의 선정은 經傳類, 諸子百家類, 正史類, 역대 문인들의 시문 등을 우선으로 실었으며, 예문의 구두에 찍은 표점은 쉼표(.)와 마침표(.)를 썼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찬된 『漢韓大辭典』은 한자로 기록된 문헌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한자문화권에서 간행된 각종의 운서, 자서, 사전 등에 수록된 문자와 어휘를 집성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sup>26)</sup>

### 3. 한문 학습 사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한자 내지 한문에 의해 어문생활을 영위해 오다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인하여 漢文, 國文 및 國漢文 세 유형의 방식이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 세 유형의 문자생활에서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sup>27)</sup> 우리나라에서 초학자들을 위해 간행된 한자·한문 학습 사전은 위와 같이 각 시대별로 다르게 전개된 어문생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한문이 언어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25) 金東鉉(1999), 18면.

26) 鄭재철(2009), 329~330면.

27) 李秉根(1992), 284~285면.

간행된 『訓蒙字會』는 해당 시기에 한자·한문을 학습하는 초학자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초학자들이 이전 시기에 한자·한문 학습을 위해 간행된 한자 자전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어중심의 언어생활에서 학생들이 한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자전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1) 몽학 자전의 시대적 의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약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의 공식적인 지위(상층)는 여전히 한문이 차지하였고, 훈민정음은 겨우 비공식적인 지위(하층)만을 맡아왔다.<sup>28)</sup>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語文一致’의 필요성이 절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문자 생활의 중심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한문 중심의 어문 생활에서 한자의 음과 義에 대한 지식, 나아가서 한문 속의 한자어 등의 주석적 지식은 필수적이었다.<sup>29)</sup> 앞서 살폈듯이 16세기에 우리글로 간행된 최초의 類書인 『類合』과 『訓蒙字會』는 초학자들이 한자를 습득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다. 특히 앞서 살폈듯이 최세진이 1522년에 편찬한 『訓蒙字會』는 한문중심의 언어생활에서 아동들이 한자교습서로 사용하던 『千字文』과 『類合』의 문제점을 보완한 한자 학습용 사전이다. 그는 자신이 쓴 「訓蒙字會引」에서 다음과 같이 『訓蒙字會』의 편찬 이유를 밝혔다.

『千字文』은 梁의 散騎常侍 周興嗣가 편찬한 것이다. 고사를 가려 뽑아[摘取故事] 배열하여 문장을 만든 것[排比爲文]은 좋으나, 어린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는 겨우 한자를 익히는 것일 뿐이니, 어찌 故事·屬文의 뜻까지 살필 수 있겠는가? 『類合』이라는 책은 본국에서 나왔으나 누구의 솜씨인지 알 수 없다. 비록 ‘類別로 글자들을 모아놓았다.’고 말하지만 虛字가 많고 實字가 적어 事物의 형체와 명칭[形名]의 실재를 관통하여 알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글자를 알게 하려면 마땅히 먼저 事物에 해당하는 글자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보고 들은 형체와 명칭의 실재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후에 비로소 다른 글로 나아간다면, 그 故事를 아는 것이 또한 어찌 『千字文』을 익히는 것에 의지하겠는가? 공자는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不學詩，無以言]”고 말했는데, 그것을 풀이한 사람은 “鳥獸草木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비록 『千字文』과 『類合』을 익히고 나서 經書와 史書 여러 책을 두루 읽는데 이르지만, 단지 그 글자만 이해하고 그 사물은 이해하지 못하여, 마침내 글자와 사물이 둘로 나뉘어 조수초목의 이름을 융화·관통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는 문자를 암송해 익힐 뿐 실제 본 사물과 일치시키는 것[實見之致]에 힘쓰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0)</sup>

위의 글에 나타난 최세진의 한자교육관은 어린아이들이 단지 글자를 암송해 익히는 것에서 벗어나,

28) 李琬鎬(2002), 243면.

29) 金東吉(1988), 6면.

30) 崔世珍(1522), 11~12면. “千字梁朝散騎常侍周興嗣所撰也. 摘取故事, 排比爲文則善矣. 其在童穉之習, 僅得學字而已, 安能識察故事屬文之義乎. 類合之書, 出自本國, 不知誰之手也. 雖曰類合諸字, 而虛多實少, 無從通語事物形名之實矣. 若使童穉學書知字, 則宜先記識事物該紐之字, 以符見聞形名之實, 然後始進於他書也, 則其知故事, 又何假於千字之習乎. 孔子曰: 不學詩, 無以言, 釋之者曰: 多識於鳥獸草木之名, 今之教童穉者, 雖習千字類合, 以至讀遍經史諸書, 只解其字, 不解其物, 遂使字與物二, 而鳥獸草木之名, 不能融貫通會者多矣. 蓋由誦習文字而已, 不務實見之致也.”

글에서 익힌 한자를 실제 눈으로 경험한 사물과 일치시키는 것[實見之致]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당시 문  
학 교재로 사용되던 『千字文』이 고사를 가려 뽑아[摘取故事] 배열하여 문장을 만든 것[排比爲文]은 좋  
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한자를 겨우 익혀야 할 초학자들에게 故事와 作文[屬文]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類合』은 비록 類別로 글자들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虛字가 많고 實字가 적어 事物  
과 形名의 실재를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두 교재를 배운 후에 經書나 史書를 읽게 되면, 단지 글자  
의 뜻만 이해하는데 그치고 글자가 가리키는 사물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글자와 사  
물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字與物二]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그는 어린아이들이 글을 통해 학습한 한자와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본 사물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문자와 사물이 한 몸을  
이루는 ‘字與物一’의 교육관이다.

『訓蒙字會』에는 이와 같은 최세진의 한자교육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먼저 그는 한자를 ‘實字[全實之  
字]’·‘半實半虛字’·‘虛字’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訓蒙字會』는 ‘鳥獸草木之名’을 중심으로 한 ‘實字’를 上  
卷과 中卷에, ‘半實半虛字’를 下卷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3,360자의 표제자 중에서 상·중권에 수  
록된 ‘實字’는 2,240자이고, 하권에 수록된 ‘半實半虛字’는 1,120자이다. 虛字가 많이 수록된 『類合』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訓蒙字會』는 釋과 音만 달아놓은 『千字文』이나 『類合』  
과는 달리 註를 가지고 있다. 최세진은 이와 같이 實字 중심의 한자를 표제자로 제시하고, 표제자에 대  
응되는 釋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註를 붙여 그 차이를 밝혀놓았다. 이 책에 수록된 3,360자의 표제자  
중에서 7할 정도에 註가 달려 있다. 한 예로 釋이 ‘집’으로 표기된 25자의 표제자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표 6] 『訓蒙字會』 표제자의 釋이 ‘집’인 한자의 내용<sup>31)</sup>

표제자	釋	註	표제자	釋	註
宇	집 우	四方上下曰一又屋邊也詹一	宙	집 듀	又舟車所極覆也往古來今日一
宮	집 궁	君宮	闕	집 귄	君居俗呼內府內裏又失也過也少也
宸	집 신	倦居稱紫一又太子居曰儀一	殿	집 던	君居俗呼正一偏一
屋	집 옥	俗呼房一	宅	집 택	俗呼大一子
家	집 가	俗呼一當自稱寒一寒居	房	집 방	俗呼一子瓦一草一
廳	집 텅	俗稱正一公一	廡	집 히	公廳俗呼一舍
廬	집 러	民居又喪居曰倚一	舍	집 사	大曰家小曰一
室	집 실	後爲一	堂	집 당	前爲一又詹階內曰一
閣	집 각		廡	집 무	堂下周廊學宮有東西一
厦	집 하	大屋又音沙俗稱披一東西夾室	广+齋	집 지	燕居茅舍俗通作齋學宮有東西一
院	집 원	垣牆內又一落	廂	집 상	堂下周廊又東西夾室又軍士寄息之所
邸	집 데	君國朝宿之舍在京者必有外貨	館	집 관	客舍亦作館
觀	집 관	道宮又平聲불관見下卷			

위에서 보듯이 釋이 ‘집’으로 표기된 25개의 표제자 중에서 ‘閣’을 제외한 24자에 註가 실려 있다. 註

31) 李相道(1992), 201~202면.



의 내용을 보면 ①字形, ②字音, ③意味, ④用例, ⑤中國 俗語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①字形에 대한 註에서는 ‘舘’에 “亦作館”이라고 하여, ‘舘’의 異體字로 ‘館’이 있음을 밝혔다. ②字音에 대한 註에서는 ‘廈’에서 “又音沙”라고 하여, ‘廈’는 ‘하’라는 음과 함께 ‘沙(사)’라는 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觀’에서는 “道宮又平聲볼관見下卷”이라고 註를 달아, ‘觀’은 ‘道宮’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平聲으로 읽을 때에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③意味에 대한 註의 예로 ‘宸’의 ‘倦居’, ‘廡’의 ‘公廳’, ‘廬’의 ‘民居’ 등이 있고, 표제자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예로 ‘闕’의 ‘又失也過也少也’, ‘廂’의 ‘又東西夾室又軍士寄息之所’ 등이 있다. ④用例에 대한 註로 ‘宇’의 ‘詹一’, ‘宮’의 ‘君宮’, ‘宸’의 ‘紫一’ 등이 있다. ⑤中國 俗語는 註에서 ‘俗呼’, ‘俗稱’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闕’의 ‘俗呼內府內裏’, ‘殿’의 ‘俗呼正一偏一’, ‘屋’의 ‘俗呼房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 註는 어린아이들이 經書나 史書를 읽을 때에 이곳에 사용된 ‘집’과 관련된 한자들의 형태와 명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최세진은 위의 인용문에서 글로 익힌 한자와 실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사물이 일치시키는 학습의 예로 공자가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不學詩, 無以言]”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詩經』을 읽을 때에 이 책에 나오는 鳥獸草木의 이름을 보고, 이를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물의 실체와 부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평소 들녘을 걸으면서 눈으로 본 메뚜기와 『詩經』의 「蠡斯」편에 나오는 “蠡斯羽, 詵詵兮.”에 나오는 ‘蠡’이 서로 같은 사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어린아이들이 한자 학습을 통해 조수초목의 이름을 이해하도록 한 것은 당시의 한자 한문교육이 『詩經』 등 경서를 읽기 위한 기본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訓蒙字會』에는 모두 22자의 표제자에서 『詩經』에 나오는 사물의 이름을 인용하여 註가 달려있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訓蒙字會』 표제자 註의 『詩經』 인용 내용<sup>32)</sup>

표제자	釋	註	표제자	釋	註
蝻	므지게 동	詩蝻一	薺	무궁화 순	詩一英
藜	보리 ㄹ	詩來牟	苳	뽕잣이 이	又呼車過路草詩苳一亦作苳
鴈	새매 풍	詩晨風	鵲	아리새 경	俗又呼叫天兒或呼麻雀詩鵲一
鵲	골가마괴 스	詩鵲斯	鵲	버국새 국	俗又名郭公鳥詩注鵲一
蛸	굴거의 쇼	一名蛸詩蠨一	蟪	쥐머느리 위	詩蟪一
蠡	뿔도기 종	詩一斯	蟀	컷도라미 솔	俗呼促織兒詩蟋一
蜉	허긋사리 유	詩蜉一之羽	闕	고자 시	亦作寺寺人孟子
鉦	날 딜	詩一刈	置	그물 저	詩兔一
鉞	도척 척	詩作干戈戚揚	輶	궁ㄷI 탕	詩曰交一
梗	줄기 경	直也枝梗又塞也詩至今爲梗梗病也	翔	봄놀 상	詩翱一
揜	뿌릴 연	詩葛覃註揜一之	悌	아스로윌 데	愷一詩作豈弟樂易也

32) 李相道(1992), 201~202면.

[표 6]에서 보듯이 출전이 『詩經』으로 표기되어 있는 18자의 표제자 중에서 ‘梗[줄기 경]’, ‘翔[뵈놀상]’, ‘擱[뿌릴 연]’, ‘悌[아스로울 데]’를 제외한 14자는 모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實字이다. 또한 18자의 표제자 중에서 ‘蝨[엀-鄘風]’, ‘苜[苜-周南]’, ‘風鳥[晨風·陳風]’, ‘蝻[一斯·周南]’, ‘蟀[蟋-唐風]’, ‘蜉[蜉-之羽·曹風]’, ‘置[兎-周南]’ 등 7자는 『詩經』의 편명에서 인용하였고, ‘薺[一英·有女同車]’, ‘鷖[來牟·清廟]’, ‘鷓[鷓-七月]’, ‘斯鳥[鸛斯·小弁]’, ‘蛸[蠨-東山]’, ‘蜮[蜮-東山]’, ‘關[寺人孟子·巷伯]’, ‘銓[一刈·臣工]’, ‘鍼[干戈戚揚·生民]’, ‘輶[交-小戎]’, ‘梗[至今爲梗·蕩]’, ‘翔[翱-檜風]’, ‘悌[愷-旱麓]’ 등 11자는 『詩經』의 본문에서 인용하였다 이 밖에 ‘鵠[鵠-]’은 「尸鳩」의 ‘尸鳩在桑’에 달린 註[毛云, 尸鳩, 鵠也.]에서 인용하였고, ‘擱[才煩 一之]’은 「葛覃」의 ‘薄汙我私’에 달린 註[毛云, 汙, 煩也.]에서 인용하였다. 또한 표제자의 異體字로 ‘薺[來]’, ‘苜[苜]’, ‘風鳥[風]’, ‘斯鳥[斯]’, ‘關[寺]’, ‘鍼[威]’, ‘悌[弟]’ 등 7자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린아이들이 『詩經』에 나오는 한자의 字形과 실제 사용되는 한자의 字形의 차이에서 오는 ‘字與物二’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세진이 『訓蒙字會』에서 제시한 표제자들은 현재 학생들이 학습하기 어려운 僻字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표 6]와 [표 7]에 제시된 표제자들이 대부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세진이 살던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어적 환경이 서로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문이 언어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조선시대의 한자 교육의 목적은 經書와 史書를 읽고 시문을 창작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詩經』을 비롯한 경서에 나오는 ‘鳥獸草木之名’은 아무리 어려운 字形으로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기초한자’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글에서 익힌 한자와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사물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했고, 이를 통해 經書와 史書에 나오는 한자의 의미를 융화·관통하여 자유롭게 시문을 창작할 수 있어야 했다. 최세진이 어린아이들의 한자 교육을 위해 편찬한 『訓蒙字會』는 이와 같은 한문중심의 언어생활에서 책에서 학습한 문자와 실제 눈으로 본 사물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字與物一’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다.

## 2) 한문 학습 자전의 지향점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27일에 공포한 법률 제7368호 제1항 총칙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한글 전용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한글 전용의 문자정책이 1948년에 공포된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듯이 조선시대에 간행된 『訓蒙字會』는 經書와 史書에 나오는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문을 창작하여 과거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다. 이와 달리 초중고 학생들의 한문 학습을 위한 자전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음과 뜻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곧 한문 학습 자전에 수록되는 내용이 한문을 읽고[Reading] 쓰기[Writing] 위한 것이 아니라 한문을 읽는데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다. 본 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한문 학습 자전이 지향해야할 표제자의 字形과 字義, 그리고 표제어의 선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제자에 제시되는 字形은 點과 線으로 나타난 문자의 외형적 모양을 뜻한다. 한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 현상과 사용 공간의 광역화에서 오는 異形化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 모양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자형은 史的 측면으로는 篆書, 隸書, 楷書, 草書, 行書 등의 字體가 만들어졌으며, 橫的 측면으로는 正字, 俗子, 略字, 譌字 등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 한문 학습 자전은 원칙적으로 그 글자의 모양으로 보아 史的 측면으로는 楷書를, 橫的 측면으로는 正字를 기준으로 표준자형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로 선정되어 있는 ‘強’과 ‘窗’의 자형의 예를 주요 한자 사전의 표준자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주요 자전과 사전의 표준자형<sup>33)</sup>

사전 표제자	康熙字典	漢語大字典	漢語大詞典	中文大辭典	大漢和辭典	全韻玉篇	字典釋要	漢韓大辭典
強	強	强	强	強	強	強	強	強
窗	窗	窗	窗	窗	窗	窓	窗+心	窗

‘強’은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強’이 통용자로 사용되고 있다. 『漢語大字典』과 『漢語大詞典』은 통용자를 중시하여 표준자를 ‘強’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두 사전을 제외한 모든 사전들은 ‘強’으로 표준자를 정하고 있다. ‘強’은 뜻의 계열에 따라 ‘強’(쌀벌레)과 ‘彊’(새가 날다, 죽다)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強’은 형성글자로, 『說文解字』에서 “強, 蜥也. 从虫, 弘聲.”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聲部 인 ‘弘’을 제대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는 ‘強’으로 표준자형을 삼아야 옳다. 또한 ‘窗’은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형은 ‘窗’이고,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형은 ‘窓’이다. 중국에서는 ‘窗’의 통용자가 ‘窗’이므로 ‘窗’으로 표준자를 정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자가 ‘窓’임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역사성을 중시하여 ‘窗’으로 표준자를 선정하였다.<sup>34)</sup> 한문 학습 자전에 수록될 한자의 자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 標準字形을 정하고, 여타의 자형은 이 표준자형과의 연관관계를 밝혀서 자형에 관한 체계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제자에 제시되는 字義는 한자의 三要素인 形·音·義 중의 義, 곧 한자의 뜻을 말한다. 한자의 자의는 字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자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고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자 자전을 편찬할 때에는 기존의 자전에 미비된 뜻 갈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완해야 하고, 중국어나 일본어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字義를 간명하고도 절절한 우리말로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한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뜻 이외의 뜻으로 써온 자의를 선별해서 수록해야 한다.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로 선정되어 있는 ‘無’의 字義와 例文이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정재철(2009), 313면.

34) 정재철(2009), 313면.

[표 9] 『漢韓大辭典』의 표제자 ‘無’의 주석<sup>35)</sup>

구분	字義	例文
①	없다	《詩, 小雅, 車攻》之子于征, 有聞無聲. <毛傳> 有善聞而無諠譁之聲.
②	철학 개념. 無名·無形·虛無·空虛 따위. 또는 물질의 은미한 상태를 이른다.	《老子》天下萬物生于有, 有生于無. <王弼注> 天下之物, 皆以有爲生, 有之所始, 以無爲本.
③	아니다	《禮記·禮器》忠信之人, 可以學禮, 苟無忠信之人, 則禮不虛道.
④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北齊書, 神武帝紀 下》王在, 吾不敢有異. 王無, 吾不能與鮮卑小兒共事.
⑤	아주 작다. 하찮다.	《三國志, 魏志, 武帝紀》對揚我高祖之休命. <裴松之注> 不意陛下乃發盛意, 開國備錫, 以貺愚臣, 地比齊魯, 禮同藩主, 非臣無功所宜膺據. <盧弼集解> 無, 微也. 無功, 謂微功也.
⑥	잡초가 우거지다. 뒤에 燕로 썼다.	《楚辭, 九辯》塊獨守此無澤兮, 仰浮雲而永歎.
⑦	부 ①아니하다. 否定을 나타낸다. 不에 해당한다.	《書, 洪範》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②아직 …하지 아니하다. …한 적이 없다. 부정을 나타낸다. 未曾·沒에 해당한다.	《荀子, 正名》知道之莫之若也, 而不從道者, 無之有也.
	③없겠지. 없겠는가. 반문을 나타낸다. 得無에 해당한다.	《儀禮, 士喪禮》兆基, 無有後艱. <鄭玄注> 兆域之始, 得無後將有艱難乎.
	④…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금지를 나타낸다. 不可·不要에 해당한다.	《書, 益稷》無若丹朱傲, 惟慢遊是好.
	⑤…이 아닌가. 문장의 말미에 쓰여 의문을 나타낸다. 否에 해당한다.	唐, 白居易《問劉十九首》晚來天欲雪, 能飲一杯無.
⑧	접 ①…을 막론하고. 無論·不論에 해당한다.	《詩, 魯頌》無小無大, 從公于邁.
	②비록 …할지라도. 即使에 해당한다.	《左傳, 僖公22年》邾人以須句故出師, 公卑邾, 不設備而禦之. 臧文仲曰, 國無小, 不可易也.
⑨	존 문장의 첫머리에 의미 없이 쓰인다.	《詩, 大雅, 文王》王之蓋臣, 無念爾祖. <毛傳> 無念, 念也.
⑩	덮개. 幬와 통용.	《荀子, 禮論》無幬絲葛縷罽, 其類以象菲帷幬尉也.
⑪	姓. 본래는 나라 이름이었다. 鄒와 통용.	《正字通, 火部》無, 姓. 漢無且, 明無能.
⑫	[佛]나무(南無). 범어 Namas의 음역. ⇒南無	

『漢韓大辭典』에서 ‘無’에 설정된 의항은 모두 12개이다. ①‘없다’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뜻으로 대표 의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철학 개념’으로 사용되는 ‘無’는 ‘2009 한문과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의 학습요소로 제시된 ‘유가경전과 제자백가의 사상적 특징 이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無’가 한문 문장에서 ③‘아니다’, ④‘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⑤‘아주 작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적으므로, 학생들에게 이들 의항을 학습하게 하는 것은 무리이다. ⑦, ⑧, ⑨는 ‘無’가 명사나 동사가 아닌 부사, 접속사, 조사 등 다른 품사로 사용된 것이다. 이들 의항은 ‘어휘’ 영역의 학습요소로 제시된 ‘단어의 짜임’과 ‘단어의 갈래’를 학습하는 데 필요하나, 한자의 품사와 기능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⑥‘잡초가 우거지다’, ⑩‘덮개’, ⑪‘姓’은 각각 ‘燕’, ‘幬’, ‘鄒’와 통용하고 있고, 범어 ‘Namas’를 음역한 ⑫‘나무(南無)’는 성취수준이 너무

3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 1111면.

높으므로, 이들 의항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한문 학습 자전에는 字義를 제시할 때에는 기존 사전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고려해 일관된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중학교 漢文』의 부록에는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부수색인순으로 정리한 『미니자전』이 붙어있는데, 이곳에는 표제자 ‘無’ 아래에 ‘無常’, ‘無名指’, ‘無免許’, ‘無期限’, ‘莫無可奈’, ‘無爲徒食’<sup>36)</sup> 등 모두 여섯 개의 표제어가 제시되어 있다. 이곳에 제시된 여섯 개의 표제어는 모두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들이다. 그런데 이들 한자 어휘가 나오는 출전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한문 고전문헌에서 사용된 어휘와 함께 근대에 출판된 일본의 근대문헌에서 사용된 어휘가 섞여있어 주목된다. 이는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들은 ①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한자 어휘, ②중국을 통해 유입된 근대 중국어, ③근대 일본에서 생성된 근대 번역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미니자전』에 수록된 여섯 개의 한자 어휘를 『漢韓大辭典』<sup>37)</sup>, 『국어대사전』<sup>38)</sup>, 『日本国語大辞典』<sup>39)</sup>에서 주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미니자전』의 표제어 ‘無’의 주석

표제어	사전	풀이	예문
無常	漢韓大辭典	①일정하지 않고 늘 변함.	《書, 蔡仲之名》民心無常, 惟惠之懷. / 《後漢書, 西羌》[西羌]所居無常, 依隨水草.
		②사람의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晉, 法顯《佛國記》共諸同志遊歷諸國, 而或有還者, 或有無常者. / 唐, 段成式《西陽雜俎續集, 支諾皋 上》貧道已力衰弱, 無常將至. 君前所求物, 聊用爲別.
		③[佛]상주(常主)하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나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	漢, 牟融《理惑論》萬物無常, 有存當亡. 今欲學道, 度脫十方. / 《百喻經, 伎兒作樂喻》無常敗滅, 不得久住, 如彼空樂. / 宋, 葉夢得《避暑錄話, 下》則今釋氏所謂人身難得無常迅速, 二言也.
		④[白]저승사자.	《古今小說, 閻陰司司馬貌斷獄》閻君得旨, 便差無常小鬼, 將重湘勾到地府.
	국어대사전	㉠덧없음.	인생 ~.
		②정함이 없음. 때 없음. 무시(無時)	~ 출입.
		③[불교]모든 것은 다 생멸(生滅)·전변(轉變)하여 상주(常住)함이 없음. 비상(非常)	
無名指	漢韓大辭典	약손가락.	《孟子, 告子 上》今有無名之指, 屈而不信. <趙岐注> 無名之指, 手之第四指也. 蓋以其餘指, 皆有名, 無名指者, 非手之用指也. / 元, 喬吉《小桃紅, 指鐲曲》紫金銖鈿巧鐲兒, 慳稱無名指.
無免許	국어대사전	㉠면허를 받고 있지 아니함.	~ 의사.

36) 김용재, 류준필, 류준경, 권오순(2013), 283면.

3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 1111면.

38) 이희승(1981), 1243~1261면.

39) 小學館(2006), オンライン版.

		면허가 없음.	
	日本 国語大辞典	[名]免許を持っていないこと。また、免許を必要としないこと。	修辭及華文〔1879〕〈菊池大麓訳〉説服「夫れミルトンが作りし無免許出版の辨解は、闊大深涵の識見を以て」
無期限	국어대사전	○일정한 기한이 없음. 무한년(無限年). ㉠無期	
莫無可奈	국어대사전	○어찌할 수 없음. 무가내하(無可奈何)	~로 우기다.
無爲徒食	국어대사전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함. 놀고먹음.	~으로 날을 보내다.
	日本 国語大辞典	[名]何の仕事もしないでただぶらぶらして暮らすこと。	東京学〔1909〕〈石川天崖〉一〇「吾々が此の世に生れ出たからには無為徒食(ムヱトシヨク)すべきものでない」

위의 내용으로 보아 ‘無常’, ‘無名指’, ‘無期限’은 모두 한국과 중국의 고전 문헌에서 사용된 한자 어휘이다. ‘無名指’는 『孟子·告子上』의 “今有無名之指, 屈而不信.”을 趙岐가 주석하면서 조사 ‘之’를 제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無期限’은 『漢韓大辭典』에는 표제어로 ‘無期’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의 문인인 李福源은 「辭吏曹判書四疏」에서 “虛帶不襯似之職名, 坐度無期限之日月.”<sup>40)</sup>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無期限’은 우리의 고전문헌에서 사용된 한자 어휘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漢韓大辭典』에 4개의 주석을 실려 있는 ‘無常’이다. 이 중 ①‘일정하지 않고 늘 변함’과 ②‘사람의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은 고전 문헌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다. ③‘상주(常住)하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불경을 번역한 것이고, ④‘저승사자’는 중국 근대어[古白話]로 사용된 것이다. 이 어휘에 대해 『국어대사전』에는 3개의 주석이 실려 있다. 이 중 ①‘덧없음’과 ②‘정함이 없음’은 『漢韓大辭典』에서의 ①의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고, ③‘모든 것은 다 생멸(生滅)·전변(轉變)하여 상주(常住)함이 없음’은 『漢韓大辭典』에서의 ③의 내용과 동일하다.

‘莫無可奈’는 『국어대사전』에서 ‘어찌할 수 없음.’이라고 풀이하고, ‘무가내하(無可奈何)’와 같은 뜻을 밝혔다. ‘無可奈何’는 사마천이 「酷吏列傳」에서 “復聚黨而阻山川者, 往往而郡居 無可奈何.”라고 말한 것이 있다. 그러나 ‘莫無可奈’는 한국과 중국의 고전 문헌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근대에 일본에서 ‘無可奈何’를 변형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無免許’와 ‘無爲徒食’은 모두 『日本国語大辞典』에 출처와 용례가 제시되어 있다. ‘無免許’는 ‘특정한 일을 행하는 것을 관청 또는 公人이 허가하는 것(ある特定の事を行なうのを官が許すこと。許可すること。『日本国語大辞典』)’을 의미하는 영어 ‘License’를 번역한 ‘免許’의 앞에 ‘무’가 추가된 한자 어휘로,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신문명 어휘로 추정된다. ‘無爲徒食’은 근대에 일본에서 고전 어휘인 ‘無爲’와 ‘徒食’을 합성하여 4자성어로 만들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東傳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신유학자들은 불교적 시각으로 유교 경전의 용어를 해석하였고, 도교에서는 佛身의 개념, 업과 윤회개념도 차용하였고,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불교의 개념도 그대로 수용했다.<sup>41)</sup> 또한 우리나라는 명과의 관계가 긴밀해

40) 李福源, 49면.

41) 이동철(2010), 126면.

지면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표 6]에서 보듯이 최세진이 『訓蒙字會』에서 釋이 ‘집’인 25개의 한자 중에서 ‘闕’자의 ‘俗呼內府內裏’에서 시작해 ‘厦’자의 ‘俗稱披—’에 이르기까지 9자의 註에서 당시 사용되던 근대 중국어를 제시한 것이 좋은 예이다. 한편 17세기 중국에서 마테오리치(Matteo Ricci)와 줄리오 알레나(Giulio Aleni)의 글을 비롯하여 중국어로 지은 책들은 과학·지리·교육 영역 가운데 서양지식을 바탕 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新語[‘幾何’, ‘經線’, ‘緯線’, ‘熱帶’, 등]들은 몇 세기 동안 서양 관련 문제들에 대한 중국 내 지식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sup>42)</sup> 그리고 일본에서는 1774년에 일본인 의사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 등이 네덜란드어 해부학 책을 『解體新書』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는데, 이후 메이지 시대의 번역 열풍은 초기의 의학에서 화학, 물리학, 천문학, 군사학 등을 거쳐 철학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었다.<sup>43)</sup>

한문 학습 사전의 편찬은 기본적으로 한문 문장을 독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문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장 속에서 구사된 한자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듯이 한문 문장에는 한자 어휘는 經書나 史書 등 중국과 한국 고전 문헌에서 사용된 것과 함께 불경 번역어와 중국 근대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09 한문과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면, 위와 같이 한문 문장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불경 번역어와 근대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근대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서구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신문명 어휘들은 현재에도 일상의 언어생활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의 학술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어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문 학습 사전에 수록할 표제어를 선정할 때에는 위와 같이 한자 어휘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불경 번역어, 중국 근대어, 신문명 어휘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맺음말

한문은 우리나라 고유의 글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웃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들여와 문자언어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중국말을 몰랐으나 중국 사람들과 한문을 사용하여 필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으로 글을 짓지 않는다. 한문교육의 중심이 글을 읽고 쓰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한문으로 기록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한자에 대한 우리말을 알아야 한다.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가방에 영어 사전이 항상 들어있듯이, 초·중고 학생들이 한자를 학습하거나 한문을 해독할 때에는 반드시 한문 학습 사전을 필수 도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중고 한문교육에서 한문 학습 사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전어이자 문자언어인 한문을 학습함에 있어서 한문 학습 사전의 부재는 학생들이 한자

42) 페데리코 마시니(Federco Masini) 지음, 이정재 옮김(2005), 27~28쪽.

43) 양세욱(2009), 39~40면.

어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도움 없이 한문 문장을 능동적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초중고 학생의 한문 학습을 위한 자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자전에 수록할 표제자를 주석하고 표제어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가 못지않은 한문 해독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한문 학습 자전을 편찬하기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자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康寔鎭(1999), 「朝鮮의 韻書 研究(2)-《三韻通考》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제54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姜信沆(2000), 「韓國漢字音(韓漢音, 高麗譯音)의 兩面性」, 『語文研究』 제28집, 어문연구회.
- 金東吉(1988), 「漢韓大辭典에서의 字典의 分野에 대한 小考(V)」, 『東洋學 簡報』 4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金東鉉(1999), 「한국 漢字 辭典의 역사와 현황」, 『東洋文化와 漢字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金敏洙(1992), 「신자전」, 『民族文化大百科事典』 13, 한국학중앙연구원.
- 金敏洙(1992), 「字典釋要」, 『民族文化大百科事典』 19,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용재, 류준필, 류준경, 권오순(2013), 『중학교 漢文』, (주)와이비엠.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 『漢韓大辭典』, 2002, 단국대학교 출판부.
- 박재연(2003), 「『中朝大辭典』 편찬에 대하여-필사본 번역고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권, 한국사전학회.
- 박형익(2004), 「한국의 자전」, 『한국어학』 제23호, 한국어학회.
- 小學館(2006), 『日本國語大辭典』, 온라인版.
- 심경호(2007),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제4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양세욱(2009), 「근대 번역어와 중국어 어휘체계의 혁신」, 『코기토』 6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李珣鎬(2002), 「개화기의 어문정책」, 『東洋學』 제3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번역원.
- 李基文(1970), 『開化期の 國文研究』, 一潮閣.
- 이동철(2010),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 『고전, 고전번역, 문화번역』, 미다스북스.
- 李福源, 『雙溪遺稿』, 『韓國文集叢刊』 237, 한국고전번역원.
- 李相道(1992), 「訓蒙字會 編纂動機와 特徵」, 『中國學研究』 제7집, 중국학연구회.
- 이승재(2008), 「韓國 最初の 辭典을 찾아서」, 『한국사전학』 제11호, 한국사전학회.
- 李元浩(1991), 「兒學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14권,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희승(198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田日周(2001), 「漢字典 《字林補註》 研究」, 『大東漢文學』 제14집, 대동한문학회.
- 田日周(2003), 「近代 啓蒙期の 辭典 編纂과 그 歷史的 意義」, 『大東漢文學』 제17집, 대동한문학회.
- 정경일(1998), 「聲韻學의 導入과 高麗時代의 韻書」, 『順天鄉語文論集』 제5집, 순천향어문학연구회.
- 정재철(2009), 「『한한대사전』의 편찬 방향과 사전사적 의미」, 『東洋學』 제4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정재철(2011), 「『디지털한한대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하여」, 『東洋學』 제5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崔南善(1915), 「新字典敍」, 『崔南善全集』 7, 六堂全集編纂委員會, 玄岩社.
- 崔世珍(1522), 『訓蒙字會』, 『東洋學叢書』 제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洪允杓(1990), 「實學時代의 語彙資料集 刊行 歷史」, 『국어생활』 제22호, 국어연구소.
- 洪允杓(1992), 「物名纂」, 『民族文化大百科事典』 8, 한국학중앙연구원.
- 洪允杓(2002), 「15세기~19세기에 나타난 국어 어휘의 특성」,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제1집, 국립국어연구원.
- Federco Masini 지음, 이정재 옮김(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소명출판.
- Rainer Dormels(1999), 「18세기 韓國 漢字音의 規範化 過程에 숨겨진 動機」, 『國語學』 제33집, 국어학회.



## 자전 편찬의 실제와 과제

- 이상적 학습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

이동철(용인대)

- 
1. 머리말
  2. 원론적 문제들
    1. 학술적 기반의 정비
    2. 학습효과의 중시
    3. 언어적 특성의 반영
    4. 기존 성과의 적극적 활용
    5. 세계화 시대의 반영
    6. 정보화 시대의 대응
  3. 구조적 쟁점들
    1. 최대 구조
    2. 거시 구조
    3. 미시 구조
  4. 결론
- 

### 1. 머리말

자전은 한문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한자 자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이를 계기로 향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의가 다루고자 하는 ‘자전 편찬의 실제와 과제’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성격도 복잡한 주제이다. 따라서 논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이상적 학습사전의 관점이다. 요컨대 이상적 학습사전으로서 한문 자전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떠한 문제와 쟁점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두 번째 국외의 주요한 사례를 선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

전 편찬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논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사전을 간략히 언급하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이상적인 학습사전인 “漢教字典”(가칭)을 만들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검토하며 이와 관련해 국외의 성과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논자가 생각하는 “한교사전”의 사용자는 고등학교의 한문 학습생에서 문과 계통의 학부생과 대학원 석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단순한 한자어의 습득이 아니라 한문 이해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논자가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논자에게 실제 사전 편찬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둘째, 실증적이거나 통계적 연구를 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학습사전의 경우 실제 사용자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자금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차후 이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기 바란다. 셋째,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평소에 이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전을 중심으로 소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상적 학습) 사전을 편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한문 사전의 성격이다. 중국의 경우 한문 사전은 일반적으로 고대한어 사전(사전)이나 고한어 사전(사전)으로 불린다. 문언문 사전(사전)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한문이 기본적으로 고전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 즉 사용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언어이다. 화자의 존재 유무와 관련해서 한문은 여타의 고전어와도 성격과 상황이 다르다. 예컨대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등의 고전어는 현재 소수이지만 일상어로서 사용하는 화자들이 존재한다.

고전어 사전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고려 사항은 고전학과의 관계이다. 한문 사전 혹은 고대 한어 사전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고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고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특정한 기본 고전들이다. 달리 말해 한문학습의 주요 대상과 내용은 기본적인 고전 텍스트가 된다. 이들 고전텍스트에 대해 역대로 많은 연구성과가 전승되었으며 그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상적 한문사전은 기본적 고전텍스트의 주요한 주석이나 근래의 중요한 연구를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원론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이다. 원론적 문제들이란 이상적 학습 사전의 편찬에서 견지해야 할 입장과 방법론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서 논자는 우선 이상적 사전의 편찬이 학술적 기반위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학습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문의 언어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끝으로 세계화 시대를 반영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아래에 열거하는 사전들은 본 논의에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徐復 등(2007), 『(辭海版) 古代漢語大詞典(新一版)』, 上海辭書出版社. --> 『辭海古漢』(약칭)

- ② 孫雍長・王彥坤(2011), 『古漢語詞典(縮印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外教古漢』
- ③ 楊合鳴 주편(2009), 『古代漢語字典』, 上海古籍出版社. --> 『上古漢字』
- ④ 王力 주편(2000),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 『王力古漢』
- ⑤ 李國祥・楊合鳴 편(2010), 『古代漢語詞典』, 崇文書局. --> 『崇文古漢』
- ⑥ 編寫組 편(1993), 『古漢語常用字字典(修訂版)』, 商務印書館. --> 『商務古常』
- ⑦ 編寫組 편(2007), 『古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 『商務古漢』
- ⑧ 吉田賢抗 편(1959), 『新釋漢和』, 明治書院. --> 『新釋漢和』
- ⑨ 藤堂明保 외(1988), 『漢字源』, 學研. --> 『漢字源』
- ⑩ 上田万年 외(1993), 『新大字典』, 講談社. --> 『講談新大』
- ⑪ 小川環樹 외(1968), 『角川 新字源』, 角川書店. --> 『新字源』
- ⑫ 長澤規矩也 외(1974, 1986), 『新明解 漢和辭典(第三版)』, 三省堂. --> 『新明漢和』
- ⑬ 佐藤進・濱口富士雄 (2011), 『全訳・漢辞海(第三版)』, 三省堂. --> 『漢辞海』
- ⑭ 貝塚茂樹 외(1959), 『角川 漢和中辭典』, 角川書店. --> 『角川漢中』

## 2. 원론적 문제들

먼저 원론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이다. 원론적 문제들이란 이상적 학습 자전의 편찬에서 견지해야 할 입장과 방법론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서 논자는 우선 이상적 자전의 편찬이 학술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학습 효과를 증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문의 언어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끝으로 세계화 시대를 반영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 1. 학술적 기반의 정비

이상적인 자전의 편찬은 확고한 학술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학술적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사전학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별도로 하고자 한다. 자전의 편찬은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서는 소학의 영역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문자학, 성운학, 훈고학의 세 영역이 모두 관련이 있지만 특히 훈고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sup>1)</sup> 현대 언어학의 영역에서는 어휘론, 품사론<sup>2)</sup>, 구문론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훈고학과 관련하여 다음 논저들이 도움이 된다. 주대박(1997),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서원남(2005), 『중국 훈고학의 이해』, 제이앤씨, 2005; 광재이(2012), 『훈고학 입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와 관련된 사전도 있다. 전광진 편역(1993), 『중국문자훈고학사전』, 동문선은 『中國大百科全書 언어문자편』에서 문자학, 문자개혁, 훈고학 부분을 발췌 편역한 것이다. 관련 용어, 인물, 저작을 상세히 풀이하고 있어 소학 분야에 매우 유용한 공구서이다.

2) 장사오위(2012), 『고대중국어 어휘의미론』, 차이나하우스. 周淑萍(1998), 「古典文獻專書辭典的詞性標注問題」, 『辭書研究』, 1998년 제4기.

한문사전이 기본적으로 고전어 문헌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교감, 표점을 통해 정본을 확립하고 주석을 다는 문헌학적 영역도 간과할 수 없다. 코퍼스를 구축하거나 색인을 처리하고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정보학적 영역도 사전의 제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분야이다.

사전의 편찬이 학술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학술적 연구가 심화되어야 한다. 또한 학제간, 분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협력에는 조직적, 제도적 환경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2. 학습효과의 중시

학습사전에서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점은 사용자의 학습효과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와 다양한 용법의 제시가 요망된다. 예컨대 각 글자의 구조와 필획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표제어의 사용빈도와 수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부수의 첫 머리에 해당 부수의 간결한 설명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용법에는 역순어의 제시(… 歸一, … 統一, 劃一), 유의어의 변별 등이 있다. 표제어에 대한 품사의 제시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편집상의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 한문의 독해와 한자의 이해에 필요한 언어적, 문화적 사항을 정리하여 해설기사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용에 배경설명이나 번역문을 추가할 수 있다.<sup>3)</sup> 다양한 약호나 약물의 사용, 각종 숫자의 활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언어적 특성의 반영

한자와 한문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형(문자학), 음(음운학), 의(훈고학)라는 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요소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한다.<sup>4)</sup> 예컨대 형체는 대략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甲骨文 → 金文 → 篆書 → 隸書 → 草書 → 楷書 → 行書 → 簡體字. 나아가 俗字, 異體字, 韓國式 漢字, 일본식 略字의 변이도 있다. 참고로 요나라 행균(行均)의 『龍龕手鏡』은 佛教 俗字의 집성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초 문헌 이해에 필수적 도구임을 덧붙인다. 발음도 상고음, 중고음, 근대음, 현대의 보통화라는 시대적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 국가별, 방언상의 차이가 있다.

의미에도 변화가 있다. 먼저 本義, 引伸義, 通假(假借)가 있고, 시대와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다. 예컨대 망양흥탄(望洋興嘆)의 사례를 보자. 『莊子』 「秋水」에는 다음 구절이 있다. “그래서 하백은 비로소 그 얼굴을 돌려 [북해의 신인] 약(若)을 올려다보고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於是焉, 河伯始旋其面目, 望洋向若而嘆曰)<sup>5)</sup> 이는 달리 “해양을 바라보고 탄식한다”, “태양을 바라보다.”고 해석되기도 한다.<sup>6)</sup> 이 망양(望洋)은 판본에 따라 망양(眈洋)으로도 쓰였지만, 달리 망양(望羊), 망양(望陽)으로도 쓰이며, 모두

3) 다음은 인용문에 번역을 제공하는 사전이다. 佐藤進・濱口富士雄(2011), 『全訳・漢辞海(第三版)』, 三省堂.

4) 다음을 참조하시오. 이동철(2010),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 『고전, 고전번역, 문화번역』, 부산대학교 인문한국 고전번역 비교문화학 연구단 편, 미다스북스.

5) 안동민, 『장자』, 417쪽.

6) 崔大華(1988), 『莊子歧解』, 中州古籍出版社.

‘머리를 쳐들고 올려보는 모습’을 형용하는 쌍음 연면사이다. 양(洋)이 바다보다 큰 수역의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은 해운업이 크게 발달한 송대 이후의 일이다.<sup>7)</sup> 송대의 임희일(林希逸)이 “洋, 海中也”라고 하거나 선영(宣穎)이 “望海瀾也”라고 주석을 단 것은 이런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한 오독이라고 할 수 있다. “망양” 혹은 “망양흥탄”의 풀이에는 이런 오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 4. 기존 성과의 적극적 활용

이상적 사전의 편찬을 위해 학술적 기반의 정비가 필수 조건임을 앞서 말하였다. 여기서는 그런 학술적 기반의 정비에서 사전(학)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다루고 한다. 크게 사전학의 성과 활용 그리고 사전 및 공구서의 활용으로 나누어서 논하도록 한다.

먼저 사전학의 성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는 다시 사전학의 성과와 공구서 활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학의 성과에 대해서 국내의 성과와 국외 특히 중국의 성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이어 공구서 활용법을 언급하도록 한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국내의 주요한 성과는 아래와 같다.

- 김현철 외(2012),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연구』, 지식과교양.  
 도원영·박주원 편(2011), 『<고려대 한국어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동양학연구원 편(2013),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한한대사전>』, 단국대학교출판부.  
 랜도우(2002), 『사전편찬론: 예술성과 장인정신』, 한국문화사.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유현경·남길임(2008), 『한국어사전 편찬학 개론: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역락.  
 오시마 쇼지(2003), 『한자에 도전한 중국: 갑골문에서 간체자까지 한자 형성 공간의 탐색』, 산치럼.  
 정연숙(2009), 『한국어 학습사전의 내용 구조』, 도서출판 역락.  
 하트만 편(2008),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제이앤씨.  
 홍종선 외(2009),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이상의 성과에서 본 논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동양학연구원 편(2013)의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한한대사전>』 일 것이다. 정연숙(2009)의 『한국어 학습사전의 내용 구조』도 주목된다. 그리고 오시마 쇼지의 책은 전통 중국의 사전 역사를 일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다음은 사전학에 관한 중국의 주요한 성과 중 본 주제와 관련하여 논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중에서 趙振鐸(2012)의 『字典論(第二版)』과 周志鋒(1998)의 『大字典論稿』이 주목된다.

- 徐慶凱(2011), 『專科詞典論』, 上海辭書出版社.  
 徐海 외(2012), 『英語學習型詞典研究』,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于屏方·杜家利(2010), 『漢、英學習詞典對比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明一·周紅紅(2011), 『雙語詞典編纂導論(第2版)』, 上海外語教育出版社.  
 章宜華·雍和明(2007), 『當代詞典學』, 商務印書館.

7) 鮑善淳(1992), 『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회, 54쪽.

趙振鐸(2012), 『字典論(第二版)』, 上海辭書出版社.<sup>8)</sup>

周志鋒(1998), 『大字典論稿』, 浙江教育出版社.

黃建華·陳楚祥(1997, 2001), 『雙語詞典學導論(修訂本)』, 商務印書館.

공구서 활용법에 대해서는 주요한 성과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먼저 국내에 소개된 것들은 아래와 같다. 국외의 성과는 적지 않지만 趙國璋·王長恭·江慶柏(2006)의 『文史工具書概述』(江蘇教育出版社, 2006)이 주목된다.<sup>10)</sup>

등사우(1972), 『中國參考圖書解題』, 한국도서관협회.

潘樹廣(1995), 『색인개론』, 경인문화사.

배현숙 편(1994) 편, 『중국자료 탐색방법』, 1994.

劉葉秋(2005), 『中國類書概說』, 학고방.

蔣禮鴻(1992), 『목록학과 공구서(한학연구총서 1)』, 이회문화사.

田中良昭 등(2009), 『선학연구입문』, 경서원.

사전과 공구서의 활용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대형 사전이다.

羅竹風 주편(1993), 『漢語大詞典(12책)』,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徐中舒 주편(1990), 『漢語大字典(8책)』, 四川辭書出版社.

吳澤炎·劉葉秋·黃秋雲 편(1988), 『辭源(修訂本)』, 商務印書館.

編委會 편(1979, 1989, 1999, 2009) 『辭海(修訂本)』, 上海辭書出版社.

다음으로 언어의 특정 현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특

---

8) “辭書研究文庫”의 하나로 출간된 趙振鐸의 『字典論(제2판)』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지니고 있다. 1. 「字字典字典學」, 2. 「我國字典編寫的傳統」, 3. 「收字雜議」, 4. 「字頭的編排」, 5. 「古文字形體的收列」, 6. 「複音詞的收列」, 7. 「字源考訂」, 8. 「論音項」, 9. 「古音的標注」, 10. 「審音管窺」, 11. 「義項的確立」, 12. 「字義的類型」, 13. 「名物字的釋義」, 14. 「字的通假義」, 15. 「字典的釋義」, 16. 「字典的舉例」, 17. 「引例諸要」, 18. 「引例諸忌」, 19. 「引例再議」, 20. 「異體字」, 21. 「說訛字」, 22. 「資料工作的反思」, 23. 「隊伍的建設」, 24. 「審稿和定稿」, 25. 「字典的修訂」, 26. 「修訂再論」.

9) 이에 대해서 논자의 다음 보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동철(2011), 「한국에서 한문번역 관련 공구서의 현황과 과제 : 1990년대 이후 주요한 성과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38, 한국고전번역원. 53~131쪽.

10) 주요한 것으로 다음이 있다. 王彥坤 편(2010), 『文史文獻檢索教程(修訂本)』, 商務印書館; 祝鼎民 編(2008), 『中文工具書及其使用(增訂本)』, 中華書局; 楊琳(2010), 『古典文獻及其利用(增訂本)』, 北京大學出版社; 林慶彰 主編(2003), 『學術資料的檢索與利用』, 萬卷樓; 包弼德(Peter Bol)·魏希德(Hilde De Weerd)(2008), 『宋代研究工具書指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坂出祥伸(2008), 『中國古典を讀むはじめの一步』, 集廣舎 발행; 中國書店 發賣; 永田知之(2009), 『工具書について - 漢籍の整理 -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附屬東アジア人文情報學研究センター; Endymion Wilkinson(2000), 『Chinese History: A Manual(Revised and Enlarged)』,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수 목적 사전이다. 먼저 어원사전, 발음사전, 역사언어사전 그리고 고전텍스트 사전 등 상세 정보를 제시하는 사전의 예이다.

- 加藤常賢 외(1983), 『角川 字源辭典』, 角川書店.  
 王力(1982),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谷衍奎 편(2003),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編委會 편(2005), 『古文字詁林(12책)』, 上海教育出版社.  
 曹聰孫(2008), 『古漢語誤讀字字典』, 新世界出版社.  
 裘學海(1980), 『古書虛詞集釋』, 中華書局.  
 楊伯俊(1981),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蕭旭(2007), 『古書虛詞旁釋』, 廣陵書社.  
 天野成之(1999), 『漢文基本語辭典』, 大修館.  
 謝紀鋒 편(2011), 『漢語連綿詞詞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宗福邦 등(2003), 『故訓匯纂』, 商務印書館.<sup>11)</sup>  
 許少峰 편(2008), 『近代漢語大詞典(上下)』, 中華書局.<sup>12)</sup>  
 黃河清 편(2010), 『近現代辭源』, 上海辭書出版社.  
 『十三經辭典』編撰委員會 편(2002), 『十三經辭典·孟子卷』, 陝西人民出版社.<sup>13)</sup>

다음은 적절한 표현을 찾는 등 언어의 활용에 연관된 특수 사전의 예이다.

- 王政白(1992), 『古漢語同義詞辨析』, 黃山書社.  
 王鳳陽(2011), 『古辭辨(增訂本)』, 中華書局.  
 楊喆 편(1990), 『作文類典』, 中州古籍出版社.

11) 선진에서 청말에 이르는 200여 중요서적의 訓詁자료를 모은 것이다. 阮元의 『經籍纂詁』의 뒤를 이은 것인데 더욱 유용하다. 2004년의 제2판은 제1판의 인쇄에 대해 일부 수정과 보완을 했다.

12) 이 사전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근대한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중요한 업적이다. 특히 시대별 언어 사전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보시오. 강용중(2013), 「중국 역사언어사전(詞典)의 현황과 과제 - 근대 중국어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한한대사전>』, 단국대학교 출판부, 425~470 쪽.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이동철(2011), 「중국 고전텍스트 사전의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 한자 사전의 현황과 과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본 『十三經辭典』은 유가의 기본문헌인 『十三經』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총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서는 劉學林、遲鐸 主編으로 陝西人民出版社에서 2002년부터 분권으로 출판되고 있다. 『辭書書研究』2000년 제6기에는 본 『十三經辭典』에 관련된 논문이 실려있다. 본 사전은 한 책을 한 권으로 하며 단독으로 편찬되었다. 각 권마다 각 경서의 글자, 어휘, 단어, 고정격식, 그리고 경전의 의미와 특수한 의미를 포함하는 구절을 표제어로 한다. 표제어에는 독음, 품사와 그 특성(단음사와 복음사), 항목별 의미, 과학적인 釋義, 문헌적 증거의 열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王輝 편(2008), 『古文字通假字典』, 中華書局.

馮其庸·鄧安生 편(2006), 『通假字彙釋』, 北京大學出版社.

王海根 編(2006), 『古代漢語通假字大字典』, 福建人民出版社.

劉潔修(2009), 『漢語成語源流大辭典』, 開明出版社.<sup>14)</sup>

다음의 사전들은 고한어 혹은 문언문의 학습 지식에 관련된 사전이다. 『簡明文言字典』은 고한어 사전과 학습 지식 사전이 함께 수록된 형태이다.

馬文熙·張歸璧 등 편(2004), 『古漢語知識辭典』, 中華書局.

徐昭武 편(1994), 『文言文學習辭典』, 江蘇教育出版社.

向熹 편(2007), 『古代漢語知識辭典』, 四川辭書出版社.

編寫組 편(2008), 『簡明文言字典』, 上海教育出版社.

#### 5. 세계화 시대의 반영

세계화 혹은 지구화가 이 시대의 주요한 흐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교자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즉 한국적 특성의 강화와 동아시아적 맥락의 중시이다. 먼저 한국적 특성의 강화는 표제어의 선정이나 기술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 관습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고문헌과 고문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적 맥락의 중시란 한국 문화를 고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류와 관계 속에서 비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뜻이다. 이는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한교자전”의 구체적 편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먼저 자형의 경우 “敎”, “研”처럼 일본식 자형과의 차이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의 수록도 고려할 만하다. 발음에서는 중국어 병음과 일본어 한자음의 병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의 경우 표점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6. 정보화 시대의 대응

현재 사전 편찬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먼저 말뭉치의 제작과 활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중일 한자의 폰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교자전”을 종이사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사전으로 제공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CD-Rom의 형태로 제공한다거나 온라인판의 제작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요구된다.

---

14) 吳小如(2011)는 자신의 『中國文史工具資料書舉要』(世界圖書出版公司) 「三版後記」에서 21세기 이후 출간된 중요한 세 가지 공구서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王力 주편(2000),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宗福邦 등 주편(2004), 『故訓匯纂(제2판)』, 商務印書館; 劉潔修(2009), 『漢語成語源流大辭典』, 開明出版社.

### 3. 구조적 쟁점들

사전의 구조란 사전의 개별 항목들이 배치되고 배열되는 구성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거시 구조는 사전 표제어의 종적 배열을, 미시 구조는 각 표제어에 속하는 철자, 발음,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 어휘 정보 등에 대한 횡적 배열이다.

그러나 본 논의는 하트만의 논의를 국어사전에 변용한 도원영의 논의를 참조하되 이를 얼마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의 논의는 사전의 최대 구조, 거시 구조(巨視構造, macrostructure), 미시 구조(微視構造, microstructure)라는 형식적 구조와 기타 구조로 나누고 있다. 기타 구조는 다시 매개 구조(媒介構造, mediotrucre), 접근 구조(access structure), 배분 구조(配分構造, distribution structure)를 포함한다.

#### 1. 최대 구조

최대 구조(最大構造, mega-structure)란 하나의 독립된 출판물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독립적 텍스트’인 사전이 갖추게 되는 전체 구조이다. 여기에는 본문을 비롯해 표지, 머리말, 일러두기, 자모표, 부록 및 인지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다시 사전의 내용 텍스트인 ‘본문’ 텍스트(단어 목록과 단어 풀이)와 앞부분인 전반부 텍스트, 그 뒤 부분인 후반부 텍스트로 구분되며 사전의 본문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도표나 그림, 사진과 해설난 등의 삽입 텍스트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부 텍스트(앞표지, 내지, 자모표, 일러두기)

본문 텍스트 == 삽입 텍스트 (도표, 그림, 사진, 해설난)

후반부 텍스트 (부록, 인지, 출판 사항, 뒷표지)

#### (1) 전반부 텍스트

전반부 텍스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러두기와 자모표이다. 일반적으로 일러두기는 사전의 전체적인 편찬 방침과 표제어의 관련 사항(수록 범위, 배열 원칙, 구성 원리), 발음, 어원, 어법, 뜻풀이 방식, 용례 처리 방식, 약호 및 약어, 약물 설명 등에 대해 설명한다. 자모표의 경우 외국어 사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한문사전의 경우 찾아보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 (2) 본문 텍스트

본문 텍스트란 사전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표제항 전체를 말한다. 표제어, 어원 및 형태 정보, 발음,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이 포함된다. 뜻풀이와 용례는 서술문을 기본으로 하며 나머지 정보들은 약호와 약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문적 목적으로 사전을 활용할 때는 일러두기 항목의 숙지가 요구된다

#### (3) 삽입텍스트

표제항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삽입되는 도표, 그림, 사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전에 따라서는 해설란이 있기도 하다. 그림과 사진 등의 경우 학습(형) 사전에서 매우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명해 한화』는 “고사”와 “어법” 항목을 두고 있다. “고사”의 항목은 ‘의미’, ‘원문’(직역과 출전), ‘통석’, ‘해설’, ‘용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칠보지재”(七步之才)를 비롯해 약 40에 가까운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어법은 “一 · 專 · 獨”을 비롯해 약 70에 달하는 항목을 수록한다. 『한자원』의 경우 본문 속에 「중국문화 이해에 대한 안내」라는 해설란을 두어 중국 문화와 한문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sup>15)</sup>

#### (4) 후반부 텍스트

부록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습자용 사전은 모국어화자용 사전과는 달리 표제어의 학습과 사용에 관련한 많은 유용한 정보들과 언어학습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수많은 (그림) 보조 자료를 싣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온전한 언어사용 능력을 갖춘 모국어화자라면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보가 되어 모국어화자용 사전에서는 중시되지 않거나 아예 수록되지 않기도 하다.”

부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의 사전들이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신자원』의 부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sup>16)</sup>

(1) 중국어의 기원과 특색 (2) 한자의 성립: 1. 한자의 성장, 2. 한자의 구조, 3. 한자의 기능 (3) 한자음에 대하여: 1. 중국에서의 한자음의 역사, 2. 운서(韻書)의 변천, 3. 일본의 한자음(吳音, 漢音, 唐音), 4. 관용음에 대하여, 5. 한자의 중국 현대음에 대하여 (4) 속어의 구조 (5) 중국 역사지도: 1. 춘추시대 · 전국시대, 2. 전한시대 · 한초(漢楚) 항쟁 要圖, 3. 당시대 · 삼국시대 · 남북조조 시대, 4. 송 · 금시대, 5. 현대중국지도 (6) 중국문화사 연표 (7) 중국연호 일람표 (8) 화학원소표 (9) 도량형표 (11) 중국어 로마자표기 일람표 (12) 중국간체자표 (13) 국자(國字) · 국훈(國訓) 일람표 (14) 시각 방위 · 오행 · 사계 · 색(色)의 관계 이십팔수 (15) 조자(助字) 해설 (16) 동훈이의(同訓異義) (17) 건축도(建築圖) (18) 연중행사 참고도 (19) 한자에서 가나(假名)으로 (20) 상용한자표(부 필순) (21) 인명용한자표 (22) 인명용한자 허용자체표 (23) 인명요람.

## 2. 거시 구조

15) (1) 한문에 익숙해지다 (2) 한문의 성격 (3) 대구(對句) 표현 (4) 고사성어 (5) 화북(華北)과 황하 (6) 장강(長江)과 남방 (7) 북경 (8) 장안 (9) 만리장성 (10) 천과 천명 (11) 중화와 이적 (12) 유교 (13) 종교 (14) 군자와 소인 (15) 관리(官吏)의 계층 (16) 고대의 형법 (17) 과거 (18) 성과 이름 (19) 이름과 장유 (20) 연령의 이칭 (21) 소설 (22) 실크로드와 서역문화 (23) 중국의 신화 (24) 절구(節句) (25) 이십사기(절) (26) 간지 (27) 일본인의 한시문.

16) 참고로 『신명해 한화』의 경우 다음의 부록을 두고 있다. (1) 동훈이의 (2) 역사지도 (3) 중화인민공화국 신구자형 대조표 (4) 신구자체 대조표 (5) 한자에 대하여 (6) 인명한자 독법 일람표 (7) 주요 한적 서명과 저자 일람표 (8) 운목표(韻目表) (9) 부수(部首) 명칭표 (10) 음훈색인. 덧붙이자면 『한자원』의 부록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문자와 말 (2) 한문의 문법 (3) 중국간체자표 (4) 차자(借字) 지명·옛 국명 (5) 중국문화사 연표 (6) 중국 주요서적 해설 (7) 중국 주요 인명 해설. 한편 『신대사전』은 「JIS補助漢字」一覽을 두고 있다.

거시구조(巨視構造, macrostructure)란 표제항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열하는 전체의 종적 구조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제어의 선정 및 배열, 다의어·동형어의 처리 및 배열, 부가 정보의 배열 등이다. 요컨대 거시구조는 사전 표제어를 이용자가 찾아보기 편리하게 일정한 수서와 기준으로 체계화하여 배열하는 것이다. 주로 표제어의 선정, 표제어의 배열, 다의어-동형어 처리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표제어의 선정은 사전의 규모와 목적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 제한된다. 이상적 한문 학습사전의 경우 소사전으로서 한문의 학습과 해독에 필수적인 용례를 보이는 어휘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중국의 경우 아편전쟁 이전, 한국의 경우 갑오경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기본적인 문헌을 기준으로 하되, 한국의 중요한 고전에 대해서도 표제어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의 한문 교재, 대학교의 관련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유명과 전문어도 표제어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인명, 지명, 서명 등의 고유명 선정은 그것이 문화적,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泰山, 瀟湘八景, 太公望 등이 그러하다. 전문어의 수록은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고사성어나 속담처럼 관용적인 구적 단위를 표제어로 선정할 경우 문헌의 용례나 활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一石二鳥”처럼 오해되거나 오용되는 성어의 경우 이에 대한 해명도 검토할 만하다.

한자 사전의 경우 표제어의 배열은 부수법(部首法), 필획법(筆劃法), 음서법(音序法), 사각호마법(四角號碼法), 분류법(分類法)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자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형, 음, 의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한자 사전은 대체로 부수법에 따라 표제어를 배열한다. 그에 비해 중국에서는 소사전의 경우 한어 병음에 의한 음서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수법은 매음조의 『자회』에서 유래한 214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康熙字典』이 214부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흔히 “강희자전 부수”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신편 자전들에 의한 부수의 개편이다. 예를 들어 『新華字典』(제10판)과 『現代漢語詞典』(제5판)은 모두 201부를 사용한다. 또한 『한어대사전』과 『한어대사전』은 “강희자전 부수”를 기초로 하여 200부로 줄이고 일부 글자의 부수 귀속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사전의 사용이나 제작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미시 구조

미시구조(微視構造, microstructure)는 각 표제항 내부의 구조로서 각 표제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시항들의 횡적 구조를 뜻한다. 미시 구조를 이루는 항목은 표제어의 형식적 정보를 다루는 형식 항목들과 표제어의 의미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다루는 내용 항목으로 나뉜다.

형식 항목에는 표제어 표기를 비롯해 어개번호, 원어, 발음, 문법 범주, 전문 분야들이 포함되고, 내용 항목에는 뜻풀이, 용례, 관련어, 참고어, 기타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뜻풀이를 간략화한 문법 틀을 뜻풀이 앞에 둘 수도 있다,

미시 구조와 관련하여 “한교자전”에서도 국어사전처럼 원어, 어원 및 학명의 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불교 용어의 경우 산스크리트 원어 혹은 어원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동식물의 경우 필요하다면 학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표제항의 정보에서 한자의 특징과 관련해 고려할 것은 시대적, 지역적 변화와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명기이다. 즉 역사주의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표제자와 표제어의 시대적 변화,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17)</sup> 다음으로 연면자의 적극적인 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4. 결론

왕력은 『왕력고한어사전』의 서문에서 본 사전의 여덟 가지 특징을 소개한다. 첫째, 사의(詞義)의 개괄성을 확대하였다. 일반 사전의 번다한 의항(義項)은 기본적으로 본의(本義)와 인신의(引伸義)로 귀결된다. 인신의에서 가까운 것은 합병하고 먼 것과 가차의는 별도로 항목을 두면 의항이 크게 감소하면서 알기쉽게 된다.<sup>18)</sup>

둘째는 벽의(僻義)를 비고란에 귀속하였다. 벽의란 고대 문헌에서 한 자레만 보이는 사의(詞義)이다. 이는 후대에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sup>19)</sup>

셋째, 역사적 관점을 수립하고 사의(詞義)의 시대성에 주의한다.

넷째, 고운부(古韻部)를 표명(標明)한다.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상고시대 운문 예컨대 『시경』 『초사』를 읽을 때 편하다. 둘째는 첨운(疊韻)의 연면자를 변별하는 데 편하다.

다섯째, 연면자(聯綿字)를 주기한다. 이는 사의(詞義)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쌍성연면자인 ‘鬱鬱’은 ‘抑鬱’, ‘鬱抑’, ‘鬱邑’, ‘鬱悒’, ‘鬱伊’, ‘鬱紆’ 등으로도 쓰인다.

여섯째, 매 부(部)의 앞에 먼저 부수의 총론을 서술한다. 예컨대 인부 앞에 총론에서 인부의 글자는 인사에 관련 된 것이 많다고 설명한다.<sup>20)</sup>

일곱째, 동의사(同義詞)의 변석이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1) “之, 適, 如, 赴, 往”; (2) “予, 余,

17) 앞서 언급한 “望洋”의 경우가 이와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 예를 들어 수(囚)를 『사원(辭源)』에서는 ① 구금(拘禁) ② 부로(俘虜) ③ 죄범(罪犯)의 의항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왕력』은 구계(拘繫), 구금(拘禁)을 본의로 한다. 이것인 피구금된 사람, 부로가 된 사람으로 인신되며 다시 뇌옥 안에 구금된 죄범이 된다고 한다.

19) 예컨대 환(丸)이 난(卵)의 뜻이 되는 경우이다. 『여씨춘추』 「본미」: “丹山之南, 有鳳之~.” 이에 대한 고유주는 “丸, 古卵字也.”로 되어 있다. 한편 ‘名’에 대해 “目上, 眉睫之間.”이라는 의항이 있다. 이는 詩 齊風 猗嗟에서 나온다. “猗嗟~兮, 美目淸兮.” 毛傳은 “目上爲名, 目下爲淸.” 반면 주희집전은 “名, 猶稱也, 言其威儀技藝之可名也.”라고 하여 모전과 차이가 있다.

20) 이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作, 企, 俯, 仰, 依 등. 둘째, 인간의 덕성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仁, 偉, 倨, 傲, 儉, 佻, 儉, 侈 등. 셋째, 인륜과 인품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伯, 仲, 仇, 偶, 伴, 侶, 儒, 佛, 仙 등.

품, 我, 朕”; (3) “軍, 士, 卒, 兵”; (4) “亡, 死” 등이다.

여덟째, 음이 서로 가깝고 뜻이 통하는 이른바 동원자(同源字)의 열거이다. 이를 통해 어원학의 지식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1) “右, 佑, 祐”; (2) “踞, 倨”; (3) “家, 居, 嫁 등이 있다.

왕력의 자전은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제작에 참여하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中國歷代紀元表」, 「中國歷代度量衡制演變簡表」만을 부록으로 제공하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만큼 이상적 자전의 편찬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는 어느 정치가의 말이 있다. 자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오늘날의 학술 대회를 계기로 한자 자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 본 논의가 그를 위해 일조한다면 발표자로서 더할 나위없이 기쁜 일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철 외(2012),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연구』, 지식과교양.
- 도원영 · 박주원 편(20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 동양학연구원 편(2013),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한한대사전>』, 단국대학교출판부.
- 랜도우(2002), 『사전편찬론: 예술성과 장인정신』, 한국문화사.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 심경호(2007), 『한학 입문』, 황소자리.
- 유현경 · 남길임(2008), 『한국어사전 편찬학 개론: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역락.
- 정연숙(2009), 『한국어 학습사전의 내용 구조』, 도서출판 역락.
- 포선순(1992, 2001), 『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회.
- 하트만 편(2008),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제이앤씨.
- 홍중선 외(2009),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 谷衍奎 편(2003),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 謝紀鋒 편(2011), 『漢語連綿詞詞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徐慶凱(2011), 『專科詞典論』, 上海辭書出版社.
- 徐海 외(2012), 『英語學習型詞典研究』,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楊祖希 · 徐慶凱(1992), 『辭書學辭典』, 學林出版社.
- 于屏方 · 杜家利(2010), 『漢、英學習詞典對比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明一 · 周紅紅(2011), 『雙語詞典編纂導論(第2版)』,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章宜華 · 雍和明(2007), 『當代詞典學』, 商務印書館.
- 趙國璋 외(2006), 『文史工具書概述』, 江蘇教育出版社.
- 趙振鐸(2012), 『字典論(第二版)』, 上海辭書出版社.
- 周志鋒(1998), 『大字典論稿』, 浙江教育出版社.
- 黃建華 · 陳楚祥(1997, 2001), 『雙語詞典學導論(修訂本)』, 商務印書館.
- 
- 이동철(2008), 「동아시아 유서편찬과 <임원경제지>의 특성」, 『전북대 쌀쌀문명 연구원 제2차 포럼 임원  
경제지연구 연구의 문명사적 의의』, 전북대 쌀쌀문명 연구원.
- 이동철(2009), 「현대 중국 공구서의 현황」, 『2009년 하계학술대회 한자 문화권의 사전과 공구서』, 고  
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09.
- 이동철(2010),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 『고전, 고전번역, 문화번역』, 부산대학교 인문한국 고전번역  
비교문화학 연구단 편, 미다스북스.
- 이동철(2011), 「중국 고전텍스트 사전의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 한자 사전의 현황과 과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이동철(2011), 「한국에서 한문번역 관련 공구서의 현황과 과제:1990년대 이후 주요한 성과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38, 한국고전번역원.



## 「자전 편찬의 실제와 과제」 토론문

양원석(한국고전번역원)

# 별지 참조



## 국내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특징

이군선(원광대)

- 
1. 서론
  2. 국내 한문 자전의 현황
    1. 옥편과 자전, 그리고 사전
    2. 크기에 따른 명칭 부여
    3. 시대적 특성의 반영
  3. 한문 학습 자전의 특징
    1. 한문학습자전
    2. 특징적 면모
      - 1) 표제자 선정과 배열
      - 2) 해자란의 구성
      - 3) 표제어의 선정과 해설
  4. 결론 -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字典은 20세기 초기부터 진행되었으며 해방 이후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수의 옥편, 자전, 그리고 사전이 만들어졌다. 우리말로 자의와 자음을 주석한 최초의 자전은 1908년 간행된 『국한문신옥편』이다.<sup>1)</sup>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한자자전은 300종을 넘는다.<sup>2)</sup> 본고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사전류의 현황에 대하여 옥편과 자전, 그리고 사전, 사전의 크기에 따른 분류, 시

---

1) 전일주(2002), 『최근세 한국 한자자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7쪽. 전일주는 이 논문에서 근대 자전의 탄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세 자전의 탄생은 시대적인 기운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그 당시에 근대적인 민족의식의 발로로 국어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한자도 우리말로 주석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이 근대적인 자전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2) 전일주는 상계 논문의 부록에 10년 단위로 목록을 작성하여 놓았다. 본고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사전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적 특성의 반영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이들 사전이 지닌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전의 명칭이 옥편 혹은 자전, 그리고 사전이란 이름을 같이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명칭에 대하여 먼저 살펴야 名과 實이 상부한 사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전은 크기와 수록 한자 수에 따라서 大, 中, 小를 붙이기도 하고 붙이지 않기도 하는데 어떤 사전이든 학습용 사전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와 분량으로 만들어야 할지 가능해 보기 위해서라도 크기와 수록 한자에 따른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대적 특성이 어떻게 사전류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어 이들의 특징은 어떠한지 실제 사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기로 한다. 다만 모든 사전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에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몇 종류만 선택해서 살펴볼 것이다. 사전은 지금도 복간되거나 새로운 것들이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출간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옥편을 검색해보면 복간에서 신간에 이르기까지 전일주가 전에 조사했던 것에 비해 대략 100여종이 넘는 사전이 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는 일반적인 자전도 있지만 급수시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체자를 모아놓은 사전도 있다. 이렇게 출간되는 사전류에 대하여 일별해보면 우리나라 사전의 특징과 함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국내 한문사전의 현황

### 1. 옥편과 자전, 그리고 사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한문 사전류에는 옥편 혹은 자전, 사전이라는 명칭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본래 ‘玉篇’은 본래 534년 중국 양나라의 고아왕이 편찬한 책인데 16,917개의 한자가 542개의 부수로 분류되어 있다. ‘옥편’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는 고유명사인 책명으로만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옥편’을 ‘자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sup>3)</sup> 그것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字典類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일주가 조사하여 부록으로 첨부한 자료 중에서 200여종이 옥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전류에도 옥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아도 사전류의 대명사로 ‘옥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字典’이라는 용어는 1716년에 淸에서 펴낸 『康熙字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자전’이라는 용어는 ‘옥편’이라는 용어와 달리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표제자로 선정하고 부수별로 배열하여 표제자에 관한 미시 정보들을 기술한 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전’은 한자를 부수별로 배열한 후에 다시 획수별로 배열하여 표제자의 발음과 정의를 기술하여 놓은 사전이다. 부수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획수로 찾아볼 수 있게 해 놓았고 총획수로 찾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발음을 기준으로 색인을 만들어 놓았다.<sup>4)</sup> 우리나라에서는 ‘옥편’과 ‘자전’을 구분하여 쓰지 않지만 중

3)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116쪽.

4)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117쪽.

국 쪽에서 나온 자전은 ‘자전’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전과 옥편, 그리고 사전의 대표적인 예를 보기로 한다.

<p>&lt;그림1&gt; 수정증보 최신흥자옥편</p>	<p>&lt;그림2&gt; 강희대옥편</p>
<p>&lt;그림 3&gt; 명문한한대자전</p>	<p>&lt;그림4&gt; 전운옥편</p>

‘옥편’과 ‘자전’의 특징은 자해, 그것도 대표적인 자해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운옥편』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다만 『전운옥편』의 자해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된 것에 비해 해방 이후에 나온 ‘옥편’ 류는 자해를 한글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림에서 보듯 한자의 훈음만 제시한 것도 있고 『강희대옥편』과 『명문한한대자전』의 경우는 『전운옥편』과 자해 방식이 비슷하다.

반면 ‘사전’은 여러 가지 사항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각각의 사항을 풀이한 책을 가리키는데<sup>5)</sup> 한문 사전의 경우, 글자에 대한 풀이와 함께 어휘를 함께 수록하여 해당 글자를 찾으면 이와 결

합하여 만들어진 어휘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사전’ 류는 ‘옥편/자전’ 류와 달리 표제자와 어휘 등 해당 한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전은 전일주가 조사해놓은 목록을 보면 1937년에 姜義永이 편찬하고 永昌書館에서 간행한 『日漢鮮大辭典』이 그 처음으로 보인다. 이후 사전류는 꾸준히 편찬되어 1930년대에 2종, 1940년대 1종, 1950년대 11종, 1960년대 3종, 1970년대 3종, 1980년대 5종, 1990년대 16종, 2000년대 8종외에 이후 출판된 사전을 합하면 사전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이전에 비해 최근 ‘자전’ 류보다는 ‘사전’ 류의 비중이 더 많아진 이유는 시대적인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전이 만들어지던 초창기에는 한문의 영향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소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대부분 한자는 경서를 통해 익혀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다지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문장을 통해 한자를 익히던 시대를 지나 우리말 어휘에서 사용되는 한자를 익히는 시대로 바뀌었고 한글 중심으로 가르치며 영어가 문자로서의 지위가 더 올라간 지금은 한자를 잘 배우지 않다보니 한 글자의 의미 파악만으로는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글자의 풀이와 함께 어휘를 수록한 ‘辭典/詞典’ 류가 더 필요하게 되어 이전보다 ‘사전’ 류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명칭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민중서림의 『활용옥편』은 ‘옥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자해와 함께 어휘도 수록하고 있어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가까우며, 동아출판사의 『백년옥편』 역시 옥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자해와 함께 어휘도 수록하고 있어 사전에 가깝다. 민중서림의 『한한대사전』의 경우도 이와 같다.

## 2. 크기에 따른 분류

많은 글자를 수록하고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자전은 아니다. 그러나 학문적인 용도와 욕구에 의해 수록 한자의 수가 후대로 내려올수록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나온 ‘자전’ 류에는 옥편 혹은 자전의 명칭에 大, 中, 小를 붙이지 않았다. 전일주가 조사해놓은 목록을 보면 1937년의 『日漢鮮大辭典』에 처음으로 ‘大’자가 사전의 이름에 나온다. 이후에도 주로 辭典의 명칭에 ‘大’자가 붙는데, ‘옥편/자전’ 류에 ‘大’자가 붙게 되는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인 듯하다. 1973년에 『(여문)한한대사전』이 여문사편집부 편으로 여문사에서 간행된 이후, 『理想大玉篇』, 『實用大玉篇』, 『玄文大玉篇』, 『興文大玉篇』, 『明文漢韓大字典』, 『綜合大玉篇』, 『康熙大玉篇』, 『活用大玉篇』 등 옥편의 명칭에도 ‘大’자가 붙게 된다. 사전의 명칭에 ‘大’자가 붙은 옥편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理想大玉篇』은 윤희백 편으로 理想社에서 1975년 발행하였다. 『理想大玉篇』은 4만여 자에 이르며 『강희자전』을 준거로 하고 『전운옥편』·『대한한사전』·『한한대사전』·『신자해』 및 『중화대사전』·『대한화사전』·『육체대사전』·『예술 초서대사전』 등까지 검토하여 만들었다고 하여 방대한 자료의 섭렵과 함께 수록 한자 수를 강조하였다.<sup>7)</sup>

5)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118쪽.

6) 전일주(2002), 『최근세 한국 한자사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부록.

『實用大玉篇』은 張三植 편자로 집문당에서 1976에 발행하였다. 이 책의 범례에 “본서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약 20,000여자를 망라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해석을 붙였으며, 또한 이에 관련되는 고사·성구, 인명·서명·지명 등을 수록하여 간명 적절한 해설을 달았다.”라고 하였으며, “본서에 수록된 문자는 주로 『강희자전』에 의거하였지만, 현대 널리 쓰이는 俗字·略字·國字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고 하여 수록 내용의 방대함에 비중을 두었다.<sup>8)</sup>

『玄文大玉篇』은 尹善亮 編으로 玄文社에서 1976년에 발행하였다. 이 책의 범례에 “본책자는 한자 삼만오천자를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훈석한 최신판 대옥편이다.”<sup>9)</sup>라고 하여 수록 한자의 수에 비중을 두었다.

『興文大玉篇』은 흥문도서편집부 편으로 1978년 흥문도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의 범례에 “본 옥편은 대체로 강희자전에 준거하였으며 고정에 나오는 모든 한자와 최근의 新字, 譌字, 俗字, 略字 등을 古典全韻玉篇 상·하권과 漢韓大字典 大漢韓辭典을 위시하여 현대판 新字解, 中華大辭典, 日版大漢和辭典 및 書道七體大字典까지 참고로 비교검토하여 장장 오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五萬五千餘字를 巨集 編輯하여 완벽한 옥편의 구실을 하도록 하였다.”<sup>10)</sup>고 하여 수록 한자가 55,000여자이고 주요 자료를 망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明文漢韓大字典』은 松亭 金赫濟와 桂山 金星元 편자로 1984년에 명문당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의 범례에 “이 자전은 『강희자전』을 주로 하고 『전운옥편』의 체례에 따랐으며 내외의 권위있는 字書·韻書·經書 등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편찬하였다. 五萬千八百五十三字의 母字를 二百十四部首로 분류 획수순으로 배열하되 부수를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나 획수를 틀리기 쉬운 글자는 양쪽에 실어 제 부수·제 획수에 가 보도록 하였다.”<sup>11)</sup>고 하였으며, 최근덕은 추천사의 제목으로 ‘世界最多의 母字收錄에 新紀元樹立’<sup>12)</sup>이라고 할 정도로 수록 한자의 방대함을 강조하였다.

『綜合大玉篇』은 1988년에 양문출판사에서 출판되었는데 그 서문에서 “이 옥편은 먼저 그 한자의 수에서 해변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五萬五千餘字로 각국에서 현존하는 한자 전반을 巨集收錄하였다.”<sup>13)</sup>라고 밝히고 있듯이 수록 한자의 수가 많음을 강조하였다.

『康熙大玉篇』은 春園 著로 되어 있고 금성문화사에서 1990년에 간행되었다. 범례에 청 『강희자전』에 의거하여 만들었다<sup>14)</sup>고 한 것을 보면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수록 한자가 대략 강희자전의 수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7) 윤희백 편(1975), 『理想大玉篇』, 理想社, 1쪽.

8) 장삼식(1976), 『실용대옥편』, 집문당, 3쪽.

9) 윤선량(1976), 『현문대옥편』, 현문사, 1쪽.

10) 흥문도서편집부(1978), 『흥문대옥편』, 흥문도서, 1쪽.

11) 松亭 金赫濟·桂山 金星元 편저(1984), 『명문한한대사전』, 명문사, 21쪽.

12) 전개서, 15쪽.

13) 편집부(1988), 『종합대옥편』, 양문출판사, 1쪽.

14) 春園(1990), 『강희대옥편』, 금성문화사, 1쪽.

『活用大玉篇』은 裕翰辭書編輯部 편으로 2000년 도서출판 裕翰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의 범례에 “본책자는 漢字三萬五千字를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훈석한 최신판 대옥편이다.”<sup>15)</sup>라고 하여 수록한자와 알기 쉽고 자세하게 훈석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國漢 最新大字典』<sup>16)</sup> 처럼 字典이란 명칭 대신 ‘字源’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도 있다.

사전의 경우에는 ‘大’자를 붙인 경우가 더 많다. 1963년에 동아출판사 편집부가 편하고 동아출판사에서 『한한대사전』을 출판하였고, 1965년 장삼식에 의해 『대한한사전』이 省文社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1982년에 동아출판사에서 『한한대사전』을 출판하였고, 1998년에 대한한사전편찬실 편 『교학 대한한사전』이 (주)교학사에서 출판되었다. 또한 『韓·日·英·中 兼用 한한대사전』도 장삼식 편으로 범우사에서 1992년에 출판되었는데 이들은 수록 한자의 방대함에 자해, 어휘의 상세함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국대학교에서 1999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간행된 15책의 『한한대사전』이 가장 거절이다. 반면 『교육부 선정 교육용한자대사전』처럼 1781字만으로 만든 사전에도 ‘大’자를 붙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대사전이라고 하기에는 나머지 사전에 비해 작은 편이다.

옥편/자전과 사전 류에 ‘中’자가 붙은 경우는 많지 않다. 조사한 방에 의하면 1985년에 장삼식 편자로 집문당에서 출판된 『실용 중옥편』과 1987년 동아출판사편집국 편으로 동아출판사에서 출판된 『동아 한한중사전』이 있다. 『실용 중옥편』은 속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진 못했지만 인쇄를 축색하여 책의 크기가 작아졌을 뿐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책의 크기로 大와 中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동아 한한중사전』은 서문에서 “동아출판사에서 1982년에 펴낸 한한대사전은 우리 나라 한자 사서 출판사상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나, 학문적인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양적인 팽창과 재재의 세분화가 불가피하여, 일반인의 일상적 활용면에서는 거추장스러움의 불편을 면할 길이 없어 <중략> 이 한한중사전은 한한대사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중사전으로서의 또 다른 특색을 가미하여 새롭게 엮은 것으로서 약 15,000의 표제자를 정선하여 수록하였으며 10만에 이르는 많은 例語를 보임으로써 활용에 많은 도움을 주게 하였다.”<sup>17)</sup>라고 밝혔듯이 약 26,000자와 135,000개의 예어를 줄여 만든 것이다.

경우에는 중사전이라는 명칭을 달지는 않았지만 중사전 정도의 크기인데 대사전의 내용을 줄이고 한사전 혹은 한한사전 등으로 명명한 것도 있다.

소사전은 특별하게 소사전이라는 명칭을 달지는 않았지만 책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페이지가 적으며 수록 한자의 수 역시 적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별하게 소사전이라고 명칭을 단 것은 이상사 편집부 편 『(간결) 한한소사전』으로 1975년에 이상사에서 발행하였다.

크기로 따지면 소사전에 속하겠지만 학습용 사전으로 1996년에 만들어진 민중서림 편집국의 『초·중생을 위한 엡스 기초 한자 사전』의 경우는 중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모두 수록하고 초등학교 교육에 알맞은 450자를 가려서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문교부 선정 교육한자

15) 유한사서편집부(2000), 『활용대옥편』, 도서출판 유한.

16) 홍자출판사편집부 편(1983), 『國漢 最新大字典』, 민중서림.

17) 동아출판사 편집국(1987), 『동아한한중사전』, 동아출판사, 2쪽.



『대사전』 역시 학습용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옥편/자전’ 류의 경우 주로 수록 글자의 수를 가지고 책의 크기를 결정하고 명칭에 ‘大’자를 넣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공구서의 지향점이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많이 팔릴 수 있게 하는 상업적 의도도 들어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공구서 중에서 중사전 급 이하의 크기와 수록한자를 지닌 사전들이 중고생을 위한 학습용 사전으로 그래도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시대적 특성의 반영

공구서의 출간과 내용의 변화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옥편, 자전, 사전류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면모가 조금씩 바뀌었다. 이들 사전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조판이 종조에서 횡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문에 익숙했던 세대에는 모든 서적이 종조였기 때문에 종조가 횡조보다 더 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 한글을 위주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횡조가 눈에 익어감에 따라 종조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니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만에서 출판된 것과 대륙에서 출판된 것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중문대사전』처럼 종조로 되었던 것이 『한어대사전』에서는 횡조로 바뀌고 『강희자전』의 경우에도 종조에서 횡조로 바뀐 자전이 출간될 정도로 이미 횡조가 대세를 획득하였다. 우리 사전의 경우에도 초창기 사전의 경우는 대부분이 종조였는데 어느덧 횡조로 된 사전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전류는 대부분 횡조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사전의 크기도 매우 다양화하였다. 초창기 작은 사전의 경우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대사전의 경우 4·6배판의 크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에 더 나아가 책의 크기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옥편 또는 자전이라는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자전에 가깝다기보다는 사전류에 가까운 공구서가 많이 출판되었다는 점도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공구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듯이 이미 자전만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우리에게 한문을 둘러싼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 학생들의 한문적 수준이 자전만 가지고 한문을 공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사전류의 공구서가 많이 이용되고 다양한 사전류가 출판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필요에 맞는 공구서가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한자 한문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초·중생을 위한 엷센스 기초 한자 사전』과 『문교부 선정 교육한자대사전』, 『(교육부 신지정 기초한자 1800자) 형음의 자전, 상·하』는 교육용 한자라는 명확한 기준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전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전과 자전, 옥편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위에서 언급했던 자전들도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사전도 계속 나오고 있다. 어떤 서점에 가면 대세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영어사전보다 한자 관련 사전과 옥편 등을 더 많이 전시해 놓은 곳도 있다.

### 3. 한문 학습 사전의 특징

#### 1. 한문 학습 사전

위에서 한자 관련 공구서 일반에 대하여 소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했던 옥편, 사전, 자전 등이 모두 학습용이 아닌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범위를 좁혀 『문교부 선정 교육한자 대사전』, 『민중활용옥편』, 『표준 신교육한자사전』, 『초·중생을 위한 엡센스 기초 한자 사전』, 『동아 백년 옥편』, 『민중 엡센스 한자사전』, 『가나다 활용옥편』, 『라이브 훈+ 한자사전』, 『동아 실용 옥편』 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사전의 특징은 크기와 분량 면에서 다른 사전들에 비해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학습용 사전이라고 명명된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이들 분량 정도의 사전이 학습용 사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교부 선정 교육한자 대사전』은 1972년 교육부가 선정 공포한 교육용기초한자 1,781자로 만든 것이다. 이 사전은 부수를 분간하기 어려운 문자는 찾기 쉽도록 원래의 부수 외에 찾아볼 가능성이 있는 부수에도 모두 수록하고 정자가 수록된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는데 있다.(예: 行…彳部 三畫 行→行部 (1396))<sup>18)</sup>

『민중활용옥편』은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부수, 국어 어휘에 쓰이는 한자, 한문의 고전 독해에 필요한 한자, 일상 생활에 흔히 쓰이는 약자·속자 및 본자를 표제자로 하고 일상 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 표제자를 첫 자로 하는 속어를 추려서 수록하였다. 그리고 표제자의 배열은 『강희사전』에 따라 부수순 획수순으로 하였으며, 같은 획수일 경우에는 자형상 그 소속 부수가 놓인 차례 와 冠·偏·旁·脚의 차례로 배열하였다. 필순의 경우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대하여 표시하였으며 자해에는 훈과 음을 고딕체로 하고 비슷한 뜻을 한자로 나타내어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육서로 문자의 구성을 표시하고 자원을 간결하게 해설하였다.<sup>19)</sup>

『표준 신교육한자사전』은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부수자 214자, 한문 교과서에 나온 글자 405자, 그밖에 필요한자 217자 포함 2,636자를 표제자로 수록하고 한문교과서에 나오는 일반 한자 말과 고사·성어를 비롯하여, 한문 공부에 필요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명·지명·책명·관직명·동물명·식물명 등 약 35,000개의 어휘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와 그 밖의 한자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四聲을 표기해 놓았다.<sup>20)</sup>

『초·중생을 위한 엡센스 기초 한자 사전』은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모두 실고 초등학교 교육에 알맞은 450자를 가려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표제자는 『강희사전』에 따라 부수순, 획수순으로 하

18) 최근학 편저(1979), 『교육부 선정 교육한자대사전』, 대호출판사, 4~5쪽.

19) 민중서림 편집국(1983), 『민중 활용옥편』, 민중서림, 1~5쪽.

20) 교학사 사서부 편(1990), 『표준 신교육한자사전』, 교학사, 1~4쪽.

였으며, 부수와 필순, 글자의 변천 등을 표시해 놓았다.<sup>21)</sup>

『동아 백년 옥편』은 『새한한사전』을 보완하고 판형을 탁상판으로 키운 사전이다. 이 사전은 사전 이용의 생활화를 위한 폭 넓고 알찬 내용 수록, 한자의 계통적 파악을 위한 체계적 정리, 한자어·성구의 정확하고 친절한 풀이,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다양한 참고 자료 제시(중국의 음, 간체자, 고전적 예문, 도판 등)를 목표로 교육부 선정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 신문 및 일반 정기 간행물의 해독에 필요한 한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한문 고전의 해독에 필요한 한자 등을 수록하였으며, 표제자의 배열은 『강희자전』에 따라 부수획수 순으로 하고 같은 부수에 딸린 표제자로서 획수가 같은 것은 자음의 한글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해자란에는 자원의 내용에 있어 표제자의 구성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육서를 밝히고 그 글자의 짜임과 발전 과정을 도형 등으로 풀이하였으며, 자해의 내용은 뜻 갈래와 음 혹은 운이 다른 것은 구분하여 연번호로 나타내었다.<sup>22)</sup> 이 사전은 ‘옥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전’의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다.

『민중 엡센스 한자사전』은 발행될 당시의 각급 학교 국어 한문 교과서는 물론 四書 등을 비롯한 고전에 나오는 한자들에 대하여 『강희자전』에 따라 부수순·획수순으로 표제자를 배열하고 같은 획수일 경우에는 자형상 그 소속 부수가 놓인 차례(冠·偏·旁·脚)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리고 표제자에 운목을 표시하고, 중·고·인명용 한자를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교육용한자와 인명한자, 부수한자 등에는 필순을 제시하였으며, 자해는 훈과 음을 고딕체로 표시하고, 자원은 육서를 나타낸 다음 상형과 지사자는 자원을 간결하게 해설해 놓았다.<sup>23)</sup> 이 책은 ‘사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 내용은 ‘옥편’ 혹은 ‘자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나다 활용옥편』은 2001년부터 적용된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한문 독해에 필요한 고사·숫어·성구·어구 등 8,000여자를 표제자로 하고, 표제자의 배열을 기존의 부수·획수순에서 탈피하여 가나다·부수·총획순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용 한자에 대해서는 필순과 한자의 자원을 풀이하여 제시하였으며 중국의 음과 해당한자의 영역어를 함께 실어놓았다. 그리고 교육용 한자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자해와 자원을 상세하게 풀이하였으며 이들 한자에 대하여 필순을 제시하였다.<sup>24)</sup>

『라이브 훈+ 한자사전』은 국립 국어원에서 조사한 한자 어휘에 사용된 한자 3,069자를 기초로 한·중·일·북한의 교육한자, 국가공인 한자검정기관 배정한자, 국가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자, 사서삼경 등의 중국 고전, 고사성어 등에 사용된 한자 7,400여자를 추출하고 약자·속자 등을 망라하여 7,899자를 표제자로 구성하였으며, 운자와 사성, 중국 발음과 함께 각종 자체를 수록하고 교육용 한자의 경우에는 중·고 표시와 함께 육서를 색을 달리하여 처리하였다.<sup>25)</sup>

21) 민중서림 편집국(1996), 『초·중생을 위한 엡센스 기초 한자 사전』, 민중서림, 3~4쪽.

22)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1997), 『동아 백년옥편』, 2~6쪽.

23) 민중서림 편집국(1999), 『민중 엡센스 한자사전』, 민중서림, 2~4쪽.

24) HW어문연구회편(2002), 『가나다 활용옥편』, 해원출판사, 2~5쪽.

25) 한자사전 편집위원회(2007), 『라이브 훈+ 한자사전』, 성안당, 1~6쪽.

『동아 실용 옥편』은 표제자의 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 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 한자, 국어 어휘에 많이 쓰이는 한자 및 교양 한문 독해에 필요한 한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한문 고전 해독에 필요한 한자로 정하고 선정하였다. 그리고 표제자의 중국음 및 간체자를 제시하고 교육용 한자와 주요 표제자에 대하여 그 구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六書를 밝히고 글자의 짜임과 어원을 풀이하였으며 자해의 내용에 있어서도 의미별, 음과 운별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sup>26)</sup> 이 사전 역시 ‘옥편’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한자와 표제어를 같이 수록한 것으로 ‘사전’의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전에서 표제용 한자의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와 인명용 한자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 한자, 국어 어휘에 많이 쓰이는 한자 및 교양 한문 독해에 필요한 한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한문 고전 해독에 필요한 한자’는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2. 특징적 면모

위에서 몇 종의 사전에 대하여 대략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전들이 지닌 특징은 무엇인지 고찰하여 향후 학습용 사전이 지향할 바를 고민해보기로 한다.

### 1) 표제자 선정과 배열

위의 사전 개관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표제자 선정의 원칙과 배열을 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제자 선정	표제자 배열
『문교부 선정 교육한자 대사전』	문교부 선정 교육용 기초한자 1,781자.	자획 및 표제자의 배열은 『강희자전』을 따름.
『민중활용옥편』	중·고 교육용 기초한자, 부수자 국어 어휘에 쓰이는 한자 한문의 고전 독해에 필요한 한자 약자·속자 및 본자 약 6,235자	부수, 획수순으로 『강희자전』에 의거하여 배열 같은 부수 같은 획수는 부수의 위치(冠·偏·旁·脚)로 배열 중·고 교육용 한자 구별
『표준 신교육 한자사전』	교육용 한자 1,800자 부수자 214자 한문 교과서에 나온 글자 405자 그 밖에 필요한자 217자 도합 2,636자	한문교과서에 실린 부수의 갈래와 순서 부수, 획수, 음 순 중·고 교육용 한자, 한문교과서, 일상생활 한자 구분
『초·중생을 위한 엡센스 기초 한자 사』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초등학교용 450자는 자세하게 풀이	『강희자전』에 의거하여 부수, 획수 순 배열 같은 획수는 음 순으로 배열

26)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7), 『동아 실용 옥편』, 두산동아, 2~6쪽.

전』		표제자 구별
『동아 백년 옥편』	교육부 선정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 신문, 일반 정기 간행물 해독 필요 한자 한문 고전의 해독에 필요한 한자	『강희자전』에 의거하여 부수, 획수 순 배열하고 같은 부수 같은 획수는 자음의 한글 자모음 순
『민중 엡센스 한자사전』	각급 학교 국어·한문 교과서 四書를 비롯한 고전	『강희자전』에 준거하여 부수 획수순 같은 부수 같은 획수는 부수의 위치(冠·偏·旁·脚)로 배열 중·고 교육용 한자, 인명용 한자 구분
『가나다 활용 옥편』	2001년 개정 교육용 한자 1,800자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국어 어휘, 교양 한문 독해 필요 한자	한글 자모 가나다, 부수, 총획 순 교육용 한자와 이외 한자 구분
『라이브 ㅎ + 한자사전』	국립국어원 조사 한자 어휘에 사용된 한자 3,069자 한·중·일·북한의 교육한자 국가공인 한자검정기관 배정한자 국가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자 사서삼경 등의 중국 고전, 고사성어 등에 사용된 한자 7,400여자 약자·속자 등을 망라 7,899자를 표제자로 구성	부수 획수순 배열 교육용 한자는 강조체로 구분 중·고 교육용 한자와 육서는 별색 처리
『동아 실용 옥편』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 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 한자 국어 어휘 한자, 교양한문 독해 필요 한자 한문 고전 해독에 필요한 한자	『강희자전』에 준거하여 부수획수순으로 배열 같은 부수 같은 획수는 자음의 한글 자모음 순

위의 표에서 보듯 표제자 선정은 사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수록 한자의 수 역시 사전마다 각기 다르다. 다만 『표준 신교육 한자사전』처럼 한문교과서에 실린 부수의 갈래와 순서를 기준으로 표제자를 배열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표제자의 배열은 대부분의 사전에서 주로 『강희자전』을 준거로 부수 획수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표제자의 배열도 자세히 살펴보면 출판사마다 차이를 알 수 있다. 대체로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부수와 부수의 위치에 따른 배열과 부수와 자음순에 의한 배열이 그것이다. 한자를 전혀 알지 못할 경우에는 부수와 부수의 위치에 따른 배열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수를 찾고 같은 부수의 획에서는 부수 위치의 冠·偏·旁·脚에 따라 글자를 찾아가는 방식이 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수반된다면 한자의 음을 대충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한글자모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글자를 찾기에 편리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자의 배열이 부수 획수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같은 부수 같은 획수에서는 한글 자모음 순으로 배열한 경우가 있게 되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한자를 배열한 사전까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 해자란의 구성

각 사전들이 해자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그 특징적인 면모는 무엇인지 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자란 구성
『문교부 선정 교육한자 대사전』	원음과 속음이 다른 경우에는 속음을 제시 둘 이상의 독음은 자의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이는 음순으로 제시하고 뜻이 다른 경우에는 빈도수로 독음의 순위를 정함. 필순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필순을 제시.
『민중 활용 옥편』	총획, 부수, 음, 훈, 운목, 사성 일본어 음·훈, 초서체 교육용 한자의 필순 제시 육서와 자원 제시 참고란에 본자·약자와 속자 및 본음 등 참고 사항 설명 주의란을 두어 혼동하기 쉬운 한자를 제시하여 분간할 수 있게 함.
『표준 신교육한자사전』	부수, 획수, 훈, 음, 장단음 표시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한자 구별 외국음은 중·영·일 순으로 음과 훈 제시 사성 표시, 필순 제시하고 해서체를 본보기로 보임. 참고란을 두어 속자·약자·통자·동자·고자·역자·대용자·국자 등 표시 부수와 획수가 어려운 것에는 검색용 표제자를 제시하여 사전 찾기에 편하게 함
『초·중생을 위한 옛센스 기초한자사전』	부수, 획수, 총획, 훈과 음 글씨체로 해서체 제시 부수 명칭과 부수를 제외한 획수를 표시하여 사전 찾기 지도에 편리하게 함 필순 제시 육서와 자원 표제자에 따라 자체 변천과정 제시
『동아 백년 옥편』	부수를 제외한 획수, 총획 훈음, 사성과 운통 제시 표제자의 중국음과 간체자 본자, 동자, 고자, 속자도 표제자로 올리고 관련 표제자의 연수를 밝힘 잘못알기 쉬운 부수의 글자도 아울러 싣고 올바른 부수와 연수를 밝힘 현대에 쓰이는 글자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글자 구분 육서와 자원 제시 참고란에는 자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다양한 자형을 제시 뜻 갈래에 따라 연번호로 제시
『민중 옛센스 한자사전』	부수 획수, 총획 현대에 쓰이는 글자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글자 구분 운목과 사성 표시 필순 제시 훈음과 한자어 용례 및 출전 제시 육서를 밝히고 상형이나 지사의 경우 자원 해설 참고란에 본자·약자·동자·속자 등을 밝힘
『가나다 활용옥편』	부수 획수 총획 훈 음, 중국음, 영역어. 필순 제시 자해 간단하게 용례 없이 제시 자원 풀이
『라이브 ㅎ』	부수 제외 획수, 부수, 총획

한자사전	간체자 병기 운자와 사성 표시 뜻풀이는 한글과 함께 한문을 표기 각종 자체 명시 교육용 한자 육서 표시
『동아 실용 옥편』	부수 제외 획수, 총획, 훈 음, 본음과 관음음 사성과 운통 중국어 및 간체자 현대에 쓰이는 글자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글자 구분 한자능력시험 급수 약호 표기 일본어 독음 필 수 제시 육서와 자원 풀이 소전·초서·본자·동자·속자·고자·갓은자 등 각종 이체자 제시 뜻 갈래에 따라 하해 제시

위 표를 보면 각 사전 간에 수록 내용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출판사에서는 사전의 판매를 고려하여 다양한 내용을 싣고자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각 사전의 해자란 구성에 있어 비교적 공통점을 지니는 부분은 부수, 획수, 총획, 훈음의 제시, 글자 뜻풀이 정도이고 나머지 수록 내용은 사전마다 들쭉날쭉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육용 한자임을 고려하여 육서와 자원을 제시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필수와 함께 자체 변천과정까지 다양한 내용을 수록해 줄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일본의 훈음과 영역어까지 수록하여 사전 한권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을 넣으려 한 것도 있다. 이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꼭 집어 한문 학습용 사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는 교육용 사전이라고 표제를 달고 나온 사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표준 신교육한자사전』은 중·영·일 순으로 음과 훈 제시하기도 하였다. 『문교부 선정 교육한자대사전』과 『초·중생을 위한 엡센스 기초 한자 사전』은 한문과에서 보면 학습용으로 분명하게 목표를 정한 것이기에 그나마 한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에 대하여 익혀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자해에 있어서도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자해란을 가지고 설명하기로 한다.

<p>『라이브 훈+ 한자사전』</p> <p><b>七 [칠]</b> 1-1:2 ㉠質 qī シチ, ななつ seven ①일곱 칠(數名). ②글체 이름 칠(文體名).</p> <p>字源 小篆 草書 指事</p>	<p>『가나다 활용옥편』</p> <p>大 6 ⑨ <b>契</b></p> <p>맺을 계   qiè 애쓸 절   qiè 나라이름 글   xiè 사람이름 설   contrat</p> <p>≡ 丰 初 契 契 契</p> <p>① 맺다. 계약을 맺음, 계약서. 문서, 자르다, 땀, 새기다. ② 애쓰다. ③ 나라 이름, 부족 이 름. ④ 사람 이름(은나라 왕조 의 시조).</p>
<p>『동아 실용옥편』</p> <p>5 <b>[作]</b> ①지을 작 藥 ⑦ ⑦ <b>[作]</b> ②만들 주 ㊸자 圖 중학 인명 6급 ㊹zuò ㊺サク, サ 필순 ノ イ ヲ 什 竹 作 作 소전 𠂔 𠂔 초서 𠂔 참고 인명용 음은 ‘작’ 이 다.</p> <p>자원 會意. 人 + 乍 → ‘乍(사)’는 바느질하 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서 ‘짓다’라는 뜻이 나왔다.</p> <p>자해 ① ① 짓다. 『書經』若作酒醴약작주례, 爾 惟麴蘖이유곡열. ② 처음으로 하다. 『論語』述而 不作술이부작. ③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管子』 夜寐蚤作야매조작. ④ 일어서다, 『論語』雖 少者必作수소자필작. ⑤ 만들다. = 做.</p>	<p>『민중 엿센스 한자사전』</p> <p>手 8 <b>[接]</b> 11 ㉠접 ㉡葉 jiē セツ まじわる</p> <p>筆順 - 扌 扌 扩 扩 接 接 接</p> <p>字解 ①사절집 교차함. ‘交一’, ‘兵不一刃’ 《呂氏春秋》. ②모일집, 모을집 회합함. 회 합하게 함. ‘偃兵一好’《國語》. ③이을집 ㉠ 이어 맞춤. ‘一合’, ‘一骨’. ④이어받음. 계 승함. ‘漢興，一秦之弊’《史記》. ⑤연함. 잇 닿. ‘一續’, ‘水光一天’《蘇軾》. ⑥계속함. ‘一踵’, ‘堂上一武’《禮記》. ⑦접할집 이어서 당음. 인접(隣接)함. ‘州一夜郎諸夷’《唐 書》. ⑧가까이할집 가까이 감. ‘一近’. ⑨ 대접할집 대우함, ‘一待’. ‘一客’. ⑩접붙일 집 나무에 점을 붙임. ‘一木’. ⑪성접 성 (姓)의 하나.</p> <p>字源 形聲. 扌(手)+妾(音)</p>

눈으로 보기에도 이들 사전은 수록 내용과 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라이브 한자 사전』의 경우 자원을 기입하는 부분에 자체를 수록하였으며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필순이 없으며, 『가나다 활용옥편』의 경우에는 자해 부분에 비슷한 의미를 모두 나열하고 자원을 해설하지 않았다. 『동아 실용옥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해 부분도 매우 상세하게 하였고 한자의 용례와 출전을 제시하였다. 『민중 엡센스 한자사전』은 자해를 매우 자세하게 한 반면 자원에 옥서만 표현해 놓았다. 이처럼 사전마다 각각 수록하고 있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 3) 표제어 해설

그러면 이들 사전이 표제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가? 역시 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제어 구성
『문교부 선정 교육한자 대사전』	<p>일상 사용하는 고사·속어·성어·성구 중에서 기초 한자 외 한자가 1자 이내 들어 있는 어휘</p> <p>다음 법칙 적용</p> <p>어휘 배열은 한글 자모 순</p> <p>음독·해석·출전·용례·반의어·동의어까지 수록</p> <p>어휘의 유래 국가표시</p>



『민중 활용 옥편』	표제어 배열은 한글 자모 순, 같은 음일 경우에는 획수 순 풀이 참고 속어로 말 끝에 표제가가 나오는 어휘 제시
『표준 신교 육한자사전』	표제어 배열은 한글 자모 순, 같은 음일 경우에는 획수 순 불교 용어는 속음과 함께 제시 속어의 일본음 참고 속어로 속말 끝에 표제가가 나오는 어휘 제시
『초·중생을 위한 엡센스 기초 한자 사전』	표제어 배열은 한글 자모 순, 같은 음일 경우에는 획수 순 초등학생·중학생의 지적 정서에 맞는 속어 뜻풀이는 간략하게 하고 갈래가 여럿일 때는 연번으로, 동의어와 반대말은 기호로 표시
『동아 백년 옥편』	표제어 배열은 한글 자모 순, 같은 음일 경우에는 획수 순 참고 속어로 속말 끝에 표제가가 나오는 어휘 제시 뜻풀이는 간략하게 하고 갈래가 여럿일 때는 연번으로 제시 동의 어와 반대말은 기호로 표시 그림 도판 등을 해당 항목에 곁들여 제시 전문 용어 표시
『민중 엡센스 한자사전』	표제어를 잡지 않음. 글자의 용례 제시
『가나다 활용 옥편』	표제자의 뜻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휘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어, 고사, 성어, 시구 표제자 배열은 한글 자모 순
『라이브 한자사전』	단어·속어·고사성어의 풀이는 직접적인 풀이뿐만 아니라 유의어·반대어까지 수록 단어 해설에 국한문 병기
『동아 실용 옥편』	표제어 배열은 한글 자모 순, 같은 음일 경우에는 획수 순 뜻풀이는 간략하게 하고 갈래가 여럿일 때는 연번으로 제시 고사성어 표시

표에서 보듯 표제어의 선정 역시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공통점은 표제어를 한글 자모순으로 하고 같은 음일 경우에는 획수 순으로 한다는 것이다. 수록 내용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민중 엡센스 한자사전』의 경우 사전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표제어는 수록하지 않아 옥편이나 자전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 옥편, 자전, 사전류에 대해 거칠게나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사전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보다 편리한 학습용 한자 사전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자 사전은 시대의 흐름상 옥편 혹은 자전보다는 사전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옥편이나 자전 류에 수록된 내용만을 가지고 학습하기에는 현재 학생들의 자해의 풀이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설령 한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해당 한자와 결합하여 이

루어진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이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사전에 나름의 특색이 있게 마련이겠지만 학습용 사전이라고 할 때에는 일정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사전이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수록 한자와 내용의 편차는 사전을 편찬자와 사전수요자의 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은 학습용 사전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것을 보여주어 사전 이용에 부족한 점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 때문에 보다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할 것이고 학습용 사전이라고 할 때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부수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문 학습 사전과 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전에 수록할 한자는 엄정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자원이 한자를 익히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한자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담아야 할 것이다.

3. 한자의 뜻풀이에 있어 너무 번잡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학습용에 적합한 정도의 풀이에서 멈추어야 할 것이다. 글자의 뜻이 많다고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늘어놓다보면 잘 쓰이지 않는 의미까지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문가용 사전에서 다루기로 하고 적어도 학습용 사전이라면 많이 쓰이는 의미 정도만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표제어의 선정 역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까지 표제어로 선정하고 풀이한다면 이는 국어사전의 영역이지 한문 학습용 사전이 담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자를 찾았을 때 한문에서 주로 쓰이는 어휘를 수록하고 풀이하는 것이 학습용 사전에 걸맞을 것이다.

학습용 사전이 전문가용 사전과 구분되어 학생들이 사전에 눌러 학습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왕 학회에서 학습용 사전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면 바람직한 학습용 사전을 편찬해 보는 것도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전일주(2002), 『최근세 한국 한자사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 이충구(1994), 『한국사전의 실상』, 『한국학논집』2,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윤희백 편(1975), 『理想大玉篇』, 理想社.
- 장삼식(1976), 『실용대옥편』, 집문당.
- 윤선량(1976), 『현문대옥편』, 현문사.
- 흥문도서편집부(1978), 『흥문대옥편』, 흥문도서.
- 松亭 金赫濟 · 桂山 金星元 편저(1984), 『명문한한대사전』, 명문사.
- 편집부(1988), 『종합대옥편』, 양문출판사.
- 春園(1990), 『강희대옥편』, 금성문화사.
- 유한사서편집부(2000), 『활용대옥편』, 도서출판 유한.
- 홍자출판사편집부 편(1983), 『國漢 最新大字源』, 민중서림.
- 동아출판사 편집국(1987), 『동아한한중사전』, 동아출판사.
- 최근학 편저(1979), 『교육부 선정 교육한자대사전』, 대호출판사.
- 민중서림 편집국(1983), 『민중 활용옥편』, 민중서림.
- 교학사 사서부 편(1990), 『표준 신교육한자사전』, 교학사.
- 민중서림 편집국(1996), 『초·중생을 위한 엡센스 기초 한자 사전』, 민중서림.
-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1997), 『동아 백년옥편』, 두산동아.
- 민중서림 편집국(1999), 『민중 엡센스 한자사전』, 민중서림.
- HW어문연구회편(2002), 『가나다 활용옥편』, 혜원출판사.
- 한자사전 편집위원회(2007), 『라이브 훈+ 한자사전』, 성안당.
-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7), 『동아 실용 옥편』, 두산동아.



## 「국내 한문 학습 사전의 현황과 특징」 토론문

김영주(성균관대)

국내에서 간행된 다종의 옥편과, 사전, 사전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느라 고생하셨을 선생님의 노고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궁금증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 논문의 핵심은 학생들의 한문 학습 의욕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써의 한문 학습용 사전과 전문가용 한문 사전을 구분하여 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제시된 것이 ‘4. 결론’입니다. 선생님이 제시하신 1~4의 내용은 일정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 연구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1~4의 내용에 구체성과 특수성이 결여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1. 사전에 수록할 한자는 ㉠엄정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자원이 한자를 익히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한자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담아야 할 것이다.
3. 한자의 뜻풀이에 있어 너무 번잡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학습용에 적합한 정도의 풀이에서 멈추어야 할 것이다.
4. 표제어의 선정 역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까지 표제어로 선정하고 풀이한다면 이는 국어사전의 영역이지 한문 학습용 사전이 담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자를 찾았을 때 ㉦한문에서 주로 쓰이는 어휘를 수록하고 풀이하는 것이 학습용 사전에 걸맞을 것이다.

위의 ㉠~㉥은 구체성의 결여에 관한 부분이고, ㉦~㉨는 한문교과의 특수성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사전에 수록할 한자, 내용 설명의 범주 등은 엄정한 기준이나 충실한 설명,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례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선정할 수 있을까요? 한문 교육용 한자 사전이 학습용에 적합한 정도의 풀이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학습용’이라 할 때, 그 범주를 한문교과에만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고교 일반 교과의 학습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2. 국내 한문 사전의 현황’, ‘3. 한문 학습 사전의 특징’ 등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에 간행된 한문 사전류의 표제자의 선정, 해자란의 구성, 표제어의 해

설 등이 공통적인 기준 없이 대체로 출판사의 임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대상으로 삼은 한문사전들이 시기의 구분이나 교육용 혹은 일반인용 등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어 본 연구 논제를 통해 도출할 학습용 한문사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조금 부적합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한문사전의 역사를 고구하여, 제일 처음 간행된 한문사전부터 지금까지 간행된 한문사전류에 관한 사적인 구성을 통해 교육과정별, 시기별, 혹은 초판과 개정판 사이의 변화 양상 등등을 분석하여 또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한문 교과 학습에 있어서 한문 자전의 활용

조영호(정신여고)

- 
1. 머리말
  2. 자전 확보의 문제
  3. 자전 활용의 요점
  4. 자전 활용 학습 활동
  5. 자전 활용의 효과
  6. 맺음말
- 

### 1. 머리말

‘백 번 책을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讀書百遍義自見].’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일정한 성취에 이르는 주체적인 독서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 한문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단순히 다독을 강조하는 독서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독서 백편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요즘의 학생들에게 義自見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주체적 독서법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순한 반복 학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자전 활용 학습이다. 자전 활용 학습이란 교사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며 학습자 스스로 자전을 활용하여 어휘를 익히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2009 교육과정도 한문 학습에서 자전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자전은 한자, 어휘, 문장뿐만 아니라 고대의 문화 상식이 두루 수록된 한문 학습의 보고이다. 자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지고 교사는 수업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전 활용을 다룬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수업과의 연계 없이 자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 것<sup>1)</sup>과 협동 학습에서 자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 것<sup>2)</sup>이 있는 정도이다. 본 고

---

1) 이의강(2012).

또한 본격적으로 전개될 자전 활용 연구의 시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 2. 자전 확보의 문제

자전 활용 수업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자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년 초 자전 보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통 한 학급 38명중 3명 정도만 자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업에 사용할 교재는 학생이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만원 내외의 자전 구입비를 학생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전을 부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학생의 개별 구입이 어렵다면 한문 교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전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매년 지급되는 교과 운영비의 일부로 자전을 구입하면 한문 교과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이 확보된다. 첫째 80여 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면 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구입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학교 도서구입비의 일부를 자전 구입에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수업에 필요한 도서라는 당위성을 내세우면 학교에서는 교과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학교 차원에서 자전을 구입하여 도서관에 소장하고 한문과는 도서관에서 대여하여 수업에 사용하면 된다. 타 교과에서 자전을 대여해 가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학교와 학급 실정에 맞추어 학생 개인이 보유한 자전, 또는 한문 교과나 도서관에 비치된 자전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자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전자사전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전자 기기는 자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스마트폰과 전자사전은 필기 인식 기능이 있어서 필요한 한자를 찾는 데 편리하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사진을 찍어 영상으로도 한자를 검색할 수 있다. 실상, 학생들이 자전을 이용하여 모르는 한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음을 모르는 한자는 애초 자음색인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총획색인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획수에 해당하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다. 부수색인이 있기는 하지만 초학자의 입장에서 부수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고 한자에 따라 부수가 애매한 경우도 많다. 자전 활용 수업 초기 단계에서는 전자 기기의 활용을 검토해 볼만 하다.

## 3. 자전 활용의 요점

일반적으로 자전은 표제자와 표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자는 획수, 필순, 자해, 자원, 용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제어는 독음, 의미, 挿圖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전의 이러한 구성 요소는 한자 어휘와 문장 학습은 물론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학습 요점을 알아본다.

---

2) 송병렬(2006).



## (1) 어휘 학습

한문과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는 교육용 기초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히는 것이다. 한자는 한문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과서 본문에 사용되는 한자는 교육용 기초 한자 수에 훨씬 못 미친다. 문장과 연계되지 못한 나머지 기초 한자들은 대부분 모양이 비슷한 한자, 음이 비슷한 한자, 뜻이 비슷한 한자 등으로 열거되거나 단어 또는 예문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와 같이 단순하게 나열된 한자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전이다. 자전 활용 어휘 학습은 교육용 기초 한자에 해당하는 자전의 표제자와 표제어를 대상으로 한다.

### 1) 표제자

자전에서 표제자는 字解와 字源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자해는 표제자의 자의와 예문 및 출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자 학습에 있어서 핵심은 자해에 소개된 다양한 의미와 여러 가지 음을 파악하는 데 있다. 특별히 자전은 음과 뜻이 다른 경우에 ■, ■, ■ 등으로 구별하고 있어 다의어와 多音字를 학습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교과서가 한자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충실히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예문과 출전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학습에 불편이 따른다.

표제자 학습의 또 다른 핵심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전에서 자원을 설명하는 방식은 한자의 짜임, 서체의 변화, 한자의 본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전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본의와 파생의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 자전도 있다. 한자의 자원과 서체의 발전을 통해 한자의 원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의미의 변화를 학습하는 것은 한자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자전은 자원 학습법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sup>3)</sup>

### 2) 표제어

표제어는 표제자가 사용된 어휘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표제자로 시작되는 어휘들은 음과 뜻을 제시하고, 표제자로 끝나는 어휘들은 단어만 배열하고 있다. 표제어는 표제자의 활용도를 높인 것으로 표제자와 그 외의 다른 한자를 결합하여 2음절 이상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어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사자성어 등도 소개하고 있어 어휘의 활용이 광범위하다. 표제어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표제자의 여러 가지 의미가 표제어에서 각각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다. 그러나 현행 자전에서는 자전 특유의 의미 분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단어의 뜻을 축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표제자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표제자의 여러 가지 뜻을

3) 다만, 자전은 자의를 평면적으로 배열하고 있어 의미의 발전 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문에 풀이가 없는 한계가 있다. 한자의 짜임이나 자원 설명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결점이다.

고려하여 각각의 의미항에 해당하는 어휘를 배치하지 않고 가나다순을 따르고 있어 표제자와 표제어의 상관관계를 알기 어렵다. 시판중인 자전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구성 방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廉】 깨끗할 렴 <회의, 형성>

【자】 집(广)의 양쪽 벽면이 하나로 합쳐지는(兼) 모서리. ‘겸(兼)’은 발음 요소를 겸함.

【전】 1. 모서리 → 모나다 → 각이 지다는 뜻에서, 방정(方正)하다 → 반듯하다는 뜻에서, 깔끔하다, 깨끗하다 → 검소하다 → 싸다

2. ‘살필 렴(規)’의 가차자. 살피다

【용례】

① 깨끗하다

·청렴(清廉): 깨끗함.

·염치(廉恥): 깨끗함과 부끄러움. 깨끗해서 욕심이 없고,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낌.

② 싸다

·염가(廉價): 싼 값.

·저렴(低廉): 값이 싼.

③ 살피다

·염탐(廉探): 살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전의 기술 방식을 재구성하여 표제자의 의미 연원과 발전 과정을 밝히고 각각의 의미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예시해 주면 학생들의 연상 능력을 자극하여 어휘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sup>4)</sup>

## (2) 문장 학습

자전은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지만, 문장 학습에 있어서도 훌륭한 안내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전이 만능인 것은 아니다. 영어 번역이 영어 단어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듯이, 한문 번역 역시 한자의 음과 뜻만 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정확한 번역을 하려면 끊어 읽기, 문장 구조, 품사의 활용, 句法, 典故, 문화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자전은 자전의 성격상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전을 활용하여 문장 학습을 할 때는 자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번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오역의 사례를 보자.

4) 필자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등학교 기초 한자 900자 어휘 사전을 만들어 교과서와 병행하여 지도한 경험이 있다. 조영호, 오숙자(2010)

己所不欲 勿施於人

학생 1: 자기의 욕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학생 2: 몸이 바라는 바가 아니면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학생 3: 내가 하고자 할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자전을 이용하여 한자의 뜻을 찾았지만 허사의 쓰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 잘못 풀이하였다. 학생들은 ‘所’가 ‘所+수식어’의 구조로 쓰여, ‘~하는 바(것)’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자전에 나오지 않으므로 교사가 자전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자전에 누락된 문법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人人吾 吾不喜

학생 1: 친하지 않은 사람과 있으면 기쁘지 아니하다.

학생 2: 남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내가 기쁘지 않겠는가?

학생 3: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여기면 자신은 즐겁지 않다.

자전은 ‘人’의 의미를 사람, 백성, 남, 인품, 뛰어난 사람, 사람을 세는 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중에서 ‘사람’과 ‘남’이라는 뜻을 선택하여 번역하였고 결과적으로 엉뚱한 번역이 되고 말았다. 위의 문장에서 人은 ‘남’과 ‘사람답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자전은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뜻으로 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정확한 번역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사는 과제 제시에 앞서 품사의 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자전을 활용하더라도 특정 관용구를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자의 뜻만 가지고 번역하는 경우 오역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不	以	我	爲	貪		知	我	貧	也
아니다	~를	나	여기다	탐내다		알다	나	가난하다	이다.

학생 1: 나는 탐내지 않고,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다.

학생 2: 나는 탐내는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가난한 것을 안다.

학생 3: 내가 탐낸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가난함을 알고 있었다.

한자의 구체적인 뜻을 제시하였으나 학생들은 나열된 단어의 뜻을 조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만

들어 내지 못하였다. ‘以~爲…’ 구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전에는 ‘以’나 ‘爲’ 어느 항목에도 두 글자를 連用하여 숙어처럼 사용한다는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은 교사의 몫이 된다.

자전이 문장 학습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전이 한자의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여 번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법적 지식이나 문장 연습을 위한 예문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전의 활용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자전을 문장 번역 수업에 활용할 때는 교사가 허사의 쓰임이나 품사의 전성, 관용구와 같이 번역에 필요한 최소의 지식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장 번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전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자전은 문장 학습의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3) 전통문화 학습

자전은 어휘와 문장 학습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동아시아의 문화를 학습할 때도 유용하다. 한자에 이미 고대 문화가 삼투되어 있고 한자 어휘 역시 당대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전에 수록된 한자와 한자 어휘는 그 자체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 자전을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학습할 때는 한자나 한자 어휘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를 추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자전은 ‘班’에 대해서 “칼로 쪼개어 천자가 제후에게 증표의 옥을 나누어 주다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나누다’의 뜻을 나타냄.”<sup>5)</sup>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대 중국에서는 천자가 제후를 임명할 때, 또는 외직에 있는 관원에게 명령을 하달할 때 옥을 둘로 나누어 符節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전은 ‘貫革’에 대해서 “활·총을 쏠 때에 화살·총알을 맞히는 목표. 가죽·날·베 등으로 만들.”으로 풀이하고 있다. 본래 이 말은 군대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할 때, 갑옷을 펼쳐놓고 활 쏘는 연습을 하던 데서 나온 말이다.<sup>6)</sup> 자전이 이런 군사 문화와 관련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녁의 재질을 정확히 기술함으로 무예 전통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활이나 총 따위를 쏠 때 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 또는, 어떤 일의 목표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어 문화적인 사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正鵠’도 마찬가지이다. 국어사전은 정곡을 “과녁의 한가운데가 되는 점, 또는 가장 중요한 요점 또는 핵심.”이라고만 풀이하고 있다. 반면 자전은 “과녁의 한가운데에 있는 점. 正은 布製, 鵠은 革製の 과녁의 점임.”<sup>7)</sup>이라고 풀이하여 과녁의 재질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자전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어야 했다.

5) 민중서림(2010), 1423면.

6) 『禮記』「樂記」: 散軍而郊射, 左射狸首, 右射騶虞, 而貫革之射息也. 孔穎達 疏 - 貫, 穿也, 革, 甲鎧也, 所謂軍射也, 言軍中不習於容儀, 又無別物, 但取甲鎧張之而射, 唯穿多重爲善, 謂爲貫革也.

7) 민중서림(2010), 1138면.

“베에 그린 것을 正, 가죽에 그린 것을 鵠이라고 한다. 大射禮에서는 가죽 과녁을 펴고 가운데 鵠을 그리고, 賓射禮에서는 베 과녁을 펴고 가운데 ‘正’을 그린다.”<sup>8)</sup>

자전 활용 전통문화 학습의 또 다른 요점은 삼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자전은 표제자 또는 속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禮器·樂器·冠服·兵器·天文·建築·船車·雜器 등에 관한 삼도를 해당 항목에 실고 있다.



[盤②]

‘盤’은 자전에서 ① 소반 ② 대야 ③ 대 등으로 뜻을 달아 놓고 있다. 위의 삼도는 ② 대야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대학』의 ‘湯之盤銘’을 예문으로 인용했다. 대야는 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을 말한다. 탕 임금은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악을 제거하는 것을 마치 목욕하여 때를 벗기는 것과 같다고 여겼고, 그런 이유에서 목욕하는 그릇에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라는 말을 새겼다.<sup>9)</sup> 이처럼 삼도를 활용하면 한자 속에 담겨진 고대의 생활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總角⑦]

‘總角’의 경우도 그렇다. 총각은 『시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중국 미성년자들의 헤어스타일을 가리키던 말이다.<sup>10)</sup> 자전은 총각의 뜻을 “아이의 머리를 두 갈래로 갈라 머리 위 양쪽에 뿔처럼 동여맨 것. 전하여 아이. 미성년의 남녀.”로 풀이하고 있다. 총각은 본래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를 함께 이르던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도는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아이가 머리를 양쪽으로 뿔처럼 묶고 있는 모습을 그려 총각의 뜻을 보충하고 있다. 국어사전은 삼도 없이 다만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

8) 『禮記』, 「中庸」: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鄭玄 注 - 畫布曰正, 棲皮曰鵠. 陸德明 釋文 - 正, 鵠, 皆鳥名也. 一曰, 正, 正也, 鵠, 直也, 大射則張皮侯而棲鵠, 賓射張布侯而設正也.

9) 민중서림은 대야를 세숫대야로 해석하고 세숫대야 그림과 탕 임금의 盤銘을 나란히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10) 『詩經』 「齊風, 甫田」: “婉兮孌兮, 總角卅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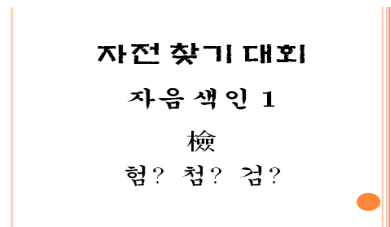
자로 총각의 뜻을 풀이하고 있어 개념 파악이 쉽지 않고 문화적 접근이 어렵다.<sup>11)</sup>

#### 4. 자전 활용 학습 활동

자전을 활용한 수업 사례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않다. 한문 학습의 지침이 되는 교과서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만 자전 찾기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한문 학습에 있어 자전 활용은 학습자의 학습 참여를 높이고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데 효과적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전을 활용한 수업 유형은 개별 활동과 모둠별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자전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자전 찾기 대회’, ‘자전 스피드 퀴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전 찾기 대회는 부수색인, 총획색인, 자음색인을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한자를 가장 먼저 찾는 학생을 선발하는 학습 활동이다. 부수색인법의 승자, 총획색인법의 승자, 자음 색인법의 승자를 선발하고, 각각의 승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한 글자를 제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색인법으로 찾게 한 후, 최종 우승자를 가려 시상하는 것이다. 한자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급적 부수와 획수가 분명한 한자가 좋다. 자음색인의 경우 한자의 음을 모르면 애초에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3개 정도 음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 스피드 퀴즈는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먼저 해결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것이다. 다음은 응용 가능한 주제를 예시한 것이다.

- 가. 교사가 지정한 쪽수의 표제자를 가나다순으로 재배열하고 옮겨 쓰기.
- 나. 교사가 지정한 쪽수의 표제자나 표제어에서 문화적 요소 찾아내기.
- 다. 교사가 지정한 쪽수의 표제어를 이용하여 20자 내외의 문장 만들기.
- 라. 교사가 지정한 한자를 찾아 표제어 5개를 이용하여 끝말잇기.
- 마. 교사가 지정한 한자를 찾아 표제자의 의미항에 따라 표제어를 분류하기.
- 바. 간단한 문장을 제시하고 자전을 이용하여 번역하기.

11) 『표준국어대사전』은 한자어 ‘總角’과 우리말 ‘총각’을 구별하여 ‘總角’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 ‘총각’은 관례 전의 사내아이가 머리를 땋아 묶는 일로 풀이하고 있다.

사. 한자가 들어간 난센스 퀴즈 풀고 해당 한자로 끝나는 말 찾기.

(예) 하늘을 나는 소는? 새우(牛) - 韓牛

아홉 명의 자식을 세자로 줄이면? 아이구(九) - 十中八九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는? 책(冊)피자 - 空冊

모둠별 수업은 학습자의 자전 찾기 능력에 기초한 게임 방식의 협동 학습으로, ‘런닝맨’이나 ‘도전! 골든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런닝맨은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실 수업의 일상성을 탈피할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진행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5명씩 나누어 8개 정도의 모둠을 만들고 모둠별로 자전과 5개의 한자가 적힌 용지를 나누어 준다. 모둠원끼리 협력하여 한자의 음과 뜻을 찾고, 5개의 한자를 모두 찾은 모둠은 교사에게 확인을 받고 상품을 수령한다. 과제를 먼저 해결한 모둠은 다른 모둠에게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걸어, 이기면 상대 모둠의 과제를 대신 해결하고 상품을 획득한다. 아직 자전을 찾지 못한 모둠은 도망 다니고, 이미 자전을 찾은 모둠은 추격하는 동안 긴장감이 높아져 역동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도전! 골든벨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5명 정도로 모둠을 나누고 모둠원끼리 마주 앉도록 책상을 배열한다.
- ② 모둠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정하여 발표하게 한다.
- ③ 번호표가 담긴 주머니를 돌려 모둠별로 한 명씩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한다.
- ④ 번호를 지정하여 해당 학생에게 제시한 한자를 찾게 한다. 만일 혼자 힘으로 자전을 찾기 어렵다면 모둠별로 2회에 한하여 모둠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⑤ 3분 정도 시간을 주고 한자의 음과 뜻을 화이트보드에 써서 들게 한다.
- ⑥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맞힌 학생 수가 많은 모둠별로 순위를 정해 시상한다.

모둠별 자전 활용 수업은 학습자 간의 협동심을 배양하고, 수업참여도를 높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권장할 만하다. 이를 통해 자전 활용이 익숙한 단계에 이르면 교과 수업과 작문 수업으로 자전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다. 교과 수업으로는, ‘한문 번역하기’, ‘한시 번역하기’, 작문 수업으로는 ‘나만의 명언 만들기’, ‘중국인과의 가상 筆談’ 등이 있다. 교과 수업에서 자전 활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① 수업에 필요한 자전, 활동지, 화이트보드, PPT 자료 등을 준비한다.
- ② 모든 모둠원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역을 정한다. 5명이 한 모둠인 경우 자전 찾는 학생 3명, 활동지에 기록하는 학생 1명, 화이트보드에 기록하는 학생 1명으로 구성한다.
- ③ 활동지를 배부한다. 활동지는 교과서 본문을 몇 단락으로 나누고(1차시 당 4단락 정도) 번역에 필요한 도움말이 들어가도록 만든다.
- ④ 정해진 시간(약 7분) 안에 첫 번째 단락을 자전으로 찾아 모둠별로 번역하고 토의를 거쳐 활동지

에 기록하게 한다.

- ⑤ 번역한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옮겨 적은 후 들게 한다.
- ⑥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모둠에게 점수를 준다. 점수는 칠판에 기록하여 모둠의 순위를 공개한다.
- ⑦ 풀이와 번역 순서가 적힌 PPT 자료를 보여주며 오역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활동지에 답을 고쳐 적게 한다.
- ⑧ 본문의 나머지 단락을 대상으로 ④~⑦의 과정을 반복한다.
- ⑨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모둠에게 시상한다.
- ⑩ 모둠별 활동지를 수합하여 확인한 후 복사하여 모둠원에게 나눠준다.

자선 활용 수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의욕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하여 활동지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띄어 읽는 곳을 표시해 주고, 토를 달아 주고, 관용구의 쓰임이나 자 전에 나오지 않는 한자의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뜻이 너무 많은 다의어는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뜻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번역의 일부를 제시하고 빈칸을 채워 완성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한시 번역 수업도 문장 번역 수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한시의 특성상 비유나 상징, 도치나 생략 등의 수사적 표현이 많으므로 해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sup>12)</sup>

중국인과의 가상 필담은 간단한 작문 연습을 통해 한문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를 높이는 학습 활동이다. 다음의 글은 필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에 앞서 소개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 여행 중에도 나는 한자 덕을 톡톡히 보았다. 일단 한자를 쓰는 나라와 사람은 친근하게 느껴지는 데다 특히 중국 오지 여행은 한자를 몰랐다면 재미가 반의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라오스 북부 정글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한자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라오스 쪽으로 몰래 넘어와 살고 있던 중국 아저씨를 만나 필담을 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그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화교들과의 만남도 사석에서 나는 필담으로 시작되었다. …… 시작은 이랬다. "可能 書 漢字?" - 한비아, 『중국견문록』

가상 필담의 방법은 여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중국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꾸며 활동

---

12) 다음은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자전을 활용한 한시 번역 학습 활동이다.

\* 다음 시를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둠별로 해석하고 감상해 보자.

小小山前小小家, 滿園梅菊逐年加.

更教雲水粧如畫, 舉世生涯我最奢. - 정구(鄭逵)

<해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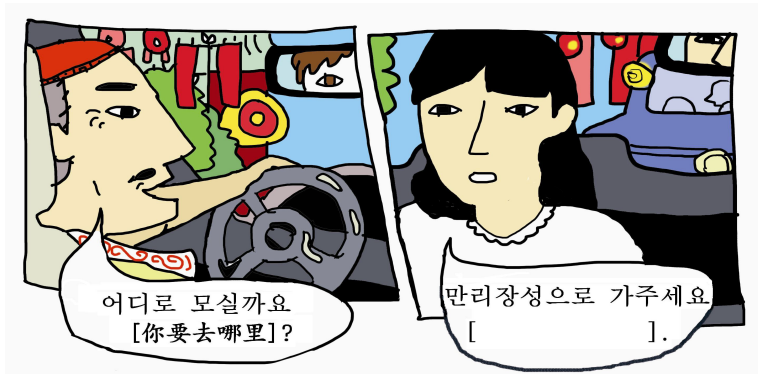
- (1) 자전으로 모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찾는다.
- (2) 4/3, 또는 2/2/3 단위로 끊어서 직역한다.
- (3) 시의 느낌을 살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의역한다.
- (4) 모둠원끼리 돌려보고 수정, 보완한다.



지로 만들고 대화 상자에 들어갈 말을 자전에서 찾아 써 보도록 하는 것이다. 대화 상자에는 단어를 넣어도 되지만, 가급적 어순에 맞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다음은 활동 예제이다.

\* 상황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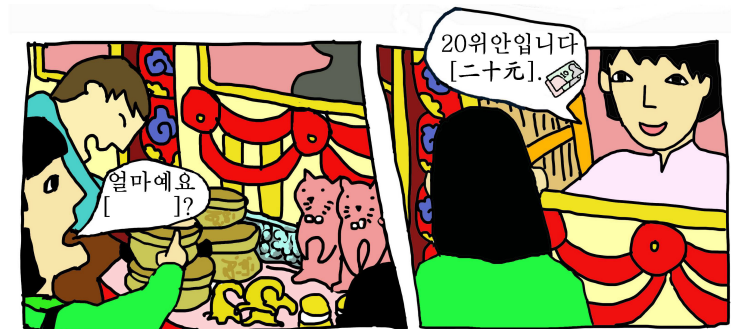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1’은 ‘만리장성으로 가기를 청한다[請(请)去萬里長城(万里长城)]’는 뜻이 되도록 작문하는 문제이다. ‘만리장성’, ‘가다’, ‘청하다’는 뜻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본래 간체자

를 써야하지만 학습의 주안점이 자전 활용에 있으므로 번체자로 쓰게 한다.

‘상황 2’는 ‘화장실’, ‘어디’, ‘있다’는 뜻을 가진 말을 찾아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洗手间在哪儿]?’라는 뜻의 문장을 만드는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한자를 洗手间(洗手间)이나 衛生間(卫生间)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해당 단어를 자전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또한, ‘어디’를 뜻하는 ‘哪儿’은 자전에 나오지 않으므로 ‘何所’로 바꾸어 보게 한다.

‘상황 3’은 ‘얼마’와 ‘돈’을 뜻하는 말을 찾아 ‘돈이 얼마인가[多少錢(钱)]?’라는 뜻의 문장을 만드는 문제이다. ‘얼마’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다면 ‘多’를 검색하여 수량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말을 찾아보도록 힌트를 준다.

가상 필답 수업은 중국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자전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편할 수 있다. 또한, 뜻으로 자전을 찾는 방법은 부수나 음이나 총획으로 찾는 것보다 더 막연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찾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는 틀린 답을 스스로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5. 자전 활용 학습의 효과

자전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을 뒤적이며 한자를 찾는 것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겠지만, 학습자가 자전 활용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자전 사용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전 활용 학습의 효과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자 암기력이 향상된다. 한문 학습 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부수색인이나 자음 색인을 이용하는 일이 쉽지 않고 총획색인을 이용하는 일은 부단한 인내를 요구한다. 그러나 쉽게 외운 한자는 쉽게 망각되고 힘들게 찾아서 외운 한자는 상대적으로 오래 기억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시간을 들여 자전을 찾는 동안 자신이 찾고자 하는 한자가 머리에 깊이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음과 뜻을 모두 알려주고 암기하게 한 경우와 스스로 음과 뜻을 찾아 암기하게 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스스로 자전을 찾아 학습한 경우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sup>13)</sup>

둘째, 다의어 습득에 효과적이다. 주지하듯, 하나의 한자는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지고 있고 문장이나 단어에서 그 쓰임이 다르게 나타난다. ‘行’의 경우만 보더라도 ‘銀行’에서 ‘行’은 ‘가게’라는 뜻이며, ‘行列’에서 ‘行’은 읽기에 따라 ‘차례’, 또는 ‘줄’을 뜻한다. 자전은 한자의 다양한 의미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한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어휘력이 신장된다. 자전에는 표제자로 시작하는 단어와 표제자를 말끝에 가지는 단어로 구성된 수많은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어휘를 보면 상용어는 물론 고사 성어, 격언, 명언 명구<sup>14)</sup> 등을

13) 한문강독반 학생 중 6명을 상대로 5개의 한자(析, 倍, 殊, 掠, 詐)는 자전에서 찾아 외우게 하고, 획수가 같은 5개의 한자(拓, 埋, 辱, 彩, 裕)는 음과 뜻을 알려주고 외우게 하였다. 2주일 동안 부정기적으로 4회에 걸쳐 한자 쓰기 시험을 치른 결과 자전을 찾아 외운 한자의 정답률이 높게 나왔다.

14) 有志者事竟成, 知彼知己百戰不殆 등이 있다.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특수한 뜻을 가진 말,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유명한 작품의 제목<sup>15)</sup>, 역사 인물 등이 수록되어 있어 어휘를 통해 역사에 대한 지식과 한문학 상식을 늘릴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중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용어들과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어휘들은 학습자가 선별하여 학습하면 될 것이다.

넷째, 한문 독해력이 향상된다. 자전은 한자의 다양한 뜻을 열거하고 있어 학습자가 문맥에 맞는 뜻을 선취하며 번역할 수 있다. 한자의 뜻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특수한 전거들은 표제어를 통해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제어는 대부분 주술, 술목, 술보, 수식, 병렬 구조로 짜여있어 문장 구조를 학습하는 토대가 된다. 더욱이 ‘愚公移山’처럼 단어이면서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말들은 그 자체로 문장 독해와 직결된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이해가 확장된다. 언어는 문화의 산물인 만큼 모든 언어는 그 시대의 생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자와 한자 어휘의 의미 연원을 천착하면 그 시대의 독특한 문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제자와 표제어에 반영된 문화 요소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거니와, 자의의 근거가 되는 예문에서도 전통문화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자전에서 ‘點’을 찾으면 ‘문장의 구절 또는 사물 표지로 찍는 작은 표’라는 뜻과 함께 『宋史』의 “凡所讀，無不加標點”을 예문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문의 잘 된 곳에 점을 찍었던 고대의 관습과 더불어 지금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點數’, ‘採點’ 등과 같은 말이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 6. 맺음말

학교 수업이 국영·수·사탐/과탐 중심으로 점점 더 고착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한문 교과는 학생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과목이 아니다. 내신 외에도 체험 활동, 계발 활동, 자치 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과 논술이나 수능 등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한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은 한문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저하시킬 뿐이다. 새로운 수업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요구한다. 자기 주도 학습은 주체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수 방법 중에 하나가 자전 활용 수업이다.

자전에는 한문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 요소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자, 어휘, 문화가 그렇다. 자전 검색법을 장악하고 자전 활용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수업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가 편리하게 활용하고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의 체제와 구성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5) 石壕吏, 蜀道難 등이 있다.

## 참고문헌

두산동아 사전편찬실(1997), 『동아 한한중사전』, 동아출판사.

민중서림 편집국(2010), 『한한대사전』, 민중서림.

김언중, 조영호, 박영숙(2011), 『한문 I』, 교학사.

송병렬(2006), 「協同學習에 따른 漢文科 教授·學習」, 『한문고전연구』 제1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윤조현(2010), 「한문 학습자의 오역 양상 연구」, 『한문학논집』 30집, 근역한문학회.

이의강(2012), 「효율적 자전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한자한문교육』 제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조영호, 오숙자(2010), 『고교생이 정말 알아야 할 한자 어휘』, 다운샘.

부록. 자전 활용 수업 모둠 활동지

과제 1.

본문	伯俞 / 有 / 過어늘	其母가 答之하니 泣이라.
한자의 음과 뜻 (자전)	有 過	其 母 之 泣
도움말	伯俞(백유): 중국 한나라 때 사람	答(태): 매로 때리다.
풀이		

과제 2.

본문	其母曰 / 他日 / 答에	子 / 未嘗泣이러니
한자의 음과 뜻 (자전)	曰 他	子 未 嘗
도움말		子: ① 아들 ② 접미사(사람, 사물) ③ 그대, 너 (2인칭)
풀이		

과제 3.

본문	今泣 / 何也오?	對曰 俞 / 得罪 / 答 / 常痛이러니
한자의 음과 뜻 (자전)	今 何	對 得 常 痛
도움말	也: 어조사. ① ~이다 ② ~인가?	俞: 백유. 어른 앞에서 자신을 낮춘 호칭.
풀이		

과제 4.

본문	今 / 母之力이 不能 / 使(俞)痛이라.	是以로 泣하노이다.
한자의 음과 뜻 (자전)	之 能	是 以
도움말	使: ~하여금 ...하게 하다.	
풀이	_____ 저로 하여금 아프게 _____	



## 「한문 교과 학습에 있어서 한문 자전의 활용」 토론문

김성중(신갈중)

논문의 머리말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전 활용을 다룬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문 교과 학습에 있어서 자전 활용의 여러 측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신 조영호 선생님의 옥고는 향후 전개될 자전 활용 현장 연구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효과적인 자전 활용 학습을 위해 어떤 자전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참관한 한 혁신학교 연구수업의 학습목표는 온고지신의 의미를 모둠별로, 포털사이트의 한자 자전을 통해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모둠의 학생들은 네이버를 이용했는데 溫을 찾으니 12개, 故를 찾으니 26개의 의미항목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잠시 고민하다가 내린 1차 결론은 溫과 故의 첫 번째 의미항인 ‘따뜻하다’와 ‘연고(緣故)’를 통해 만든 ‘따뜻한 연고’였습니다. 학생들은 즐겁게(?) 이 의미를 학습지에 적었지만 약간 당황하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고 급기야는 溫에 ‘익히다’라는 뜻이 있으며 ‘익히다’는 배우다, 학습하다는 의미라고 까지 알려 주게 되었습니다. 연구수업이 끝나고 마련된 평가 자리에서 다른 모둠을 관찰하신 선생님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된 그 많은 의미항목 중 어떤 곳을 골라야 할지 몰라 학생들이 무척이나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배움중심학습을 지향하는 현재의 교수학습활동은 ‘배움이 일어나는 시점’을 중시여기는데 당시의 관찰은 배움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닌 자전활용을 통해 ‘혼란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은 기실 자전 활용 학습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교사도 학생도 아닌 자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4쪽에서 제시한 자전의 구성 방식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고교생이 정말 알아야 할 한자 어휘』에서는 고등학교용 900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중학교용 900자에 대해서는 이병주 선생님이 작업하신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자 학습을 통해, 이미 배웠던 어휘들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배우는 어휘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적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 4,5쪽에서 언급하신 문장 학습은 단어의 문법 기능, 즉 통사적 측면과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논문 6쪽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자전에서 “문장 연습을 위한 예문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문을 공부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한문 사전(사전)의 예문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알게 해 준다고 보다 오히려 자괴감을 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해당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예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문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학생들은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

사적 측면에서의 단어의 기능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6쪽에서 “문장 번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전을 개발해야 한다. 자전은 문장 학습의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지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어떠한 자전이 이러한 자전일 수 있을지,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고민하신 바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자전(사전)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면 이른바 ‘학습용’은 특성화, 간결화, 평이화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자전 활용에 의한 수업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2부 기획주제 발표

학습자전의 향방과 개발에 대한提言(강민구) .....	77
한·중·일 漢字 字典의 字形 제시 기준(김영옥) .....	97
한문 학습자전 수록 한자의 대표 字義 및 意味項 선정과 조직(이동재) .....	127



## 학습자전의 향방과 개발에 대한提言

강민구(경북대)

---

### I. 서론

### II. 본론

1. 사전과 지식 -혁명의 기반에서 권력으로
2. 사전과 학습의 상관성 -가설과 검증
3. 한자학습사전의 전성시대 -한문에서 멀어지기
4. 종이사전의 위기 -베스트셀러에서 악성재고로
5. '옥편소송'과 한국 사전의 전통성 -剪而不作
6. 학습자전의 편찬 방향에 대한 제언
  - 1) 사전의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제언
  - 2) 학습사전 제작 편찬에 대한 제언

### III. 결론

### IV. 참고문헌

---

### I. 서론

본고의 서술 목표는 한문학습에 효율적인 자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검토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사전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이다.

교사의 관점에서는 愚問이 되겠지만, 학생들의 질문이라면 근거 있고 합당한 답변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사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전이 언어 학습에 필수적 도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전과 한문 학습 능력의 상관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실험과 검증이 진행된 적이 있었던가? 학습자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사전과 한문학습 능력의 상관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실험과 검증이 절실하다.

둘째, '학습자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우리가 우리말로 자전을 만들어 낸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통상적으로 자전을 포함한 사전의 이용자는 ‘학습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전 그 자체가 학습자를 위한 책인데, 새삼스럽게 학습자전이 필요한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 사전 편찬자들은 표제자의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학습의 양은 교육과정에서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대한 환상과 현실적 요구의 괴리는 학습자전에 대한 관념의 부재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학습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습자전 편찬에 대한 논의가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다분히 自嘲的이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한문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종이사전 출판업이 良質의 학습자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교육계와 출판업계에 존재하는 難題가 언젠가 해소된다면, 학습자전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 한문교육계와 종이사전 출판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종이학습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과감한 모색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근현대 사전의 형성경로를 밝히고 그 속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진단해보았다. 이는 추후 제작될 학습자전이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학습자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II. 본론

### 1. 사전과 지식 - 혁명의 기반에서 권력으로

사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맹목적이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었던 『Encyclopédie』의 예에서 보듯이 사전은 역사를 바꾸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sup>1)</sup> 그러나 어느 순간 사전은 도전할 수 없는 권력으로 변한다. Ambrose Bierce(1842~1914?)는 ‘사서편찬자 [lexicographer]’를 “일정한 언어의 발달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단계를 기록한다고 하면서 실은 가급적 그 성장을 방해하며, 언어의 유연성을 마비시키고, 그 조직을 기계화시키는 유해로운 존재. 대체로 사서 편찬자란 그 임무가 단지 기록을 만드는 것일 뿐, 규칙을 작성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사서를 편찬하고 나면 무슨 권위자처됨 되어 버린다.”<sup>2)</sup>라고 정의하였다. 또 ‘사전[dictionary]’에 대해서는 “언어의 자유로운 성장을 억제하여 그 언어를 탄력성 없는 것으로 고정시키고자 생각해낸 문필에 관한 악랄한 조작.”<sup>3)</sup>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극히 냉소적이지만 사전의 역기능을 신랄하게 풍자한 말이다. 그러나 **사전의 오류와 역기능을 잘 아는 지식인이라도 사전의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식인들은 사전과 관련된 일화를 전설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사전 편찬은 초인적 노력과 엄청난 시간·경비를 필요로 하며, 실제로도 관련 일화가 많다는 데 기인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大漢和辭典』과 관련된 일화다.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가 『大漢和辭典』을 33년에 걸쳐 완성하는 과정에

1) 로제 샤르피에 지음(1991), 백인호 옮김(1998),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일월서각; 마들렌피노 지음(1993), 이은주 옮김(1999), 『백과전서』, 한길사.

2) A.비어스 지음(1911), 이동진 옮김(1994), 『악마의 사전』, 우신사, 101면.

3) 상게서, 103면.

서 폭격으로 원고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필과 편찬에 매진하였고 결국 失明까지 하였다는 초인적 일화는 辭典을 책 이상의 신성한 존재로 대하게 한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단국대에서 제작한 『漢韓大事典』의 편찬과정을 들어보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무려 31년 간, 연인원 22만 명, 350억의 재원이 투입되어 만들어 졌다고 한다.<sup>4)</sup> 이 때문에 사전 편찬은 소설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Simon Winchester의 『교수와 광인[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은 무려 70년이나 걸려 완성된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만들 때 참여하였던 자원봉사자 중에 정신병에 걸려 살인을 저지르고 수용된 윌리엄 마이너와 평생을 사전 편찬에 바친 책임편집자 제임스 머리 교수의 우정·천재성·인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소설인데, 작가는 사실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한다.<sup>5)</sup> 또 2012년 일본의 서점대상을 수상한 미우라 시온의 『배를 엮다[舟を編む]』는 궁극의 사전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 사전 이름을 ‘大渡海’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사전은 말의 바다를 건너는 배야.” “사람은 사전이라는 배를 타고 어두운 바다 위에 떠오르는 작은 빛을 모으지. 더 어울리는 말로 누군가에게 정확히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sup>6)</sup>라고 말한다. 이처럼 사전의 제작은 여타 도서의 제작과 차원을 달리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전 편찬과 관련된 전설 같은 일화들이 사전의 권력성을 더해준다. 이것이 사전의 학습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 2. 사전과 학습의 상관성 -가설과 검증

사전이 한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不可缺의 수단이자 도구라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 한문 학습자들은 사전의 사용을 기피한다. 그렇다면 사전의 사용은 어느 정도나 한문 학습에 도움을 줄까? 현재의 교육과정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분량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든 학습자든 경제적 논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영어사전이나 국어사전과 판이한 檢字 체계를 가진 사전을 차근차근 찾아가며 한문 공부하는 태도를 바랄 수 있는가? 또 사전을 찾아가며 하는 공부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몇 가지 관련 가설을 세운 뒤에 그것을 실험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물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영어 분야에서 제출되어 있다.

Scholfield, Phil(1982)은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는 몇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고 事前 지식이 요구되며 어느 정도의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것은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방법 안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cholfield, Phil은 사전을 찾기 위해 필요한 7단계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한문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①일반적인 정의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⑥단어를 찾았으면 정의를 이해하고 문장

4) 유승준(2012), 「『한한대사전』의 편찬 과정과 향후 계획」, 『東洋學』 제5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9면.

5) 사이먼 윈체스터는 우연히 영국속어사전 편찬의 권위자인 조너선 그린리 쓴 『해를 따라기』라는 책에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자원봉사자 중에 정신병에 걸려 살인을 저지르고 수용된 마이너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짧은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6) 미우라 시온 지음(2011), 권남희 옮김(2012), 『배를 엮다』, 은행나무, 36면.

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⑦적합한 의미가 없을 때, 기존의 의미로부터 추론해야 한다.’이다.<sup>7)</sup> Scholfield, Phil의 결론은 학습자가 사전 사용을 위한 각 단계를 연습한 후에야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Marsha Bensoussan, Donald Sim & Razelle Weiss(1984)는 다음과 같은 7개의 가설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대학생 9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가설 ①: 학생들은 시험에서 사전의 사용이 허락 된다면, 사전의 사용을 좋아한다.

검증 결과: 학생들은 2개 언어의 사전 사용을 현저히 선호한다. 그러나 사전의 사용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가설 ②: 단일어 사전이나 2개 언어 사전의 사용은 시험 점수를 상당히 올릴 것이다.

검증 결과: 시험 성적의 향상과 사전의 사용은 무관하다.

가설 ③: 사전의 사용은 시험 시간을 증가시킨다.

검증 결과: 실험을 통해 추측만 가능한 가설이다. 2개 언어 사전을 사용한 학생들이 시험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었고 단일어 사전이나 사전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덜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④: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학생들이 유능한 학생들보다 2개 언어의 사전 사용을 좋아할 것이다.

검증 결과: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학생들은 2개 언어의 사전 사용을 선호한다. 반면 유능한 학생들은 단일어 사전을 선호한다.

가설 ⑤: 유능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학생들보다 사전 사용이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풍부한 어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결과: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학생들은 통사론의 규칙을 잘 모른다. 따라서 사전의 도움이 있어도 통사론의 규칙을 모르면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가설 ⑥: 학생들은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단어의 의미를 찾는데 효과적으로 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

검증결과: 교수들은 이 가설을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가설 ⑦: 교수들은 사전 사용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와 한계를 안다.

검증 결과: 저학년 담당 교수들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사전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사전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Marsha Bensoussan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사전 사용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생들이 단일어 사전을 사용하는지, 2개 국어로 된 사전을 사용하는지, 혹은 전혀 사전을 사용하지 않던지 간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sup>8)</sup>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문교육계는 주로 자전의 부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을 뿐, ‘자전이 학습능력을 제고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검토해 본 경험이 없다. 최근 초등 학생용 한자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사례가 있지만, 사

7) 「Using the English Dictionary for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Vol.16, Wiley-Blackwell.

8) 「The effect of dictionary usage on EFL test performance compared with student and teacher attitudes and expectation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Vol. 2, University of Hawaii.

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자전의 본질적 측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민족이 한자문화권 내에서 한문을 文語로 사용하면서도 자전을 학습에 이용한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士人の 필독서였던 朱熹의 『四書集註』는 현재의 학습자들에게도 별도의 자전이 필요 없을 만큼 친절한 독본이다. 『四書集註』 외에 경전류, 史書類, 시문류도 질 좋은 독본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자전은 절실하지 않았다. 오히려 作詩를 위해 韻書가 더 필요하였다. 또 현재의 한문 교과서는 어떠한가? 별도의 참고서나 자전이 필요 없을 만큼 상세하게 풀이가 되어 있다. 비록 한문과 교육과정에 ‘자전 찾기’가 들어있지만, 수업 시간에 자전을 휴대하고 이용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들이 자전을 찾아 가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한문 교과서에 찾을 거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사전을 수시로 이용하고 불편을 느낄 때 올바른 학습사전 편찬의 방향이 잡힐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영어 교육 분야의 가설과 실험이 한문교육의 조건이나 상황과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전이 학생들의 한문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 보다는 가설을 세우고 ‘자전 이용과 한문학습능력 향상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

### 3. 한자학습사전의 전성시대 -한문에서 멀어지기

앞서 사전과 학습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거론한 이유는 사전 無用論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전이 학습자에게 적극적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학습 효율성이 높은 사전이 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주목되는 것이 학습자전이다.

學習詞典은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배양·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성이 강화된 사전이다.<sup>9)</sup>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학습자전은 아직도 출현하지 않았다. 현재 학습용으로 이용되는 사전들은 표제자 밑에 다양한 의미를 나열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의미와 예문의 나열은 학습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구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어휘와 예문의 단순 나열은 자전을 아예 보고 싶지 않도록 만든다. 모든 사전은 기본적으로 학습자를 위한 것이라는 무지막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원래 자전은 한자, 한문 사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요즘은 엄격히 구분되어 쓰이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한자사전’은 한문과 관련 있다는 오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자만 익힐 뿐이지 한문까지는 결단코 가지 않겠다는 학습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한자학습자전은 그런대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9) 세계 최초의 학습사전은 1935년에 간행된 Michael Philip West(1888~1973)가 편찬한 『New Method English Dictionary』이라고 한다.

雍和明(2006), 『中國辭典史論』, 中華書局, 506면.

경향을 『연세초등한자사전』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전은 편찬 과정에서부터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 사전의 편집자는 책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檢字 체계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 조사 결과 ‘한자를 한글 자음 순으로 배열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부수순·총획순이었기에, 이 사전은 한글 자음의 순서대로 한자를 배열하였다. 한자의 음이 같을 경우 총획순으로 글자를 배열하였지만, 한자의 음을 몰라도 검자가 가능하도록 총획수로 한자 검색하기·부수로 한자 검색하기·급수별로 한자 검색하기·영어의 뜻으로 한자 검색하기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이 책이 기존의 사전과 다른 점은 급수별로 한자를 검색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각종 한자급수 취득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한자를 급수별로 외우는 필요성에 대응한 것이다.<sup>10)</sup> 이 사전은 표제자에 대해 설명하고 표제자가 들어간 어휘를 나열하고 그 뜻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표제자의 부수·획수·획순을 명기하였다. 여기에 영어 뜻·한자시험 급수·중국어 간체자·중국어 발음 등을 명기하였다. 표제자가 들어간 어휘도 한글 자음 순으로 나열하였다. 이 사전의 편찬자들은 “이와 같은 구성요소들은 다른 사전과 차별성을 두기 어렵지만, 자원이 확실한 한자에는 한자의 유래를 설명하는 삽화와 함께 친근한 어투로 자원을 설명한 것이 특징”<sup>11)</sup>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즈음에 출간된 한자학습사전 중에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검자체계를 국어사전과 같이 하고 한자급수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들이 있다. 정리하자면 한자학습사전은 사전의 체제를 버리고 국어사전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경향성이다.

“한자 사전이 중국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중어 사전일 뿐 아니라, 한자가 수천 년 간 우리 선조의 문자생활을 지배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어사전적 역할도 겸하며 또한 한자어가 국어 단어의 대다수를 점하는 현실 언어생활에서 실용적인 옥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국어사전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sup>12)</sup> 그러나 현재의 한자학습사전은 그다지 원대한 시각과 의식하에 제작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자학습사전은 주로 한자급수 취득시험 준비를 위한 도구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수요층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이다.<sup>13)</sup> 한자를 한문과 의도적으로 분리하려는 한자급수시험 시장과 출판업계의 상업적 企圖는 결코 한문교육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자학습사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혹여 한문학습사전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 4. 종이사전의 위기 -베스트셀러에서 악성재고로

10) 김태경(2007), 「초등한자자전을 출간하며」, 『언어사실과 관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2면.

11) 상계논문, 50면.

12) 정형도(2009), 「한자 사전 표제자의 動詞義項 분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3) 종이사전의 황금기(80년대)를 겪었던 고명수 민중서림 편집위원은 “요즘 종이사전 업계는 초등학생 둔 엄마들이 먹여 살리는 수준”이라고 쓸쓸하게 말했다. 초등 3학년 교과과정에 사전 찾기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 전문가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2013년 4월 10일 기사.



출판업의 위기는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출판과 도서 유통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의 학문적·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던 사전류의 제작·편찬은 더욱 고사 직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전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시절이 있었다.

痛嘆할 일은 반도 출판계의 현상이라. 지금 조선에서 제일 만히 팔리는 책이 무엇이나 하면 역시 『玉篇』과 『춘향전』이다. 서울에 도매상들로 조직된 도매상조합이 있는데 이 방면의 조사에 의하면 『옥편』이 1년간 2만권, 『춘향전』 1년간 7만권, 『심청전』 1년간 6만권, 『홍길동전』 1년간 4만 5천권, 잡가책 1년간 1만 5천권 등등이라 한다.<sup>14)</sup>

博文書館, 이 서점은 鍾路의 큰 거리에 자리잡고 안저 하루에도 수 만흔 손님을 격겨내고 있다. 종로에는 有數한 書店일 것이다. 이 서점의 조사통계에 나타난 바를 보면, 辭典類가 그 중 만히 팔리는데, 『鮮和辭典』이 4,5천부를 돌파하여 古代小說이나 新小說 등을 제하고는 판매 성적이 수위를 점령하고 있다.……또 『日鮮新玉篇』이니, 『漢日鮮新玉篇』이니 하는 玉篇이 펴 만히 나가는데, 아마 부수가 엽때까지 만히 나건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古代小說類보다도 더 훨씬 압시였으나, 원체 아무런 사전 하나 벤베허 못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玉篇이란 여간 필요한 서적이 안임을 알겠다. 그것은 더욱이 농촌에 잇서서 그러하다.<sup>15)</sup>

위의 기사를 보면 1930년 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단연 자전류였다. 그러던 자전이 지금은 먼지 쌓인 재고로 전락하였다. 2010년 한 일간지에 ‘종이사전의 눈물’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의하면 금성출판사·시사출판사·교학사는 사전편찬팀이 해체되었고, 민중서림은 1994년에 『국어대사전』 증보판을 마지막으로 간행하였으며, 두산동아도 사전제작팀을 분사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국가 단체도 마찬가지여서 국립국어원은 1998년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했지만 두산동아출판사에 적자만 안기고 이후 증보판 발간을 중단하였다고 한다.<sup>16)</sup> 이즈음에 ‘종이사전의 위기’는 각종 일간지에서 종종 기사화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고,<sup>17)</sup> 급기야 국사편찬위원회가 종이사전 전문가로부터 사전 제작법을 구술 받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sup>18)</sup>

종이사전의 존폐 위기는 비단 국어사전만 봉착한 것이 아니다. 1768년 스코틀랜드에서 초판이 발행된

14) 「玉篇과 春香傳」 第一, 三千里 機密室, 『삼천리』 제7권, 제5호, 1935, 6, 1.

15) 「書籍市場調査記: 漢圖·以文·博文·永昌 등 書市에 나타난」, 『삼천리』 제7권 제9호, 1935, 10, 1.

16) 서울신문, 2010년 2월 16일, 1면.

17) 지난 1월 사전업계 3위 금성출판사가 사전편찬팀을 없앴다. 1984년 사전 시장에 뛰어든 지 26년 만이다. 사전업계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두산동아는 지난해 1월 사전제작팀을 본사에서 분리시켰다. 이제 사전팀이 남은 곳은 민중서림이 유일하다. 출판등록 1호 국어사전인 민중서림 『이희승 국어대사전』도 1994년 이후 개정증보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어사전은 휴전선을 넘나들었다 … 사전 만든 1세대 장인들의 회고’, 국민일보, 2010년 5월 20일 기사.

18) 국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신문의 문제 제기 직후인 지난 3월 국어대사전 제작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 들어갔다. ……국사편찬위는 이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사전 제작 기술과 관련 경험을 구술 받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새달에는 사전에만 쓰이는 활자체, 약목, 인쇄, 제본 작업을 직접 진행한 기술자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경험과 기술 전수 여부도 조사해 기록할 계획이다. 정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같은 작업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국어대사전 편찬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이 몇 명 남지 않은 때문이다. 사전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마지막 세대다.

서울신문, 2010년, 5월 11일 14면

뒤, 지금까지 200만 세트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Encyclopaedia Britannica』는 2010년 판을 마지막으로 출판 중단을 결정하였다. 또 1928년 초판 출간 이후 영어사전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온라인판만 출간을 고려한다고 발표한 것도 2010년의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종이사전의 편찬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한 회의가 들게 만든다. 종이사전의 위기를 촉발시킨 주원인은 주지하다시피, 디지털사전에 있다. 디지털사전에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종이사전이므로 종이사전의 발전 없이는 디지털사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출판업계의 주장은,<sup>19)</sup> 공허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종이사전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그 활로를 학습자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전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 5. ‘옥편소송’과 한국 사전의 전통성 -剪而不作

현재 상당히 많은 사전이 유통되고 있는데 대다수는 해방 이후에 편찬되었다. 그들 사전들의 형식과 체제 분석을 통하여 ‘사전’의 정의를 구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sup>20)</sup>, 그들 간에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는 편집 기술의 차원을 크게 넘어서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판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정’, ‘최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개정판을 내놓지만, 사전 이용자들은 그것들이 舊本을 대체할만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전 이용자들은 한 번 사전을 구입하면 대부분 사전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정판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출판에서 출간한 사전이라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전들이 대동소이하게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전들은 전통성을 갖고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국한문 사전 편찬은 1909년 간행된 池錫永의 『字典釋要』를 기점으로 잡는다. 물론 이보다 1년 앞선 1908년에 간행된 鄭益魯의 『國漢文新玉篇』이 우리말로 字義를 풀이한 최초의 사전이지만, 대표본 하나만을 우리말로 제시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1915년 朝鮮光文會가 펴낸 『新字典』은 한자의 字義에 해당하는 예문과 그 출전까지 실어서 한국사전의 격과 실용성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된다.

해방 이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대표적 사전인 『사전석요』와 『신사전』은 『康熙字典』의 체제와 釋義를 준용하되, 『全韻玉篇』에서 國音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字書의 전통을 계승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字典釋要序」에서 “『강희사전』을 보고 精要한 문자를 뽑고 언문으로 풀이하였다.”<sup>21)</sup>라고 하였고, 「新字典敍」에서 “『康熙字典』을 基本하야 內外를 商量하고 古今을 參酌하야 槿韓對譯字書를 撰修한

19) 2010년 금성출판사 사전편집팀이 없어지면서 퇴사한 안상순(58)씨는 “포털은 종이사전의 데이터를 싼값에 사서 서비스만 하는 식이라, 사전 전문가들이 사라지면 콘텐츠의 활발한 업데이트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상계 조선일보 2013년 4월 10일 기사.

20) 박형익(2101), 『한국사전의 역사』, 역락, 11~57면.

21) 閱康熙字典, 撮其字之精要, 取其義之簡易, 釋以諺文.

지 이미 屢年于茲.”라고 하였다. 그리고 「新字典例」에서 “이 책은 『康熙字典』을 臺本으로 삼아 그 번잡한 것을 없애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되 새로 만들어진 글자와 새로 더해진 의미를 아울러 수록하여 신시대의 쓰임에 응했기 때문에 『신자전』이라고 명명한다.”<sup>22)</sup>라고 표방한 말을 보면 『자전석요』와 『신자전』은 모두 『강희자전』의 주요 형식과 내용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字典釋要凡例」에서 “字音은 『全韻玉篇』을 따른다.”<sup>23)</sup>라고 하였으니, 『자전석요』는 표제자의 음을 『전운옥편』에서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新字典例」에서 “이 책의 글자의 순서는 한결같이 『전운옥편』을 쫓았고 體例는 서양의 字書를 따랐다. 거기에 添入된 글자는 또한 『玉篇』의 예와 分韻에 따라서 엮고 정했다.”<sup>24)</sup> “朝鮮의 字學은 『全韻玉篇』을 준거로 삼는다.”<sup>25)</sup>라고 하였으니, 『신자전』은 『전운옥편』에서 취한 바가 『자전석의』보다 더 많다고 하겠다. 『전운옥편』은 최초로 우리말 독음을 표시한 자전이기에 우리나라의 근대 자전이 체례와 석의를 『강희자전』에서 취한다고 하더라도 국음은 『전운옥편』에서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체제·음의 분리 표현·용례 출전 제사·다중 주석은 『新字典』을 근대자전의 가장 진보된 저술로 평가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현대 자전에 상당히 계승되고 있다.”<sup>26)</sup> “한국의 초기자전으로서 『신자전』은 후세의 자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자전들이 『신자전』의 제경향, 특히 음의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7)</sup>라고 하여 『신자전』이 현재 사전의 체제와 형식 뿐 아니라 音義 등 내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신자전』이 이후 편찬된 자전과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형식과 내용이 개선되었다고 표방하였고 실제로도 개선된 것이 분명한 사전들이 속출하였다. 這間에 발행된 자전들을 일일이 예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明文堂에서 발간된 金赫濟의 『國漢明文新玉篇』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발행되어 최근까지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1958년 弘字出版社에서 발간된 鄭達溶의 『國漢最新弘字玉篇』도 이름을 달리하여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1964년에 張三植의 『大漢韓字典』이 博文出版社에서 발행되었고 1966년에 『漢韓大字典』이 민중서관에서 발행되었다. 1980년 이후로는 이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자전들이 세상에 선을 보였다. 1982년에 『東亞漢韓大辭典』이 동아출판사에서 발행되었고 2002년에 『大漢韓辭典』이 교학사에서 간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漢韓大辭典』이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 편찬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자전들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그것들은 『자전석요』, 『신자전』이 지녔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나라 자전의 역사에 대한 의문일 뿐만 아니라,

22) 此書, 用康熙字典爲臺本, 剪其繁衍, 補其闕漏, 兼收新製之字新增之義, 以應新時代之用, 故曰新字典.

23) 字音從全韻玉篇.

24) 此書字次, 一遵全韻玉篇, 而體例從泰西字書, 其添入字, 亦遵玉篇例, 分韻編定.

25) 朝鮮字學, 以全韻玉篇爲準.

26) 이충구(1991), 「한국자전 성립의 고」, 『반교어문학』 제3집, 반교어문학회, 21면.

27) 이충구(2000), 「『신자전』의 근대자전 성격에 대한 고찰」, 『한중철학』 제6집, 한중철학회, 90면.

자전의 내면에 대한 의문이기도 한다. 즉 ‘자전의 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형성 발전된 것일까?’라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은 의외의 방향에서 해소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판권 관련 판례는 일명 ‘옥편소송사건’에 관한 것이다. 저작·판권 시비가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1976년 한 일간지에 “1959년 명문당은 자신의 『國漢明文玉篇』을 무단히 도용, 홍자출판사가 『國漢最新玉篇』을 출판했다고 저작권침해소송을 낸 것인데, 당시 학계에서는 옥편 등 자전은 독창이 있을 수 없고 자전은 자전의 율김에 불과하여 표절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편대 반해 출판업계에서는 아무리 자전의 율김에 불과하더라도 편집,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나중에 발행된 것이 전자를 현저히 모방했으면 판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맞섰다.”<sup>28)</sup>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사전류는 얼마든지 기발행 사전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베껴 출판해도 된다는 전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세계적인 고전 및 해외 인기 저작물의 번역판을 2,3개 출판사가 내놓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라고 한 논평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저작권과 판권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근원은 자전의 베끼기에서 유래되었다.

이 사건은 1959년 한 일간지에 “이 고소 사건은 당초 서울 시내 종로구 적선동 168번지에 사는 金赫濟씨가 시내 인사동 19번지에 있는 한국출판진흥조합의 鄭達溶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혐의의 고소장을 지난 5월 검찰에 제기한 데서 발달된 것이다.”<sup>29)</sup>라고 기사화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소인 김혁제의 주장<sup>30)</sup>에 대한 피고소인 정달용의 반론과 당시 학계의 반응이다.

한편 피고소인인 정씨는 고소인 김씨의 주장에 대하여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자전과는 달리 어휘 자체에 있어서도 1천여 자나 더 많고 또한 해석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자세하다.”고 말하면서 학계·출판계의 의견을 내세워 사전이란 의례히 기히 발행된 사전을 참고로 하기 마련이고 특히 한자자전에 있어서는 주석이 일정하여 도저히 변경될 수 없어 성질이 대동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기 자전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김씨도 자전을 편찬 발행할 때는 池錫永의 『字典釋要』란 한자자전을 모방했다는 것이다.<sup>31)</sup>

이 소송은 1962년 10월 26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원고 측이 패소하였는데,<sup>32)</sup> 그 판결주문에 의하면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방면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중

28) ‘출판 不條理著作·版權 침해’, 1976년 4월 6일 매일경제 6면 기사.

29) ‘저작권 침해 될 수 없다’, 1959년 10월 11일 동아일보 3면 기사.

30) “동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인 김씨는 4285년 2월 28일 한문사전인 『국한문신옥편』을 발행한 후 계속 5판(4288년도)을 발행했는데 그 후 4291년 피고소인인 정씨가 『국한최신옥편』이라고 하여 전기 고소인의 옥편과 같은 자구 상 어휘, 해석을 붙이고 고소인의 옥편에 意譯이 잘못된 데까지 똑같이 표절하여 자전을 편찬, 4291년에 5천부를 불법 인쇄하여 판매하였고 또한 4292년에도 5천부를 다시 인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상계신문기사

31) 상계신문기사

32) ‘大法院서 上告棄却’ 1962년 10월 26일 동아일보 7면 기사.

인 李崇寧은 우리나라의 국한문 옥편은 이지음에서 약 200여년의 옛적에 저자 미상의 『全韻玉篇』을 비롯하여 隆熙 3년 5월에 간행된 池錫永선생의 『字典釋要』와 1915년 11월 1일에 崔南善선생의 『新字典』 등의 간행에 전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펴 많은 그런 류의 옥편이 나왔으나 이것들의 내용은 대개 大同小異할 뿐더러 그 母胎는 위의 지석영, 최남선 두 선생의 간행물과 中國의 『康熙字典』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옥편은 그 성질이 그렇게 할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고……”<sup>33)</sup>라고 하였다. 정달용은 자신이 『국한명문옥편』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국한최신옥편』의 표제자가 훨씬 더 많고 해설이 상세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국한명문옥편』이 지석영의 『자전석요』를 모방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의 자전이 『신자전』과 직접적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하는 학계의 일반론을 수정하게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전들이 『자전석요』나 『신자전』과 같은 전통성을 갖지 못하고 표절 시비로 얼룩졌음을 보여준다. 판결주문에서 보듯이 ‘옥편소송사건’은 당시 학계의 견해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문리대 이승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전 편찬의 특성이란 거의 있을 수 없다. 의례히 사전을 편찬하려면 이미 발간된 사전의 어휘 하나하나를 가위질하여 카드로 만들어 거기에 편찬자의 약간의 의견과 취사선택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새로 나온 사전일 수록 자수가 더 많고 해석이 좀 더 자세해지는 것이다. 한자사전의 해석이란 벌써 오래 전부터 일정한 주석 양식이 있어서 그 내용이 흔히 동일할 수도 있다. 사전에는 저작권 침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전의 생명은 그리 길지 못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사전은 똑같은 미쓰를 되풀이 반복되는 수가 많이 있다. 사전이란 사전의 율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34)</sup>

이승녕 교수는 ‘사전은 의례 가위질을 하여 만드는 것이기에 독창성을 말할 수 없다’는 요지의 증언을 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당시 사전의 편찬 양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지 신문사설에서도 다루어졌다.

우선 이 문제는 저작권법에 대한 法理論的인 해명이나 저작권 자체의 법적 성질론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고 일반 저작행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字典 또는 辭典 편찬 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감찰당국의 견해대로 이와 같은 것을 표절 내지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자전, 사전 등 편찬에 대하여 선저작자·선출판자에게 독점권을 설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작권법의 입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학문연구와 저술의 자유경쟁, 출판의 자유경쟁이야말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유일한 촉진제요, 저작권법이 저작권침해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오직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sup>35)</sup>

위의 사설에서는 사전의 편찬 간행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과 저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사전의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견해라고 하겠다. 사전의 저작권에 대한 당시의 관대한 인식은 『자전석요』와

33) 한국저작권진흥원[<http://www.kcopi.or.kr>], 저작권자료실, 판례.

34) 상계판례

35) ‘자전·사전의 저작독점이란 없다’, 1959년 10월 12일 동아일보 1면 사설.

『신자전』의 편찬자들이 지녔던 사명감과 전통 계승 의식에서 퇴행하여 ‘가위질은 하되 창작은 하지 않는다.’는 편찬 지침을 만들어 주었다. 이후에 발행된 대형 자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일본과 중국의 자전을 번역하고 보충한 것을 알려져 있다. 박형익 교수는 ‘민중서림에서 1966년 발간한 『漢韓大字典』은 모로하시 데스지의 『大漢和辭典』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이고, 교학사에서 1998년에 발간한 『敎學大漢韓辭典』은 중국의 『漢語大詞典』(1975~1994)의 내용을 토대로 삼아 새로운 내용을 수록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6)</sup>

자전 업계의 고유의 편집 방식이 된 ‘가위질’ 때문에 뒤에 간행된 사전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추가되고 부분적 형식의 변경만 있을 뿐 근본적 변화발전이란 당초에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그나마 내용의 지속적 추가를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전 편찬의 이와 같은 관행이 종이자전의 위기를 초래한 一 原因일 수도 있다.

## 6. 학습자전의 편찬 방향에 대한 제언

### 1) 자전의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제언

현재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자전이 존재하지만 학습자의 만족도는 그와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현행 자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언한 연구 결과가 다수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전의 내용 구성 전반에 대한 연구<sup>37)</sup>

·자전의 검자 체계에 대한 연구<sup>38)</sup>

·자전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sup>39)</sup>

·자전의 내용 오류에 관한 연구<sup>40)</sup>

위의 연구 성과 중에서 이충구 선생이 제시한 이상적 사전의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形

·標題字 - 해서로 제시한다. 정자·약자·속자·간화자·한국한자도 포함시킨다. 『中華字解』의 장점을 채택한다.

36)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13~14면.

37) 이충구(1994), 「한국자전의 실상」, 『한국학논집』 제2집,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충구(2000), 「한중일 사전 비교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11집, 반교어문학회; 이의강(2012), 「효율적 사전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한자한문교육연구』 제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38) 진광호(2000), 「現行 字典類의 屬部字 問題」, 『중국어문학』 제36집, 영남중국어문학회; 康寔鎭(2012), 「한국의 字序法 고찰(Ⅱ) - 字典類를 중심으로」, 『중국어학』 제43집; 금하연(2012), 「部首中心 體系에 대한 批判과 聲符中心 活用研究」,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39) 최홍렬(2007), 「漢字 ‘通字’의 의미고찰 -通字의 사전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36집, 중앙어문학회.

40) 강현규(1996), 「우리말 사전과 한자 자전의 오류에 관한 고찰」, 『한어문교육』 제4호, 한국어언어문학교육학회.

- 표제자 자형의 정밀성 - 『大漢和辭典』을 능가하게 한다.
- 수록 글자 수 - 50,000여자 이상이어야 한다.
- 한자의 배열 - 순수한 자형에 의하여 배열하되, 偏旁冠角 등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열 한다.
- 補助字形 - 甲骨文·金文·大篆·小篆·隸書·楷書·行書·草書 등을 제시한다. 『中文大辭典』·『漢語大字典』의 장점을 채택한다.

- 字形解說 - 한자의 각체를 해설한다.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中文大辭典』의 장점을 채택한다.

## ②音

- 各國音
- 反切 - 『中文大辭典』과 같이 동음반절을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 直音 -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中文大辭典』와 같이 한다.
- 聲調
- 韻目 - 206운목을 표기한다.
- 聲類 - 『漢語大字典』·『漢語大辭典』과 같이 41성류를 표기한다.
- 韻部 - 『漢語大字典』과 같이 30운부를 따름

## ③義

- 출전과 예문
- 주석 배열 - 『中文大辭典』과 같이 本義를 우선 배열하고, 引伸義·假借義를 차례로 배열한다.
- 품사 제시 -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을 따른다.

## ④기타

- 한중일 속자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두 수록한다.
- 특정용어 표시 - 불교어는 ‘(佛)’, 일본고유한자는 ‘(日)’ 등으로 표시한다.<sup>41)</sup>

이충구 선생은 “자전은 옥편이라고도 하는데 單字를 字形에 의해 배열하고 형음의를 제시한 종합 한자서이다. 이는 강희자전이 대표이고 이후 자전이란 명칭이 일반화되었다.”<sup>42)</sup>라고 자신이 자전을 정의한 말과 같이 이상적 자전이 갖추어야할 요건을 形·音·義의 측면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가장 탁월한 한문사전인 일본의 『大漢和辭典』<sup>43)</sup>, 대만의 『中文大辭典』<sup>44)</sup>·『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sup>45)</sup>, 중국의 『漢語大字典』<sup>46)</sup>·『漢語大辭典』<sup>47)</sup>·『中華字解』<sup>48)</sup>가 갖는 장점을 망라

41) 이충구(1994), 「한국자전의 실상」, 『한국학논집』 제2집,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38~139면; 이충구(2000), 「한중일 자전 비교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11집, 반교어문학회, 62~63면.

42) 이충구(1991), 「한국자전 성립의 고」, 『반교어문학』 제3집, 반교어문학회, 17면.

43) 諸橋轍次(1955), 大修館書店, 총13책.

4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1973), 中國文化學院華岡出版有限公司, 총10책.

45) 高樹藩(1971), 正中書局, 1책.

46) 漢語大字典編纂委員會(1990), 湖北辭典出版社·四川辭書出版社, 총9책.

하되 최종적으로 그들을 능가하는 수준의 자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만약 그의 제언과 같이 된다면 최고의 한문사전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학습자전으로 이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큰 단점이 될 것이다. 특히 ‘字音’에서 反切·直音·聲調·韻目·聲類·韻部를 모두 명기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만, 지나치게 번다하여 학습자에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의강 교수(2010)는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자전의 개선방향을 제언하였기에 보다 현실적이다.

- ① 字義 - 本義·派生意·比喻義·轉義의 자의 발전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出典 - 자의를 설명하는 용례의 출전에 대한 篇命 또는 卷次의 표시하는 것이 좋다.
- ③ 用例 - 용례와 번역문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sup>49)</sup>

이의강 교수는 주로 字義와 관련된 요소의 개선책을 제언하였는데, 향후 학습자전 제작에 크게 참고할 만하다. 다만 출전의 卷次까지 명기하는 것은 오히려 번다한 단점이 있다. 출전 표시는 최대한 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사전들이 책임·편명·작가명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편의적 차원으로 보이는 것도 다수 있다.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범례에 밝힌 후 출전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학습자전 제작 편찬에 대한 제언

이미 상당 정도 축적된 자전의 개선안에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더해본다.

첫째, 학습자전은 국어에 사용되는 한자의 빈도와 필독 원전에서 사용되는 한자의 빈도를 참작해서 제작하여야 한다.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를 검색하기 쉽도록 처리하고 내용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윤진(1999)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대상으로 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를 살펴 본 결과 “교육부 제정 기초 한자의 수량인 1,800자는 『표준대사전』에 실린 표제어 한자의 92% 가량을 포괄하는 것이 된다. 이는 1,800자의 한자를 익히면 사전 표제어의 한자를 92% 정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육부 제정의 기초 한자와 대사전 표제어 한자의 빈도순위 1800자는 적지 않은 相違를 보인다. 즉 기초 한자에 포함된 한자가 사전 표제어에는 쓰이지 않은 경우[劍 등], 사전 표제어에서는 빈도 순위 1800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暇, 簾, 陋, 栗, 肩 등]가 다수 있으며, 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 순위 1,800위 이상인 한자가 기초 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伽, 姜, 闕, 掘, 圈 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취와 사전 표제어의 이해도는 일치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sup>50)</sup>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의 빈도순 상위 10%의 한자는 法·學·性·大·子·物·地·人·動·生·水·金·機·化·山·國·氣·的·電·中·體·行·主·成·文이라고 한다.<sup>51)</sup> 이처럼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학습자의 눈에 잘 띄게 만

47) 漢語大辭典編纂委員會(1993), 漢語大辭典出版社, 총13책.

48) 冷玉龍 外(1994), 中國友誼出版公司, 1책.

49) 「효율적 자전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한자한문교육연구』 제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50) 남윤진(1999), 「국어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국립국어원, 55~56면



들고 상세하게 풀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문학습에 필수적인 한자를 재선정하는 일도 학습자전 편찬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허철(2008)에 의해서 조선시대 문집에 사용된 한자의 수를 계량한 연구<sup>52)</sup>가 진행된 바 있지만 한문문장, 혹은 주요 한문학습서에 사용된 한자의 빈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디지털자전의 독자와 매체적 특성에 주목하여, 종이자전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독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자전 독자는 집합적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특성을 지니며<sup>53)</sup>, 능동적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으로 변화였다.<sup>54)</sup>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전의 첫 번째 매체가 책이 아니다.<sup>55)</sup>

매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자전은 종이자전의 제약을 넘어서는 놀라운 특징을 구현하여 이미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였다.

디지털자전은 종이사전에 비하여 용량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대량의 어휘나 용례를 넣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어휘와 용례를 검색하고 추출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휘와 용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자전은 다양한 경로의 檢字가 가능하다. 한자의 3요소 중 하나만 알면 검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字序도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될 수 없다. 또 부수에 대한 시비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부수를 잘못 알더라도 검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효과적 검자가 가능한 디지털자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온라인 사전의 log file 분석을 통하여 사전의 이용자들이 한자를 검색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log file 분석은 검색 경로를 다양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sup>56)</sup>

신속한 수정 증보가 가능하다. 종이자전은 제작 기일이 대단히 길고 수정도 용이하지 않다. 중형사전에 속하는 『現代漢語辭典』은 1958년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1978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51) 상계논문 54면.

52) 「한문교과교육에서 한문교육용한자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동방한문학』 제35집, 동방한문학회.

53) 위키백과(Wikipedia)가 활성화되면서 급격하게 퍼져 나간 생각으로 비전문가 수천수만의 지식이 쌓이면 전문가 못지 않은 정제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인터넷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게 되자 비전문가(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식 생산에 참여해 공인된 전문가 이상의 정보 축적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위키백과는 현재 브티태니커 백과사전 항목수의 10배 이상을 자랑하고 있다.

정철(2006),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사전의 조건」, 『한국사전학』 제8호, 한국사전학회, 8~9면

54) 독자가 내용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생산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었지만, 정보접근성이 너무 좋아진 나머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는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 되었다. 즉, 독자는 기존의 권위적인 사전이 아니라 쉽고 친절하며 한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전을 원하고 있다.

상계논문.

55) 상계논문.

56) 남길임, 박진영, 「온라인 사전의 로그 파일 분석을 통한 사전 검색 양상 연구」, 『한국사전학』 제6호, 한국사전학회, 101면.

1985년에 제2판이 나왔으며 1996년에 수정제3판이 나왔고 2002년에 증보판이 나왔다. 또 한문학 습자의 필비서인 『辭海』는 1915년에 초판이 나오고 1979년~1983년에 되어서야 1~4책으로 分冊本이 나왔다. 대형사전의 경우는 제작 및 수정 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지털 사전은 정기적으로 수정을 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다. 따라서 사전의 오류가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적다.

디지털사전은 기능이 다양하고 표현이 생동감 있다. 디지털사전은 내용의 복사와 인쇄가 가능하며 그것을 손쉽게 가공 편집할 수도 있다. 또 이미지나 음성, 동영상을 곁들일 수도 있다.

디지털사전은 다양한 전문 사전으로의 변형이 가능하다. 逆順辭典·通假字辭典·이체자사전·성어사전·속어사전·인명사전·지명사전 등의 제작이 용이하다.<sup>57)</sup>

셋째, 종이자전에 검색 기능을 넘어서는 학습적 내용의 추가한다. 디지털사전만이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종이사전을 살려야 한다는 차원의 대안이 아니라 디지털사전이 처리할 수 없는 기능을 종이자전으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학습자전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줄여서 찾는 사전에서 읽는 사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읽는 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전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虛辭의 용법이나 문법적 설명 등을 친절하게 실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다. 또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辨正’과 같은 것은 학습자가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한문을 학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辨正’은 同字異體·複詞異體·專名異音·連文異義·相對義字·同訓異義·本字辨似·本字正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형·자음·자의에 대한 변정이 학습에 큰 도움을 주기에 사전의 검색 수단 이상의 가치를 갖게 한다.

넷째, 학습사전 제작의 주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전의 편찬은 엄청난 시간과 수 많은 전문 인력,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 일이다. 개인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며, 출판사 역시 사활을 건 사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은 국가기관에서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전이다. 그러나 다음의 기사를 보면 사전 편찬의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생각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전 시장의 몰락은 1999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출간과도 맞닿아 있다. 남영신 회장은 “국어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국가기관이 만들면 출판사들 다 망해 버리는데, 그 다음엔 누가 이런 사전을 만들겠느냐.”고 성토했다.

인터넷 보급으로 종이사전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어휘마다 표준 정의를 제공했다. 수지 맞추기도 버겁던 민간 출판사 사전팀의 역할마저 소멸됐다. 학계에선 ‘표준어가 득세하면서 방언들이 소멸됐듯 어휘마다 표준 정의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뜻풀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sup>58)</sup>

57) 雍和明(2006)의 상계서, 527~528 참조.

58) 상계 국민일보, 2010년 5월 20일 기사.

출판기업의 발언이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이 발표문의 冒頭에서 소언급했던 사전의 권력화와 맥락이 닿는다. 국가가 말의 의미까지 정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단어의 뜻까지 공인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면 시민사회는 요원하다. 국가는 사전제작 전문가, 학자, 학회, 출판사가 자유롭게 사전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에서 ‘사전찾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문교과서도 자연히 ‘사전찾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교육계의 수요가 없다면 학습자전은 결코 출판 시장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초등학생용 국어사전이 꾸준히 팔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서 ‘사전 찾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 III. 결론

趙振鐸은 “字典은 ‘典’이지 ‘字庫’가 아니므로 典範性이 있어야 한다.”<sup>59)</sup>라고 하였다. 학습자전은 실용성이 강조되지만, 전범성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 실용성과 전범성을 겸전한 학습자전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 사전 제작은 막대한 인력과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일이므로,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사전 제작은 출판계의 상업적 논리보다는 교육적 학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혹자는 대학에 사전학과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우선은 유관학과에 사전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전학은 문자학·음운학·훈고학·어학·수사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학문적 특성을 지닐 것이다.

올바른 학습자전을 만들려면 기존의 상식과 타성을 버려야 한다. 어른 옷 줄여서 어린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치가 그러하건만 사전 출판계에서는 대사전 줄여서 중사전 만들고 중사전 줄여서 포켓사전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가장 부피가 작은 사전을 학생사전, 학습사전이라고 불렀다. 우리 사회 전반이 양적 성장을 발전으로 간주하듯 사전도 몸집 키우기에 열중해왔다. 수록된 글자가 많다고 양질의 사전이 아니다. 학습자전의 편찬자는 불필요한 글자를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사전에 누락된 글자를 새로 채우는 일보다 불필요한 글자를 선별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종이사전과 디지털사전의 상호 발전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종이사전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인 공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종이사전과 디지털사전의 매체적 특성을 적절하게 이용할 때 양자가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다.

---

59) 『字典論』, 上海辭書出版社, 27면.

## 참고문헌

- 敎學社 編輯局(2002), 『大漢韓辭典』, 敎學社.
- 金赫濟(1952), 『國漢明文新玉篇』, 明文堂.
- 檀國大 東洋學研究所(2008), 『漢韓大辭典』,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 東亞出版社 編輯局(1982), 『東亞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 民衆書館 編輯局(1966), 『漢韓大字典』, 民衆書館.
- 張三植(1964), 『大漢韓字典』, 博文出版社.
- 鄭達溶(1958), 『國漢最新弘字玉篇』, 弘字出版社.
- 朝鮮光文會(1915), 『新字典』, 靑雲文化社 影印本(1985)
- 池錫永(1909), 『字典釋要』(『池錫永全集』貳), 亞細亞文化社 影印本(1985)
- 高樹藩(1971),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 冷玉龍 外(1994), 『中華字解』, 中國友誼出版公司.
- 諸橋轍次(1955),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1973),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學院華岡出版有限公司.
- 漢語大辭典編纂委員會(1993), 『漢語大辭典』, 漢語大辭典出版社.
- 漢語大字典編纂委員會(1990), 『漢語大字典』, 湖北辭典出版社·四川辭書出版社.
- 강식진(2012), 「한국의 字序法 고찰(II) - 字典類를 중심으로」, 『중국어학』.
- 강현규(1996), 「우리말 사전과 한자 자전의 오류에 관한 고찰」, 『한어문교육』 제4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금하연(2012), 「部首中心 體系에 대한 批判과 聲符中心 活用研究」,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2007), 「초등한자자전을 출간하며」, 『언어사실과 관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남길임, 박진영, 「온라인 사전의 로그 파일 분석을 통한 사전 검색 양상 연구」, 『한국사전학』 제6호, 한국사전학회.
- 남윤진(1999), 「국어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국립국어원.
- 로제 샤르띠에 지음(1991), 백인호 옮김(1998),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일월서각.
- 마들렌피노 지음(1993), 이은주 옮김(1999), 『백과전서』, 한길사.
- 미우라 시온 지음(2011), 권남희 옮김(2012), 『배를 엮다』, 은행나무.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 (2101), 『한국자전의 역사』, 역락.
- 유승준(2012), 「『한한대사전』의 편찬 과정과 향후 계획」, 『東洋學』 제5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雍和明(2006), 『中國辭典史論』, 中華書局.
- 이의강(2012), 「효율적 자전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한자한문교육연구』 제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이충구(1991), 「한국자전 성립의 고」, 『반교어문학』 제3집, 반교어문학회.
- (1994), 「한국자전의 실상」, 『한국학논집』 제2집,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2000), 「『신자전』의 근대자전 성격에 대한 고찰」, 『한중철학』 제6집, 한중철학회.

- (2000), 「한중일 사전 비교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11집, 반교어문학회.
- 정철(2006),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사전의 조건」, 『한국사전학』 제8호, 한국사전학회.
- 정형도(2009), 「한자 사전 표제자의 動詞義項 분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趙振鐸(2012), 『字典論』, 上海辭書出版社.
- 진광호(2000), 「現行 字典類의 屬部字 問題」, 『중국어문학』 제36집, 영남중국어문학회.
- 최홍렬(2007), 「漢字 ‘通字’의 의미고찰 - 通字의 사전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36집, 중앙어문학회.
- 허철(2008), 「한문교과교육에서 한문교육용한자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동방한문학』 제35집, 동방한문학회.
- A.비어스 지음(1911), 이동진 옮김(1994), 『악마의 사전』, 우신사.
- Scholfield, Phil(1982), 「Using the English Dictionary for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Vol.16, Wiley-Blackwell.
- Marsha Bensoussan, Donald Sim & Razelle Weiss(1984), 「The effect of dictionary usage on EFL test performance compared with student and teacher attitudes and expectation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Vol. 2, University of Hawaii.
- 『삼천리』 제7권 제9호, 1935.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학습자전의 향방과 개발에 대한 提言」 토론문

윤채근(단국대)

강민국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을 읽고 한국의 사전 편찬 역사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새삼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전 편찬과 관련된 지식과 관심 모두 일천한 저로서는 감히 질의라는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입장이 못 됨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저 새로 알아가는 자로서의 궁금증 혹은 호기심에서 몇 가지 여쭙는 것으로 질의자로서의 책임을 모면해 보고자 합니다. 더 심원한 논의는 다른 학회 회원 제위께서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동서양의 사전 편찬 역사를 개괄하시고 이것이 지식의 독점이나 권력화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의 학습사전 편찬 현상이 비관적임을 감안해 볼 때 조금 사치스런 염려이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특정한 지식 계층이나 전문가들의 안목에만 부합한 ‘엘리트 사전’보다 시민 계층이 두루 애호하고 즐겁게 참조할 수 있는 평범하고 대중적인 사전을 만들 길은 없는 것일까요? 선생님께서 언급하셨 듯이 설문 조사나 독자 기호 조사를 거친 참여형, 개방형 디지털 사전의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베끼기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剪而不作이라는 익살맞은 패러디로 표현하신 뿌리 깊은 악습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사전의 창조적 발전과 응용을 위해서라도 이런 진부한 폐단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하고도 개성적인 한자 학습사전이 나오려면 그 독자적 권리가 보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학회 차원의 공감대가 필요하리라 보는데 선생님께서 구상하신 대안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한문 교과가 처한 자금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이에 대한 응전으로는 훌륭하고 유익한 교과서와 참고도서를 양산하는 것보다 좋은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사전이 있을 텐데요, 어떤 새로운 참신한 체제와 내용으로 독자들을 소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지요. 제 소견으로는 주제, 양식, 분야 별 사전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시감상사전, 과학한자용어사전, 법전읽기사전, 초등생이 알아야 할 한국역사용어사전 등등. 소박하고 미시적이지만 정성이 담백 담긴 사전을 제작한다면 한자의 필요성을 무언중에 증명하면서 출판사의 수익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저의 바램이지만 선생님께서도 이런 유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자 학습자전 제작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듯합니다. 전문가와 출판사가 중심이 되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사회적 이슈화하고 널리 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참여시킨다든가 신문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말의 생산자, 즉 기자들이 애용하는 한자를 선별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무튼 학교 현장, 생활 현장과 밀착한 학습자전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이고 보면 무언가 특단의 창신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와 관련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옥고를 통해 학습자전, 나아가 한자사전 편찬과 관련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고 작성하신 노고에 걸맞지 않은 졸렬한 질의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 · 중 · 일 漢字 字典의 字形 제시 기준

金永玉(高麗大)

- 
- I. 서론
  - II. 한·중·일 한자 사전의 자형 제시 기준 비교
  - III. 『한한대자전』, 『강희자전』,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자형 비교
  - IV. 『강희자전』 자형 제시 방법
  - V. 결론
- 

### I. 서론

한자는 甲骨文을 비롯하여 金文, 大篆, 小篆, 隸書, 楷書의 순서로 변화·발전해 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 점차 異體字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正字와 이체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한자 자형에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로 한자 자형을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는데, 秦의 ‘書同文’<sup>1)</sup> 정책, 唐代的 字樣學 연구, 또 현대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 표준 자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표준 자형 제시는 한자 사전 편찬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문제이다. 後漢의 許慎은 『설문해자』를 편찬하면서 표제자를 小篆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籀文과 古文 등을 이체자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南朝 梁의 顧野王이 편찬한 『玉篇』<sup>2)</sup>은 처음으로 楷書體를 표제자로 제시하였다. 또 淸의 『康熙字典』<sup>3)</sup>에서 제시한 한자 자형은 당시 중국 한자의 표준 자형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

1) ‘書同文’은 진시황 때 李斯가 小篆을 기준으로 한자 자형을 통일한 것을 의미한다. ‘書同文’이라는 용어는 『中庸』의 “今天下, 車同軌, 書同文, 行同倫”, 『史記』「秦始皇本紀」 26년의 “車同軌, 書同文字”와 28년의 “器械一量, 同書文字”, 『漢書』「藝文志」의 “古制, 書必同文, 不知則闕.”등에 보인다.

2) 南朝 梁의 顧野王이 편찬한 『玉篇』은 이후 唐의 孫愬과 宋의 陳彭年 등이 증수하였다. 현재 통용되는 것은 宋 陳彭年 등이 孫愬本을 가지고 증수한 『大廣益會玉篇』인 宋本 『玉篇』이다.

한자 자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자전의 표제자 자형 제시는 ‘한자 자형 표준화’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전 편찬자는 어떠한 자형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거친 후에, 표제자의 자형을 표기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전의 자형 제시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자 자형 표준화의 문제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일정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가 “초종고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본고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한·중·일 漢字 字典의 字形 제시 기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학습 자전 편찬 방안 중 자형 표기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편찬한 한자 자전에서 제시한 표제자의 자형 기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중·일 자전의 한자 표준 자형 제시 기준을 확인하고 그것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III장에서는 우리나라 한자 자전 중 표제자 자형 선정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 『한한대자전』(민중서림)의 자형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과 『강희자전』 및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자형을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한한대자전』과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에서는 한자 자형 선정 기준을 ‘『강희자전』의 자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IV장에서는 『강희자전』의 자형 제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강희자전』의 자형의 영향이 매우 크며, 『한한대자전』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도 『강희자전』의 자형을 따른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희자전』의 자형 제시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강희자전』은 동일한 한자에 대해 정자와 이체자를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정자 여부 설명을 독특하게 진행하거나 모호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의 자형 제시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강희자전』의 정자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향후 한자 자전 편찬시 표제자의 자형 제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한·중·일 자전의 한자 자형 제시 기준 비교

한자문화권에 해당하는 한국, 중국, 일본 각국에서 사용하는 자전의 한자 자형은 자국에서 제시한 한자 자형 선정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편찬된 자전의 한자 자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에서 편찬된 자전에서 한자 자형을 제시하는 기준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표제자와 이체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비교를 진행해

3) 『康熙字典』은 淸 康熙 49년(1710년)에 張玉書 등에게 편찬을 명하여 康熙 55년(1716년)에 편찬된 자전이다. 明 梅膺祚의 『字彙』과 張自烈의 『正字通』을 토대로 이전의 자전을 집대성하였다.

보면, 각국에서 편찬된 사전의 한자 자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국의 사전에 나타난 한자 자형 제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중국

### (1) 『汉语大字典』

○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문화부와 중국문자개혁위원회가 발표한 『印刷通用漢字字形表』에서 규정한 자형을 채용하였다.

○ 번체자는 간체자 뒤에 [ ] 안에 제시한다.



정체자와 이체자의 구분은 1955년 발표된 『第一批異體字整理表』에 따른다.<sup>4)</sup>

### (2) 『新华字典』

○ 1988년 공포된 『现代汉语通用字表』의 자형을 기준으로 한다.

○ 이체자와 번체자는 표제자의 뒤에 ( )로 제시한다.<sup>5)</sup>

### (3) 『现代汉语规范字典』

○ 1988년 공포된 『现代汉语通用字表』의 자형을 표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을 사용하고 角을 사용하지 않거나  을 사용하고 产을 사용하지 않는다.

○ 번체자와 이체자는 정자 뒤에 번체자-이체자 순으로( ) 안에 배열하고, 여기에서 이체자의 기준은 『第一批異體字整理表』의 자형을 따른다.<sup>6)</sup>

### (4) 『中國現代常用漢字規範字典』<sup>7)</sup>

○ 『现代汉语通用字表』의 자형과 현행 소학어문교재에 출현하는 한자 중 상용자표 외의 자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 번체자와 이체자는 제외하였다.<sup>8)</sup>

### (5) 『現代漢語詞典』

○ 현재 통행하는 자형을 표준으로 하였다.<sup>9)</sup>

4) 罗竹风 主编, 『汉语大字典』, 汉语大词典出版社, 1986년 1권 출판. 1993년 완간본, 8면. 이 사전은 1975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5) 魏建功 主编, 『新华字典(1992年重排本)』, 北京; 商务印书馆, 1996. 1면.

6) 吕叔湘, 『现代汉语规范字典』, 北京; 语文出版社, 1998. 7-8면

7) 중국의 언어문자 정책을 바탕으로 편찬된 사전으로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한자 3,850자의 표제자를 수록하였다.

8) 李行健 主编, 李學主 校閱, 『中國現代常用漢字規範字典』, 북경; 어문출판사, 서울; 명문당. 2000년 발행, 2003 한국판 발행본. 4면.

9) 여기에서 현재 통행하는 자형은 이 사전이 증보된 2002년 당시 중국의 한자 표준 자형이다. 그러므로 1988년 공포된 이후 중국의 표준 자형 역할을 담당한 「現代漢語常用字表」와 「現代漢語通用字表」에서 제시한 자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체자는 정자의 뒤에 괄호로 배열하였다.<sup>10)</sup>

(6) 『通用汉字正形字典』

- 『现代汉语通用字表』와 『简化字总表』의 자형을 기준으로 삼았다.
- 번체자는 1986년의 『简化字总表』의 자형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체자는 『第一批異體字整理表』<sup>11)</sup>의 자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체자는 [ ] 안에 배열하였다.

(7) 『小學漢字圖解字典』

- 『现代汉语通用字表』의 자형과 새로 편찬된 小學教材의 자형을 근거로 하였다.<sup>12)</sup>

이상 중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전의 자형 제시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의 사전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자형 제시 기준은 크게 표제자를 제시하는 기준과 번체자나 이체자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표제자를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사전에 사용하는 한자 표제자 자형의 경우, 『汉语大字典』에서는 1965년에 공포된 『印刷通用漢字字形表』에서 제시한 자형을 표준으로 삼았고, 이후에 편찬된 『新华字典』의 개정판과 『現代漢語詞典』 등은 1988년에 공포된 『现代汉语通用字表』에 제시한 자형을 표준으로 정하였다.

여기에서 『印刷通用漢字字形表』는 1988년 『現代漢語通用字表』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중국의 표준 자형이었다. 1965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자형을 새롭게 정리하여 간화자로 제시하였고 당시 인쇄에 사용하던 宋體<sup>13)</sup> 자형을 표준으로 정하였다.

『现代汉语通用字表』는 1988년 중국의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와 中華人民共和國新聞出版總署에서 발표한 국가의 표준 字表로 출판 인쇄, 사전 편찬, 컴퓨터 관련 방면 등에 사용하도록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그 이전에 국가의 표준 자표로 사용되었던 『印刷通用漢字字形表』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现代汉语通用字表』에 수록한 한자는 『现代汉语常用字表』<sup>14)</sup>의 3,500자를 포함하여 7,000자이다.<sup>15)</sup>

참고로 『现代汉语通用字表』에서 통용자를 선정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2. 사용 빈도가 동일한 경우, 학과 분포가 넓고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한자

1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 『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2. 3-4면.

11) 王铁昆, 『通用汉字正形字典』, 北京: 语文出版社, 2003. 8면.

12) 刘明·姬英 主编, 『小学汉字图解字典(修订版)』, 北京: 中国和平出版社, 2003. 1면

13) 宋體는 중국에서 한자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 字體인데, 대만, 홍콩, 일본에서는 명조체라고 부른다.

14) 「現代漢語常用字表」는 1986년 6월부터 중국의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에서 語文教学和 사전 편찬 및 컴퓨터 처리 등의 방면에서 사용할 한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88년 1월에 확정 공포한 것으로, 빈도수에 따라 常用字 2,500자와 次常用字 1,000자를 수록하고 있다.(李行健·費錦昌, 『語言文字規範使用指南』,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1. 102-138면.)

15)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http://www.china-language.gov.cn>)

3. 조어력이 비교적 높은 한자
4. 실제 사용 상황 고려

다음으로 번체자와 이체자의 자형 제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체자와 이체자의 자형은 『第一批異體字整理表』와 『简化字总表』를 표준으로 하였다. 『第一批異體字整理表』는 1955년 12월 중국의 문화부와 문자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이다. 한자 사용에 있어서 자형 혼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의 정자를 제시하고 그 뒤에 ( )를 사용하여 이체자를 제시하였다. 『简化字总表』는 1964년에 발표한 후 1986년에 조정되었다.<sup>16)</sup> 이 표에서는 표제자인 간화자 뒤에 ( )를 사용하여 번체자를 제시하였다.<sup>17)</sup>

## 2. 대만

『中文大辭典』

- 각 글자는 통용하는 正體를 표준으로 삼았다.
- 或體·古字·俗字·略字·後起字 등은 해당 글자의 아래에 그 글자와 正字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sup>18)</sup>

대만에서 편찬된 『中文大辭典』의 한자 자형 제시 기준은 ‘통용하는 正體’이다.

대만에서는 1963년에 『國民學校常用字表』를 폐내었고, 1973년에 교육부에서 『國民常用字表』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常用國字標準字體表』를 제정·반포하여 상용한자 4,808자의 표준 자형을 제시하였고, 1982년에는 『次常用國字標準字體表』를 출판하여 대만에서 사용하는 한자 표준 자형을 제시하였다. 이 후 대만에서 교육, 학술 연구, 일상 생활의 수요, 컴퓨터 처리, 이름 표기 등에 사용하는 한자의 자형은 이 字表를 따랐다.<sup>19)</sup> 그러므로 여기에서 통용하는 正體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字表의 자형을 말하는 것이다.

## 3. 일본

(1) 『大漢和辭典』

- 자형은 『殿版康熙字典』<sup>20)</sup>을 준거로 하였다. 그 외에 다른 책을 참고하였고, 六書의 본의, 자형의 사적 변

16) 『简化字总表』는 1964년에 중국의 中國文字改革委员会와 文化部, 教育部에서 규정한 것인데, 1986년에 이를 수정하여 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에서 『简化字总表』를 발표하였다.

17) 중국의 『國家通用語言文字法』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1) 옛 文物이나 古蹟을 표기할 때. 2) 인명 표기에 필요할 때. 3) 書藝나 篆刻 등 예술 활동의 경우. 4) 題詞나 간판의 글씨의 경우. 5) 출판 교학 연구 등에서 필요할 경우. 6) 국무원 유관 부문의 비준을 얻은 특수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번체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인중, 「對漢字文化圈常用漢字字形规范化問題的一些議」, 『第八屆 國際漢字研討會 論文集』, 中國 教育部 語言文字應用研究所,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2007.)

18)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73년 초판, 1993년본. 7면.

19) 『國字標準字體教師手冊』: 대만 교육부(<http://www.edu.tw>).

화, 근대에 통행하는 형태 등을 참조하여 자형을 결정한 것이다.

○ 或體, 古字, 俗字, 略字 등은 정자의 아래에 배치하였다.<sup>21)</sup>

(2) 『新日韓辭典』<sup>22)</sup>

○ 표제자는 일본 상용한자표에 있는 한자 1,945자이다.

표준 표기 : 【 】 안에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 자형을 표기한다.

○ 참고 표기 : 『 』 안에 현재는 별로 쓰이지 않으나 예부터 쓰여 오던 자형을 표기한다.<sup>23)</sup>

이상에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자전의 한자 자형 제시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55년에 편찬된 『大漢和辭典』의 경우 淸의 자전인 『康熙字典』 자형을 바탕으로 한자의 자형을 제시하였고, 1990년에 편찬된 『新日韓辭典』의 경우에는 ‘상용한자표’에 있는 한자의 자형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체자는 정자의 아래에 표기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 두 자전에서 제시한 한자의 자형 제시 기준은 당시 일본에서 사용하던 한자 표준 자형과 관계가 있다. 즉 일본은 1919년 문부성에서 발행한 『漢字整理案』에서 『康熙字典』의 자형을 한자 자형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sup>24)</sup> 그리고 이것은 이후 1923년 상용한자 선정, 1926년 『字體整理集』, 1931년 「常用漢字表」를 거쳐, 1946년과 1949의 「當用漢字表」 및 「當用漢字字體表」에까지 영향을 주었다.<sup>25)</sup> 그러므로 1955년에 편찬된 『大漢和辭典』의 한자 자형도 당시 일본에서 사용하던 한자 표준 자형인 『康熙字典』의 자형 기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1981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제정한 표준 한자를 内閣訓令 第1号로 ‘常用漢字表’에 1,945자를 발표하였다. 이 후 이 표는 2010년 수정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므로 1990년에 편찬된 『新日韓辭典』의 경우 일본 ‘상용한자표’에 규정된 한자 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참고로 2010년에 수정된 ‘상용한자표’에서는 ‘상용한자표’가 ‘법령, 공용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

20) 淸의 内務府에서 발행한 『康熙字典』 初版을 ‘内府本’ 또는 ‘殿版’이라고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780년(安永9년)에 『日本翻刻康熙字典』이 번각된 최초의 판본이고 이것을 ‘安永本’이라고 부른다.

21)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84. 2면. 참고로 이 사전은 1955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22) 일본 三省堂에서 1990년 발행한 『例解新國語辭典(제2판)』을 편역한 사전이다.

23) 林四郎 외 編著, 김정숙 編譯, 『新日韓辭典(例解)』, 민중서림, 1991.

24) 『漢字整理案』, 「범례」에서 “(三) 本案ハ康熙字典ノ字形ヲ本トシテ整理ヲ行ヒタルモノナリ.”라고 하여 『강희자전』의 자형을 저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강희자전』의 자형을 저본으로 하였음은 1923년의 「字體整理案」과 1938년의 「漢字字體整理案」의 「범례」에서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1942년 발표된 「標準漢字表」에는 『강희자전』의 자형을 저본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42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한자의 표준 자형은 『강희자전』의 자형을 따른 것이었으나 1942년 이후에는 『강희자전』의 자형이 더 이상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 표준 자형의 저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文化廳, 『国語施策沿革資料11漢字字体資料集(諸案集成1)』, 1996. 133면.)

25) 藤原宏, 『注解常用漢字表』, 東京: ぎょうせい, 1981. 221-235면 참조.

일본의 한자 자형이 『강희자전』의 영향을 받았음은 양창수의 논문에서 ‘石塚晴通가 일본에서 『강희자전』의 자형이 표준자형으로써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 인용에서도 알 수 있다. (石塚晴通, 「漢字字体の日本的標準」, 『国語と国文学』 905호, 至文堂, 1999. 88-89면. ; 양창수, 「日本近代漢字字体의 一考察」, 『일본어학연구』 2, 한국일본어학회, 2000. 157-158면. 참조.)

사회 생활에서 표기하는 한자 사용의 기준’<sup>26)</sup>임을 명시하였다.

#### 4. 한국

##### (1) 『字典釋要』

『자전석요』는 池錫永(1855-1935)이 1906년에 원고를 완성하여 1909년에 편찬한 자전이다. 『자전석요』가 『강희자전』의 자형에 근거하고 있음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 『자전석요·범례』

俗字之不載於字典者, 書于原畫之末, 而匡註. ……., 我東字學, 以奎章全韻爲准, 然參考字彙字典, 則或有差爽, 故今於此書, 一從字典字樣.(속자 중에서 『강희자전』에 없는 것은 원획의 끝에 쓰고 주해를 바로 잡았다. ……., 우리나라 자학은 『규장전운』을 준거로 삼지만 『字彙』와 『강희자전』을 참고하면 혹 차이가 심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책에서는 일률적으로 『강희자전』의 자양을 따른다.)<sup>27)</sup>

##### (2) 『新字典』

최남선(1890~1957)의 『신자전』은 1915년에 초판된 사전으로 柳瑾(1861~1921)의 서문과 『신자전』의 「범례」를 통하여 표제자 한자 자형의 저본을 알 수 있다.

##### 『신자전·서』

是書也, 以康熙字典作本位, 以邦文邦語解正義…….名曰新字典.(이 책은 『강희자전』의 글자로 본위를 삼고 우리나라 글자와 말로써 정확한 의미를 풀었다. ……., 『신자전』이라고 이름하였다.)

##### 『신자전·범례』

○ 此書, 用康熙字典爲臺本, 剪其繁衍, 補其闕漏, 兼收新製之字新增之義, 以應新時代之用, 故名曰新字典.(이 책은 『강희자전』을 저본으로 삼아 번잡한 것을 없애고 빠진 것을 보충하였으며 새로 만든 자와 새로 증가된 뜻을 수록하여 새 시대의 용도에 부응하였으므로 『신자전』이라 이름한다.)

柳瑾(1861-1921)의 서문에서 ‘以康熙字典作本位.(『강희자전』의 글자로 본위를 삼았다.)’라 하였고, 「범례」에서 ‘用康熙字典爲臺本, 剪其繁衍, 補其闕漏.(『강희자전』을 저본으로 삼아 번잡한 것을 없애고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라 한 것에서 『신자전』의 표제자는 『강희자전』의 한자 자형을 저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26) 일본 文化廳 常用漢字表(<http://www.bunka.go.jp>)

27) 池錫永, 『字典釋要』, 永昌書館, 1929.

○ 이 책의 표제자로 수록한 한자는 대체로 강희자전(康熙字典)에 준거(準據)하였지만 오늘날 이미 폐자(廢字)가 되어버린 글자는 모두 빼고 다시 강희자전에 안 들어 있는 글자라도 오늘날 널리 쓰이는 글자는 그것이 와자(譌字)이건 속자(俗字)이건 간에 모두 보충하여 넣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만든 글자도 되도록 많이 채록하였다.

.....

○ 고자(古字), 약자(略字), 속자(俗字) 등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본자(本字)의 항(項)에 자해(字解)를 실음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 동자(仝字)·고자·속자·약자·와자(譌字) 등도 일일이 표제자로 올려 신되 자해 없이 그냥 본자로 인도하여 놓았다.<sup>28)</sup>

이상에서, 『漢韓大字典』의 경우 표제자 자형은 『강희자전』의 자형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 자형은 明朝體 楷書를 標準 字形으로 삼았다.

○ 古字·俗字·略字·訛字·譌字·籀文 등은 本字와의 關係만을 摘示하였다.<sup>29)</sup>

『漢韓大辭典』의 경우 표제자의 자형은 ‘明朝體 楷書’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조체 해서’라는 기준은 한자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 字體로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宋體, 홍콩이나 일본에서는 명조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특히 『漢韓大辭典』에서 말하는 ‘明朝體 楷書’라는 기준은 일본의 『상용한자표』에서 사용하는 ‘印刷標準字體’와 동일하다. 즉, 일본은 『상용한자표』에서 제시한 자형 이외의 한자인 ‘表外漢字’를 신문이나 인명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表外漢字’의 자형은 ‘印刷標準字體’를 따르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印刷標準字體’는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초로 만든 ‘명조체 해서’ 자형이다.<sup>30)</sup>

이상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대만·일본 각 국에서 편찬한 자전의 한자 자형 제시 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중국의 경우 1988년 이전에 편찬된 자전인 경우에는 『印刷通用漢字字形表』, 이후에 편찬된 자전의 경우 『現代漢語通用字表』에 제시한 자형을 표준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통용하는 正體를 표준으로 자전의 표제자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통용하는 字體는 『國字標準字體』를 뜻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 편찬된 자전은 『康熙字典』의 자형 기본으로 하였고, 1990년대에 편찬된 사전의 경우에는 『상용한자표』에서 제시한 자형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중국과 대만, 일본에서 편찬된 자전의 한자 자형은 각 국에서 당시 제정하여 사용 중인 표준

28) 이상은 감수,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6. 4-5면. 참고로 이 자전은 1966년 초판이 발행되었다.

2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ii면.

30) 文化審議會, 『改定常用漢字表』, 2010, 13-14면.



한자 자형을 반영한 漢字 字表의 자형을 표제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09년에 편찬된 『자전석요』, 1915년에 초판된 『신자전』, 1966년에 초판된 『漢韓大字典』, 1999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완성된 『漢韓大辭典』의 경우 『강희자전』의 자형이나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 자형을 자전의 표제자 제시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 Ⅲ. 『漢韓大字典』, 『康熙字典』,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자형 비교

앞에서 살펴본 한국에서 편찬한 한자 사전 중 표제자의 자형 제시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 자전은 『漢韓大字典』이다. 즉 『漢韓大字典』은 1966년 초판이 발행된 사전으로, 『강희자전』을 표준으로 표제자 자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용되는 이체자인 全字·古字·俗字·略字·譌字 등을 수록하여 正字와 異體字 자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만든 글자인 경우에는 ‘(韓)’이라 표시하여 한자 자형의 정자, 이체자 관계 및 우리나라 고유 한자를 파악하기 쉽도록 편찬하였다.

이처럼 『漢韓大字典』에서 표제자의 자형 제시 기준을 『강희자전』 자형으로 제시하였는데, 또 현재 한문교육에서 사용하는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sup>31)</sup>의 자형도 『강희자전』 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sup>32)</sup>에서는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sup>33)</sup>라고 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선정 기준을 ‘①본체자로 표기할 것(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함), ② 현재 통용되는 이체자도 고려할 것’이라 제시하였다.<sup>34)</sup>

31) 아래에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기초 한자’라고 略稱하겠다.

32) 아래에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를 ‘『조정 백서』’라고 略稱하겠다. 참고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의 요약본으로, 문서 형태로 발행한 것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이다.

33)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0. 5-9면.

2000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조정하면서 발표한 자형 선정 기준은 2002년과 2007년의 『교과서 편수자료』, 2007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2년 전라북도 교육청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발표한 ‘한문 인정도서 심사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56면. ;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7. 56면.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07. 41면. ; 전라북도교육청,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 기준』, 2012. ; 강원도교육연구원,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기준-붙임2-한문』, 2012. 2면.

34)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선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영옥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김영옥은 2000년에 조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선정 원칙 중 ‘본체자’ 및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의 의미를 각각 正字와 異體字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선정 기준이 ‘『康熙字典』의 正字’를 의미하는 것임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조정 백서』에서 제시한 한자 자형 선정 원칙에는 本體字, 本字, 正字, 異體字 등의 용어가 불분명한 점, 이후 2002년의 『교과서 편수 자료』와 2007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수정한 원칙과 그에 따른 수정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밝혔다.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표준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漢韓大字典』의 자형과 ‘기초 한자’의 자형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을 『강희자전』의 정자 자형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강희자전』 자형이라는 동일한 자형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된 『漢韓大字典』의 자형과 ‘기초 한자’의 자형이 가지는 실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한한대자전』의 정자 자형과 『강희자전』의 정자 자형은 동일하나 ‘기초 한자’의 자형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한한대자전』의 정자 자형과 ‘기초 한자’의 자형은 동일하나 『강희자전』의 정자 자형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sup>36)</sup>

### 1. (『한한대자전』 = 『강희자전』)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 『한한대자전』과 『강희자전』의 자형은 동일하고, 이것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과 다른 경우

한한대자전		강희자전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정자	이체자	정자	이체자			
卻	却<俗>	卻	却	却	却	
強	强<俗>	強	强	强	强	強
箇	個<全>	箇	個	個	個	
谿<全>	溪<全>	谿	溪	溪	溪	
藁	稿<全>	藁	稿	稿	稿	
恐	없음	恐	恐	恐	恐	
涼	凉<俗>	涼	凉	凉 <sup>37)</sup>	凉	涼
隸	隸<全>	隸	隸	隸 / 隸 <sup>추38)</sup>	隸	

화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68-72면. ;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字形 확정 기준 및 字形 수정 양상, 『한문고전연구』 2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35) 본고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자형은 2000년 조정 발표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기본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2000년 발표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글꼴을 바꾸어 2002년 『교과서 편수 자료』에 수록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및 2007년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몇 글자에 대해 수정 제시한 자료 등은 참고 자료로 삼았다. 또한 2000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서 제외자로 제시한 자형도 대상으로 삼아 고찰하였다.

36) 『강희자전』은 康熙 55년(1716년)에 처음 간행되었고 이후 道光 7년(1827년)부터 자형과 인용문 등을 수정하여 道光 11년(1831년)에 수정본이 간행되었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강희자전』은 『강희자전』의 판본 중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同文書局 原版 『강희자전』(中華書局 出版, 1958.)을 底本으로 하였다. 同文書局 原版 『강희자전』은 淸나라 말기에 上海同文書局에서 篆書를 덧붙여 간행한 것을 이후 中華書局에서 출판하였다. 康熙 55년(1716년) 간행본과 道光 11년(1831년) 왕인지가 『강희자전』을 교정한 『字典考證』을 함께 엮은 것이다.

鄰	隣<俗>	鄰	隣	隣 <sup>39)</sup>	隣	鄰
翻	翻<全>	翻	翻(翻) <sup>40)</sup>	翻	翻	
牀	床<俗>	牀	床	床	床	
衛	衛<俗>	衛	衛	衛	衛	
牆	牆<俗>	牆	牆	牆	牆	
絕	없음	絕	絶(絶)	絶 <sup>41)</sup>	絶	絕
整	整<全>	整	整	整	整	
著	着<俗>	著	着	着	着	
徧	編<全>	徧(徧)	遍	遍	遍	
恆	恒<俗>	恆	恒	恒	恒	
況	況<俗>	況	況	況 <sup>42)</sup>	況	況
攜	携<俗> 攜<俗>	攜	携	携	携	
戲	戲<俗>	戲(戲)	戲(戲)	戲 <sup>43)</sup>	戲	戲
柏	栢<俗>	柏	栢	栢 <sup>제44)</sup>	栢	柏
迹 跡	蹟<全>	迹	蹟	蹟 <sup>제</sup>	蹟	
兔	兎<俗>	兔	兔	兔 <sup>제45)</sup>	兔	兔

37) ‘기초 한자’ 涼은 2007년 『검정기준』에서 ‘涼’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38) 2000년 ‘기초 한자’가 조정될 때 추가된 한자이다. 2000년 ‘기초 한자’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된 한자는 ‘기초 한자’의 뒤에 <추가자제외자 대비표>로 제시하였다. 이하 추가자와 제외자의 경우는 ‘기초 한자’ 자형과 <추가자제외자 대비표> 자형을 모두 제시하고 자형 옆에 ‘추’, ‘제’라고 표시하였다.

39) ‘기초 한자’ 隣은 2007년 『검정기준』에서 ‘鄰’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40) 이하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강희자전』의 자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 글자 옆에 ()를 두어 원 글자와 유사한 자형을 제시하였다.

41) ‘기초 한자’ 絶은 2007년 『검정기준』에서 ‘絕’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42) ‘기초 한자’ 況은 2002년 『편수 자료』에서 ‘況’으로 수정하였고, 2007년 『검정기준』에서도 ‘況’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경우는 대부분 『한한대사전』의 자형이 『강희사전』의 정자 자형과 동일한 경우이다. 그러나 ‘기초 한자’에서는 『강희사전』의 정자 자형을 따르지 않고, 이체자 자형을 따른 경우이다.

## 2. (『한한대사전』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 『강희사전』

- 『한한대사전』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은 동일하고, 이것이 『강희사전』의 자형과 다른 경우

한한대사전		강희사전		기초 한자	편수 자료	검정기준
정자	이체자	정자	이체자			
畚〔韓〕		없음	없음	畚	畚	
症		없음	없음 癥 참고	症	症	
冊	冊<俗>	冊	冊 冊	冊	冊	
脚	腳<本>	腳	脚	脚	脚	
間	間<本>	間	間	間	間	
簡	簡<本>	簡(簡)	間 참고	簡	簡	
概	槩<全>	槩	概	概	概	
更	更<本>	更	更	更	更	
舉	舉<本> 舉<全>	舉	舉	舉	舉	
群	羣<本>	羣	群	群	群	
擔	擔<全>	擔	擔	擔	擔	
留	畱<本>	畱	留	留	留	
梨	梨<本>	梨	梨	梨	梨	
綿	緜<全>	緜	綿	綿	綿	

43) ‘기초 한자’ 戲는 2007년 『검정기준』에서 ‘戲’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44) ‘기초 한자’의 <추가자제외자 대비표>에서 ‘제외자’로 제시한 ‘栢’은 2007년 『검정기준』에서 ‘栢’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45) ‘기초 한자’의 <추가자제외자 대비표>에서 ‘제외자’로 제시한 ‘兎’는 2007년 『검정기준』에서 ‘兔’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氷	冰<本>	氷	氷	氷	氷	
線	綫<全>	綫	線	線	線	
濕	溼<本>	溼	濕	濕	濕	
岳<全>	嶽<全>	嶽(嶽)	岳	岳	岳	
雁	鴈<全>	鴈	雁	雁	雁	
額	額<全>	額	額	額	額	
軟	輦<本>	輦(輦)	軟	軟	軟	
溫	溫<俗>	溫	溫	溫	溫	
慰	없음	慰	慰	慰	慰	
衆	眾<本>	眾	衆	衆	衆	
窓	窗<本>	窗	窓	窓	窓	
鬪	鬪<譌> 鬥<全> 鬪<本>	鬪(鬪)	鬪(鬪)	鬪	鬪	
丸	凡<本>	凡	丸	丸	丸	
輝	輝<全>	輝	輝	輝	輝	
胸	胷<全>	胷	胸	胸	胸	
稚	穉<全> 穉<全>	穉	稚	稚 <sub>제</sub>	稚	

이상의 경우는 대부분 『한한대사전』의 자형이 ‘기초 한자’의 자형과 동일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자형은 대부분 『강희사전』의 이체자 자형을 따라 제시한 경우로, 『강희사전』 정자 자형과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3. 기타

이 외에도 『한한대사전』, 『강희사전』,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자형을 비교한 결과, 자형 간 部件과 筆劃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한한대사전		강희사전	기초 한자	편수 자료	비고
정자	이체자	정자			
觀		觀	觀	觀	풀을 뜻하는 艹와 뿔을 뜻하 는 犛의 구분 여부
歡		歡	歡	歡	
寬		寬	寬	寬	
敬		敬	敬	敬	
夢		夢	夢	夢	
異	異<本>	異(異)	異	異	두 손을 뜻하는 共과 𠂔의 구분 여부
翼	翼<本>	翼	翼	翼	
查		查	查	查	扌과 旦 형태의 구분 여부
豈		豈	豈	豈	山과 𡵓 형태의 구분 여부
幾		幾	幾	幾	㇏ 필획의 장단 여부
龜		龜	龜	龜	龜와 龜 자형의 구분 여부
徵		徵(徵)	徵	徵	-山과 𡵓 형태의 구분 여부 -王과 王 형태의 구분 여부
忍		忍	忍	忍	㇏의 방향 문제
刃		刃	刃 <sub>제</sub>	刃	
騰		騰(騰)	騰 / 騰 <sub>추</sub>	騰	月과 𠂔의 구분 여부
冬		冬	冬	冬	㇏ 과 ㇏의 구분 여부
終		終	終	終	
於		於	於	於	

#### IV. 『강희사전』 자형 제시 방법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한한대사전』 및 ‘기초 한자’의 자형은 『康熙字典』에서 正字로 제시한 자형을 기본으로 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한대사전』 및 ‘기초 한자’ 일부의 자형이 『강희사전』의 정자 자형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강희자전』이 수록하고 있는 글자가 많고 수록한 글자에 대한 前代의 연구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자와 이체자를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강희자전』의 정자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강희자전』 정자와 여타 자형과의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강희자전』의 자형 설명 방식과 자형 제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康熙字典』의 자형 설명 방식

### 1) 異體 자형에 대한 설명

『강희자전』은 자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의 개념에 대해, 『康熙字典』 「凡例」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강희자전』 내에는 ‘或作某’·‘書作某’, ‘與某字通’·‘與某字同’, ‘或通’·‘或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구분이 있다. ‘或作’은 분명히 두 개의 글자인데 우연히 가차되어 쓰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기』 「제법」 ‘여산씨(神農氏를 가리킴.)가 천하를 다스리다.[厲山氏之有天下也]’에서 烈을 혹 厲로 쓴 경우와 『좌전』 「成公 九年」의 ‘진경공이 종의를 보고 관직을 묻자 영인(음악을 연주하는 악관임.)이라고 하였다.[晉侯見鐘儀, 問其族曰, 伶人也.]’에서 伶을 혹 冷으로 쓴 것이다. ‘書作’은 글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본래는 동일한 글자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花를 華로 쓰고 馮를 逋로 쓰는 것이다.<sup>46)</sup>

여기에서 『강희자전』은 ‘或作某’·‘書作某’, ‘與某字通’·‘與某字同’, ‘或通’·‘或同’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通假, 假借, 異體를 구분하였다고 하였다. ‘或作’은 ‘烈山’의 ‘烈’을 ‘厲’로 쓴 것, ‘伶人’의 ‘伶’을 ‘冷’으로 쓴 것을 일컫는다. 즉 ‘烈’과 ‘厲’, ‘伶’과 ‘冷’은 서로 다른 글자인데 서로 통용되는 通假字이다. 그러나 ‘花’의 本字인 ‘華’, ‘逋’의 本字인 ‘馮’는 본래는 ‘華’와 ‘馮’만 있었으나 이후 ‘花’, ‘逋’가 만들어진 경우이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에서는 ‘烈’과 ‘厲’, ‘伶’과 ‘冷’은 ‘或作某’라 하여 通假나 假借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與某字通’이나 ‘或通’과 같이 ‘通’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花’와 ‘華’, ‘逋’와 ‘馮’의 경우는 ‘書作某’라 하여 두 글자의 異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與某字同’이나 ‘或同’과 같이 ‘同’으로 표시하여 ‘通’과 ‘同’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강희자전』에서 사용한 이상의 용어를 보면 『강희자전』의 편찬자가 ‘通’과 ‘同’을 엄격히 구분한 후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이전의 字書와 韻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강희자전』 편찬자가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康熙字典』의 「범례」에서와 같이 ‘通’, ‘同’ 등의 용어가 엄격하게 假借字, 通假字, 異體字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sup>47)</sup>

46) 『康熙字典』 「凡例」: 集內有或作某, 書作某者. 有與某字通, 與某字同者. 或通或同, 各有分辨. 或作者, 顯屬二字, 偶爾假借也. 如『禮』 「祭法」 「厲山氏之有天下也」, 則烈或作厲. 『左傳』 「晉侯見鐘儀, 問其族曰, 伶人也」, 則伶或作冷. 書作者, 形體雖異, 本屬一字也. 如花作華, 馮作逋等類.

47) 『강희자전』에서 자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인 ‘通’, ‘同’ 등이 엄격하게 가차자, 통가자, 이체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胡錦賢와 方有國의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이들은 字書나 韻書에 따라 한자의 가차, 통가, 이체 관

이처럼 『강희자전』에서 글자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의 모호함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강희자전』에서 缺과 𠂔, 𠂔, 決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缺：『玉篇』亦作𠂔.『集韻』或作缺決.  
 𠂔：缺本字.  
 決：又『集韻』苦穴切，音闕，與缺同. 或从血作𠂔，亦作決.  
 𠂔：○ 按『集韻』，𠂔同缺.

먼저 缺에 대한 설명에서는 缺과 𠂔, 𠂔, 決과의 관계를 『옥편』의 ‘亦作’, 『집운』의 ‘或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표제자 𠂔에 대한 설명에서는 缺에서 사용한 『옥편』의 ‘亦作’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고 本字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決에 대한 설명에서는 缺에 대한 설명에서와 같이 『집운』을 인용하였으나 ‘與某同’, ‘或’, ‘亦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缺에서 ‘或作’만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𠂔에 대한 설명에서는 缺, 𠂔, 決과의 관계에 대한 『옥편』이나 『집운』 등의 용어를 인용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강희자전』 편찬자의 설명을 나타내는 ‘○ 按’에서 『집운』을 인용하고 ‘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缺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부연하자면, 缺에 대한 설명에서 『옥편』을 인용하여 𠂔을 ‘亦作’이라 한 것을 𠂔에 대한 설명에서는 缺의 ‘本字’라 하여 缺과 𠂔을 정자와 본자 관계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缺에 대한 설명에서 決과 𠂔은 ‘或作’으로 설명하였으나 決에 대한 설명에서는 ‘同’으로 缺을 설명하고 ‘亦’으로 決을 설명하였다. 또한 𠂔에서는 缺에서 ‘或作’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同’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강희자전』에서 異體字, 同義字, 通假字, 假借字 등의 글자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亦’, ‘或’, ‘同’ 등의 용어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혼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위에서 살펴본 ‘亦’, ‘或’, ‘同’, ‘通’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강희자전』에서 글자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古文, 古文某字, 籀文, 籀文某字, 籀文作某, 或作某, 或从某作某, 本作某, 某本字, 亦作某, 與同某, 同某, 又作某, 俗作某, 俗某字, 今文作某, 通作某, 某字之譌’ 등이 있다. 이들 용어는 『강희자전』의 正字와 음과 뜻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자형이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에서 자형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용어를 正字와 상대되는 개념인 異體字의 범위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강희자전』에서 표준 자형으로 제시한 正字를 이해하기 위한 자형으로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sup>48)</sup>

계를 표시하는 용어가 다음을 밝혔다. 즉 『玉篇』이나 『龍龕手鏡』에서 ‘同’은 異體와 假借 관계를 나타내고, 『集韻』에서는 ‘書作某’가 자형의 차이가 적은 異體字, ‘或作某’는 자형의 차이가 큰 異體字, ‘或从某’는 偏旁이나 部首가 다른 異體字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集韻』에서 異體나 古今字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與某同’이고 『正字通』에서 假借나 古今字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與某通’이라고 하였다. 『강희자전』에서는 대부분 小注에서 이전의 字書와 韻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므로 『康熙字典』 내에서 ‘通’, ‘同’ 등의 용어가 명확히 통가, 가차, 이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胡錦賢, 「康熙字典關於處理異體通假字術語的運用」, 『湖北大學學報』 3期, 1993. ; 方有國, 「談談康熙字典的通和同」, 康熙字典暨詞學國際學術研討會, 2009.)

48) 이체자에 포함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潘重規는 “本索引凡加△爲異體字, 卽書中注有 ‘或作, 古文, 籀文, 周禮作, 春秋作, 一作, 古文作, 本亦作, 今俗作, 篆作, 籀作, 俗亦作, 詩文作, 說文亦作, 同上, 上同, 并上同, 與某同, 又某同, 或某同, 某字同, 亦與某同, 說文同上, 廣蒼同上, 字書某字, 聲類某字, 俗某字, 亦或爲, 同上俗, 或爲, 亦某字, 俗, 篆文, 古爲某, 與某



## 2) 『說文解字』를 기준으로 한 자형 설명

『강희자전』에서 정자와 이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小篆을 바탕으로 한 『說文解字』이다. 『강희자전』이 『설문해자』를 자형 확정의 기준으로 하였음은 『강희자전』 「凡例」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한결같이 『설문』을 위주로 하고 『홍무정운』을 참고하여 (정자를 정하였으니, 이와 같이 정한 정자는) 예전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며, 또한 해서체의 서사에도 편리하게 하였다.<sup>49)</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희자전』에서 글자의 결구나 필획의 근거를 『설문해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글자에 대하여 다양한 자형이 있는데, 『강희자전』은 『설문해자』의 자형을 기준으로 각 글자의 正字로 고증한 것이다.

『강희자전』에서 『설문해자』를 바탕으로 한 正字의 제시는 다음 몇 글자의 예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희자전』은 𠂔에 대한 설명에서 ‘『說文』 齊也. 从支从束从正.’이라 하여, 『설문』 「支部」에서 𠂔에 대해 ‘齊也. 从支从束从正, 正亦聲.’이라 한 것과 소전 자형 𠂔 형태를 따른 𠂔을 정자로 보았다.

『강희자전』의 정자가 『설문』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間을 閒으로 제시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강희자전』은 閒에 대해 閒의 아래에 배치하고 ‘『正字通』 同上(즉 閒을 가리킴.), 俗字.’라 하였다. 그리고 閒에 대해 ‘『說文』 隙也. 从門从月. 會意, 亦形.’이라 하여 『說文』 「門部」 閒에서 ‘隙也. 从門从月.’이라 하고 소전 𨵿를 제시한 것을 따라 閒을 정자로 보고 閒을 이체자로 보았다. 이를 통하여 『강희자전』의 정자 자형은 『설문』과 부합되는 글자를 正字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강희자전』은 정자 자형의 확정에 있어서 『설문』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설문』에서 『강희자전』까지의 장시간 동안 한자의 자형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자형은 『강희자전』이 편찬된 淸나라 때에 국가적인 표준 자형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의 정자 자형과 『설문』의 자형 사이에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강희자전』의 정자가 『설문』의 자형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희자전』에서 대부분 『설문』의 자형을 本字라 하여 正字와 구분하였다.

『강희자전』의 자형 중 本字와 正字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강희자전』에서는 「心部」 𢇛에 대해 ‘『說文』 惓也. 从心𢇛聲. 本作𢇛, 今作𢇛.’이라 설명하였다. 이것은 『설문』 「心部」 𢇛에서 소전 𢇛을 제시하고 ‘惓也. 从心𢇛聲. 康恨切’이라 한 것을 인용한 후, 𢇛의 본자는 ‘本作𢇛’이라 하여 『설문』에서 제시한 𢇛을 본자로 본 것이다.<sup>50)</sup> 즉 『강희자전』이 편찬되었던 淸代

字同, 或從某, 俗從某, 俗某字, 古文以爲某字’等屬之.”라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강희자전』에서 ‘古文, 古文某字, 籀文, 籀文某字, 籀文作某, 或作某, 或从某作某, 本作某, 某本字, 亦作某, 與同某, 同某, 又作某, 俗作某, 俗某字, 今文作某, 通作某, 某字之譌’라 한 것을 이체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겠다.(潘重規 主編, 『玉篇索引凡例』, 『玉篇索引』, 臺北: 國家圖書館, 1982.)

49) 『康熙字典』 「凡例」: 今一以『說文』爲主, 參以『正韻』, 不悖古法, 亦復便於楷書.

50) 『강희자전』에서 𢇛을 정자로 삼았음은 「心部」 𢇛의 설명에서 ‘『集韻』 同𢇛. 詳𢇛字註.’라 하여 𢇛을 𢇛의 이체자로 본

에는 『설문』의 자형인 𣵵은 본자가 되었고 『설문』의 자형이 변한 𣵵 형태가 정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희자전』에서 『설문』의 자형을 本字로 본 경우는 溫에서도 볼 수 있다. 『강희자전』은 「水部」에서 溫에 대해 ‘『說文』 溫本字.’라 하여 『설문』 「水部」에서 溫에 대해 ‘从水溫聲’이라 하고 소전 𣵵에서 제시한 𣵵형태의 溫은 溫의 본자로 보았다. 그리고 『강희자전』 「水部」 溫에서 日형태의 溫을 정자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𣵵과 𣵵, 溫과 溫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강희자전』에서는 本字와 正字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本字와 正字를 구분하여 설명한 경우, 本字는 주로 『설문』 소전 자형을 따른 자형이 다수이다.

### 3) 前代의 字書와 韻書의 인용

『강희자전』에서 자형을 설명하는 주요한 방법은 『강희자전』 이전 시기의 字書나 韻書 등에서 해당 글자에 대한 설명을 모아 놓는 것이다. 그러나 『강희자전』에서 前代의 서적을 인용한 고증 중에는 원전을 밝힌 경우도 있지만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강희자전』 「心部」 𣵵에 대한 설명에서 ‘又或作𣵵.’이라 하여 원전을 밝히지 않은 채 𣵵의 이체자로 𣵵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𣵵部」의 𣵵에서 ‘『集韻』 枯昆切, 音坤. 𣵵或作𣵵. 又『正字通』 同𣵵.’이라 하여 𣵵의 이체자로 𣵵과 𣵵을 제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운』과 『정자통』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집운』 「平聲·魂韻」의 𣵵에서 ‘或作𣵵𣵵𣵵’이라 한 것과 『정자통』 「𣵵部」의 𣵵에서 ‘同𣵵(𣵵+心의 형태임). 本作𣵵(𣵵임.), 省作𣵵(𣵵임.), 非.’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집운』과 『정자통』의 원전을 밝히지 않은 채 원문 중 일부분만을 인용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 4) 기타

이 외에도, 『강희자전』에서 표제자를 설명하는 방식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강희자전』은 格에 대한 설명에서 ‘又感通.’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희자전』은 感에 대해 ‘又『字彙補』 戶坎切, 與撼通. 又『集韻』『正韻』 𣵵胡紺切, 與憾通.’이라 하여 撼, 憾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보이나 格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에서 해당 글자에서 언급한 다른 글자와의 관계가 반드시 다른 글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제자의 설명 중 정자와 이체자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窓의 경우 「穴部」 6획의 窓에서 ‘俗窓字.’라 하고, 「穴部」 11획의 窓에서는 ‘俗窓字’라고 설명하여, 窓에서 窓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강희자전』에서 間과 間의 관계는 「門部」 間에 대해 ‘同上(間을 가리킴.), 俗字.’라 하여 바로 앞에서 설명한 間의 이체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間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에서는 間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강희자전』의 표제자에서 다른 글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거나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글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자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2. 『康熙字典』의 자형 제시 방식

이상의 몇 가지 『강희자전』의 자형 설명 방식을 염두에 두고 『강희자전』에서 제시한 자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자형 제시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강희자전』의 자형은 한 글자가 독체자로 사용될 경우, 다른 글자의 부건으로 사용될 경우 등에 있어 규칙적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강희자전』의 자형 중 편방의 위치에 따른 자형의 규칙적인 제시는 衣와 示 등에서 볼 수 있다. 즉 衣가 글자의 왼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裕, 初, 被 등에서 볼 수 있듯이 衣를 모두 衤 형태로 제시하였다. 반면 示는 글자의 왼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社, 祖, 神 등과 같이 모두 示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강희자전』에서 자형을 규칙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爪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爪는 독체자일 경우에는 소전 ㇀ 형태의 爪로 제시하였으나 글자의 위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暖, 亂, 稻, 稱, 奚, 溪, 採, 鷄, 隱, 乳, 爲, 淫, 僞, 靜, 淨, 緩, 援, 授, 辭, 爭, 爲, 爵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상 『강희자전』에서 자형을 규칙적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강희자전』의 자형 중에는 동일한 부건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예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강희자전』에서 동물의 머리나 사람을 나타내는 人이 글자의 위쪽에 위치할 경우 대부분 ㇂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色, 急, 角, 擔, 危, 魚, 漁, 負, 晚, 勉, 逸 등에서 통일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兔, 兔에서 동물의 머리를 刀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형태를 부건으로 한 勉의 왼쪽 상단 부분, 晚과 逸(逸) 오른쪽 상단 부분은 ㇂ 형태로 제시하여 兔, 兔에서 刀 형태로 제시한 것과 다르게 제시하였다.

『강희자전』에서 免과 兔에서와 같이 동일 부건을 다른 형태로 제시한 경우는 段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강희자전』에서 段 부건은 段나 暇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段로 제시하였으나, 假에서는 假로 제시하여 段의 오른쪽 상단 부분의 형태가 다르다.

이상 『강희자전』에서 免, 段 등의 부건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강희자전』은 자형 제시에 있어서 모든 자형을 표준화하여 규칙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2) 一字多音多義

한자 중에는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음과 뜻을 가진 경우가 있다. 『강희자전』에서 이에 속하는 한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강희자전』에서는 邪에 대해 ‘사’, ‘야’, ‘여’, ‘서’ 등의 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음이 ‘야’일 경우에는 ‘又助語, 又疑辭, 經傳俱作邪, 俗作耶.’라 하여 어조사로 쓰였으며 ‘耶’를 이체자로 하였다. 이것은 『강희자전』에서 ‘耶’에 대해 ‘『玉篇』 俗邪字.’라 하여 耶를 邪의 이체자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강희자전』에서는 邪 한 글자가 ‘사’와 ‘야’ 등의 다양한 음을 가지고, ‘간사하다’는 의미와 함께 ‘어조사’를 나타내기도 하는 一字多音多義의 글자였다. 그러므로 현재 ‘간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사’ 음의 邪와 ‘어조사’로 쓰이는 ‘야’ 음의 耶로 분화되어 사용되는 것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著의 경우에도 현재는 著와 着으로 분화된 것과 달리 『강희자전』에서는 著에서 着의 음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에서 著에 대한 설명 중 ‘『直音』 俗作着.’이라고 하여 着을 著의 이체자로 보고 着을 표제자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상 『강희자전』 중 一字多音多義의 한자를 살펴본 결과, 『강희자전』의 邪가 耶의 音義를 포함하고 있고 著가 着의 音義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강희자전』에서는 현재와 같이 邪와 耶, 著와 着 등으로 분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整字의 구조

『강희자전』에서는 整字의 구조에 의해 正字와 異體字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즉 整字를 구성하는 부건은 동일하나 부건이 상하좌우 등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正字와 이체자를 구분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界의 경우에는 상하 구조의 界를 正字로 보고, 좌우 구조의 畛는 이체자로 보았다. 그리고 好에서는 女가 왼쪽에 위치한 好를 正字로 보고, 女가 오른쪽에 위치한 孜는 이체자로 보았다. 이처럼 『강희자전』에서 부건의 위치에 따라 正字와 이체자를 구분한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자	賤	期	魂	鑑	潔	均	浴	域	梅
이체자	賚	朞	覓	鑒	潔	勻	浴	埴	桼

정자	擁	腰	勇	李	胷	忽	脅	慙	案
이체자	壘	腰	勔	杼	胸	怱	脇	慚	桼

정자	槩	架	槁	羣	斷	朗	絲	鄰	影
이체자	概	枷	稿	群	斷	腩	綿	隣	彥

## 4) 部件의 구분

『강희자전』에서는 형태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 부건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艹와 艹 부건은 형태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다. 『강희자전』에서는 ‘풀’을 뜻하는 부건 艹가 글자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위치할 경우에는 苦, 苟, 菊, 菌, 茶, 落, 奔과 같이 艹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풀’과 관련이 없는 藿, 苟(극), 覓(환), 萑(추), 昔(말)등은 歡, 敬, 寬, 舊, 夢 등에서 볼 수 있듯이 艹 형태로 제시하여 艹 형태와 구분하였다.

『강희자전』에서 형태가 비슷한 부건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음은 舟의 변형인 月에서도 볼 수 있다. 『강희자전』에서는 朝, 潮, 廟, 前, 服, 勝, 騰, 俞, 愈, 恆 등에서 舟의 변형을 月 형태로 제시하여, 月이나 肉의 변형인 月(육)과 구별하였다.

## 5) 避諱

『강희자전』은 避諱하여 글자 중 한 획을 감소하여 제시한 경우가 있다.

『강희자전』에서 玄은 한 획 丶을 제외한 ㄩ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避諱와 관련이 있다. 「玄部」에서 玄의 제시 방법과 「玄部」에 배열한 글자의 자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敬避  
御名  
玄  
妙, 率, 茲, 竭, 蛭, 蛭, 畜, 蓄

『강희자전』은 「玄部」의 玄 표제자 윗부분에 ‘御名’이라 하여 표시하였고 敬避(존경하여 피휘함.)라고 적었다. 여기에서 ‘玄’을 ‘御名’이라 한 것은 당시 淸나라 康熙皇帝의 이름이 玄燁이었기 때문이다. 강희 황제의 이름인 玄을 피휘하여 ㄩ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희자전』에서는 燁도 한 획 丨을 제외하고 燁 형태로 제시하여 피휘하였다.<sup>51)</sup> 그리고 「玄部」에 속한 玄 부건의 형태는 모두 ㄩ로 제시하였다.

51) 『강희자전』에서 燁은 「火部」에서 燁으로 제시하여 燁의 필획 중 丨을 생략한 燁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玄을 피휘하여 ㄩ로 제시하고 표제자 윗부분에 ‘御名’이라 표시한 경우와 동일하다.

위에서 『강희자전』에서 자형을 설명하는 방식과 『강희자전』에서 제시한 자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강희자전』의 자형 설명 방식과 제시한 자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희자전』의 자형 설명 방식을 보면, 『강희자전』에서 글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亦’, ‘或’, ‘同’, ‘通’ 등의 용어가 분명하게 가차자, 통가자, 이체자 등을 구별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강희자전』에서 이러한 설명을 제시한 경우에 이를 넓은 의미의 이체자로 파악하였으며, 또한 『강희자전』에서의 正字 자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자형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강희자전』에서 자형 설명에 인용한 前代의 韻書나 字書의 경우 『강희자전』 편찬자가 임의적으로 용어를 바꾼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희자전』에서는 주로 『설문』과 소전을 기본으로 삼아서 정자와 이체자를 구분하였는데, 청나라 때에 이미 『설문』과 달라진 자형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문』 자형을 ‘本字’라고 하였고 이것은 正字와 구분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강희자전』에서 제시한 자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희자전』에서는 동일한 부건이나 필획을 규칙적으로 같은 형태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整字를 구성하는 부건의 위치에 따라 正字와 異體字를 구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강희자전』의 자형 중 한 글자가 다양한 음과 의미를 가진 一字多音多義의 경우에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의 예를 살펴보았으며, 避諱로 인해 기존 자형에서 한 획을 적게 제시한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 V. 결론

본고는 한·중·일 한자 사전 자형 제시 기준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경우 1988년 이전에 편찬된 사전인 경우에는 『印刷通用漢字字形表』, 이후에 편찬된 사전의 경우 『現代漢語通用字表』에 제시한 자형을 표준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통용하는 正體를 표준으로 사전의 표제자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통용하는 字體는 『國字標準字體』를 이룬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 편찬된 사전은 『康熙字典』의 자형 기본으로 하였고, 1990년대에 편찬된 사전의 경우에는 『상용한자표』에서 제시한 자형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중국과 대만, 일본에서 편찬된 사전의 한자 자형은 각 국에서 당시 제정하여 사용 중인 漢字字表의 자형을 표제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09년에 편찬된 『자전석요』, 1915년에 초판된 『신자전』, 1966년에 초판된 『漢韓大字典』, 1999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완성된 『漢韓大辭典』의 경우 『강희자전』의 자형이나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 자형을 사전의 표제자 제시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편찬한 한자 사전과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선정 기준이 동일하게 『강희자전』 자형임을 확인하였다.

이어 표제자의 자형 제시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 한국의 사전인 『漢韓大字典』과 현재 한문교육에서 사용하는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을 『강희자전』 자형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한대사전』의 정자 자형과 『강희자전』의 정자 자형은 동일하나 ‘기초 한자’의 자형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한

한대자전』의 정자 자형과 ‘기초 한자’의 자형은 동일하나 『강희자전』의 정자 자형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자형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강희자전』의 정자와 이체자를 판별하는 데에 원인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희자전』의 자형이 가지는 특징과 자형 제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히 『강희자전』에서는 동일한 부건이나 필획을 규칙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整字를 구성하는 부건의 위치에 따라 正字와 異體字를 구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강희자전』의 자형 중 한 글자가 다양한 음과 의미를 가진 一字多音多義의 경우와 避諱로 인해 기존 자형에서 한 획을 적게 제시한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한자 자전의 편찬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자전의 자형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한중일 한자 사전에서의 한자 자형 제시 기준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한자 자전의 표제자의 자형 선정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한자 사전에서의 표제자 자형 선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저 서】

- 강원도교육연구원(2012),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기준-붙임2-한문』.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과서 편수자료 II-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과서 편수자료 II-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0),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99),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이상은 감수(1996),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전라북도교육청(2012),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 기준』.  
朝鮮光文會 編纂(1920), 『新字典』, 新文館.  
池錫永(1929), 『字典釋要』, 永昌書館.  
  
藤原宏(1981), 『注解常用漢字表』, 東京:ぎょうせい.  
罗竹风 主編(1993), 『汉语大字典』, 汉语大词典出版社.  
吕叔湘(1998), 『现代汉语规范字典』, 北京:语文出版社.  
刘明·姬英 主編(2003), 『小学汉字图解字典(修订版)』, 北京:中国和平出版社.  
文化審議會(2010), 『改定常用漢字表』, .  
文化廳(1996), 『国語施策沿革資料11漢字字体資料集(諸案集成1)』.  
潘重規 主編(1982), 『玉篇索引』, 臺北: 國家도서관.  
王铁昆(2003), 『通用汉字正形字典』, 北京: 语文出版社.  
魏建功 主編(1996), 『新华字典(1992年重排本)』, 北京: 商务印书馆.  
李行健 主編, 李學主 校閱(2003), 『中國現代常用漢字規範字典』, 北京: 语文出版社, 서울: 명문당.  
林四郎 외 編著, 김정숙 編譯(1991), 『新日韓辭典(例解)』, 민중서림.  
張玉書 纂著(1958), 『康熙字典』, 北京: 中華書局.  
諸橋轍次(1984),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2002), 『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北京: 商務印書館.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1993),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許慎 撰, 段玉裁 注(1988),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논 문】

- 김언중(2007), 「对汉字文化圈常用汉字字形规范化问题的一些题议」, 『第八屆 國際漢字研討會 論文集』, 中國教育部 語言文字應用研究所,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김영옥(2012),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표준화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김영옥(2012),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字形 확정 기준 및 字形 수정 양상」, 『한문고전연구』 24, 한국한문고전학회.  
양창수(2000), 「日本近代漢字字體의 一考察」, 『일본어학연구』 2, 한국일본어학회.



方有国(2009), 「談談康熙字典的通和同」, 康熙字典暨詞典學國際學術研討會.  
石塚晴通(1999), 「漢字字體の日本的標準」, 『国語と国文学』 905호, 至文堂.  
胡錦賢(1993), 「康熙字典关于处理异体通假字术语的运用」, 『湖北大學學報』 3期.

【인터넷 웹사이트】

대만 교육부 『國字標準字體教師手冊』(<http://www.edu.tw>).  
일본 文化廳 常用漢字表(<http://www.bunka.go.jp>)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http://www.china-language.gov.cn>)



## 「한·중·일 漢字 字典의 字形 제시 기준」 토론문

허연구(성균관대)

# 별지 참조



## 한문 학습자전 수록 한자의 대표 字義 및 意味項 선정과 조직

李東宰(公州大)

- 
1. 머리말
  2. 현행 자전의 字義 및 意味項 선정 양상
  3. 한문학습사전의 대표字義 및 意味項  
선정 원칙과 조직
  4. 결론
- 

### 1. 머리말

한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우리의 언어생활과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지도 2,000여년이 넘었다. 오늘날 한자와 한문은 그 중요도가 나날이 퇴색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자 가운데 하나이다. 한자를 이해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구서가 자전이며, 자전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자의 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다.

자전에서 한자의 字義를 우리말 어휘로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의 자의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시도는 신라시대부터 한자의 訓과 音을 빌려 표기한 吏讀가 그 시초이다.

한자의 자의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은 글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한자들의 자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였다. 이는 조선 1481년(성종 10년)에 이루어진 초간본 杜詩諺解와 1632년에 중간된 杜詩諺解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두보의 <徐卿二子歌>의 한 구절인 “并是天上麒麟兒”에서, ‘兒’를 초간본에서는 ‘삿기(새끼)’로 풀이하였으나, 중간본에서는 ‘아하(아이)’로 표기하였으며<sup>1)</sup>, 그 후 ‘兒’는 ‘아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오(2002), (『杜甫 詩 언해에 관한 비교연구』, 『국어사연구』 제3호, 국어사연구학회)참조가 된다.

이'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江'이 '가람'에서 '강'으로 표현이 바뀌었듯이 한자의 자의의 표현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자전은 1537년 최세진에 의해 만들어진 『訓蒙字會』가 최초이지만, 이 책은 한자의 표제 자의 정보만 기술하여 놓았고, 이후 1796년 이후 정조 연간에 간행된 편자 미상의 『全韻玉篇』에 와서야 한자로 자의를 제시하기 시작했다.<sup>2)</sup> 우리나라의 근대화된 자전은 1908년 정익로에 의해 만들어진 『국한문 신옥편』과 1909년 지석영의 『자전석요』가 있다.<sup>3)</sup>

그러나 광복이후 만들어진 자전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이를 援用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애매한 것은 일본식 한자 어휘를 그대로 차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자전들도 이전의 자전들을 답습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가로쓰기 판형과 한글 표기법 등은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의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들은 자의는 예전의 자전들과 같이 '우리말 풀이', '한자 어휘 풀이' 등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1972년부터 한문이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자의 '자의'를 통일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자의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단지 그대로 묵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자에 대한 字義에 대한 논의는 이동재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실린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대표 자의에 대한 검토가 시도되었으며<sup>4)</sup>, 이어 허철에 의해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제언이 있었을 뿐,<sup>5)</sup>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대한 字義뿐만 아니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의 자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고는 한문학습자전에서 한자의 '대표 字義'와 '의미 항' 선정과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문의 초학자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한자와 한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고는 한문 학습자를 위한 한문학습자전의 대표 자의 및 의미항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자전의 대표 字義 표현 양상과 의미 항 선정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문학습자전의 대표 字義 및 의미항의 선정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 2. 현행 자전의 字義 및 意味項 선정 양상

2) 『全韻玉篇』의 '上'을 보면, [一部] 2획의 아래에 '上 상 登也 進也 君也 高也 尊也 下之對'라고 기술하여, 자음은 한글로 표기하고, 자의는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3) 박형익(2012), 『한국 자전의 역사』, 역락, pp. 377~378 참조.

4) 이동재(2004),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의미' 통일화 방안」, 『한자한문교육』 제1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5) 허철(2011),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기본 字義 선정과 近義字 처리 문제에 관한 일견」, 『漢文學論集』 제31집, 근역한문학회.

자전에서 한자의 字義를 우리말 어휘로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에는 국가, 진보, 민중과 같이 개념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와 뉴스, 카페, 에로틱과 같은 音譯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자의 자의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개념어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한자 어휘로 개념화된 대안 어휘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들의 字義는 『국한문 신옥편』과 1909년 『자전석요』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의 맥을 이은 자전보다는 1914년에 출간된 허버 존스의 『영한사전』의 영어 표제어들의 한국어 의미 풀이를 하는데 당대 일본에서 쓰던 어휘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풀이한 것에서 더 영향을 받았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거나 번안된 외국어 사전과 자전들은 이것을 원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쓰던 어휘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존스가 사용했던 일본식 풀이는 그 후 사전의 중심 어휘가 되어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sup>6)</sup>

이에 따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들은 자의를 原義와 派生義, 轉成義를 뒤섞어서 ‘순수한 우리말(고어)로 풀이한 字義’, ‘字音으로 의미를 부여한 한 자의’, ‘字音에 서술적 표현을 덧붙인 자의’, ‘한자 어휘로 이루어진 자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대한 대표 字義는 1999년 한국어문회와 전통문화연구회가 주관하여 제정한 대표 字音과 字義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sup>7)</sup> 한국어문회와 전통문화연구회가 주관하여 선정한 한자의 대표 字義와 字音이 학습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대표 字義 선정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한문 교과서에 신습 한자의 字義를 복수의 의미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한국 字典들이 대표 字義로만 제시하던 관습적 전통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집필할 한문학습자전의 대표 字義 및 의미 항 선정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자전의 대표 자의 표현 양상과 의미 항 선정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 연구로서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 자전에서 대표 자의와 의미 항의 선정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전에서 대표 자의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 1>은 오늘날 널리 활용되는 자전의 ‘工’자를 인쇄한 그림이다.<sup>8)</sup>

<그림 - 1>

6) 황호덕(2013), <번역, 한자문맥에서 서구문맥으로>, 《경향신문》 2013년 4월 13일자 23면.

7) 한국어문회와 전통문화연구회가 선정 한 한자의 대표 字義는 천자문의 여러 판본과 『翻譯朴通事』, 『新增類合』, 『新字典』, 『兒學編』, 『倭語類解』, 『字典釋要』, 『全韻玉篇』, 『訓蒙字會』 등을 토대로 전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古今漢韓字典』, 『韓國漢字語辭典』, 『漢韓大字典』, 『漢韓大辭典』, 『大漢韓辭典』 등 현재 출간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류와 북한의 「교육용 한자 3000자」의 풀이까지 참고하여 字義를 선정하였다고 한다.(허철(2011), 297면 참조)

8) <그림 - 1>에 제시한 ㉠은 민중서림에서 출판한 한한대사전이고, ㉡는 두산 동아출판사에서 출판한 한한대사전이며, ㉢는 대만 중화학술원에서 출판한 中文大辭典이고, ㉣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출판한 中韓大辭典이다. 앞으로 사전을 인용할 때에는 ㉠, ㉡, ㉢, ㉣로 표기한다.

③【工】中人 공 ㄱ 東 古紅切 gōng

【字源】

①장인 공 물건을 만드는 사람. ‘職一’, ‘欲善其事, 必先利其器’〔論語〕. ②공업 공 기물을 만드는 업. ‘百姓當家力農一’〔史記〕. ③벼슬아치 공 관리. ‘嗟嗟臣一’〔詩經〕. ④악인 공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歌文王之三’〔左傳〕. ⑤일 공 하는 일. ‘女一’, ‘天一人其代之’〔書經〕. ⑥교묘할 공 솜씨가 교묘함. ‘拙一’, ‘帝一書善畫’〔南史〕. ⑦점쟁이 공 ‘使一占之’〔史記〕. ⑧성공 성(姓)의 하나.

【字源】 甲金文 工 篆文 工 隶文 工 草書 工 行書 工 楷書 工 宋體 工 黑體 工

모양이라고도 하고, 대장장이가 무엇을 버리기 위한 모루의 象形이라고도 함. 공구(工具)를 본뜬 모양에서, ‘공작(工作)’하다의 뜻을 나타냄.

五

③【工】 장인 공 團 | gōng

【字源】

①장인,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옛날 세업(世業)의 시대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사농(士農)보다도 낮고 상(商)보다도 위인 사회적 계급에 속했던 사람. 〔論語〕 工欲善其事. 2 공교(工巧)하다, 교묘하다. 〔南史〕 帝工書善畫. 3 일, 만드는 일. 〔書經〕 天工人其代之. 4 악인(樂人), 가악(歌樂)을 하는 사람. 〔春秋左氏傳〕 工歌文王之三. 5 벼슬아치. 官. 〔詩經〕 嗟嗟臣工. 6 점쟁이. 〔史記〕 使工占之. 7 공(功). 功. 〔書經〕 苗昉弗即工.

<㉑ 漢韓大字典>

<㉒ 漢韓大字典>

【工】 8911

三 十 六 畫

工 部

【字源】 一 古 工 二 古 工 三 古 工 四 古 工 五 古 工 六 古 工 七 古 工 八 古 工 九 古 工 十 古 工 十一 古 工 十二 古 工 十三 古 工 十四 古 工 十五 古 工 十六 古 工 十七 古 工 十八 古 工 十九 古 工 二十 古 工 二十一 古 工 二十二 古 工 二十三 古 工 二十四 古 工 二十五 古 工 二十六 古 工 二十七 古 工 二十八 古 工 二十九 古 工 三十 古 工 三十一 古 工 三十二 古 工 三十三 古 工 三十四 古 工 三十五 古 工 三十六 古 工 三十七 古 工 三十八 古 工 三十九 古 工 四十 古 工 四十一 古 工 四十二 古 工 四十三 古 工 四十四 古 工 四十五 古 工 四十六 古 工 四十七 古 工 四十八 古 工 四十九 古 工 五十 古 工 五十一 古 工 五十二 古 工 五十三 古 工 五十四 古 工 五十五 古 工 五十六 古 工 五十七 古 工 五十八 古 工 五十九 古 工 六十 古 工 六十一 古 工 六十二 古 工 六十三 古 工 六十四 古 工 六十五 古 工 六十六 古 工 六十七 古 工 六十八 古 工 六十九 古 工 七十 古 工 七十一 古 工 七十二 古 工 七十三 古 工 七十四 古 工 七十五 古 工 七十六 古 工 七十七 古 工 七十八 古 工 七十九 古 工 八十 古 工 八十一 古 工 八十二 古 工 八十三 古 工 八十四 古 工 八十五 古 工 八十六 古 工 八十七 古 工 八十八 古 工 八十九 古 工 九十 古 工 九十一 古 工 九十二 古 工 九十三 古 工 九十四 古 工 九十五 古 工 九十六 古 工 九十七 古 工 九十八 古 工 九十九 古 工 一百 古 工 一百零一 古 工 一百零二 古 工 一百零三 古 工 一百零四 古 工 一百零五 古 工 一百零六 古 工 一百零七 古 工 一百零八 古 工 一百零九 古 工 一百一十 古 工 一百一十一 古 工 一百一十二 古 工 一百一十三 古 工 一百一十四 古 工 一百一十五 古 工 一百一十六 古 工 一百一十七 古 工 一百一十八 古 工 一百一十九 古 工 一百二十 古 工 一百二十一 古 工 一百二十二 古 工 一百二十三 古 工 一百二十四 古 工 一百二十五 古 工 一百二十六 古 工 一百二十七 古 工 一百二十八 古 工 一百二十九 古 工 一百三十 古 工 一百三十一 古 工 一百三十二 古 工 一百三十三 古 工 一百三十四 古 工 一百三十五 古 工 一百三十六 古 工 一百三十七 古 工 一百三十八 古 工 一百三十九 古 工 一百四十 古 工 一百四十一 古 工 一百四十二 古 工 一百四十三 古 工 一百四十四 古 工 一百四十五 古 工 一百四十六 古 工 一百四十七 古 工 一百四十八 古 工 一百四十九 古 工 一百五十 古 工 一百五十一 古 工 一百五十二 古 工 一百五十三 古 工 一百五十四 古 工 一百五十五 古 工 一百五十六 古 工 一百五十七 古 工 一百五十八 古 工 一百五十九 古 工 一百六十 古 工 一百六十一 古 工 一百六十二 古 工 一百六十三 古 工 一百六十四 古 工 一百六十五 古 工 一百六十六 古 工 一百六十七 古 工 一百六十八 古 工 一百六十九 古 工 一百七十 古 工 一百七十一 古 工 一百七十二 古 工 一百七十三 古 工 一百七十四 古 工 一百七十五 古 工 一百七十六 古 工 一百七十七 古 工 一百七十八 古 工 一百七十九 古 工 一百八十 古 工 一百八十一 古 工 一百八十二 古 工 一百八十三 古 工 一百八十四 古 工 一百八十五 古 工 一百八十六 古 工 一百八十七 古 工 一百八十八 古 工 一百八十九 古 工 一百九十 古 工 一百九十一 古 工 一百九十二 古 工 一百九十三 古 工 一百九十四 古 工 一百九十五 古 工 一百九十六 古 工 一百九十七 古 工 一百九十八 古 工 一百九十九 古 工 二百 古 工 二百零一 古 工 二百零二 古 工 二百零三 古 工 二百零四 古 工 二百零五 古 工 二百零六 古 工 二百零七 古 工 二百零八 古 工 二百零九 古 工 二百一十 古 工 二百一十一 古 工 二百一十二 古 工 二百一十三 古 工 二百一十四 古 工 二百一十五 古 工 二百一十六 古 工 二百一十七 古 工 二百一十八 古 工 二百一十九 古 工 二百二十 古 工 二百二十一 古 工 二百二十二 古 工 二百二十三 古 工 二百二十四 古 工 二百二十五 古 工 二百二十六 古 工 二百二十七 古 工 二百二十八 古 工 二百二十九 古 工 二百三十 古 工 二百三十一 古 工 二百三十二 古 工 二百三十三 古 工 二百三十四 古 工 二百三十五 古 工 二百三十六 古 工 二百三十七 古 工 二百三十八 古 工 二百三十九 古 工 二百四十 古 工 二百四十一 古 工 二百四十二 古 工 二百四十三 古 工 二百四十四 古 工 二百四十五 古 工 二百四十六 古 工 二百四十七 古 工 二百四十八 古 工 二百四十九 古 工 二百五十 古 工 二百五十一 古 工 二百五十二 古 工 二百五十三 古 工 二百五十四 古 工 二百五十五 古 工 二百五十六 古 工 二百五十七 古 工 二百五十八 古 工 二百五十九 古 工 二百六十 古 工 二百六十一 古 工 二百六十二 古 工 二百六十三 古 工 二百六十四 古 工 二百六十五 古 工 二百六十六 古 工 二百六十七 古 工 二百六十八 古 工 二百六十九 古 工 二百七十 古 工 二百七十一 古 工 二百七十二 古 工 二百七十三 古 工 二百七十四 古 工 二百七十五 古 工 二百七十六 古 工 二百七十七 古 工 二百七十八 古 工 二百七十九 古 工 二百八十 古 工 二百八十一 古 工 二百八十二 古 工 二百八十三 古 工 二百八十四 古 工 二百八十五 古 工 二百八十六 古 工 二百八十七 古 工 二百八十八 古 工 二百八十九 古 工 二百九十 古 工 二百九十一 古 工 二百九十二 古 工 二百九十三 古 工 二百九十四 古 工 二百九十五 古 工 二百九十六 古 工 二百九十七 古 工 二百九十八 古 工 二百九十九 古 工 三百 古 工 三百零一 古 工 三百零二 古 工 三百零三 古 工 三百零四 古 工 三百零五 古 工 三百零六 古 工 三百零七 古 工 三百零八 古 工 三百零九 古 工 三百一十 古 工 三百一十一 古 工 三百一十二 古 工 三百一十三 古 工 三百一十四 古 工 三百一十五 古 工 三百一十六 古 工 三百一十七 古 工 三百一十八 古 工 三百一十九 古 工 三百二十 古 工 三百二十一 古 工 三百二十二 古 工 三百二十三 古 工 三百二十四 古 工 三百二十五 古 工 三百二十六 古 工 三百二十七 古 工 三百二十八 古 工 三百二十九 古 工 三百三十 古 工 三百三十一 古 工 三百三十二 古 工 三百三十三 古 工 三百三十四 古 工 三百三十五 古 工 三百三十六 古 工 三百三十七 古 工 三百三十八 古 工 三百三十九 古 工 三百四十 古 工 三百四十一 古 工 三百四十二 古 工 三百四十三 古 工 三百四十四 古 工 三百四十五 古 工 三百四十六 古 工 三百四十七 古 工 三百四十八 古 工 三百四十九 古 工 三百五十 古 工 三百五十一 古 工 三百五十二 古 工 三百五十三 古 工 三百五十四 古 工 三百五十五 古 工 三百五十六 古 工 三百五十七 古 工 三百五十八 古 工 三百五十九 古 工 三百六十 古 工 三百六十一 古 工 三百六十二 古 工 三百六十三 古 工 三百六十四 古 工 三百六十五 古 工 三百六十六 古 工 三百六十七 古 工 三百六十八 古 工 三百六十九 古 工 三百七十 古 工 三百七十一 古 工 三百七十二 古 工 三百七十三 古 工 三百七十四 古 工 三百七十五 古 工 三百七十六 古 工 三百七十七 古 工 三百七十八 古 工 三百七十九 古 工 三百八十 古 工 三百八十一 古 工 三百八十二 古 工 三百八十三 古 工 三百八十四 古 工 三百八十五 古 工 三百八十六 古 工 三百八十七 古 工 三百八十八 古 工 三百八十九 古 工 三百九十 古 工 三百九十一 古 工 三百九十二 古 工 三百九十三 古 工 三百九十四 古 工 三百九十五 古 工 三百九十六 古 工 三百九十七 古 工 三百九十八 古 工 三百九十九 古 工 四百 古 工 四百零一 古 工 四百零二 古 工 四百零三 古 工 四百零四 古 工 四百零五 古 工 四百零六 古 工 四百零七 古 工 四百零八 古 工 四百零九 古 工 四百一十 古 工 四百一十一 古 工 四百一十二 古 工 四百一十三 古 工 四百一十四 古 工 四百一十五 古 工 四百一十六 古 工 四百一十七 古 工 四百一十八 古 工 四百一十九 古 工 四百二十 古 工 四百二十一 古 工 四百二十二 古 工 四百二十三 古 工 四百二十四 古 工 四百二十五 古 工 四百二十六 古 工 四百二十七 古 工 四百二十八 古 工 四百二十九 古 工 四百三十 古 工 四百三十一 古 工 四百三十二 古 工 四百三十三 古 工 四百三十四 古 工 四百三十五 古 工 四百三十六 古 工 四百三十七 古 工 四百三十八 古 工 四百三十九 古 工 四百四十 古 工 四百四十一 古 工 四百四十二 古 工 四百四十三 古 工 四百四十四 古 工 四百四十五 古 工 四百四十六 古 工 四百四十七 古 工 四百四十八 古 工 四百四十九 古 工 四百五十 古 工 四百五十一 古 工 四百五十二 古 工 四百五十三 古 工 四百五十四 古 工 四百五十五 古 工 四百五十六 古 工 四百五十七 古 工 四百五十八 古 工 四百五十九 古 工 四百六十 古 工 四百六十一 古 工 四百六十二 古 工 四百六十三 古 工 四百六十四 古 工 四百六十五 古 工 四百六十六 古 工 四百六十七 古 工 四百六十八 古 工 四百六十九 古 工 四百七十 古 工 四百七十一 古 工 四百七十二 古 工 四百七十三 古 工 四百七十四 古 工 四百七十五 古 工 四百七十六 古 工 四百七十七 古 工 四百七十八 古 工 四百七十九 古 工 四百八十 古 工 四百八十一 古 工 四百八十二 古 工 四百八十三 古 工 四百八十四 古 工 四百八十五 古 工 四百八十六 古 工 四百八十七 古 工 四百八十八 古 工 四百八十九 古 工 四百九十 古 工 四百九十一 古 工 四百九十二 古 工 四百九十三 古 工 四百九十四 古 工 四百九十五 古 工 四百九十六 古 工 四百九十七 古 工 四百九十八 古 工 四百九十九 古 工 五百 古 工 五百零一 古 工 五百零二 古 工 五百零三 古 工 五百零四 古 工 五百零五 古 工 五百零六 古 工 五百零七 古 工 五百零八 古 工 五百零九 古 工 五百一十 古 工 五百一十一 古 工 五百一十二 古 工 五百一十三 古 工 五百一十四 古 工 五百一十五 古 工 五百一十六 古 工 五百一十七 古 工 五百一十八 古 工 五百一十九 古 工 五百二十 古 工 五百二十一 古 工 五百二十二 古 工 五百二十三 古 工 五百二十四 古 工 五百二十五 古 工 五百二十六 古 工 五百二十七 古 工 五百二十八 古 工 五百二十九 古 工 五百三十 古 工 五百三十一 古 工 五百三十二 古 工 五百三十三 古 工 五百三十四 古 工 五百三十五 古 工 五百三十六 古 工 五百三十七 古 工 五百三十八 古 工 五百三十九 古 工 五百四十 古 工 五百四十一 古 工 五百四十二 古 工 五百四十三 古 工 五百四十四 古 工 五百四十五 古 工 五百四十六 古 工 五百四十七 古 工 五百四十八 古 工 五百四十九 古 工 五百五十 古 工 五百五十一 古 工 五百五十二 古 工 五百五十三 古 工 五百五十四 古 工 五百五十五 古 工 五百五十六 古 工 五百五十七 古 工 五百五十八 古 工 五百五十九 古 工 五百六十 古 工 五百六十一 古 工 五百六十二 古 工 五百六十三 古 工 五百六十四 古 工 五百六十五 古 工 五百六十六 古 工 五百六十七 古 工 五百六十八 古 工 五百六十九 古 工 五百七十 古 工 五百七十一 古 工 五百七十二 古 工 五百七十三 古 工 五百七十四 古 工 五百七十五 古 工 五百七十六 古 工 五百七十七 古 工 五百七十八 古 工 五百七十九 古 工 五百八十 古 工 五百八十一 古 工 五百八十二 古 工 五百八十三 古 工 五百八十四 古 工 五百八十五 古 工 五百八十六 古 工 五百八十七 古 工 五百八十八 古 工 五百八十九 古 工 五百九十 古 工 五百九十一 古 工 五百九十二 古 工 五百九十三 古 工 五百九十四 古 工 五百九十五 古 工 五百九十六 古 工 五百九十七 古 工 五百九十八 古 工 五百九十九 古 工 六百 古 工 六百零一 古 工 六百零二 古 工 六百零三 古 工 六百零四 古 工 六百零五 古 工 六百零六 古 工 六百零七 古 工 六百零八 古 工 六百零九 古 工 六百一十 古 工 六百一十一 古 工 六百一十二 古 工 六百一十三 古 工 六百一十四 古 工 六百一十五 古 工 六百一十六 古 工 六百一十七 古 工 六百一十八 古 工 六百一十九 古 工 六百二十 古 工 六百二十一 古 工 六百二十二 古 工 六百二十三 古 工 六百二十四 古 工 六百二十五 古 工 六百二十六 古 工 六百二十七 古 工 六百二十八 古 工 六百二十九 古 工 六百三十 古 工 六百三十一 古 工 六百三十二 古 工 六百三十三 古 工 六百三十四 古 工 六百三十五 古 工 六百三十六 古 工 六百三十七 古 工 六百三十八 古 工 六百三十九 古 工 六百四十 古 工 六百四十一 古 工 六百四十二 古 工 六百四十三 古 工 六百四十四 古 工 六百四十五 古 工 六百四十六 古 工 六百四十七 古 工 六百四十八 古 工 六百四十九 古 工 六百五十 古 工 六百五十一 古 工 六百五十二 古 工 六百五十三 古 工 六百五十四 古 工 六百五十五 古 工 六百五十六 古 工 六百五十七 古 工 六百五十八 古 工 六百五十九 古 工 六百六十 古 工 六百六十一 古 工 六百六十二 古 工 六百六十三 古 工 六百六十四 古 工 六百六十五 古 工 六百六十六 古 工 六百六十七 古 工 六百六十八 古 工 六百六十九 古 工 六百七十 古 工 六百七十一 古 工 六百七十二 古 工 六百七十三 古 工 六百七十四 古 工 六百七十五 古 工 六百七十六 古 工 六百七十七 古 工 六百七十八 古 工 六百七十九 古 工 六百八十 古 工 六百八十一 古 工 六百八十二 古 工 六百八十三 古 工 六百八十四 古 工 六百八十五 古 工 六百八十六 古 工 六百八十七 古 工 六百八十八 古 工 六百八十九 古 工 六百九十 古 工 六百九十一 古 工 六百九十二 古 工 六百九十三 古 工 六百九十四 古 工 六百九十五 古 工 六百九十六 古 工 六百九十七 古 工 六百九十八 古 工 六百九十九 古 工 七百 古 工 七百零一 古 工 七百零二 古 工 七百零三 古 工 七百零四 古 工 七百零五 古 工 七百零六 古 工 七百零七 古 工 七百零八 古 工 七百零九 古 工 七百一十 古 工 七百一十一 古 工 七百一十二 古 工 七百一十三 古 工 七百一十四 古 工 七百一十五 古 工 七百一十六 古 工 七百一十七 古 工 七百一十八 古 工 七百一十九 古 工 七百二十 古 工 七百二十一 古 工 七百二十二 古 工 七百二十三 古 工 七百二十四 古 工 七百二十五 古 工 七百二十六 古 工 七百二十七 古 工 七百二十八 古 工 七百二十九 古 工 七百三十 古 工 七百三十一 古 工 七百三十二 古 工 七百三十三 古 工 七百三十四 古 工 七百三十五 古 工 七百三十六 古 工 七百三十七 古 工 七百三十八 古 工 七百三十九 古 工 七百四十 古 工 七百四十一 古 工 七百四十二 古 工 七百四十三 古 工 七百四十四 古 工 七百四十五 古 工 七百四十六 古 工 七百四十七 古 工 七百四十八 古 工 七百四十九 古 工 七百五十 古 工 七百五十一 古 工 七百五十二 古 工 七百五十三 古 工 七百五十四 古 工 七百五十五 古 工 七百五十六 古 工 七百五十七 古 工 七百五十八 古 工 七百五十九 古 工 七百六十 古 工 七百六十一 古 工 七百六十二 古 工 七百六十三 古 工 七百六十四 古 工 七百六十五 古 工 七百六十六 古 工 七百六十七 古 工 七百六十八 古 工 七百六十九 古 工 七百七十 古 工 七百七十一 古 工 七百七十二 古 工 七百七十三 古 工 七百七十四 古 工 七百七十五 古 工 七百七十六 古 工 七百七十七 古 工 七百七十八 古 工 七百七十九 古 工 七百八十 古 工 七百八十一 古 工 七百八十二 古 工 七百八十三 古 工 七百八十四 古 工 七百八十五 古 工 七百八十六 古 工 七百八十七 古 工 七百八十八 古 工 七百八十九 古 工 七百九十 古 工 七百九十一 古 工 七百九十二 古 工 七百九十三 古 工 七百九十四 古 工 七百九十五 古 工 七百九十六 古 工 七百九十七 古 工 七百九十八 古 工 七百九十九 古 工 八百 古 工 八百零一 古 工 八百零二 古 工 八百零三 古 工 八百零四 古 工 八百零五 古 工 八百零六 古 工 八百零七 古 工 八百零八 古 工 八百零九 古 工 八百一十 古 工 八百一十一 古 工 八百一十二 古 工 八百一十三 古 工 八百一十四 古 工 八百一十五 古 工 八百一十六 古 工 八百一十七 古 工 八百一十八 古 工 八百一十九 古 工 八百二十 古 工 八百二十一 古 工 八百二十二 古 工 八百二十三 古 工 八百二十四 古 工 八百二十五 古 工 八百二十六 古 工 八百二十七 古 工 八百二十八 古 工 八百二十九 古 工 八百三十 古 工 八百三十一 古 工 八百三十二 古 工 八百三十三 古 工 八百三十四 古 工 八百三十五 古 工 八百三十六 古 工 八百三十七 古 工 八百三十八 古 工 八百三十九 古 工 八百四十 古 工 八百四十一 古 工 八百四十二 古 工 八百四十三 古 工 八百四十四 古 工 八百四十五 古 工 八百四十六 古 工 八百四十七 古 工 八百四十八 古 工 八百四十九 古 工 八百五十 古 工 八百五十一 古 工 八百五十二 古 工 八百五十三 古 工 八百五十四 古 工 八百五十五 古 工 八百五十六 古 工 八百五十七 古 工 八百五十八 古 工 八百五十九 古 工 八百六十 古 工 八百六十一 古 工 八百六十二 古 工 八百六十三 古 工 八百六十四 古 工 八百六十五 古 工 八百六十六 古 工 八百六十七 古 工 八百六十八 古 工 八百六十九 古 工 八百七十 古 工 八百七十一 古 工 八百七十二 古 工 八百七十三 古 工 八百七十四 古 工 八百七十五 古 工 八百七十六 古 工 八百七十七 古 工 八百七十八 古 工 八百七十九 古 工 八百八十 古 工 八百八十一 古 工 八百八十二 古 工 八百八十三 古 工 八百八十四 古 工 八百八十五 古 工 八百八十六 古 工 八百八十七 古 工 八百八十八 古 工 八百八十九 古 工 八百九十 古 工 八百九十一 古 工 八百九十二 古 工 八百九十三 古 工 八百九十四 古 工 八百九十五 古 工 八百九十六 古 工 八百九十七 古 工 八百九十八 古 工 八百九十九 古 工 九百 古 工 九百零一 古 工 九百零二 古 工 九百零三 古 工 九百零四 古 工 九百零五 古 工 九百零六 古 工 九百零七 古 工 九百零八 古 工 九百零九 古 工 九百一十 古 工 九百一十一 古 工 九百一十二 古 工 九百一十三 古 工 九百一十四 古 工 九百一十五 古 工 九百一十六 古 工 九百一十七 古 工 九百一十八 古 工 九百一十九 古 工 九百二十 古 工 九百二十一 古 工 九百二十二 古 工 九百二十三 古 工 九百二十四 古 工 九百二十五 古 工 九百二十六 古 工 九百二十七 古 工 九百二十八 古 工 九百二十九 古 工 九百三十 古 工 九百三十一 古 工 九百三十二 古 工 九百三十三 古 工 九百三十四 古 工 九百三十五 古 工 九百三十六 古 工 九百三十七 古 工 九百三十八 古 工 九百三十九 古 工 九百四十 古 工 九百四十一 古 工 九百四十二 古 工 九百四十三 古 工 九百四十四 古 工 九百四十五 古 工 九百四十六 古 工 九百四十七 古 工 九百四十八 古 工 九百四十九 古 工 九百五十 古 工 九百五十一 古 工 九百五十二 古 工 九百五十三 古 工 九百五十四 古 工 九百五十五 古 工 九百五十六 古 工 九百五十七 古 工 九百五十八 古 工 九百五十九 古 工 九百六十 古 工 九百六十一 古 工 九百六十二 古 工 九百六十三 古 工 九百六十四 古 工 九百六十五 古 工 九百六十六 古 工 九百六十七 古 工 九百六十八 古 工 九百六十九 古 工 九百七十 古 工 九百七十一 古 工 九百七十二 古 工 九百七十三 古 工 九百七十四 古 工 九百七十五 古 工 九百七十六 古 工 九百七十七 古 工 九百七十八 古 工 九百七十九 古 工 九百八十 古 工 九百八十一 古 工 九百八十二 古 工 九百八十三 古 工 九百八十四 古 工 九百八十五 古 工 九百八十六 古 工 九百八十七 古 工 九百八十八 古 工 九百八十九 古 工 九百九十 古 工 九百九十一 古 工 九百九十二 古 工 九百九十三 古 工 九百九十四 古 工 九百九十五 古 工 九百九十六 古 工 九百九十七 古 工 九百九十八 古 工 九百九十九 古 工 一千 古 工 一千零一 古 工 一千零二 古 工 一千零三 古 工 一千零四 古 工 一千零五 古 工 一千零六 古 工 一千零七 古 工 一千零八 古 工 一千零九 古 工 一千一十 古 工 一千一十一 古 工 一千一十二 古 工 一千一十三 古 工 一千一十四 古 工 一千一十五 古 工 一千一十六 古 工 一千一十七 古 工 一千一十八 古 工 一千一十九 古 工 一千二十 古 工 一千二十一 古 工 一千二十二 古 工 一千二十三 古 工 一千二十四 古 工 一千二十五 古 工 一千二十六 古 工 一千二十七 古 工 一千二十八 古 工 一千二十九 古 工 一千三十 古 工 一千三十一 古 工 一千三十二 古 工 一千三十三 古 工 一千三十四 古 工 一千三十五 古 工 一千三十六 古 工 一千三十七 古 工 一千三十八 古 工 一千三十九 古 工 一千四十 古 工 一千四十一 古 工 一千四十二 古 工 一千四十三 古 工 一千四十四 古 工 一千四十五 古 工 一千四十六 古 工 一千四十七 古 工 一千四十八 古 工 一千四十九 古 工 一千五十 古 工 一千五十一 古 工 一千五十二 古 工 一千五十三 古 工 一千五十四 古 工 一千五十五 古 工 一千五十六 古 工 一千五十七 古 工 一千五十八 古 工 一千五十九 古 工 一千六十 古 工 一千六十一 古 工 一千六十二 古 工 一千六十三 古 工 一千六十四 古 工 一千六十五 古 工 一千六十六 古 工 一千六十七 古 工 一千六十八 古 工 一千六十九 古 工 一千七十 古 工 一千七十一 古 工 一千七十二 古 工 一千七十三 古 工 一千七十四 古 工 一千七十五 古 工 一千七十六 古 工 一千七十七 古 工 一千七十八 古 工 一千七十九 古 工 一千八十 古 工 一千八十一 古 工 一千八十二 古 工 一千八十三 古 工 一千八十四 古 工 一千八十五 古 工 一千八十六 古 工 一千八十七 古 工 一千八十八 古 工 一千八十九 古 工 一千九十 古 工 一千九十一 古 工 一千九十二 古 工 一千九十三 古 工 一千九十四 古 工 一千九十五 古 工 一千九十六 古 工 一千九十七 古 工 一千九十八 古 工 一千九十九 古 工 二千 古 工 二千零一 古 工 二千零二 古 工 二千零三 古 工 二千零四 古 工 二千零五 古 工 二千零六 古 工 二千零七 古 工 二千零八 古 工 二千零九 古 工 二千一十 古 工 二千一十一 古 工 二千一十二 古 工 二千一十三 古 工 二千一十四 古 工 二千一十五 古 工 二千一十六 古 工 二千一十七 古 工 二千一十八 古 工 二千一十九 古 工 二千二十 古 工 二千二十一 古 工 二千二十二 古 工 二千二十三 古 工 二千二十四 古 工 二千二十五 古 工 二千二十六 古 工 二千二十七 古 工 二千二十八 古 工 二千二十九 古 工 二千三十 古 工 二千三十一 古 工 二千三十二 古 工 二千三十三 古 工 二千三十四 古 工 二千三十五 古 工 二千三十六 古 工 二千三十七 古 工 二千三十八 古 工 二千三十九 古 工 二千四十 古 工 二千四十一 古 工 二千四十二 古 工 二千四十三 古 工 二千四十四 古 工 二千四十五 古 工 二千四十六 古 工 二千四十七 古 工 二千四十八 古 工 二千四十九 古 工 二千五十 古 工 二千五十一 古 工 二千五十二 古 工 二千五十三 古 工 二千五十四 古 工 二千五十五 古 工 二千五十六 古 工 二千五十七 古 工 二千五十八 古 工 二千五十九 古 工 二千六十 古 工 二千六十一 古 工 二千六十二 古 工 二千六十三 古 工 二千六十四 古 工 二千六十五 古 工 二千六十六 古 工 二千六十七 古 工 二千六十八 古 工 二千六十九 古 工 二千七十 古 工 二千七十一 古 工 二千七十二 古 工 二千七十三 古 工 二千七十四 古 工 二千七十五 古 工 二千七十六 古 工 二千七十七 古 工 二千七十八 古 工 二千七十九 古 工 二千八十 古 工 二千八十一 古 工 二千八十二 古 工 二千八十三 古 工 二千八十四 古 工 二千八十五 古 工 二千八十六 古 工 二千八十七 古 工 二千八十八 古 工 二千八十九 古 工 二千九十 古 工 二千九十一 古 工 二千九十二 古 工 二千九十三 古 工 二千九十四 古 工 二千九十五 古 工 二千九十六 古 工 二千九十七 古 工 二千九十八 古 工 二千九十九 古 工 三千 古 工 三千零一 古 工 三千零二 古 工 三千零三 古 工 三千零四 古 工 三千零五 古 工 三千零六 古 工 三千零七 古 工 三千零八 古 工 三千零九 古 工 三千一十 古 工 三千一十一 古 工 三千一十二 古 工 三千一十三 古 工 三千一十四 古 工 三千一十五 古 工 三千一十六 古 工 三千一十七 古 工 三千一十八 古 工 三千一十九 古 工 三千二十 古 工 三千二十一 古 工 三千二十二 古 工 三千二十三 古 工 三千二十四 古 工 三千二十五 古 工 三千二十六 古 工 三千二十七 古 工 三千二十八 古 工 三千二十九 古 工 三千三十 古 工 三千三十一 古 工 三千三十二 古 工 三千三十三 古 工 三千三十四 古 工 三千三十五 古 工 三千三十六 古 工 三千三十七 古 工 三千三十八 古 工 三千三十九 古 工 三千四十 古 工 三千四十一 古 工 三千四十二 古 工 三千四十三 古 工 三千四十四 古 工 三千四十五 古 工 三千四十六 古 工 三千四十七 古 工 三千四十八 古 工 三千四十九 古 工 三千五十 古 工 三千五十一 古 工 三千五十二 古 工 三千五十三 古 工 三千五十四 古 工 三千五十五 古 工 三千五十六 古 工 三千五十七 古 工 三千五十八 古 工 三千五十九 古 工 三千六十 古 工 三千六十一 古 工 三千六十二 古 工 三千六十三 古 工 三千六十四 古 工 三千六十五 古 工 三千六十六 古 工 三千六十七 古 工 三千六十八 古 工 三千六十九 古 工 三千七十 古 工 三千七十一 古 工 三千七十二 古 工 三千七十三 古 工 三千七十四 古 工 三千七十五 古 工 三千七十六 古 工 三千七十七 古 工 三千七十八 古 工 三千七十九 古 工 三千八十 古 工 三千八十一 古 工 三千八十二 古 工 三千八十三 古 工 三千八十四 古 工 三千八十五 古 工 三千八十六 古 工 三千八十七 古 工 三千八十八 古 工 三千八十九 古 工 三千九十 古 工 三千九十一 古 工 三千九十二 古 工 三千九十三 古 工 三千九十四 古 工 三千九十五 古 工 三千九十六 古 工 三千九十七 古 工 三千九十八 古 工 三千九十九 古 工 四千 古 工 四千零一 古 工 四千零二 古 工 四千零三 古 工 四千零四 古 工 四千零五 古 工 四千零六 古 工 四千零七 古 工 四千零八 古 工 四千零九 古 工 四千一十 古 工 四千一十一 古 工 四千一十二 古 工 四千一十三 古 工 四千一十四 古 工 四千一十五 古 工 四千一十六 古 工 四千一十七 古 工 四千一十八 古 工 四千一十九 古 工 四千二十 古 工 四千二十一 古 工 四千二十二 古 工 四千二十三 古 工 四千二十四 古 工 四千二十五 古 工 四千二十六 古 工 四千二十七 古 工 四千二十八 古 工 四千二十九 古 工 四千三十 古 工 四千三十一 古 工 四千三十二 古 工 四千三十三 古 工 四千三十四 古 工 四千三十五 古 工 四千三十六 古 工 四千三十七 古 工 四千三十八 古 工 四千三十九 古 工 四千四十 古 工 四千四十一 古 工 四千四十二 古 工 四千四十三 古 工 四千四十四 古 工 四千四十五 古 工 四千四十六 古 工 四千四十七 古 工 四千四十八 古 工 四千四十九 古 工 四千五十 古 工 四千五十一 古 工 四千五十二 古 工 四千五十三 古 工 四千五十四 古 工 四千五十五 古 工 四千五十六 古 工 四千五十七 古 工 四千五十八 古 工 四千五十九 古 工 四千六十 古 工 四千六十一 古 工 四千六十二 古 工 四千六十三 古 工 四千六十四 古 工 四千六十五 古 工 四千六十六 古 工 四千六十七 古 工 四千六十八 古 工 四千六十九 古 工 四千七十 古 工 四千七十一 古 工 四千七十二 古 工 四千七十三 古 工 四千七十四 古 工 四千七十五 古 工 四千七十六 古 工 四千七十七 古 工 四千七十八 古 工 四千七十九 古 工 四千八十 古 工 四千八十一 古 工 四千八十二 古 工 四千八十三 古 工 四千八十四 古 工 四千八十五 古 工 四千八十六 古 工 四千八十七 古 工 四千八十八 古 工 四千八十九 古 工 四千九十 古 工 四千九十一 古 工 四千九十二 古 工 四千九十三 古 工 四千九十四 古 工 四千九十五 古 工 四千九十六 古 工 四千九十七 古 工 四千九十八 古 工 四千九十九 古 工 五千 古 工 五千零一 古 工 五千零二 古 工 五千零三 古 工 五千零四 古 工 五千零五 古 工 五千零六 古 工 五千零七 古 工 五千零八 古 工 五千零九 古 工 五千一十 古 工 五千一十一 古 工 五千一十二 古 工 五千一十三 古 工 五千一十四 古 工 五千一十五 古 工 五千一十六 古 工 五千一十七 古 工 五千一十八 古 工 五千一十九 古 工 五千二十 古 工 五千二十一 古 工 五千二十二 古 工 五千二十三 古 工 五千二十四 古 工 五千二十五 古 工 五千二十六 古 工 五千二十七 古 工 五千二十八 古 工 五千二十九 古 工 五千三十 古 工 五千三十一 古 工 五千三十二 古 工 五千三十三 古 工 五千三十四 古 工 五千三十五 古 工 五千三十六 古 工 五千三十七 古 工 五千三十八 古 工 五千三十九 古 工 五千四十 古 工 五千四十一 古 工 五千四十二 古 工 五千四十三 古 工 五千四十四 古 工 五千四十五 古 工 五千四十六 古 工 五千四十七 古 工 五千四十八 古 工 五千四十九 古 工 五千五十 古 工 五千五十一 古 工 五千五十二 古 工 五千五十三 古 工 五千五十四 古 工 五千五十五 古 工 五千五十六 古 工 五千五十七 古 工 五千五十八 古 工 五千五十九 古 工 五千六十 古 工 五千六十一 古 工 五千六十二 古 工 五千六十三 古 工 五千六十四 古 工 五千六十五 古 工 五千六十六 古 工 五千六十七 古 工 五千六十八 古 工 五千六十九 古 工 五千七十 古 工 五千七十一 古 工 五千七十二 古 工 五千七十三 古 工

위의 <그림 - 1>에서 알 수 있듯이, ‘工’의 대표 자의는 ㉠와 ㉡는 ‘장인’이라고 표기하고, 다시 ㉢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부기하고, ㉣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와 같은 뜻으로 설명을 부기하고 있다. 그러나 ㉤는 대표 자의를 ‘巧飾也’라고 하여 ‘예쁘게 꾸민다’라고 풀이하고 있고, ㉥는 ‘일꾼, 노동자, 노동계급’으로 분화시켜 더욱 현대적인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기실 ‘工’은 원의가 ‘巨(거)와 같은 갈고랑이 모양의 자나 石器에 구멍을 뚫는 연장’을 의미 하는 ‘도구’였으나, 이를 다루는 사람, 즉 ‘장인’으로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또 여기에서 의미가 전성하여 ㉔의 ‘巧飾也(꾸민다)’라는 자의가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원의보다 전성의나 파생의가 더 많이 활용되는 한자는 權(‘저울추’라는 의미보다는 ‘권세’나 ‘권리’의 의미), 部(‘거느리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누다’, ‘부서의 의미), 盛(‘담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라는 의미)로 파생되거나 전성된 字義가 대표 자의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들의 대표 字義는 原義, 派生義, 轉成義 등이 뒤섞여져 있으며, 字義의 구성 형태도 ‘순수한 우리말 형태’, ‘한자의 자음을 활용한 형태’, ‘字音에 서술형 접미사를 붙인



형태', '한자 어휘를 활용한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sup>9)</sup> 다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사전마다 다르게 제시된 것도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논의의 전개 편의상 ㉠의 사전과 네이버 사전을 주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첫째, 자의가 순수한 우리말로 이루어진 한자이다. 이를 살펴보면, ‘水’는 대표 자의가 ‘물’이다. 대표 자의가 ‘물’과 같이 순수하게 우리말로 삼은 한자는 ‘假(빌리다 가), 加(더하다 가), 可(옳다 가), 家(집 가), 歌(노래 가)’ 등 대부분의 한자들이 이에 속한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한다. 또한 고어로서 오늘날 사용이 거의 없는 字義로 대표 자의로 제시된 ‘個(날 개), 客(손 객), 方(모 방), 戶(지게 호)’ 등이 있다.

둘째, 字音으로 의미를 부여한 한 자의이다. ‘字音으로 字義를 부여한 한자’는 ‘功(공 공), 德(덕 덕), 門(문 문), 半(반 반), 房(방 방), 病(병 병), 福(복 복), 姓(성 성), 城(성 성), 詩(시 시), 藥(약 약), 羊(양 양), 銀(은 은), 冊(책 책), 兄(형 형)’ 등이 있다.

셋째, 자의가 字音에 서술형 어미를 덧붙인 자의의 한자이다, 예를 들면, ‘權’을 ‘권하다’라고 자의를 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의를 붙인 한자는 ‘權’을 포함하여 ‘貴(귀하다 귀), 能(능하다 능), 免(면하다 면), 妙(묘하다 묘), 變(변하다 변), 盛(성하다 성), 順(순하다 순), 甚(심하다 심), 應(응하다 응), 因(인하다 인), 傳(전하다 전), 定(정하다 정), 請(청하다 청), 合(합하다 합), 向(향하다 향), 凶(흉하다 흉), 困(곤하다 곤), 求(구하다 구), 論(논하다 논), 答(답하다 답), 對(대하다 대), 賞(상주다 상), 壯(장하다 장), 取(취하다 취), 敗(패하다 패), 興(흥하다 흥)’ 등이 있다.

넷째, 자의가 한자어, 즉 한자 어휘로 이루어진 한자이다. 이는 ‘慶’의 대표 자의를 ‘경사’로 풀이한 것과 같은 한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는 ‘軍(군사 군), 農(농사 농), 每(매양 매), 史(역사 사), 仙(신선 선), 傷(상처 상), 誠(정성 성), 世(세상 세), 勢(형세 세), 神(귀신 신), 忠(충성 충), 則(법칙 칙), 品(물건 품), 幸(다행 행), 香(향기 향), 限(한계 한), 恒(항상 항), 刑(형벌 형), 惠(은혜 은)’ 등이 있다.

다섯째, 자의가 한자 어휘에 서술형 어미를 덧붙인 한자이다. 예를 들면 ‘敬’의 대표 자의가 ‘공경하다’이다. 여기에서 ‘공경’은 한자 어휘이고 ‘하다’는 서술형 접미사이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 가운데 ‘念’자와 같은 한자들은 한자 어휘로 이루어진 자의의 한자로도 분류할 수도 있다. 이에 속하는 한자는 ‘敬’자 이외에 ‘究(궁구하다 구), 期(기약하다 기), 念(생각하다 념), 思(생각하다 사), 謝(사례하다 사), 讓(사양하다 양), 完(완전하다 완), 平(평평하다 평), 豐(풍성하다 풍), 賀(하례하다 하), 許(허락하다 허), 婚(혼인하다 혼)’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의미 향의 서술 양상을 살펴본다.

9) 한자(한문)의 초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중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과목인 한문을 통해 한자를 접하게 된다. 그런데 중학교 한문 교과서는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이고,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는 중학교 교육용 900자에 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더한 1,800자를 가지고 구성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800자의 한자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문의 초학자들은 중등학교 ‘한문’시간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배우는 것이 한문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 된다.

한자에 대한 우리말 풀이인 자의의 의미 항은 대표 자의를 포함해서 최소 1항에서 많게는 20여 항이 넘는 한자가 있다. 즉 한자의 자의가 ‘曬(찌다 쐬)’자와 같이 최소 1개 항에서 ‘會’자와 같이 20여개 항 이상을 가진 경우도 있다. 자의가 적다는 것은 활용의 빈도가 적은 한자가 주로 이에 해당하며, 활용빈도가 높은 한자일수록 다양한 자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 <그림 - 2>는 <그림 - 1>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工’의 대표 자의를 제외한 의미  
항에 제시한 자의를 보고자 한다.

<그림 - 2>

[illegible]

④는 ‘장인’을 대표 자의로 하고, 이어 ‘①공업’, ‘②악인’, ‘③벼슬아치’, ‘④일’, ‘⑤교묘하다’, ‘⑥점쟁이’, ‘⑦성’ 등 7개의 의미 항을 두고 있다. ⑤는 ‘장인’을 대표 자의로 하고, ‘①공교하다’, ‘②일’, ‘③악인’, ‘④벼슬아치’, ‘⑤점쟁이’, ‘⑥공(功)’ 등 6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㉔는 ‘巧飾也(꾸미다)’를 대표 자의로 삼고, 이어 의미 항을 ‘①巧也(공교하다)’, ‘②善其事者(일을 잘하는 사람)’, ‘③匠也(장인)’, ‘④事任也(맡은 일)’, ‘⑤經營也(경영하다)’, ‘⑥女功也(여성의 직무)’, ‘⑦樂人也

(악인)’, ‘⑧占師也(점쟁이)’, ‘⑨官吏也(관리)’ 등 9개의 의미 항 두고 있다.

㉔는 ‘일꾼, 노동자, 노동자 계급’을 대표 자의로 삼고, 의미 항을 ‘①노동, 작업’, ‘②공사’, ‘③공업’, ‘④품, 인력, 일손’, ‘기예, 기능’, ‘⑤정교하다, 세밀하다’, ‘⑥잘하다, 능숙하다’ 등 6개 항을 제시하고 있다.

㉕와 ㉖는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 가운데 하나이다. ㉕와 ㉖는 대표 자의가 ‘장인’이라고 제시하여 같지만, 의미 항에서는 ‘악인’, ‘일’, ‘교묘하다(공교하다)’, ‘점쟁이’ 등 4개 항에는 의미가 일치하나, ㉕의 ‘공업’과 ‘성’, ㉖의 ‘공(功)’은 일치하지 않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㉗는 대만에서 만들어진 자전답게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㉘는 외국어 사전답게 여러 자전의 장점을 살려 의미 항을 배치하고, 여기에 더하여 현대화된 우리말 표현으로 자의를 제시하고 있다.

또 예를 들면, ‘會’자는 “①모이다, ②모으다, ③만나다, ④맞다, ⑤ 능숙하다(能熟--), 잘하다, ⑥이해하다(理解--), ⑦깨닫다, ⑧통계를 내다, ⑨합계를 산출하다, ⑩반드시 ~해야 한다, ⑪~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⑫집회, 회합(會合), ⑬계(契), ⑭모임, ⑮기회(機會), ⑯시기(時期), 기회(機會), ⑰잠깐 동안, 짧은 시간(時間), ⑱회계(會計), ⑲대도시(大都市), ⑳때마침, ㉑공교(工巧)롭게” 등 많은 파생의미나 전성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會’자의 원의는 ‘뚜껑의上下를 합치는 것’에서 ‘만나다’, ‘모이다’라는 의미가 생겼다. 그러므로 ‘① 모이다, ② 모으다, ③ 만나다’는 원의이고, ‘⑫ 집회, 회합(會合), ⑬ 계(契), ⑭ 모임’ 등은 원의에서 파생된 자의이며, 나머지는 전성된 자의이다. 그러나 자의들 간에 연관성과 계열성을 무시하고 제시하여 산만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

최근 사전 편찬의 흐름 중 사용자(학습자)의 요구가 매우 중요시 되므로 한문학습자전도 이 흐름에 동참하여야 한다. 즉 학습자가 학습할 때 친숙하고 활용가능성이 커야 한다. 자전의 활용 1순위는 ‘자의’의 확인이다. 따라서 자의의 표기는 자전의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자의 자의는 전통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자의 지적 수준이나 경험에 맞추어 제시하여야 한다.

### 3. 한문학습사전의 대표 字義 및 意味項 선정 원칙과 조직

한문학습 사전은 오늘날의 학습자 입장에서 국어사전과 다른 이른바 ‘이중어사전’의 성격이 강하다. 이중 언어사전은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 한일사전이나 일한사전 등 한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對譯관계를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 편찬된 사전이다. 이는 한문학습사전의 성격과 내용을 뿐만 아니라 범위, 방법 등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문학습사전의 성격과 목적이 한문 고전을 연구하는 전문가용이 아닌 한문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자전이라면 이들이 갖고 있는 한자나 한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컴퓨터 게임과 TV로 대표되는 시각과 청각의 기능에 익숙한 문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의 생활에서도 페스트 푸드에 익숙하

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한문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였고, 현대인들은 농경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문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이는 한문 학습자전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것이다. 즉 한문학습자전을 사용할 학습자들은 한자로 대표되는 농경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한자의 자의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개념어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한자 어휘로 개념화된 대안 어휘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 외에도 한문학습자전을 사용할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의 높이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 고민이 앞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한다. 즉 언어는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살아남지만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死語가 되어 문헌에 화석으로만 남게 된다. 활용성을 높이려면 학습자의 일상의 언어생활 환경에 익숙하여야 하고, 언어 활용이나 타고 과 학습, 고전의 이해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문학습자전에서 한자의 자의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존의 자전에서 제시한 字義를 최대한 활용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한다.

첫째, 字義는 구체적이고 현대에 일반화된 의미로 풀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市’는 대표 자의가 ‘저자’이다. ‘저자’는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의미하는 고어로서 현대적 활용이 적은 어휘이다. 또한 ‘저자’는 국어사전적 의미인 ‘글로 써서 책을 지어 낸 사람’을 나타내는 어휘가 오늘날 활용도가 더 높다. 그리고 오늘날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市’의 뜻풀이를 ‘시장’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자는 주로 ‘客(손 객), 戶(지계 호), 浦(개 포)’ 등 고어의 의미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자의로서, 우리말을 살린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하지만 학습자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적 경험에 맞는 뜻으로 대표 자의를 제시하고, 의미 향에 이를 부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풀이하여야 하고, 의미의 전달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의에 대한 설명을 부기 하여야 한다. 즉 대표 자의가 일반적이지 않으면 쉽게 풀이하려다가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 도리어 구체적인 설명을 부기하여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政’의 대표 자의가 ‘정사’인데, 이는 우리말 풀이가 아닌 다시 한자 어휘가 되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풀이를 해야, 우리말 풀이가 된다. 그러나 이는 어휘가 아니라 어구가 된다. 또한 현대에 ‘정사’란 어휘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의미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경한 어휘이고, ‘남녀 간의 사랑 행위’로 주로 인식된다. 따라서 ‘政’과 호응하는 한자가 ‘治’로서, 의미가 ‘다스리다’로 풀이되므로 ‘政’도 대표 자의를 ‘다스리다’로 풀이하여야 쉽게 이해가 된다.<sup>10)</sup> 또한 ‘政’과 같이 대표 자의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한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자가 ‘私’자가 있다.<sup>11)</sup>

10) 이동재(2004), p. 94면 참조.

11) ‘私’의 자의는 ①사사 ②가족(家族), ③집안, ④간통(姦通), ⑤편복(便服), ⑥은혜(恩惠), ⑦가신(家臣), ⑧사처(私處), ⑨오줌, ⑩음부(陰部), ⑪총애(寵愛)하는 것, ⑫자매의 남편(男便), ⑬사사롭다, ⑭간통하다(姦通--), ⑮사랑하다, ⑯편애하다(偏愛--), ⑰오줌 누다, ⑱홀로 등이 있으며, 대표 자의가 ‘사사’이다. 한문에 능통한 전문가도 ‘사사’가 한자 어휘로

셋째, 언어 환경에 익숙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대표 자의로 삼아야 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한자의 자의 가운데 일부 한자들은 원의보다 전성의나 파생의가 대표 자의가 되기도 한다. 이는 원의보다 더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학습자에게는 이미 익숙한 언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閑’의 자의는 ‘① 마굿간, ② 막다, ③ 닫다, ④ 법, ⑤ 크다, ⑥ 익숙하다, ⑦ 틈, 한가하다(閒)’ 등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전에서 대표 자의를 ‘막다’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閑’의 활용이 ‘막다’보다는 ‘한가롭다’가 더 익숙하고 활용가치가 높다.

이러한 한자 가운데 몇 자를 살펴본다. ‘兄(‘말이’보다는 동음동의자가 되지만 ‘형’으로 풀이하는 것이 현재의 언어생활에 더 적합), 權(‘저울추’이라는 의미보다는 ‘권세’나 ‘권리’의 의미)<sup>12)</sup>, 部(‘거느리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누다’, ‘부서’의 의미)<sup>13)</sup>, 盛(‘담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는 의미)<sup>14)</sup>, 純(삶아서 익히지 아니한 명주실인 ‘생사’라는 의미보다는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는 ‘순수하다’라는 의미)<sup>15)</sup> 등 대표 자의가 현대의 언어생활에 활용 가치가 떨어져 다른 자의로 교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자의가 같으나 뉘앙스가 다른 한자는 구체적으로 표기하거나 설명을 부기하여 구별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말의 ‘싸다’의 의미가 ‘(물건을) 싸다(包裝)’, ‘(오줌을) 싸다(排泄)’, ‘(값이) 싸다(低廉)’, ‘(혼나도) 싸다(當然)’와 같이 서로 의미가 매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한자의 대표 자의도 자의는 같으나 뉘앙스가 다른 한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設, 施, 張, 陳’은 대표 자의가 ‘베풀다’이다. 그러나 이 글자들은 대표 자의만 같을 뿐 한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글자마다 뉘앙스도 다르다. ‘베풀다’라는 우리말 의미는 ‘㉠ 일을 차리어 벌이다’와 ‘㉡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設’은 ㉠의 의미뿐이고,<sup>16)</sup> ‘施’는 ㉠과 ㉡의 의미를 둘 다 포함하며,<sup>17)</sup> ‘張’은 ㉠의 의미만 있고 오늘날에는 ‘일정한 명사 뒤에 붙어 얹고 넓적한 조각의 뜻을 나타내거나, ‘넓히다. 크게 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활용되고,<sup>18)</sup> ‘陳’은 ㉠의 의미뿐이다.<sup>19)</sup> 이처럼 자의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데도 ‘베풀다’와

‘私事’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표 자의를 ‘사사롭다’라고 표기하고 ‘(사사일,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라고 자의의 설명을 부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2) 權 : ① 저울추, ② 저울, ③ 저울질하다, ④ 꺾하다, 고르게 하다, ⑤ 권도, ⑥ 권세, ⑦ 권섭하다, ⑧ 구차하다, ⑨ 무궁화, ⑩ 시초, ⑪ 광대뼈, ⑫ 성씨

13) 部 : ① 거느리다, ② 마을, ③ 떼, ④ 분류, ⑤ 부(분류한 것을 세는 수사), ⑥ 언덕, ⑦ 성씨

14) 盛 : ① 그릇, ② 담다, ③ 성하다, ④ 성하게 하다, ⑤ 성하여지다, ⑥ 장하게 여기다

15) 純 : ① 실(누이지 아니한 명주실), ② 순수하다, ③ 천진하다, ④ 크다, ⑤ 좋다, ⑥ 착하다, ⑦ 도탑다, ⑧ 온화하다, ⑨ 밝다, ⑩ 열다섯 자, ⑪ 모두, ⑫ 오로지, ⑬ 온전히

16) 設 : ① 베풀다, ② 세우다, 설립하다, ③ 갖추어지다, 온전하다, ④ 설치하다, ⑤ 진열하다, ⑥ 도모하다, ⑦ 허락하다, ⑧ 딱 맞다, ⑨ 등용되다, ⑩ 붙잡다, 포획하다, ⑪ 부끄러워하다, ⑫ 연회, 잔치, ⑬ 설령, ⑭ 가령, 만약

17) 施 : ① 베풀다, ② 실시하다, ③ 미치게 하다, 나누어 주다, ④ 널리 퍼지다, 번식하다, ⑤ 드러내다, ⑥ 뽐내다, 과장하다, ⑦ 기뻐하다, ⑧ 탄핵하다, ⑨ 효시하다, ⑩ 흠뿌리다, ⑪ 좋아하는 모양, ⑫ 은혜

18) 張 : ① 베풀다, ② 어떤 일을 벌이다, ③ 기세가 오르다, ④ 세게 하다, 성하게 하다, ⑤ 넓히다, 크게 하다, ⑥ 크게 떠벌이다, ⑦ 내밀다, 드러내다, ⑧ 어그러지다, 어긋나다, ⑨ 속이다, 기만하다, ⑩ 뽐내다, 교만을 부리다, ⑪ 부어오르다, 불룩해지다, ⑫ 휘장, 장막, ⑬ 별자리 이름

같이 같은 자의를 부여하면 자의의 이해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셋째, 계열성이 있는 한자는 字義를 일관성이 있게 풀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인 ‘十(열 십)’, ‘百(일백 백)’, ‘千(일천 천)’, ‘萬(일만 만)’, ‘億(억 억)’, ‘兆(조 조)’라고 하지 말고, ‘十(열 십)’, ‘百(일백 백)’, ‘千(일천 천)’, ‘萬(일만 만)’, ‘億(일억 억)’, ‘兆(일조 조)’ 등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또한 고어식 풀이도 현대식으로 고쳐서 대표 자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즉 ‘一(한 일)’, ‘二(두 이)’, ‘三(셋 삼)’, ‘四(넷 사)’, ‘五(다섯 오)’, ‘六(여섯 육)’, ‘七(일곱 칠)’, ‘八(여덟 팔)’, ‘九(아홉 구)’, ‘十(열 십)’보다는 ‘一(하나 일)’, ‘二(둘 이)’, ‘三(셋 삼)’, ‘四(넷 사)’, ‘五(다섯 오)’, ‘六(여섯 육)’, ‘七(일곱 칠)’, ‘八(여덟 팔)’, ‘九(아홉 구)’, ‘十(열 십)’으로 표기하여야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것이다. 또한 ‘江’과 ‘河’는 大小의 관계가 아닌 상대적인 관계이므로, ‘江’의 자의가 ‘강, 큰 내, 양자강’ 등으로 풀이하므로, ‘河’의 풀이도 ‘강, 큰 내, 황하’ 등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넷째, 一字多義字인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대표 자의를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經’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활용도 다양하여 대표 자의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經’의 자의가 ‘①지내다’, ‘②책’, ‘③경서’, ‘④지나다’, ‘⑤글’, ‘⑥날’ 등이 있다. 이는 ‘經’의 의미가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經’의 대표 자의는 오늘날 활용도가 높은 ‘지내다’, 또는 ‘지나다’, ‘다스리다’로 표기하고, ‘책’, ‘경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이처럼 자의가 서로 유사성이 없는 한자는 ‘假(거짓, 임시, 빌리다)’, ‘服(옷, 먹다, 따르다)’, ‘兆(조짐, 일조)’ 등의 한자가 있다.

다섯째, 異音異義字의 경우에는 자의를 자음에 따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즉 대표적으로 쓰인 곳에 자의에 대한 설명을 해 놓고, 기존의 자전처럼 다른 음으로 쓰인 곳에는 페이지 이동표시를 해놓는 것보다는 음의 변화에 따른 다른 자의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省’을 ‘성’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자의’를 먼저 기술하고 뒤에 ‘생’으로 발음되는 의미 항을 서술하며, ‘생’의 항목부분에서는 ‘생’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의미를 앞에 놓고, 뒤에 ‘성’으로 발음되는 의미 항을 부기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여섯째, 의미가 애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자의는 기존의 자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새롭게 풀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定’의 대표 자의가 ‘정하다’이다. ‘정하다’의 우리말 풀이는 ‘㉠정하다(여럿 가운데 선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하다. 규칙이나 법 따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다. 뜻을 세워 굳히다). ㉢정하다(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 사리에 맞고 바르다). ㉡정하다(맑고 깨끗하다. 조심스럽게 다루어 깨끗하고 온전하다). ㉣정하다(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라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의 의미만 ‘定’의 의미이고, ㉢는 ‘正’의 의미이며, ㉡는 ‘淨’의 의미이고, ㉣는 ‘精’의 풀이이다. ‘定’의 자의가 ‘선택하여 결정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차라리 ‘결정하다’라고 풀이하여야 학습자에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快(쾌하다)’<sup>20)</sup>와 ‘恨(한하다)’<sup>21)</sup>, ‘和(화하다)’<sup>22)</sup> 등의 한자가 있

19) 陳 : ① 베풀다, ② 묵다, ③ 늘어놓다, ④ 늘어서다, ⑤ 말하다, ⑥ 많다, ⑦ 조사하다, ⑧ 퍼다, ⑨ 나라 이름, ⑩ 왕조 이름, ⑪ 방비, ⑫ 진법, ⑬ 성의 하나



다.

일곱째, 오류는 바로 잡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經’의 자의 가운데, ‘날’은 학습자들이 생경한 ‘피륙·돛자리 등을 짜거나 짚신 따위를 삼는데 세로로 놓는 실이나 노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하루의 밤낮의 동안, ㉡하루의 낮의 동안, ㉢날씨, ㉣날짜, ㉤해(태양), ㉥베거나 자르거나 깎는데 쓰는 연장의 날카로운 부분, ㉦‘나를’의 준말과 ㉧접두어로 ‘익지 않은 것’, ‘가공하지 않은 것’”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자전에서 자의로 제시한 ‘날’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륙·돛자리 등을 짜거나 짚신 따위를 삼는데 세로로 놓는 실이나 노 따위’를 가리키는 말의 의미가 ‘날실’이므로 ‘날실’로 고쳐야 한다.<sup>23)</sup>

나아가 한글 오기 표현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의 <그림 - 3>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 자전의 ‘工’자 부분의 그림이다.

<그림 - 3>

<p>0 ③【工】 中 公 東 古紅切 gōng</p> <p>筆順 一 丁 工</p> <p>【字解】 ①장인 공 물건을 만드는 사람. ‘職—’. ‘欲善其事，必先利其器’《論語》. ②공업 공 기물을 만드는 업. ‘百姓當家力農—’《史記》. ③벼슬아치 공 관리. ‘嗟嗟臣—’《詩經》. ④악인 공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歌文王之三’《左傳》. ⑤일 공 하는 일. ‘女—’. ‘天—人其代之’《書經》. ⑥교묘할 공 숨씨가 교묘함. ‘—拙’. ‘帝—書善畫’《南史》. ⑦점쟁이 공 ‘使—占之’《史記》. ⑧성공 성(姓)의 하나.</p> <p>【象形】 손잡이가 달린 끌을 본뜬 모양이라고도 하고, 대장장이가 무언을 버리기 위한 모루의 象形이라고도 함. 공구(工具)를 본뜬 모양에서, ‘공작(工作)하다’의 뜻을 나타냄.</p>	<p>0 ③【工】 장인 공 庚 gōng</p> <p>【字解】 1 장인,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옛날 세업(世業)의 시대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사농(士農)보다도 낮고 상(商)보다는 위인 사회적 계급에 속했던 사람. [論語] 工欲善其事. 2 공교(工巧)하다, 교묘하다. [南史] 帝工書善畫. 3 일, 만드는 일. [書經] 天工人其代之. 4 악인(樂人), 가악(歌樂)을 하는 사람. [春秋左氏傳] 工歌文王之三. 5 벼슬아치. 官. [詩經] 嗟嗟臣工. 6 점쟁이. [史記] 使工占之. 7 공(功). 功. [書經] 苗頑弗即工.</p>
<p>&lt;㉠ 漢韓大字典&gt;</p>	<p>&lt;㉡ 漢韓大字典&gt;</p>

위의 <그림 - 3>의 자의의 의미 항을 보면 ㉠사의 ⑦번 자의를 보면 ‘점쟁이 공’으로 제시되었고, ㉡사의 ⑥번 자의를 보면 ‘점장이’로 되어 있다. ‘점장이’는 ‘점쟁이’의 오기이므로 ‘점쟁이’로 바로잡아야 한다.

20) ‘快’의 대표 자의가 ‘쾌하다’이다. ‘쾌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유쾌하다, ㉡병이 다 나은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시원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쾌하다’라고 하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유쾌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쉽게 이해된다.

21) ‘恨’의 대표 자의가 ‘한하다’이다. ‘한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다, ㉡ 몹시 억울하거나 원통하여 원망스럽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는 ‘限’의 의미이고 ‘恨’은 ㉡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恨’의 대표 자의를 ‘한탄스럽다’나 ‘원통하다’라고 제시하여야 자의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22) ‘和’의 대표 자의는 ‘화하다’이다. 국어사전의 풀이에 따르면 ‘화하다’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로 바뀌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게 되다. ㉢입 안이 얼얼한 듯 하면서 시원하다. ㉣<수학> ‘합하다’의 전 용어. ㉤무엇을 타거나 섞다. ㉥날씨나 마음, 태도 따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여섯 가지의 의미로 풀이된다. 그런데 위의 ㉠와 ㉡는 ‘化’의 의미이고, ‘和’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와 ㉣, ㉤가 해당된다. ‘化’와 ‘和’의 의미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화하다’라고 의미를 풀이하면 의미의 오류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3) 이동재(2004), p. 90면 참조.

또한 逆의 대표 자의가 ‘거스리다’로 제시한 자전들도 있다. ‘逆’의 자의가 “① 거스르다, ② 거꾸로, ③ 허물, ④ 맞다, ⑤ 마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거스르다’의 사전적 의미는 “①흐름이나 형세를 다르지 않고 반대되는 길을 취하다, ⑥(남의 의견·태도·행동 따위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다”이므로, ‘逆’의 의미에 부합된다. 그러나 ‘거스리다’는 ‘거슬리다’의 오기이므로 ‘거스르다’로 바로 잡아야 하며, 굳이 뜻풀이를 하고자 한다면 ‘거슬리다’로 풀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미 향의 구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본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전의 의미 향은 자전을 만든 나라와 활용도, 편집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각 자전들이 제시한 의미 향의 내용이 다르다는데 있다. 자전에 따라 취사선택이 달라 자의를 이해하는데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의 양상이다.

아래의 <그림 - 4>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의 『漢韓大字典』과 ㉡사의 『中韓大辭典』의 ‘工’자를 인쇄한 부분이다.

<그림 - 4>

<p>① [工] 中 公 東 古紅切 gōng</p> <p>一 丁 工</p> <p>①장인 공 물건을 만드는 사람. ‘戰一’, ‘欲善其事, 必先利其器’《論語》. ②공업 공 기물을 만드는 업. ‘百姓當家力農’《史記》. ③비슬아치 공 관리. ‘嗟嗟臣一’《詩經》. ④악인 공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一歌文王之三’《左傳》. ⑤일 공 하는 일. ‘女一’. ‘天一人其代之’《書經》. ⑥교묘할 공 솜씨가 교묘함. ‘一拙’. ‘帝一書善畫’《南史》. ⑦점쟁이 공 ‘使一占之’《史記》. ⑧성공 성(姓)의 하나.</p> <p>象形. 손잡이기 달린 끝을 본뜬 모양이라고도 하고, 대장장이가 무엇을 버리기 위한 모루의 象形이라고도 함. 공구(工具)를 본뜬 모양에서, ‘공작(工作)하다’의 뜻을 나타냄.</p>	<p>[工] gōng A ① 圖 일꾼. 노동자. 노동 계급. 「矿~; 광부」 「女nǚ~; 여공」 「技jì~; 기능공」 「短duǎn~(儿); 임시공=临时时~(人)」 「老lǎo~(人); 숙련공=熟shú练~(人)」 ② 圖 노동. 작업. 「做~; 작업을 하다」 「上~; 작업을 시작하다」 「加~; 가공하다」 「夜~; 야간 노동」 「时~; 시간제 노동」 「分fēn~; 분업」 「罢bà~; 동맹 파업」 「日夜~; 주야 교체노동(자)」 「考~制; 작업 검사 제도」 ③ 圖 공사. 「开~; 공사를 시작하다= 动~」 「完~; 준공하다=竣~」 ④ 圖 공업. 「化~; 화학 공업」 「机~; 기계 공업」 「商~业; 상공업」 ⑤ 圖 품. 인력. 일손. 「要几个~?; 몇 사람의 일손이 필요합니까?」 「这件工程需要二十个~才能完成; 이 공사를 완성하려면 2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砌qì这道墙要五~活; 이 담을 쌓으려면 5명의 일손이 필요하다」 ⑥ (~儿) 圖 기예. 기능. 「这位演员的做~(儿)比唱~(儿)好; 이 배우의 동작은 노래보다 낫다」 ⑦ 圖 정교하다. 세밀하다. 「~细; 세공이 정밀하다」 ⑧ 圖 잘하다. 능숙하다. 「~于绘画; 그림 솜씨가 능숙하다」 B 圖 &lt;音&gt; 중국 전통 음악의 음계부호의 하나. →[工尺]</p>
<p>&lt;㉠ 漢韓大字典&gt;</p>	<p>&lt;㉡ 中韓大辭典&gt;</p>

앞에서 밝혔듯이 한문학습자전은 한문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나 학습자를 위한 자전이다. 이들은 한문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字義의 의미뿐만 아니라 뉘앙스, 활용의 예,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문학습자전의 의미 향은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문학습자전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질 것이다.

첫째, 대표 자의와 서로 연관될 지어 제시하여야 한다. 한자의 자의는 후대에 내려올수록 문화와 문명의 축적으로 인해 의미 향이 늘어나게 된다.<sup>24)</sup> 그러나 늘어난 의미 향이 대표 자의나 원의에 연관성이



떨어지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위의 <그림 - 4>의 ㉔를 보면, 대표 자의를 ‘①장인’으로 제시하고, 의미 항을 ‘②공업, ③벼슬아치, ④악인, ⑤일, ⑥교묘하다, ⑦점쟁이, ⑧성’ 등 7개 항을 두고 있다. 반면 ㉕는 ‘①일꾼, 노동자, 노동자 계급’을 대표 자의로 삼고, 의미 항을 ‘②노동, 작업, ③공사, ④공업, ⑤품, 인력, 일손, ⑥기예, 기능, ⑦정교하다, 세밀하다, ⑧잘하다, 능숙하다’ 등 7개 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㉔를 보면, 대표 자의인 ‘장인’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은 ‘②공업’과 ‘④일’ 정도이지만, ㉕는 대표 자의인 ‘①일꾼, 노동자, 노동자 계급’과 의미 항인 ‘②노동, 작업, ③공사, ④공업, ⑤품, 인력, 일손, ⑥기예, 기능’ 등 5개 항이 서로 직접 연관성이 있어서 의미 항의 자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㉕의 의미 항의 ‘⑥기예, 기능’은 다음 의미 항인 ‘⑦정교하다, 세밀하다’와 서로 호응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⑦정교하다, 세밀하다’는 다음 의미 항인 ‘⑧잘하다, 능숙하다’와 유사한 의미이다. 이처럼 의미 항의 자의는 대표 자의뿐만 아니라 의미 항의 자의와 서로 연관성을 갖게 제시하여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활용[번역]의 편의를 위해 의미 항을 최대한 확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會’자의 자의는 ‘①모이다, ②모으다, ③만나다, ④맞다, ⑤능숙하다(能熟--), 잘하다, ⑥이해하다(理解--), 깨닫다, ⑦통계를 내다, ⑧합계를 산출하다, ⑨반드시 ~해야 한다, ⑩~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⑪집회, 회합(會合), ⑫계(契), ⑬모임, ⑭기회(機會), ⑮시기(時期), 기회(機會), ⑯잠깐 동안, 짧은 시간(時間), ⑰회계(會計), ⑱대도시(大都市), ⑲때마침, ⑳공교(工巧)롭게도’ 등 20개의 의미 항이 있다.<sup>25)</sup>

이 자전은 의미 항이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게 제시하여 어지러운 감은 없지 않으나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여 활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실 이렇게 많은 의미 가운데 오늘날 언어생활과 한문의 독해에 필요한 의미만을 선정하여 축약하여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활용도가 높은 자의를 앞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의미 항에 제시한 자의에 친절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그림, 도판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림 - 4>의 ㉔를 보면, 대표 자의인 ‘장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달리하여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부기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職-’이라는 한자 어휘와 ‘-欲善其事, 必先利其器’라는 『論語』의 구절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 항에 제시한 자의에도 친절하게 설명을 부기하고 있다. 한문학습자전에서도 이를 답습하여 설명을 부기하여야 학습자들이 자의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것이다.

또한 자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진, 그림, 도판 등을 제시하여야 자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학습자들은 컴퓨터로 대표되는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문자로 된 자료에 익숙하지 않고 이미지로 표현하는 시각자료에 익숙하다. 물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들도 필요한

24) 『강희자전』에서는 ‘工’의 의미 항을 ‘①巧飾也(꾸미다), ②善其事者(일을 잘하는 사람), ③官也(벼슬아치), ④匠也(장인), ⑤事任也(맡은 일)’ 등 5개항을 제시하고 있고, 『中文大辭典』에서는 ‘①巧飾也(꾸미다), ②巧也(공교하다), ③善其事者(일을 잘하는 사람), ④匠也(장인), ⑤事任也(맡은 일), ⑥經營也(경영하다), ⑦女功也(여성의 직무), ⑧樂人也(악인), ⑨占師也(점쟁이), ⑩官吏也(관리)’ 등 10개 항을 두고 있다. 『中文大辭典』에서 제시한 ‘⑥經營也(경영하다)’와 ‘⑦女功也(여성의 직무)’는 후대의 새로운 문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생긴 의미 항이라고 할 수 있다.

25) 네이버 자전(<http://hanja.naver.com/hanja?q=%E6%9C%83>)

경우 그림이나 도판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흑백의 평면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재화된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자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흥미 유발에 따른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문학습자전에서 대표 자의의 선택은 일상의 언어생활 환경에 익숙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활용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 즉 한자의 자의에 대한 이해는 이를 배우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한자를 바탕으로 한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한문 학습자들에게는 한자 자의가 낯설고 생경하게 다가 온다면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자 자의를 제시하는데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쉽게 설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자의의 다양한 의미뿐만 아니라 자의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의미 추론이 가능하다. 한자의 字義도 원의에 대한 설명 못지않게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풀이하여야 한다. 즉 현대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아가 의미 향의 자의는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농경과 관련된 것보다는 사회 관계망, 교과지식, 상식 등 사회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 학습자에게 언어생활의 활용이나 타교과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 전통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 등 실용성이 크면 학습자들은 이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앞으로 편찬할 한문학습자전에서 한자의 ‘대표 字義’와 ‘의미 향’의 선정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현행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들의 대표 자의 및 의미 향 선정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자나 한문을 이해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구서가 자전이며, 자전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자의 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다. 자전에서 한자의 字義를 우리말 어휘로 아는 것은 일종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의 자의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시도는 신라시대의 吏讀가 그 시초였다. 우리나라의 자전은 1796년 이후 정조 연간에 간행된 편자 미상의 『全韻玉篇』에 와서야 한자로 자의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근대화된 자전은 1908년 정익로에 의해 만들어진 『국한문 신옥편』과 1909년 지석영의 『자전석요』가 있다.

그러나 광복이후 만들어진 자전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이를 援用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애매한 것은 일본식 한자 어휘를 그대로 차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자전들도 이전의 자전들을 답습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가로쓰기 판형과 한글 표기법 등은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의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들의 자의는 순수한 우리말로 이루어진 자의, 字音으로 자의를 부여한 자의, 字音에 서술형 어미를 덧붙인 자의, 한자 어휘로 이루어진 자의, 한자 어휘에 서술형 어미를 덧붙인 자의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한자의 자의는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고어의 형태를 유지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며, 오류가 있기도 하다.

의미 항은 대표 자의를 포함해서 최소 한 개 항에서 많게는 20여 항이 넘는 한자가 있다. 의미 항의 자의가 적다는 것은 활용의 빈도가 적은 한자를 의미하며, 활용빈도가 높은 한자일수록 다양한 자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전들의 의미 항은 대표 자의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의미 항에서의 제시된 자의 간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앞으로 편찬할 한문학습자전의 대표 자의 및 의미 항 선정과 조직의 원칙을 알아보았다.

한문학습자전은 오늘날의 학습자 입장에서는 국어사전과 다른 이른바 ‘이중어사전’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한문학습자전을 사용할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학습자의 일상의 언어생활 환경에 익숙하여야 하고, 언어 활용이나 타 교과 학습, 고전의 이해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문학습자전의 대표 字義 및 의미 항의 선정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字義는 구체적이고 현대에 일반화된 의미로 풀이하여야 한다. 둘째,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풀이하여야 하고, 의미의 전달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의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셋째, 언어 환경에 익숙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대표 자의로 삼아야 한다. 넷째, 자의가 같으나 뉘앙스가 다른 한자는 구체적으로 표기하거나 설명을 부기하여 구별하여 주어야 한다.

다섯째, 계열성이 있는 한자는 字義를 일관성이 있게 풀이하여야 한다. 여섯째, 一字多義字인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대표 자의를 삼아야 한다. 일곱째, 異音異義字의 경우에는 자음에 따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여덟째, 의미가 애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자의는 기존의 자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새롭게 풀이하여야 한다. 아홉째, 오류는 바로 잡아 제시하여야 한다.

한문학습자전은 한문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나 학습자를 위한 자전이다. 이들은 한문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字義의 의미뿐만 아니라 뉘앙스, 활용의 예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문학습자전의 의미 항은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대표 자의와 서로 연관지어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활용[번역]의 편의를 위해 의미 항을 최대한 확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의미 항에 제시한 자의에 친절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그림, 도판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근 사전 편찬의 흐름 중 사용자(학습자)의 요구가 매우 중요시 되므로 한문학습자전도 이 흐름에 동참하여야 한다. 즉 학습자가 학습할 때 친숙하고 활용가능성이 커야 한다. 자전의 활용 1순위는 ‘자의’의 확인이다. 따라서 자의의 표기는 자전의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자의 자의는 전통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자의 지적 수준이나 경험에 맞추어 제시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사전, 사전류>

- 고대 민족문화연구실 중국어대사전 편찬실(1995), 『中韓大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김혁제(1984), 『明文 新玉篇』, 명문당.  
김형중(1992), 『한글세대를 위한 한자공부』, 밀알출판사.  
동아출판사 사전부(1964), 『東亞 常用漢韓辭典』, 동아출판사.  
두산 동아(1999), 『百年玉篇』, (주) 두산 동아.  
목인법 한자편찬회 편(1993), 『비서한자』, 성심도서.  
민중서림편집국(2009),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이가원, 권오순, 임창순 감수(1991), 『東亞 漢韓大辭典』, 동아출판사.  
이가원 감수(1999) 『漢韓 家庭大玉篇』, 계몽사.  
이가원 외 감수(2005), 『大漢韓辭典』, (주) 교학사.  
정인승 외(1974), 『國漢大字典』, 삼문사.  
홍자출판사 편집부(1992), 『最新 弘字玉篇』, 민중서림.  
冷玉龍 외(1996), 『中華字解』, 中華書局.  
辭海編輯委員回(1979), 『辭海』, 상해사서출판사.  
王引之 校改本(1993), 『康熙字典』, 상해고적출판사.  
諸橋轍次(소화 13),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중화학술원(민국 71), 『中文大辭典』, 중국문화대학출판부.  
漢語大辭典編纂委員會(1988), 『漢語大辭典』, 한어대사전출판사.  
한어대사전편찬위원회(1993), 『漢語大字典』, 사천성 신화서림.

### <논문류>

- 김지오(2002), 「杜甫 詩 언해에 관한 비교연구」, 『국어사연구』 제3호, 국어사연구학회.  
류성렬(1997), 「고등학교에서의 독해 지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박형익(2012), 『한국 자전의 역사』, 역락.  
이동재(2005),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어 문제 연구」, 『한자한문 교육』 제1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이동재(2012), 「중학교 『漢文』 1, 2, 3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어의 한자·한문과의 상관성 연구」, 『한문학보』 제32집, 근역한문학회.  
조영호(2008), 「한자어의 의미 분석을 통한 어휘 지도 방안」, 『漢字漢文教育』 제21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허철(2011),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기본 字義 선정과 近義字 처리 문제에 관한 일견」, 『漢文學論集』 제31집, 근역한문학회.

### <기타>

- 황호덕(2013), 〈번역, 한자문맥에서 서구문맥으로〉, 《경향신문》 2013년 4월 13일자 23면.  
네이버 사전(<http://hanja.naver.com/hanja>).

## 「한문 학습자전 수록 한자의 대표 字義 및 意味項 선정과 조직」 토론문

김미선(청주대)

이번 학회의 기획 주제인 “초·중·고 한문 학습자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에 대한 일 고찰로 이동재 선생님의 옥고를 통하여 현 초·중·고 한문교육의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감한 몇 가지 의견을 소통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때마침 지난 6월 25일자 기사에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지역 초·중학교에서 교과서 수록 어휘를 중심으로 한 한자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와 “한자교육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번 대통령 중국방문을 보도하는 뉴스에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고전을 인용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양국 정상은 공식 회담에서 오고 간 대화나 선물의 서예작품 내용에 담긴 고전의 구절들은 중국 주석은 新羅 崔致遠의 한시 「泛海」· 唐나라 王之涣의 「登觀鵲樓」· 王昌齡의 「芙蓉樓送辛漸」을 인용하였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諸葛亮의 「誠子書」· 『管子』· 『中庸』· 『論語』· 『公冶長』 속의 고전명구를 인용하였다.

이렇듯 곳곳에서 한문교육의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장을 직시하면서도 한문교육실천의 정상화 걸음은 예측불허한 현 시점에 이번 학회의 기획 주제와 이동재 선생님의 발표문은 매우 시기 적합한 내용 제시라 하겠습니다.

### 1. 한자의 대표 字意

실제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커다란 광고 표지판에 ‘錦山’이라고 표기하고 옆에 한글로 ‘비단 뿔’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자의 대표 字意에 대한 오늘날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목격 하였습니다.

또 한자급수 시험을 본 초·중·고 학생들의 답안지 채점 규정에는 모범답안의 대표 자의 이외는 틀린 답으로 간주하고 이후 학생들 학습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의 조치는 별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표자의 대표 字意 選定이 현실에 바람직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대표 자의의 재구성에 대한 현실적 당위성 및 이러한 내용의 실천적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2. 한자의 意味項

한자의 사전적 의미의 표기는 역사의 표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의 글씨체는 신명조체로 입맛은 순창고추장으로 통일 되었다고 합니다. 한자의 의미항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보편적 활용을 기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것이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으로 이해했고 이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자의 각 의미항에서 제시된 字意 간 연관성이 상호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과 보완점의 방향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제3부 기획주제 발표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선정과 체례(김우정·김용재) .....	145
한문 학습 字典 수록 ‘漢文’ 用例 選定 및 組織(김왕규·송병렬) .....	163
한문 학습 디지털 사전 구축의 실제(허철) .....	175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필순(한연석) .....	197





##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선정과 체례

김우정(단국대)·김용재(성신여대)

허연구(늘푸른고)·김병철(군포고)·김동규(낙생고)

- 
1. 들어가는 말
  2.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 선정의 기준
  3.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체례
  4. 결론 및 제언
-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한문 학습용 사전<sup>1)</sup> 편찬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어휘의 선정 기준과 배열 방안에 관해 살핀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몇 종의 자전 또는 사전이 간행되었지만 대개 범용이거나 전문가를 위한 것이었지, 학교 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된 것은 없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전류는 義項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상용의와 僻義가 구분되지

---

1) 당초 의뢰받은 기획주제는 한문 학습용 ‘字典’ 수록 어휘의 용례 선정과 조직이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학이란 개념은 서구에서 온 것으로, 애초부터 어휘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36자에 불과한 알파벳에 따르 ‘사전’을 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나의 어휘가 되기도 하는 한자의 경우는 다르다. 어휘에 중점을 둔 사전이라 할지라도 字를 다루지 않을 수 없고 字의 풀이에 중점을 둔 자전이라 할지라도 어휘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고대 중국의 자서에 자전과 사전의 개념이 혼용되어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며, 문자와 어휘 대신 單字語와 複字語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하였다(이강로, 1985). 현재 중국에서 자전은 『新華字典』 또는 『漢語大字典』처럼 形音義에 관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담은 상세사전과 ‘正字字典’, ‘正音字典’, ‘虛字字典’, ‘難字字典’ 등 일정한 방면에 관한 정보만을 다룬 특수사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사전은 ‘辭典’과 ‘詞典’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신중국 성립 이전에는 구별 없이 통용하다가 서구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지금은 전문용어 또는 백과어휘를 모아 풀이한 것은 ‘辭典’으로, 언어학적 단위인 단어나 구를 모아 풀이한 것은 ‘詞典’으로 구분하고 있다(강용중, 2011). 한문 학습용 ‘字典’이 적합한 표현인가의 문제는 어휘를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어휘이기도 한 표제자 이외에 어휘를 따로 제시하는 방식이라면, 자전보다는 사전이란 명칭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에서는 자전 대신 사전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않기도 하며,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어휘에 있어서도 고전 문언문 어휘와 근현대 한국어 어휘가 일정한 기준 없이 제시하거나 어휘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독해력이 일정 수준에 오른 전문가를 위한 사전은 많지만 비전문가(학생)의 독해력 신장에 적합한 사전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문 학습용 사전은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배움중심수업, 교사의 조력이나 참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수자 입장에서 교과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개발과 적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한문교육이 처한 작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과연 시의에 맞느냐는 의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한문교육의 위기와 한문 학습용 사전의 편찬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한문교육의 활성화는 학문적 영역 못지않게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요구되지만 사전 편찬은 학문적 차원에 보다 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오히려 한문교육의 전통과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한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촉진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한자문화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에 기여하며,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길러 국학과 동양학 분야에 관심을 지닌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 2.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 선정의 기준

한문 학습용 사전은 초·중·고 학생과 교사가 한문 학습에 활용도록 하기 위한 특수목적사전이다. 따라서 목적에 알맞은 내용과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기존에 간행된 대사전이나 이를 축약한 범용사전과 달리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풀이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휘의 선정 범위와 기준 역시 기존의 사전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大漢和辭典』(大修館 간행, 1960년 초판본 발간, 2000년 보충판 발간)이 53만 단어, 『中文大辭典』(중화학술원 간행, 1962년 발간)이 40만 단어, 『漢語大詞典』(한어대사전출판사 간행, 1994년 초판본 발간)이 37만 단어<sup>2)</sup>, 『漢韓大辭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간행, 2008년 간행)이 45만 단어(『한국한자어사전』을 포함하면 53만 4천 단어) 등 고전 어휘를 집대성한 종합사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漢韓大字典』(민중서림 간행), 『漢韓大辭典』(동아출판사 간행), 『大漢韓辭典』(교학사 간행) 등 중사전 규모의 사전도 10만개~15만개 안팎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만약 한문 학습용 사전이 언어생활에서의 활용도 또는 각종 한문고전의 독해에의 참고 등을 이유로 기간 사전의 전례를 따르고자 한다면, 특수목적사전의 성격을 잃고 기간 사전과 유사한 또 하나의 사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문 학습용 사전의 고유한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휘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선택**과 **집중**, **확장성**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선택과 집중이란 교과서

2) 2012년 12월 11일자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어대사전』은 50만개 단어를 수록하는 개정 증보판 편찬 작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증보판은 1986년 출판된 초판에 비해 12권이나 늘어난 총 25권, 수록어는 약 3분의 1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찬위원회는 이 증보판 첫 권을 오는 2015년에 내는 등 총 7년에 걸쳐 완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록 문장을 위주로 어휘를 선택하고 선택된 어휘에 대해서는 뜻풀이는 물론 단어의 짜임, 문법적 기능, 문장에서의 쓰임까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풀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어휘로써 현재까지의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가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확장성이란 지속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수정·보충·증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의 개편,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사용자층의 요구, 언어생활과 타교과 학습에의 활용 등 변화의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사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활용가치까지 높일 수 있도록 유의하며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사례와 같이 집합적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개념을 접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선택과 집종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휘 선정 기준을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로 한정하되 채록 대상 서적은 한문 교과서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어휘를 수록할 수 있을지 가능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어휘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단 『漢語大詞典』의 ‘長’으로 시작되는 표제어를 중심으로 가능해 보았다. 『漢語大詞典』에서 ‘長’을 표제자로 하는 어휘는 모두 630개였으며, 이 가운데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에 해당하는 한자로만 이루어진 어휘는 414개로, 65.7%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65.7%의 어휘를 모두 수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휘의 채록범위가 매우 넓고 상용어는 물론 궁벽한 어휘와 신조어까지 수록한 『漢語大詞典』<sup>3)</sup>과는 편찬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채록 대상 서적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기간 대사전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사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즉,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한문 독해에 필요한 어휘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휘사전(한자어사전)의 기능까지 겸하도록 할 것인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몇 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문장에 한정하여 표제어를 선정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 13종과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2종을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했는데(【부록】 참조)<sup>4)</sup>,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출된 어휘가 140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추출된 어휘가 553개였다. 이 693개의 어휘 중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중복된 어휘 23개를 제외한 어휘는 모두 670개였으며, 이 가운데 제외자가 포함된 어휘는 53개였다. 선정기준이나 집계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문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최대 2,000개 이내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5)</sup>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모두를 표제자로 삼을 때, 용례로 제시할 수 있는 어휘가 표제자 1개당 1개꼴인 셈인데, 표제자마다 어휘 조합도에 차이가 있으리란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단 하나의 어휘도 제시하는 못하는 표제

3) 金健人(2009)

4) 중학교 한문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13종의 교과서(두산, 대교, 교학사, 디딤돌, 다락원, 대학서림, 성림,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비상, 장원, 미래엔, 와이비엠 출판사)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교 한문 I은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2종의 교과서(다락원, 두산)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장 속에 사용된 어휘만 추출하였으며, 성어를 분리하여 어휘가 되는 경우 각각 표제어로 간주하였다.

5) 교과서 1종에 250~300개 정도의 어휘가 존재하고 중복된 어휘가 10%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교과서 간에 중복된 어휘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교과서 외의 문장에서도 일정 정도 추출한다면 교과서에 국한하지 않고 한문 학습에 보다 효과적인 어휘를 수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는 문장에서 어휘를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휘를 선정한 뒤 이에 맞는 용례를 추출하는 방식이 되어 사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적절한 예문을 제시할 수 없는 근현대 한국어 어휘, 인명·지명·서명·관명·동식물명 등의 고유명사, 제도·종교 등 특정분야에서 출현하는 어휘의 수록 여부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어휘는 원칙적으로 한국어사전이나 인명사전·지명사전 등 전문사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자·한문사전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고유명사와 전문어휘도 관용적으로 수록해왔다. 이는 문장 구조와 의미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한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전례를 따라 고유명사와 전문어휘까지 수록, 국어사전 및 전문사전의 기능까지 일정 정도 감당하게 한다면 한문 교과의 도구교과적 성격까지 반영한 사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전은 이미 적지 않게 존재하는 만큼 대동소이한 사전을 또다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차라리 대중적 활용도는 과감히 포기하고 본래 목표에 충실한 전문사전을 지향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국어 어휘, 고유명사, 전문용어에 관한 정보는 각각의 목적에 맞춰 특화된 사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문장 풀이에 요긴한 어휘만 제시한다면 전문사전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어휘 부분은 굳이 따로 다루지 않고 표제자의 義項에서 다루어도 될 만큼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거론할 점은 디지털 사전 편찬 문제이다. 디지털 사전은 앞서 거론한 어휘 선정의 기준과 분량 등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전은 검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전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매체이다. 물리적 형태에 종속된 종이사전의 한계를 간단히 극복할 수 있다. 용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사전·중사전·소사전과 같은 용어가 무의미해진다. 종이사전에서는 많은 표제어를 담기 위해 종이의 재질과 편집방법을 고민하고, 약호를 사용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야 했지만 디지털 사전에서는 검색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할 뿐 자료의 규모는 문제되지 않는다.<sup>6)</sup> 개편 교과서의 예문을 반영하기도 수월하고 수정·보완하기도 용이하다. 약호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약호의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이 보기에 편리하다. 또한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교수·학습과정에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물론 디지털 사전으로 개발하고자 할지라도 기초 데이터는 있어야 한다.

다음은 디지털 사전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문 교육용 사전 수록 어휘 선정의 범위와 기준이다.

가. 어휘 선정의 범위 : 지금까지 간행된 한문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럴 경우 학교 한문교육에서 문장과 어휘의 상관관계를 역사적·통계적으로 드러내는 자료적 가치도 지닐 수 있다.

나. 어휘 선정의 기준 :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례로 삼을 예문이 있는

6) 디지털 사전의 특징에 관해서는 정철(2006) 참조.

어휘를 우선한다. 제외자가 포함된 어휘는 교과서 수록 문장의 독해에 꼭 필요하거나 교육과정에 비추어 수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수록한다. 이때 제외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학습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어휘의 짜임새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ㄱ. 일반어(가)와 복합어(파생어, 합성어)는 모두 수록한다.
- ㄴ. 파생어의 경우, 접사가 기본어의 어의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수록하지 않는다.
- ㄷ. 합성어는 단어 결합의 적합성, 구성 단어와 합성어의 의미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라. 관용적으로 하나의 어휘처럼 쓰이는 성어·속어·격언·속담은 수록한다.

마. 다음은 문장 독해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해 선별 수록한다.

- ㄱ. 인명·지명·서명·관명·동식물명 등의 고유명사
- ㄴ. 제도어·종교어 등의 전문어
- ㄷ. 한국식 한자어, 백화어, 일본식 한자어
- ㄹ. 이두·구결 등의 차자어, 한글을 음차한 어휘

바. 향후 문장 용례가 없는 근현대 한국어 어휘를 선정할 경우,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범위에 속하는 어휘로 한정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ㄱ. 어휘의 난이도
- ㄴ. 언어생활에서의 활용도
- ㄷ. 교과학습에서의 필요성

### 3.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체례

한문 학습용 사전은 학생과 교사의 한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될 사전이다. 따라서 어휘의 제시 방법이나 설명방식 역시 그 목적이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즉, 어휘의 독음·뜻·관련어·출전·용례 등만을 담은 기간 사전과 달리 교육과정과 학업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단어의 짜임, 문법적 기능, 문장에서의 쓰임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풀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학사전 기능까지 겸비하도록 개발할 경우에는 언어생활 및 타교과 학습에서의 활용가치를 중시하여 축자식 풀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휘의 뜻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

7) 국어학에서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한다. 각각 독립적인 뜻을 지닌 한자가 결합된 한자어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일반어로 호칭한다.

종이사전으로 개발할 때와 디지털 사전으로 개발할 때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디지털 사전일 경우 설명을 억지로 줄인다든지 불필요한 약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디지털 사전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문 교육용 사전 수록 어휘의 체제 및 제시방법이다.<sup>8)</sup>

가. 주석의 요건 : 어휘의 주석은 표제어·독음·어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관련어·참고어·보충 설명·출전·예문을 보조 요건으로 한다.

나. 표제어의 제시 순서 : 표제어의 제시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독음이 같을 경우 글자수에 따라, 글자수까지 같을 경우 부수 순서에 따른다.

다. 표제어의 제시 방법 :

- ㄱ. 표제어는 성어·속어 및 격언·속담 등 문장의 형태를 띤 것이라 할지라도 붙여 쓴다. 단, 독음은 구두에 따라 떼어 쓴다. 예 : 【無足之馬飛千里 무족지마 비천리】
- ㄴ. 표제어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이외의 한자가 쓰일 경우에는 해당 한자 뒤에 별표(\*)를 두어 밝힌다. 예 : 【典祀\* 전사】
- ㄷ. 표제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한자가 동자·통용자·약자 등의 이체자로도 쓰이는 어휘는 해당 한자 뒤의 괄호 안에 그 사실을 밝히고 별도의 표제어를 두지 않는다. 예 : 【精熟(孰) 정숙】
- ㄹ. 한자의 독음이 둘 이상일 경우, ①·②·③으로 구분하며, 가나다 순으로 제시한다.  
예 : 【三樂 ①삼락②삼악③삼요】
- ㅁ. 표제어의 장단음<sup>9)</sup>은 해당 한자의 독음에서 밝힌다. 예 : 【長官 장 : 관】
- ㅂ. 본음과 현실음이 다를 경우에는 본음을 제시한 후 화살표를 두어 현실음을 제시한다.  
예 : 【十月 십월→시월】
- ㅅ.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의 실제 발음이 한자음과 다를 경우에는 표제어에 한자음을 제시하고 주석문에서 실제 발음을 밝힌다.  
예 : 【成吉思汗 성길사한】 원 태조(元太祖) 징기스칸(Chingiz Khan)의 한자식 이름.

라. 주석의 제시 순서 :

- ㄱ. 여러 갈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어휘의 주석은 일반어, 전문어, 고유명사 순서로 한다. 일반어는 중국, 한국, 일본 등 기타 국가의 순서로, 전문어는 제도, 종교, 동물, 식물, 광물, 백화어의 순서로, 고유명사는 인명, 지명, 서명, 관명, 사건명의 순서로 한다.

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 간행한 『漢韓大辭典』의 체제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9)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 장단음 표기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서는 김창진(2006) 참조.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간된 60종의 한자 사전 가운데 장단음을 표기한 사전은 3종뿐이라고 하였다.

ㄴ. 보충 설명인 관련어, 참고어, 유의어, 반의어, 단어의 짜임, 문법적 기능, 문장에서의 쓰임의 순서로 하며, 표제어의 뜻풀이 다음에 제시한다.

ㄷ. 성어·속어 및 격언·속담이 표제어일 경우 겹뜻, 속뜻, 유래의 순서로 제시한다.

마. 주석의 제시 방법 :

ㄱ. 주석은 표제자의 의향에 맞는 축자식 풀이로 하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개념·제도·종교 어휘는 축자식 풀이 뒤에 해당 내용을 제시한다.

ㄴ. 주석에 한자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 뒤의 괄호 안에 병기한다.

ㄷ. 약호·약어는 쓰지 않는다. 단, 주석과 구별하기 위해 네모꼴 안에 표기한다.

예 : 【長劍 장검】 긴 칼. [문법] 수식 관계

바. 기타 사항 : 표제자가 어휘의 머리글자로 쓰이지 않은 어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모든 표제어에 대한 주석이 마무리된 뒤에 모아서 제시하며, 제시 순서는 ‘나’항의 원칙에 따른다.

다음은 위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본 어휘 제시 사례이다.

1. 길다.<sup>10)</sup>

【長江 장강】 ① 긴 강. 길고 큰 강. ② 중국의 양쯔강을 이르는 말. [유의어] 大河(대하)<sup>11)</sup> [문법] 수식 관계<sup>12)</sup>

【長劍 장검】 긴 칼. [반의어] 短劍(단:검) [문법] 수식 관계

【長考 장고】 길게 생각함. 오래 생각함. [문법] 수식 관계. [어휘] 일본식 한자어<sup>13)</sup>

【長(杖)鼓 장고→장구】 악기의 한 가지. [문법] 수식 관계

【長久 장구】 길고 오래 됨. [문법] 병렬 관계

【長短 장단】 ① 길고 짧음. ② 장점과 단점. [문법] 병렬 관계

【長服 장복】 같은 약이나 음식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먹음. [문법] 수식 관계

【長白山 장백산】 우리나라의 함경도와 중국의 경계에 있는 백두산의 딴 이름.

【長蛇陣 장사진】 긴 뱀처럼 늘어선 군사의 진. 많은 사람이 늘어선 긴 줄. [출전] 《손자병법(孫子兵法)》》 [유래] 손자병법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싸움에 능한 자는, 비유컨대 ‘솔연(率然)’

10) 표제자의 義項 순서에 맞춰 어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11) 2009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고등학교 “한II321. 문장에 사용된 단어와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말하고, 이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다.”와 관련된 설명이다.

12) [문법]은 단어의 형태, 단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 등 문법적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13) ‘長考’는 중국의 『한어대사전』, 한국의 『대한한사전』 등 한자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원에 관한 설명 없이 수록되어 있다. 김창규(2002)는 장고를 일본식 한자말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우리 한자어로 ‘熟考’가 있다고 하였다.

과 같다. ‘술연’은 회계(會稽)의 상산(常山)에 사는 거대한 뱀인데, 머리를 치면 꼬리로 공격(攻擊)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해 온다. 또 허리를 치면 이번에는 머리와 꼬리가 함께 공격한다.” 여기서 ‘술연’은 독사(毒蛇)로 사람의 키보다 몇 배나 길고 날래서 ‘장사(長蛇)’라고 불렀던 것이다. 군대가 합심(合心)하여 술연처럼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도와 싸우면 대적할 적이 없게 된다. 지금은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일러 말한다.

【生長 성장】 , 【成長 성장】 , 【年長 연장】

## 2. 뛰어나다

【長技 장기】 뛰어난 재주. [문법] 수식 관계 [동음이의어] 長期(장기), 臟器(장기)

## 3. 어른

【長官 장 : 관】 ① 으뜸 벼슬. ② 조선시대 홍문관의 부제학. ③ 국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행정 각 부의 우두머리. [동음이의어] 壯觀(장관) [문법] 수식 관계

【長子 장 : 자】 맏아들. [문법] 수식 관계

【長者 장 : 자】 ① 웃어른. ② 나이나 덕망, 돈이 많은 사람. [어휘] 파생어

【長幼有序 장 : 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있음. [문법] 주술목 구조

위는 표제자의 義項 순서에 맞춰 어휘를 제시한 것으로, 표제자와 어휘의 설명에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이며, 뜻에 따른 장단음을 구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어휘가 각각의 의항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표제자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모를 경우 찾아보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전 체제와 마찬가지로 표제자의 義項 순서와 관련 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어휘를 제시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어휘를 찾기는 쉽지만 그 어휘가 표제자의 뜻 가운데 어떤 뜻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디지털 사전의 경우 툴팁(Tooltip)<sup>14)</sup>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어휘를 입력해 검색한 후, 해당 어휘 위에 커서를 얹으면 표제자의 어떤 뜻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거나 가나다 순으로 배열된 목록에서 어휘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의항이 떠오르도록 하면 될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사전은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과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국가일수록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사전이 풍부하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한문 학습용 사전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과

14) 툴팁은 말풍선이라고도 하며, 해당 단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얹으면 툴팁의 형태로 뜻이 간략하게 표현되는 인터페이스 요소이다.



거는 물론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정규 교과이며, 한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사전은 꼭 필요하다.

한문 학습용 사전에서 어휘를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결국 사전의 목적과 용도, 활용가치 중 무엇을 위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목적이나 용도보다 활용가치에 무게를 두면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로 제한할 필요도 없고, 한문 용례가 없는 근현대 어휘까지 수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목적사전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약화되어 기존에 간행된 범용사전과 가까운 사전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목적과 용도에 최적화된 사전을 개발한다면 사전의 아이덴티티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 활용가치는 현격히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확장성의 기준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사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과서 수록 문장을 위주로 어휘를 선택하고 선택된 어휘에 대해서는 뜻풀이는 물론 단어의 짜임, 문법적 기능, 문장에서의 쓰임까지 다룸으로써,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풀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집합적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개념을 접목하여 지속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수정·보충·증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의 개편,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사용자층의 요구, 언어생활과 타교과 학습에의 활용 등 변화의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사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활용가치까지 높일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姜勇仲(2011), 「중국 역사언어사전의 현황과 과제」, 『동양학』 50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김창규(2002), 『일본 식민문화가 남긴 찌꺼기 말』, 국학자료원.
- 김창진(2006), 「한자음 표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모음의 장단음 구별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8집, 한민족문화학회.
- 李江魯(1985), 「표제어의 선정기준에 대하여(Ⅱ) : 한자어를 중심으로」, 『동양학간보』 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정철(2006),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사전의 조건」, 『한국사전학』 8호, 한국사전학회.
- 胡陽明·謝自立·梁式中·郭成韜·李大忠 편저(1962), 『詞典學概論』, 북경 : 인민대학출판사.
- 金健人(2009), 「《汉语大词典》的编纂过程和内容特点」, 『동양학』 46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부록】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한문(13종) 및 2007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I (2종) 어휘 목록

어휘	누적	중/고	제외자	어휘	누적	중/고	제외자
價格	1	고		寡慾	1	고	
家廟	1	고		冠禮	1	중	
歌舞	1	고		管仲	1	고	
嘉排	2	고	嘉	教學	2	중	
角力	1	고		教學相長	2	중	
干戈	1	고		九思	1	고	
肝膽	1	고	膽	舊俗	3	고	
簡儀臺	1	고		國士	1	고	
甘言	1	고		國人	9/1	중/고	
江陵	1	중		國號	4	중	
疆土	5	중	疆	群仙	1	고	
開卷	1	중		君臣	1	고	
開卷有益	1	중		群臣	2	고	
改着	2	중		群議	1	고	
客愁	2	중		君子	11	고	
蓬蓬	1	고	蓬	君長	2	중	
舉頭	4	중		窮困	1	고	
舉世	3	중		窮人	2	고	
健脚	1	고		歸來	2	고	
劍君	2	고		歸路	8	중	
擊鼓	1	고		貴人	1	중	
敬老	3	중		貴賤	1	고	
敬老會	1	중		近郎	2	고	
京都	1	고		近來	2	고	
傾覆	1	고		近視	2	고	
輕率	1	고		謹慎	1	고	
庚寅	1	고		槿花世界	1	고	槿
敬人	2	고		錦官城	2	고	
耕者	1	고		今夜	1	고	
鷄犬	6	중		今日	1	고	
溪橋	8	중		今朝	1	고	
戒愼	1	고		矜心	1	중	矜
固結	1	고		機械	1	고	
高麗	10/1	중/고		奇巧	1	고	
古人	1	고		幾度	1	고	
古者	1	중		起立	1	고	
孤竹	1	고		騎馬	1	고	
故鄉	4	중		機事	2	고	
恐懼	1	고		機心	3	고	
公論	1	중		其人	4	중	
功名	1	고		幾何	1	고	
公子	1	고		幾許	1	고	
孔子	1	고		吉人	1	고	
共濟	1	고		金剛山	1	고	
共治	2	중		難兄難弟	1	중	
空乏	1	고	乏	男女	1	고	

過失	3	중		南方	1	고	
過失相規	2	중		南山	2	고	
耐久	1	고		萬物	4	고	
內局	1	고		萬乘	1	고	
奈何	1	고		買食	1	고	
路上	2	고		孟子	2	고	
奴隸	2	고		面目	2	고	
農夫	1	고		明德	1	고	
樓臺	1	고		名馬	2	고	
尼斯今	1	고	尼	明日	1	고	
多岐	1	고	岐	名節	8/1	중/고	
多多	5	중		明朝	1	고	
多多益善	5	중		謀事	1	고	
茶禮	1	고		牧童	1	고	
多少	1	고		夢魂	2	고	
檀君	3	중		無窮	1	고	
檀君王儉	1	고		無道	1	고	
檀木	4	중		武陵	1	고	
達人	1	고		茂山府	1	고	
唐高	1	고		無常	1	고	
大道	1	중		無聲	2	고	
大部	1	고		無雙	1	고	
大夫人	1	고		武王	1	고	
大悟	1	고		無憂	2	중	
大王	12	중		無他	6	중	
大學	1	고		文字	6	중	
大韓	3	중		門前	2	고	
德業	2	중		門戶	1	고	
德業相勸	2	중		勿施	6	중	
逃去	1	고		物賤	1	중	
跳索戲	1	고		物化	1	고	
道義	1	고		微時	1	고	
盜賊	2	고		未知	1	고	
桃花	1	고		憫農	1	고	
獨立	2	중		密議	1	고	
讀書	2	고		發生	2	고	
篤信	1	고		放心	6	중	
同氣	1	중		白頭	1	고	
同道	2	고		白頭山	1	고	
同利	1	고		伯樂	2	고	
東方	13/1	중/고		白鷺	1	고	鷺
同心	2	고		白鹿潭	1	고	潭
童兒	1	고		百里	1	고	
東洋	2	중		百倍	1	고	
同春堂	2	중		白餅	1	고	餅
得失	1	고		百乘	1	고	
燈前	3	중		伯夷	4	고	
漠漠	8	중		百戰百勝	1	고	
莫甚	1	중		百戰不殆	1	고	

2013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莫逆	1	고		百行	1	고	
萬金	1	고		百戲	1	고	
萬里	4	중		卞氏	1	고	卞
萬里風	1	고		變遷	1	고	
病者	1	고		事親	1	고	
竝行	1	중		山水	1	고	
本末	1	고		三箇	1	고	箇
不可	33	중		三更	3	중	
不計	1	고		三國史	1	고	
不禁	1	고		三軍	1	고	
不及	1	고		三百六十	1	고	
部內	1	고		三省	3	중	
不能	5	고		三省吾身	3	중	
不利	1	고		三歲	8	중	
父命	1	고		三十	1	중	
父母	2/1	중/고		三危	1	고	
不聞	1	고		三千	1	고	
不辨	3	고		相見	1	고	
不備	1	고		相交	2	중	
不死	2	중		相國	2	고	
不生	2/1	중/고		相同	1	고	
不食	1	고		相離	1	고	
不然	1	고		上方	1	고	
不忍	1	고		相分	1	고	
夫子	1	고		上善	1	고	
父子	1	고		上水	1	중	
不察	2	고		相識	1	고	
不聽	1	고		詳審	1	고	
不出	1	고		喪葬	1	고	
不恥下問	1	중		上下	2	고	
不平	1	고		生病	1	고	
不學	2	고		庶人	1	고	
不咸山	1	고		庶子	1	고	
北方	1	고		書籍	2/1	중/고	
北山	1	고		石佛	2	고	
北岳	1	고		夕曛	1	고	曛
不可	3	고		善德女王	1	고	
不動心	1	고		先生	4/2	중/고	
不得不	2	중		先入	1	고	
不適	1	고		善者	2	고	
不定	1	고		先後	1	고	
不足	5	고		雪白	2	중	
不知	36/5	중/고		聖經賢傳	1	고	
不進	1	중		成功	1	고	
朋黨	1	고		盛衰	1	고	
朋友	6	중		成人	2	중	
朋友有信	3	중		聖人	1	고	
卑幼	1	고		性行	1	중	
氷雪	1	고		成形	1	고	

四方	1	중		細流	1	고	
四山	8	중		歲拜	2/1	중/고	
四時	3/1	중/고		歲時	1	고	
私人	1	중		歲謁	1	고	
舍人	2	고		歲粧	1	고	
紗窓	2	고	紗	世宗	1	고	
騷客	1	고		神人	3	중	
所望	2	중		失明	1	고	
消息	1	고		十年	1	고	
蔬食	1	고		十五日	1	고	
所謂	1	고		我國	6	중	
所以	3/2	중/고		兒童	2	고	
小人	7	고		餓死	1	고	
小節	1	고		阿順	1	고	阿
召忽	1	고		我朝	7	중	
俗稱	1	고		安否	2	고	
率性	1	고		顏色	1	고	
宋國	1	고	宋	顏淵	1	고	淵
宋元	2	중	宋	巖石	1	고	
宋人	1	고	宋	仰釜日晷	1	고	釜, 晷
修道	1	고		愛人	3	고	
樹木	1	고		野徑	2	고	
首飾	1	고		夜深	1	중	
修身	1	고		藥石	1	고	
水深	1	고		兩端	1	고	
修養	1	고		養生	1	고	
首陽山	1	고		良辰	1	중	
受辱	1	고		兩人	1	고	
須臾	2	고	臾	養蠶	1	고	蠶
受益	1	고		梁惠王	1	고	
水晶體	2	고		漁父	2	중	
手足	1	중		漁父之利	2	중	
修行	1	고		語音	6	중	
水火	1	고		言辭	1	고	
叔齊	5	고		餘慶	1	고	
純白	1	고		如是	2	중	
述懷	1	고		如一	1	고	
濕處	1	고		女子	2	고	
勝負	1	고		餘錢	1	고	
丞相	1	고	丞	如何	2	고	
勝者	1	고		歷代	2	중	
勝地	1	중		力不足	2	고	
弑君	1	고	弑	易地思之	2	중	
視物	1	중		年少	1	고	
時習	12	중		年少者	1	고	
時節	2	고		禮俗	2	중	
食言	12	중		禮俗相交	2	중	
識字人	1	고		汚隆	1	고	
食後	1	고		烏飛梨落	1	중	
辛苦	1	고		五歲	1	고	

2013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神檀樹	1	고		五十	5	중	
新羅	15/1	중/고		五十年	1	고	
神明	2	고		五十步百步	4	중	
神武門	1	고		傲然	1	고	
新聲	1	고		五月	1	고	
神市	1	고		五藏	1	고	
信義	1	고		溫故	5	중	
新衣	1	고		溫故知新	2	중	
溫達	13	중		人世	1	고	
王女	1	고		人心	1	고	
倭場	1	고	倭	仁義	2	고	
外局	1	고		仁人	3	고	
凹鏡	1	고	凹	仁者	1	고	
庸人	1	고		人材	1	고	
用人	1	고		一刻	1	고	
雨氣	1	고		一國	2	중	
愚民	6	중		一年	8	중	
雨師	1	고		日本	5	중	
牛羊	1	고		一石	2	고	
友人	1	고		一歲	2	중	
雲師	1	고		一時	1	고	
雲從街	1	고		一日	2	중	
雄據	1	고		日月	1/4	중/고	
遠近	2	고		一二	1	중	
園林	1	고		任官	1	중	
遠視	2	고		臨事	1	고	
元日	2	중		立馬	8	중	
遠親	1	고		自擊漏	1	고	
圓通	1	고		自得	2	고	
月蝕	3	고	蝕	子路	1	고	
月出	8	중		姊妹	1	중	
有毒	1	고		自鳴	1	고	
流頭	1	고		子孫	1	고	
有利	1	고		子肅	1	고	
儒理王	1	고		自述	1	고	
有備	1	중		子息	1	고	
有備無患	1	중		自然	2	고	
有司	1	고		自照	2	고	
有信	3	중		自足	1	고	
有益	1	중		作歌	1	고	
流通	7	중		潛入	2	고	
肉色	1	고		雜念	1	고	
六月	1	고		長短	1	고	
輪起	1	고		長老	1/1	중/고	
隱身	1	고		長白	1	고	
隱身戲	1	고		丈夫	1	고	
乙夜	1	고		莊周	1	고	
陰德	2	중		財利	1	고	
陰中	1	고		再三	1	고	
衣冠	1	고		財貨	1	고	
衣履	1	고	屨	低頭	5	중	

義人	1	고		積善	1	고	
耳目	1	중		賊害	1	고	
二十	10	중		田家	8	중	
二十年	1	고		田父	3	고	
二人	1	고		傳寫	1	고	
人間	1	고		傳授	1	고	
人君	1	고		傳心	1	고	
人貴	1	중		前言	12	중	
人命	1	고		切須	1	고	
人物	1	고		竊聽	1	고	
切親	1	고		天圓地方	1	고	
淨潔	1	고		天地	35/1	중/고	
整襟	1	고	襟	天地間	2	중	
丁壯	1	고		天下	17	고	
趙高	2	고	趙	凸鏡	1	고	凸
槽櫪	2	고	槽, 櫪	輟耕	1	고	
朝鮮	5/1	중/고		清明	2	고	
調攝	1	고		靑草	1	고	
鳥獸	1	고		靑春	2	중	
朝日	1	고		靑出於藍	1	중	藍
朝宗	1	중		草木	2	중	
趙重峰	1	고	趙, 峰	楚人	1	고	楚
族戚	1	고		聰明	2	고	
存心	3	고		最上	1	고	
終始	2	고		最重	8	중	
終身	1	고		秋夕	9/1	중/고	
從容	3	중		秋陰	1	중	
從者	2	중		鞦韆	1	고	鞦, 韆
種子	1	고		秋風	3	중	
左右	2	고		築臺	1	고	
酒家	1	고		春宵	1	고	宵
酒食	1	고		春夜	1	고	
主人	1	고		出門	1	고	
竹馬	1	고		出入	1	고	
中國	6/1	중/고		忠言	2/1	중/고	
重複	1	고		取去	1	중	
衆人	2	고		就寢	1	고	
卽位	1	고		親戚	1/1	중/고	
知過必改	1	중		七年	1	고	
智異山	1	고		七十	3	중	
至善	1	고		七月	1	고	
至純	1	고		沈淪	1	고	淪
知新	4	중		沈沈	1	고	
知音	4	중		他人	3/1	중/고	
志意	1	고		濯足	1	고	
至尊	12	중		濯足會	1	고	
知彼知己	1	고		貪求	1	고	
知行	2	중		太公	1	고	
知行合一	1	중		太白	1	고	
疾病	1	고		太伯山	1	고	
借問	1	고		太山	1	고	

2013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窓外	3	중		太平	2	고	
菜羹	1	고	羹	土壤	1	고	
責成	1	중		八十	9	중	
千古	1	고		八月	1	고	
千金	2	고		平壤城	1	고	
千里	16	고		平和	2	중	
千里馬	2	고		鮑叔	1	고	鮑
阡陌	1	고	阡, 陌	鮑子	1	고	鮑
天命	1	고		風伯	1	고	
天文	1	고		風月	1	고	
天符印	1	고		匹夫	12	중	
天王	1	고		必敗	1	고	
何故	12	중		好雨	1	고	
下問	6	중		胡蝶	4	고	
何事	1	고		昊天	1	고	昊
何人	2	고		好學	1	고	
何必	2	고		或人	1	고	
河海	1	고		婚禮	1	중	
學校	1	고		婚姻	1	중	
學問	6	중		弘益人間	1	고	
學者	1	중		花果	1	고	
寒暖	1	고		花潭	1	고	潭
漢唐	2	중		畫圖	8	중	
漢拏山	2	고	拏	患難	2	중	
韓服	2	중		患難相恤	2	중	恤
漢陽	1	고		桓雄	2	고	
寒衣	1	고		桓因	1	고	
海棠花	1	고	棠	黃門	1	고	
海東	1	고		黃泉	1	고	
海嶽	1	고	嶽	黃喜	1	고	
行役	1	고		回頭	1	고	
行人	1	고		會飲	1	고	
杏花	1	고	杏	孝慈	2	고	
鄉里	8	중		胸中	1	고	
虛驚	1	고		黑色	1	고	
許生	1	고		欽敬閣	1	고	欽
栩栩	1	고	栩	興替	1	고	
兄弟	4/1	중/고		興廢	1	고	
湖南	1	고		喜雨	1	고	



##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선정과 체례」 토론문

백광호(전주대)

김우정·김용재·허연구·김병철·김동규 선생님(이하 ‘발표팀’)께서 함께 준비하신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선정과 체례>는 초·중·고에서 활용할만한 한문 학습용 사전에 들어갈 어휘 선정 기준과 배열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 기준 및 방법, 제시 순서 등을 제안하는 글입니다. 이번 하계대회 기획 주제인 <초·중·고 한문 학습 사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의 다양한 하위 주제 가운데 특히 ‘학습용 사전에 등재할 어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간 발표된 연구 성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문 학습용 사전 또는 자전이 출간되기를 바라면서, 다소 거칠지만,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개진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2장 첫 문단 "만약 한문 학습용 사전이 언어생활에서의 활용도 또는 각종 한문고전의 독해에의 참고 등을 이유로 기간 사전의 전례를 따르고자 한다면, 특수목적사전의 성격을 잃고 기간 사전과 유사한 또 하나의 사전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전을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은 작업이고 매우 오랫동안 공 들여 진행해야 하는 작업임을 고려할 때, 잘 만들어진 기존 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굳이不可한 일인지? 기존 사전의 좋은 점을 수용하되, 특수목적사전의 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단국대학교에서 나온 『한한대사전』의 내용을 활용한 『중고생용 한한대사전』의 제작을 제안한다.

2. 7쪽에 ‘長’을 대상으로 어휘 제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약호·약어는 쓰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유의어> <반의어>와 함께 <문법>이라는 항목으로 단어의 짜임을 설명하고 있다. 각주 12)에 보면 <문법>은 “단어의 형태, 단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 등 문법적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휘에 대한 문법 사항은 주로 단어의 짜임일 것이므로, <문법>이란 용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본고에서 누차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문 학습용 사전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 학생과 교사의 한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표제어의 장단음은 해당 한자의 독음에서 밝힌다.”는 제시 방법이 필요할지?

4. 7쪽 ‘장사진’ 설명에 보면 “‘술연’은 회계(會稽)의 상산(常山)에 사는 거대한 뱀인데, 머리를 치면 꼬리로 공격(攻擊)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해 온다. 또 허리를 치면 이번에는 머리와 꼬리가 함께

공격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중·고교 학생들이 보는 사전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국한문 병용 방식은 易讀性을 떨어뜨린다. ‘회계의 상산에 사는 거대한 뱀인데, 머리를 치면 꼬리로 공격하고’와 같이, 위 첨자로 한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5. ‘확장성’이란 용어가 적절한지? 위키피디아와 같이 변화의 필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을 의미한다면, ‘확장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쌍방향성’, ‘개방성’ 등의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6. 발표문 분량의 절반이 부록이다 보니, 부록에 제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 어휘의 범위에 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토론문을 마치고자 한다.

‘묻지 않는다.’는 뜻의 ‘不問’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목록에 있는 ‘不聞’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선정 어휘 후보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목록에 있는 ‘不知’와 같은 경우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어휘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숫자로 시작하는 어휘들, 예를 들어 三箇, 十年, 五歲 등도 선정 어휘 후보인지? 특히 숫자로만 되어 있는 三百六十, 五十, 一二 등을 사전에 등재할만한 어휘 목록으로 제시한 이유는?

‘一石’의 경우 고교 교과서에 2번 등장하는 어휘로 제시되어 있다. 부록의 어휘 목록은 고등학교의 경우 2종의 교과서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두 교과서 모두에 등장하는 어휘이다. 교과서를 찾아보니, 두산이나 다락원 모두 ‘馬之千里者, 一食, 惑盡粟一石’에서 곡식 한 섬을 나타낼 때 ‘일석’이 등장하고, 다락원에서는 소단원 평가문항의 답지로 등장하는 ‘一石二鳥’에 등장한다. 두 경우 모두 단독으로 사용되는 어휘는 아니다. 중고생의 학습용 사전에 선정될 어휘는 가급적 단독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선정해야 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록에 제시된 ‘知新, 知音’을 예로 든다면, 단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신’은 선정 후보에서 제외하고, 단독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음’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음절 어휘에서 두 자 모두 1,800자를 벗어나는 어휘, 예를 들어 갈림길을 뜻하는 ‘阡陌’이나 그네를 뜻하는 ‘鞦韆’과 같은 어휘는 선정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공동 연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리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 한문 학습 字典 수록 ‘漢文’ 用例 選定 및 組織

김왕규(교원대)·송병렬(영남대)

- 
1. 서언
  2. ‘한문’ 용례의 선정과 조직
  3. 향후 과제
- 

### 1. 서언

이 글은 학회 기획주제 ‘초·중·고 한문 학습 사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의 하나로, 「한문 학습 사전 수록 한문 용례 선정 및 조직」에 대한 보고이다. 전체 기획 주제와 관련하여, 한문 학습 사전의 개념과 범위, 필요성 및 목적, 기능, 사용 대상, 체제, 수록 한자의 수, 용례 지침 등의 과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글과 연계된 위의 과제는 동학들의 발표와 토론에 힘입기로 한다.

한문 용례 선정 및 조직에 대한 논의에 앞서, 작업 방식과 글의 성격에 대해 말해 둔다. 학회는 전국 한문교사모임, 교원대 소속 교사, 그리고 필자와 송병렬 교수에게 이 글의 주제를 依頼했다. 한문 용례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된 실제 작업은 전국한문교사모임과 교원대 소속 교사들이 담당하고, 발표는 필자와 송 교수 공동 발표 형식임을 말했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 방식이 낯설었고, 주제 또한 감당하기 어려웠다. 오랜 苦悶 끝에 학회의 기획 의도를 받들기로 송 교수와 합의했다. 이후, 김경익 선생이 한문 용례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된 試案을 작성했고, 현장 한문 교사가 중심이 된 개발진<sup>1)</sup> 한문 용례 2개를 각각

---

1) 한문 용례 개발에 참여한 교사는 이병주, 김명수, 정규돈, 윤세훈, 정효영, 김경익, 엄선용, 성진우이고 한문교육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박상우가 함께 했다.

개발했다. 이 글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문 용례의 概念과 機能은 무엇인가? 한문 용례는 한문 학습 자전의 표제자[혹은 표제어]의 의미와 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표현을 말한다.<sup>2)</sup> 사전 용례의 일반적 기능으로 언어학적 기능, 문헌학적 기능, 백과사전적 기능, 이념적 기능을 들 수 있고, 특히 언어 사전에서의 용례의 기능으로 의미적 기능, 문법적 기능, 언어적 기능, 문체적 기능, 화용적 기능을 제시할 수 있다.<sup>3)</sup> 한편, 사전에서의 용례 사용의 원리<sup>4)</sup>로 표제어의 인용 용례에 의한 예증, 사전 사용자의 모국어의 번역, 목표 언어 화자들의 문화 반영, 정보 제시 등이 보고되었는데, 한문 학습 자전의 한문 용례의 기능과 원리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문 학습 자전에 수록될 한문 용례의 선정 및 조직에 대한 工夫를 하면서, 내내 ‘기획 주제의 意圖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향후, 한문 학습 자전을 편찬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분야별 시안 및 지침을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필자는 정리했다. 이 글은 ‘연구 자로서의 한문 교사’들이 수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문 용례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된 중간 보고 및 문제점 논의의 성격을 가진다. 주장이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개발된 자료를 소개하고 연구 과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이 글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연구 과제 가운데 ‘어떤 한문 용례를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한문 용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둔다.

## 2. ‘한문’ 용례의 선정과 조직

한문 학습 자전에 어떤 한문 용례를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한문 용례를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의 한문 교사들에게 한문 용례 개발 작업을 부탁했다. 먼저, 한문 용례 예시를 마련해서 이를 참고하되 개발자들의 창의적 방식을 요구했다. 예시안<sup>5)</sup>은 다음과 같다.

### 惡

① 죄과죄악(악). ‘善’의 相對. ‘君子, 成人之美, 不成人之~, 小人, 反是.(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고, 남의 악을 이루어주지 않으니,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논어(論語)》

2) 한문 용례에 대한 이 개념 정의는 도원영·범기혜(2011)의 사전의 용례에 대한 정의 곧, “사전의 용례란 사전 표제어의 의미와 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표현”을 원용했다.

3) 김근택·황경자(1997) ; 원미진(2011). 참조.

4) 김근택·황경자(1997). 참조.

5) 한문 학습 자전 편찬 한문 용례의 ‘기획안’은 한문 교사 김경익이 작성했다. 기획안은 수록 글자 수, 대표자의 및 의미 향 선정과 조직, 한문 용례의 제시 방법과 문헌의 범위, 세부 추진 일정, 그리고 작업 예시안 및 작업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예시안과 기준만 제시한다. 개발자에게 보낸 자료도 예시안과 기준이었다.

<p>② 나쁘다. 불량하다. (악) ‘子曰: “士志於道, 而恥~衣~食者, 未足與議也.”(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도를 의논할 수 없다.”)’ 《논어(論語)》</p> <p>③ 미워하다. 싫어하다. (오). ‘好’의 相對. ‘上善若水. 水, 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 故幾於道.(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하니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도덕경(道德經)》</p> <p>④ 어찌. 어디. (오). ‘天下~乎定?(천하가 어디에 정해지겠습니까?)’ 《논어(論語)》</p> <p>⑤ 아! (오). 감탄사. 嗚呼와 같음. ‘~! 是何言也?(아! 이 웬말인가?)’ 《맹자(孟子)》</p>
---

한문 용례 예시안과 함께, 한문 용례 개발 작업의 지침을 마련했다. 예시안과 지침이 선정 및 조직 작업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개발진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sup>6)</sup>

- 표제자의 의미항은 중고 한문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의미항의 의미는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한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
- 뜻과 음은 ‘미워하다 (오)’의 형태로, 뜻은 완성형(~이다.)으로 제시한다.
- 용례는 작은따옴표로 묶어 제시한다.
- 교과서 출전은 제시하지 않고<sup>7)</sup>, 原典을 표기한다. 원전은 서명을 ‘《》’로 하며, 한문 학습 사전의 용도에 맞게 한자를 병기한다.
- 번역문은 원문 바로 뒤에 ‘괄호( )’로 묶어 제시한다.
- 용례에 제시되는 표제자는 ‘~’로 제시한다.
- 고유명사에는 밑줄을 그어 구분한다.
- 용례에는 현토하지 않는다.

위의 예시안과 지침에 따라 개발진이 실제로 작업한 한문 용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개발진은 한문 용례 작업을 수행하면서 直面한 문제점을 함께 기술했다. 여기서는 이 자료도 소개한다.

#### [사례 1]

<p><b>鈍 둔</b></p> <p>① 무디다. ‘以~爲體, 以靜爲用. (무딘 것으로 본체를 삼고, 고요한 것으로 쓰임을 삼는다.)’ 《고문진보(古文眞寶)》</p> <p>② 미련하다. ‘性~甚, 雖多讀若此, 而掩卷輒忘. (성품의 미련함이 매우 심하여 비록 이처럼 많이 읽었으</p>
--

6) 지침 개발자 김정익은 실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논의 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추가했다. ·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글의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용례로 제시한다. · 글의 문맥에 따라 제시된 한자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2~3개 정도의 용례를 제시한다. · 번역문 중 표제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

7) 한문 학습 사전은 일차적으로 초·중·고 한문 학습자들의 사용을 전제한다. 표제자의 의미항을 선정할 때, 중·고 한문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려한다는 점도 한문 학습자들을 염두해 둔 것이다. 그런데, 지침 가운데 ‘교과서 출전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교과서 출전 표기상의 번다함과 교과서에 제시된 글 가운데 가공된 예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 책을 덮으면 번번이 잊어버렸다.’. ‘其~如此. (그 미련함이 이와 같았다.)’ 《도곡집(陶谷集)》

③ 손해보다. 불리하다. ‘至於成敗利~, 則非所論也. (성공과 실패, 이로움과 손해에 대하여는 논할 바가 아니다.)’ 《주역전의(周易傳義)》

※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한문 문장 속에서 ‘① 무디다’와 ‘② 미련하다’ 만 활용되었는데, 이 두 의미항만 작업하면 되는지 아니면 더 작업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鈍’의 경우, 『한어대사전』에는 의미항이 6개 인데, 어떤 기준으로 의미항 작업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예문에 번외자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한문 용례의 선정 및 제시 범위와 관련하여 표제자의 의미항 선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바로 한문 학습 사전 수록 한자의 대표자의 및 의미항 선정 및 조직의 문제이다. 어떤 한문 용례를 제시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는 한문 용례 제시 범위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례 1]의 경우,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활용된 예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되, 번외자(예외자)가 없는 예문을 용례로 채택했다고 했다. 한문 용례 선정 및 제시 범위의 기준으로 ‘번외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례 2]

### 愼 ① 신

① ① 삼가다 :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 ‘<sup>1</sup>君子<sup>2</sup>食<sup>5</sup>無<sup>4</sup>求<sup>3</sup>飽<sup>6</sup>, <sup>9</sup>居<sup>8</sup>無<sup>7</sup>求<sup>12</sup>安<sup>11</sup>, <sup>10</sup>敏<sup>13</sup>於<sup>14</sup>事<sup>15</sup>而<sup>16</sup>於<sup>17</sup>言<sup>18</sup>, <sup>19</sup>就有<sup>20</sup>道<sup>21</sup>而<sup>22</sup>正<sup>23</sup>焉.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함에 신속하고 말함에 신중하며,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스스로를 바로잡는다.)’ 《논어(論語)》

※ ‘愼’에는 7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나 교과서나 보통 문장에서 쓰이는 의미‘만’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의적일 수 있지만, 학습 사전의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자세한 기술을 통하여 단지 예시의 기능만이 아닌, 용례 그 자체로 한문 어순 학습이나 문법 학습이 가능하도록 집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 교수자나 사전 집필자에게는 의미항의 단어나 으뜸말이 익숙하거나 쉬울 수 있으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한자를 찾더라도 의미를 설명해주는 우리말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지 유의/반의의 한자를 나열하는 것 보다는 ‘의미의 의미’를 쉬운 말로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문 용례 : Al-Kasimi(1983)에서 二언어 사전에서의 용례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데 “1) 예증적 용례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각 표제어의 개개의 의미는 적어도 하나의 인용 용례에 의해 예증되어야 한다. 2) 용례는 사전 사용자의 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3) 생략 4) 용례는 짧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용례는 솔직히 매우 길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예에 충실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적색만 남기고 삭제하는 것도 4)처럼 짧지만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의미항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引用例를 사용하는 것 보다 加工例를 사용하는 것도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례는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습자들의 한문 수준을 고려한다면 원문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2)모어로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모르는 한자와 문법적 곤란 때문에 용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최대한 쉬운 문장, 최대한 쉬운 한자로 이루어진, 최대한 흥미로운/재미있는 용례를 선정해야하겠습니다. 또, 용례에 위 예시처럼 번역 순서를 덧붙여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허사는 위의 예문

과 같이 순서+그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표기-여기서는 말이를 이에만 표기함).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四書를 공부할 때, 원문 옆에 있는 언해와 한문의 순서를 새기며 공부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하는 용례가 아닌, 한자의 의미도 알면서 쉬운 용례로 문장 공부도 하게 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지는 용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례 2]는 한문 용례의 선정 및 조직 작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의미항 선정에서 ‘교과서나 보통 문장에서의 쓰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제자의 뜻풀이에서 ‘삼가다 :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처럼, ‘의미의 의미’를 쉬운 말로 풀이해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가공례의 활용 가능성과 풀이 순서도 언급했다. 특히, ‘최대한 쉬운 문장, 최대한 쉬운 한자로 이루어진, 최대한 흥미로운/재미있는 용례 선정’은 한문 용례 선정 및 범위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가능하다.

[사례 3]

與

(모양이 비슷한 한자) 興 수레(여) 興 흥하다 (흥)  
(필순)

① 주다 (여) (뜻이 비슷한 한자) 給(급), 授(수)

(中) 更~之, 其人不得不讀之.(다시 그것을 주니, 그 사람이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사소절》

(高) 若以~我, 皆喪寶也.(만약 이로써 나에게 준다면, 모두 보물을 잃는 것이다.) 《좌전》

(論語) 乞諸其鄰而~之.(그 이웃에게 빌려서 그에게 주었다.)

(孟子) 可以~, 可以無~, ~傷惠.(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준다면 은혜로움을 손상하게 된다.)

※ 이 작업이 사전 출판까지 이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출판의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자료인지, 일반 자전과 같이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자전을 만들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편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중·고등학생만을 위한 자전이라면, 학생들이 보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전 편집 방식으로는 차별화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자 배열을 부수 순이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든지, 어떤 내용(부수, 획수 등)을 실을 것인지 하는 방법적인 면들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 3]의 경우, 한문 용례를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한문 학습 사전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해 보면, 한문 학습 사전의 한문 용례는 교과서 수록 한문 문장(단문, 산문, 한시 포함)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한문 학습자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한문 용례를 (中), (高)로 구분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표제자 ‘與’의 의미항 가운데 ‘① 주다(여)’의 한문 용례를 선정하되,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漢文』 교과서와 고등학교 『漢文Ⅰ』·『漢文Ⅱ』 교과서 수록 본문을 기준으로 (中), (高)를 구분했다.<sup>8)</sup> 덧붙여, 한문 학습 사전의 용도를 고려한 편찬 방향을 제기했고,

8) [사례 3]은 정효영 선생이 개발했다. 정효영 선생은 한문 용례의 학교급 구분을 위해, 표제자가 활용된 교과서 본문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참고로 ‘與’의 활용 예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보기 쉽게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

[사례 4]

之 지	
① 가다 [到, 去와 같음] ‘宋輕將~楚, 孟子遇於石丘.(송경이 장차 초나라로 가는데, 맹자가 석구에서 송경을 만났다.)’ 《맹자(孟子)》	
② 3인칭대명사 ‘愛人者, 人恒愛~.(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한다.)’ 《맹자(孟子)》	
③ 지시대명사 ‘學而時習~, 不亦說乎.(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論語)》	
④ 어조사(관형격조사) ‘夫大氏者, 何人也? 乃高句麗~人也.(대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곧 고구려의 사람이다.)’ 《발해고(渤海考)》	
⑤ 어조사(주격조사) ‘寡人~於國也, 盡心焉耳矣.(과인은 나라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 쏟았을 뿐이다.)’ 《맹자(孟子)》	
⑥ 어조사(목적격조사) ‘言天則天而已, 言地則地而已, 是~謂簡.(하늘을 말할 때 하늘이라고만 하고 땅을 말할 때 땅이라고만 하는 이것을 간단하다고 한다.)’ 《삼한의열녀전서(三韓義烈女傳書)》	

[사례 4]의 경우, ‘허사’의 쓰임과 관련된 한문 용례 선정 및 조직의 예이다. ‘虛辭’는 그 주된 기능이 문장 안에서의 문법적인 기능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sup>9)</sup>는 점에서 한문 용례의 기능에 부합한다. 한문 용례의 제시 범위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항에, 어떤 예문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면한다. 위의 경우, ①은 동사, ②와 ③은 대명사, ④~⑥은 어조사로 쓰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한문 지식 영역의 경우, ‘허사’를 포함한, ‘문법 용어’를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3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관형격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등의 용어는 2007년 및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기술되지 않은 용어이다.<sup>10)</sup>

■ 중학교 『漢文』 교과서(2007 개정)

본문	출전	영역	학년	출판사	쪽수
同春堂先生은 書冊借人하고 人或還之에 而紙不生毛면 則必責其不讀하고 更與之하니 其人이 不得不讀之라	사소절	일화	1	두산	104
(상동. 단, 현토는 교과서 마다 약간씩 다름)	사소절	일화	1	천재(정)	85
(상동. 단, 현토는 교과서 마다 약간씩 다름)	사소절	일화	3	다락원	76
(상동. 단, 현토는 교과서 마다 약간씩 다름)	사소절	일화	1	지학사(황)	74
(상동. 단, 현토는 교과서 마다 약간씩 다름)	사소절	일화	3	더텍스트	64

■ 고등학교 『漢文Ⅰ』·『漢文Ⅱ』 교과서(2007 개정)

제목	본문	출전	교과서	쪽수
子罕辭寶 (자한사보)	宋人或得玉, 獻諸子罕, 子罕不受. 獻玉者曰 “以示玉人, 玉人以爲寶也. 故, 敢獻之.” 子罕曰 “我以不貪爲寶, 爾以玉爲寶. 若以與我, 皆喪寶也, 不若人有其寶.”	左傳	대학서림	60

9) 교육과학기술부(2008), 184면. 참조.



위에서 예시한 몇 가지 문제 제기 이외에도 한문 용례 개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지 않은 논의 사항이 기술되었다. 한시 용례의 허용 범위,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벗어난 용례의 허용 범위, 한문 용례의 모국어 번역문의 번역 기준 문제, 표제자의 동일 의미항의 의미를 분별하기 위한 복수 용례의 제시 범위 등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 3. 향후 과제

이 글은 ‘한문 학습 사전’에 수록될 ‘한문’ 용례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학회의 합의로 향후 한문 학습 사전의 편찬을 前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문 용례 선정과 관련하여, 한문 용례의 선정 범위가 중요한 爭點이다. 범위의 문제는 한문 용례 선정 기준의 문제이기도 한데,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漢文』 교과서와 고등학교 『漢文Ⅰ』·『漢文Ⅱ』 교과서 본문<sup>11)</sup>,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그리고 한문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한문 용례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학습자들의 사전 사용의 편의를 위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工夫할 분야이다. 이 작업은 필진과 개발진들의 協力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同學들의 批評을 기대한다.

10) 참고로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에서 ‘之’의 쓰임을 설명하면서, 관형격 어기사, 주격 어기사, 목적격 어기사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11) 필자는 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과건 교사 배회정의 도움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漢文』 교과서와 고등학교 『漢文Ⅰ』·『漢文Ⅱ』 교과서 본문에 대한 出典을 조사하였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내용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 수록 본문 제재의 경우, 글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다채롭고 호한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문 학습 사전의 한문 용례의 제시 범위 문제와 관련하여,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중학교 『한문』 1, 2, 3 교과서 본문에 사용된 출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금성출판사 간행 중학교 1, 2, 3 교과서 본문 출전>

학 년	短文	散文	漢詩
1	『後漢書』 『中庸』 『象村集』 『高峰集』 『拙翁集』 『記言』 『啓蒙』 『學語集』 『易 通變』 『霽山集』 『西河集』 『春秋繁露』 『中論』 『春沼子集』 『四字小學』 『論語』 『慕齋集』 『童蒙先習』 『鄧析子』 『芝峯 集』 『讀書錄』 『耳谿集』 『藝文類聚』 『小 學』 『明心寶鑑』 『晦齋集』 『莊子』 『退溪 集』 『史記』 『朱子語類』	『靜庵集』	『推句集』
2	『中庸』 『論語』 『浦洛集』 『樂齋集』 『陽 村集』 『樊巖集』 『屏谷集』 『자산집』 『용 재집』 『舊唐書』 『續雜錄』 『宋字大全』 『三國遺事』 『관방유고』 『弘齋全書』 『三 國史記』 『격지경원』 『연산재잡기』 『靑莊 館全書』 『練藜室記述』 『東國歲時記』	『表解錄』 『心田稿』 『宋字大全』 『海東雜 錄』 『練藜室記述』 『蒙學漢文初啓』	이백, 「憶東山」 (오절) 고조기, 「山莊雨夜」 (오절) 송익필, 「山行」 (칠절)
3	『宋史』 『禮記』 『孟子』 『史記』 『詩經』 『論語』 『存齋集』 『南坡集』 『西坡集』 『春秋左傳』 『詞苑叢談』 『明儒學案』 『환 구금초』 『承政院日記』 『해동제국기』 『靑 莊館全書』 『독사기십표』 『星湖僿說』 『三 國志演義』 『惺所覆瓿藁』 『與猶堂全書』 『往五天竺國傳』	『陶谷集』 『遊燕稿』 『靜一堂遺稿』 『五洲 衍文長箋散稿』	노론, 「塞賀曲」 (오절) 허경운, 「山外都忘甲子 回」 (칠절) 이춘원, 「樓上秋風白露 寒」 (칠절)

## 참고문헌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V)-한문-』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V-한문-』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한문-』  
국립국어연구원(1999), 일러두기 ‘용례’, 『표준국어대사전』 상, 국립국어연구원, 15~16면.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 교과서
- 김근택·황경자(1997), 『사전 용례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 34, 한국불어불문학회, 265~308면.  
김여주(20007), 『임용고사 출제 범위에 대한 개선안』, 『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265~308면.  
도원영·범기혜(2011), 『중한사전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27~258면.  
웜미진(2011),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용례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152~173면.  
이충구(1994), 『韓國 字典의 實狀』, 『한국학논집』 2, 강원대 한국학연구소, 119~144면.



## 「한문 학습 사전 수록 ‘漢文’ 用例 선정 및 조직」 토론문

김용재(성신여대)

학회와 필자에 대한 인사말, 발표문에 대한 요약 서술 등은 除煩하옵고, 질의할 사안 몇 가지를 서술 하고자 합니다. 惠諒 바랍니다.

이 발표문은 어떠한 논거와 논증을 바탕으로 하여 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글이 아니라, 한문 학습 字典을 제작할 시 ‘한문(문장)’ 방면에서의 용례 선정과 조직에 대한 개발 자료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스스로 제시해 놓은 중간보고서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큰 틀에서 ……

아마도 학회에서 기획한 ‘한문학습용 사전 편찬’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전 제작을 위한 그 예비 단계로서, 각 방면(한자, 어휘, 문장 등)에서의 기획 시안을 마련해보게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전이 갖는 정체성과 특수성을 底邊에 놓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작업을 시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의 목적과 용도, 활용가치에 따라 사전의 성격이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꾸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볼 때, 학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 사전은 초중고 학생과 교사가 한문학습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목적사전’의 성격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내용과 구성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수록할 문장의 범위 역시 중고교 교과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난이도 또한 중고교 학습 과정에서 다루지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하겠습니다.

### 2. 지엽적인 부분에서 ……

첫째, 이 글에서는 한문 용례 ‘예시안’과 함께 한문 용례 개발 ‘작업 지침’을 미리 설정하고 출발합니다. 특히 ‘표제자’의 의미항을 선정함에 있어 《중고교 한문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려한다고 서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이나 구상 방향은 무엇인지요?

둘째, 각주5)에 서술되어 있듯이, 한문학습 사전 편찬 ‘한문’ 용례를 기획하시면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수록 글자의 수’ 또는 ‘문헌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안이 있으신지요?

셋째, <사례1: 鈍>에서는 ①‘상용의’와 ‘僻義’의 서술 범위, ②예문 용례의 선정 범위 기준으로서 ‘번외자’ 여부 등을 제시합니다. 중고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상용의’는 당연히 전진 배치하여야

함에 동의하며, 다만 ‘벽의’와 ‘번외자’ 수록 여부는 ‘중고교 한문 학습을 위한 특수목적사전’이라는 기저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례2: ‘愼’>에서는 자전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편의성에 무엇보다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문 번역과 뜻풀이에서는 고어체와 문언체 글이 많으므로, 이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말로 풀이하는 것은 자못 의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사전)은 짧고 함축된 서술로써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방식은 다소 번다하게 보일 素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특수목적사전’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언해본으로 한문 공부 하듯, 용례 문장에 풀이순서를 덧붙여 병기하는 것도 학습자에게 문장 해석을 익히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허사’에 대한 표기 부분은 별도의 적절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섯째, <사례3: ‘輿’>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을 摘示해 놓고 있습니다. 즉 ‘중고교 학습용 사전’에 국한할 것인지, 일반인들도 활용 가능한 범주의 자전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학회에서 기획 의도에 따른다면 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례3>의 경우엔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문장 용례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혹 중고교 교과서에 중복 사용된 문장도 간혹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예문을 기술할 경우, 지금까지 간행되었던 한문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도 가능할지요.)

한문 학습 사전 수록 ‘한문(문장)’의 선정 용례에 있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채록 방식과 유형을 제기 해주신 필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漢文’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既출간된 몇 종의 사전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汎用이거나 이 방면에서의 전문가를 위한 것이었지, 중고교 학교 교육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간행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한문 학습용 사전 개발은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배움중심수업, 교사의 조력이나 참고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유용한 도구 역할을 해내야만 그 정체성과 유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문 학습 디지털 사전 구축의 실제

허철(성균관대)

- 
- I. 서론
  - II. 교육적 측면에서 본 디지털 사전의 효용성
  - III. 디지털사전 구축의 현황
  - IV. 한문학습용 디지털 한자사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요구
  - V. 한문학습용 디지털 한자사전 구축의 기초 설계
  - VI. 결론
- 

### I. 서론

사전과 자전이란 용어는 그 개념상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전은 詞(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의 묶음이라면 자전이란 字(字)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의 묶음이다. 때문에 표음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에서는 자전이 존재하지 않으나 표의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에서는 존재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자전은 개별 글자의 형음의를 중심으로 하며, 이런 측면에서 한자 낱 글자에 대한 정보의 묶음은 한자로 구성되는 단어(어휘)를 파악하거나 한문 문장 속에서의 개별적인 의미의 파악을 통한 의사의 전달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런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한자를 모아놓는 사전의 형태는 아주 오랜 동안 발전해 왔다.

한편 이러한 글자의 집합체인 자전은 그 목적성에 따라 자서, 운서 등으로 구분된다.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자전은 형의 분별, 즉 정자와 이체자 등의 구분과 그 한자의 본의로부터 인신의(파생의), 통가적 활용까지의 정보를 주로 하고 있으나, 운서의 경우 개별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전의 차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전을 활용하는 대상과 그 대상이 사전에서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다.

특정 분야의 정보를 요하는 전문가를 위한 사전과 일반적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한문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한문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등의 다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가진 사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지식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 사전에 수록되는 정보도 달라진다.

그것을 수록하는 매체에 따라서도 사전에 대한 접근성이 분별되는데, 이 접근성은 통상 검색법의 다양한 발전과 관련된다. 이전의 서적과 인쇄를 이용하는 사전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검색법은 부수색인, 총획색인, 사각호마, 오피법 등이었다. 이는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유별하고 분류하는 것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더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검색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있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는 방법들의 발전을 가져왔다. 몇 천 쪽을 자랑하는 사전과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과는 비교 되지 않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구축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는 향후 한문교육을 시행하는 교사와 학생이 사용할 학습용 사전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화된 사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논의하고, 현재 국내외 디지털 사전의 장단점을 논의한 후, 이후 학습용 한자사전의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과 그 기초 설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 교육적 측면에서 본 디지털 사전의 효용성

### 1. 한문교과 학습과 사전 활용의 중요성

한문교과는 한자라는 문자와 한문 어법이라는 언어적 특징을 필수 요소로 구성된다. 한문교과에서 한자는 한문교과가 다른 교과와 차별되는 기본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한자에 대한 형음의 습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학습자와 독자는 한자의 형음의 기초로 하여 한문(sentence)을 읽고, 풀이하게 된다.

때문에 한자를 습득하는 과정과 그 활용의 방법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 한문교과서를 통한 한자의 학습의 경우 교과서에 제시된 한자의 형음의 단순 습득하는 과정이 되지만, 중등학교 교과의 학습은 단순히 단위 학교급별 목표 뿐 아니라 향후 학습자가 받게 될 여러 형태의 교육의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요소이기도 하다.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 속에는 부수와 사전 찾기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으나, 이는 사전의 활용이 현재의 교육 현장 속에서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사전 찾기”라는 짧고도 간단한 말 속에는 한문교과의 학습에서 “사전 찾기”를 통한 한자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이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여건 속에서 이러한 활동이 쉽지 않으며, 현재



의 교과서와 같은 “친절함”을 견지한다면 이런 활동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친절함이란 곧 자습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말하며, 이는 학습자에게 자습서나 문제집 등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이 있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친절함, 자습서와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는 현실적으로 교과 시간을 등한시하거나 교과 전문가가 아닌 타 전공 교원이 교수 활동에 투입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모든 한자의 음과 뜻이 제시되는 현재의 한문교과서의 학습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한자를 검색하고 제시된 많은 다의항 중에서 어휘나 문장의 의미에 적합한 의미를 찾아서 적용하는 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결국 어휘의 뜻 풀이나 문장의 풀이에 있어 개인의 개별적 학습 활동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모듬학습, 토론학습 등의 기회를 오히려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강(2012)<sup>12)</sup>에 지적된 바 있다. 이의강(2012)는 “자전을 활용하지 않고 한자를 학습할 경우 모호한 정보로 인하여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자전을 이용하지 않는 한자학습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한문 문장 해석이라는 독해 능력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전을 통한 한자학습을 통한 효율적 방법으로 “1) 분류수록 체계의 장점을 활용, 2) 의항의 관계에서 파생 원리를 터득, 3) 표제어의 속독을 통해 어휘력을 신장, 4) 용례와 어휘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흥미를 진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전 활용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우리의 한문교육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巢偉儀(2013)<sup>13)</sup>도 홍콩에서 문언문 교육에서 발생하는 자전 활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문 문장 독해 교육에 있어서 자전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전소설 교육에 있어 한자와 어휘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주석과 풀이이다. 주석과 풀이는 학생들에게 한자와 어휘의 함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할 정도로 쉽게 주석과 풀이에 의존하게 만들어, 심지어는 주석이나 풀이를 보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진정한 문언문에서의 자의나 어휘의 함의를 공부할 방법이 없어 독해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떨어뜨려 다른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학습하려는 욕구를 증진시켜 주지 못하게 한다.

본문은 주석과 풀이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사용될 때에는 원저나 기타 문학작품에 방해가 되지 않아, 학생들이 스스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더욱 더 깊이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로써 학생들이 깊이 사고함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한자와 어휘 교육의 방법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1.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선택하여 절취한 내용 중 한자와 어휘 풀이의 공통점과 차이 알아보기
2. 원저와 출판사에서 선택하여 절취한 내용 중 한자와 어휘 풀이의 공통점과 차이 알아보기
3.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한자와 어휘 풀이의 공통점과 차이 알아보기
4. 동일 주제를 가진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한자와 어휘 풀이의 공통점과 차이 알아보기
5. 동일 부수 혹은 동일 의미를 가진 비슷한 한자를 학생들로 하여금 비교하여 한자와 어휘의 함의를 추론해

12) 이의강(2012), 「效率的 字典 活用 方案에 관하여」, 한자한문교육 28집. 11~37면.

13) 巢偉儀(2013), 古典小說中的文言字詞教學, 한자한문교육 31집. 33~57면.

보기

6. 한자와 어휘를 삭제하여, 원문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이 감수와 사고, 유추를 통한 한자와 어휘에 대한 함의와 기능 살펴보기<sup>14)</sup>

巢偉儀(2013)의 논의의 대상은 한문 중 특히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학습자가 한자를 직접 학습하고 그것을 어휘의 풀이나 문장의 풀이에 적용하는 주체적인 활동과 이미 집필자가 제시한 자의나 어휘의 의미만을 수동적으로 학습할 경우를 비교 실험하여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함을 증명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한문교과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전을 이용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자전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한문교과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한문교과를 통해 학습한 기초적인 한자 검색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향후 성인으로 성장 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학습 활동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문교과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친절한” 교과서가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함께 이러한 학습활동이 유의미하다고 교사가 판단하면서도 이를 시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 한문 교육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자전을 이용한 학습 활동의 부여가 교과 학습과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인식이 부족,

두 번째, 실제 교사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만 현실적인 교과 시간의 제약,

세 번째,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하도록 편찬된 학습용 한자자전이 부재하며

네 번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자 자전이 너무나 다양하여 정규 교과 시간에 학습 계획을 통해 일정 정도의 학습 시간 부여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첫 번째 제기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어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필요할 것이나,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현재의 문화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곧 디지털 사전을 이용하여 검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한문교과의 학습에 적합한 자전을 구축하여 가능한 공통의 자전을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2. 한문교과 교육에서 서적 형태 자전이 갖는 장점의 수용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사전을 이용하여 검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한문교과의 학습에 적합한 자전을 구축하여 가능한 공통의 자전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문교과에 적합한 내용으

14) 巢偉儀(2013) 국문초록, 34면.

로 구성된 공통의 자전이 전통적인 서적에 인쇄된 형태의 자전으로 구성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경제적 효율성, 즉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종래의 서적 형태의 자전은 분명히 디지털 사전에 비해 그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활동은 때로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어지기도 한다.

서적 형태의 자전은 필수적으로 검색법을 필요로 하며, 고금의 한자사전을 막론하고 가장 대표적인 검색법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바로 “부수법”이다. 이 부수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개별 한자의 부수를 찾아내는 정신적 활동과 부수의 의미와 글자의 의미를 유추시키는 연계적 지식 습득을 가능케 해준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나머지 획수와 총획 수 등의 헤아림은 한자의 필획의 수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한자쓰기 학습에 가장 기초적인 필획 학습에 있어도 유의미한 효과를 주게 된다.

중국 사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오피ل 검색법의 경우는 총획수와 더불어 한자의 필순까지도 고려하게 하여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결국 학습자는 반복적인 부수와 획수, 필순 등을 이용함으로써 향후 어떤 형태의 자전이나 사전 등을 이용할 때에도 이런 기본적인 검색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디지털 자전에서도 이런 부수법이나 총획 색인법, 오피ل 검색법 등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검색법을 모든 학습자에게 개방한다고 하였을 때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만 검색을 시도함으로써 전통적인 서적자전에서 습득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학습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결국 디지털 자전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서 검색법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한자 사전의 학습의 여러 목표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서적 사전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위나 아래 혹은 옆에 배치된 다른 한자에 대한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켜 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계승하는 방법은 우리가 향후 구축하는 사전의 형태는 원하는 정보만을 콕콕 집어서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양이 비슷한 한자, 뜻이 비슷한 한자, 제시된 한자 앞뒤로 배치되는 한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어휘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원하는 어휘의 풀이 뿐 아니라 그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를 이용한 다른 어휘도 항목별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서적사전이 갖는 장점은 아날로그적 장점이다. 곧 학습자가 직접 서적된 책을 넘기면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 부분의 교육적 효과이다. 실제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비단 한자 사전 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 활용되는 모든 교재에는 이러한 감성적 측면에서의 교육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 개발되는 앱(app)들 가운데는 이러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구성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sup>15)</sup>

15) 이 항목은 디지털화된 사전의 시각적 감수성, 곧 디자인의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중점적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서적 형태의 자전은 크고 무거워 휴대에 불편하며 정보 검색의 빠름을 기준으로 볼 때는 단점을 가지지만 나름의 교육적 효과와 장점이 있다면 향후 디지털 자전 구축에서는 이러한 서적 자전의 특징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

### 3. 디지털 자전을 통한 새로운 교육 형태 발전의 가능성

디지털 자전의 교육 활용 효과는 위에서 제시한 경제적 효율성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향후 이루어지게 될 스마트 교육에서 디지털 자전의 활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 교육에서 추진하는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비교가 제시되었다. <sup>16)</sup>

디지털교과서	VS	서책형교과서
		
동영상, 가상현실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자료유형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평면적이고 선형적인 학습자료
새로운 사실과 지식 신속한 반영	자료 변환	자료가 고정되어 변환 어려움
다양한 교육자료나 DB와의 연계	자료 수집	교과서 외의 자료를 찾기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요구
정보기기(TPC, 데스크탑PC 등)	내용 전달 배체	인쇄매체
교과 내 학년 간, 타 교과 연계 학습가능	다른 교과와의 관계	교과 간 서로 단절된 개별적인 학습 교재
교사, 학생, 컴퓨터 간 다방향 학습가능	학습 방법	지식 전달 위주의 단방향 학습
학생 중심 수업활동과 자기주도적 학습실험	수업 효과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수업이 어려운 일제 수업

이 웹페이지 하단에 다음과 같이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 ○디지털교과서 주요 기능

주요기능	기능설명
교과서 기능	기존 교과서가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 수행 → 기존 교과서와 같은 교육적 목표 달성 (필기, 메모, 노트, 책갈피, 페이지넘기기 등)
멀티미디어 기능	멀티미디어 자료가 임베드/하이퍼링크로 연계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음성/음향, 애니메이션, 3D 등)
참고자료 기능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문제집 제공
학습사전 기능	각종 학습/용어사전 기능 제공 (국어사전, 영어사전, 한문사전, 백과사전 등)

16) [http://www.dtbook.kr/intro/intro\\_02.jsp](http://www.dtbook.kr/intro/intro_02.jsp)

자료검색 기능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의 용이한 검색 (동일교과 다른학년, 타교과의 텍스트/멀티미디어 검색)
하이퍼링크 기능	자기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부가 연계 (개인교수형, 시뮬레이션형, 게임형, 반복학습형 등)
상호작용 기능	웹을 통한 전문가, 외부기관과의 상호교류 (전자메일, 웹전자게시판, 웹사이트 연계 등)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	학습자의 학습진도 관리 학습자의 수준진단 학습자 portfolio 관리
평가도구 기능	디지털교과서 체제내/외부 평가도구 연계 → 학습목표 성취 여부에 대한 평가자료 활용 수준별 보충/심화학습 자료 제공
저작도구 기능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을 제작/편집/출력 → 텍스트, 그림, 음악, 동영상 편집 등
다양한 정보자원과의 연계 기능	엄선된 국가지식 DB 연계 정치/경제/사회/문화 기관이 소유한 학습용 콘텐츠 연계
기타 기능	엄선된 국가지식 DB 연계 상기 기능에 불포함된 교수학습에 필요한 기능

이 표의 “학습사전 기능”에 이미 “각종 학습/용어사전 기능 제공”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교육의 청사진 아래 추진되는 정책 중 하나로, 스마트교육은 “‘자기주도적’·‘흥미’·‘수준과 적성’·‘풍부한 자료’·‘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기주도적과 흥미, 수준과 적성은 결국 풍부한 자료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결국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여 학습자들이 S, M, A를 할 것인가는 현장의 교사의 역할 변화와 함께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디지털 교과서를 구성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로 정리할 수 있다. 곧 현재의 교육 형태가 아닌 미래의 교육형태는 지금의 교육과 같은 하향식 교육이 아닌 상향식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형태가 됨을 의미하고 있다. 허철(2012)은 이러한 활용의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향후 개발될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한문교과의 여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한자를 찾아 음과 뜻을 알아보고,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며, 한자의 변형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고, 협동학습을 통해 조별로 해석해 본 문장을 비교해 보고, 문장 속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인용문에서 제시한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 자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결국 한문교과에서 이러한 교육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한문교과의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한 “풀이”에 있으며, 이 풀이에 있어 교육용 자전의 활용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활동이 되며, 그 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 결국

17) 허철(2012), 漢文教科 Digital 教科書 開發 背景과 必要性, 方向 摸索, 한문교육연구 제39집. 346면.

이러한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형태의 디지털사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디지털 사전의 활용은 학습자의 개별 학습에 있어 수준별 학습과 고등 사고 능력 배양 뿐 아니라 협동 학습의 가능성까지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교육의 형태를 구축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 Ⅲ. 디지털 사전 구축과 사용의 현황

#### 1. 국내, 국외 현황

현재까지 구축된 디지털 사전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나 대부분 다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①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문자코드연구센터(<http://riks.korea.ac.kr>), 포털사이트인 ②다음(<http://dic.daum.net/index.do?dic=hanja>)이나 ③네이버(<http://hanja.naver.com/>), ④고려대 장경 한자사전(<http://kb.sutra.re.kr/ritk/index.do>)개인의 ⑤존한자사전(<http://www.zonmal.com/>), ⑥국제 퇴계학회의 한자사전([http://www.toegye.ne.kr/dic/dic\\_first.asp](http://www.toegye.ne.kr/dic/dic_first.asp)) 등의 사전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중 문자코드연구센터의 경우 코드값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고려대장경 한자사전은 이체자형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화된 사전이라면, 포털사이트 제공의 한자사전이나 존한자사전, 퇴계학회의 한자사전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전의 결합된 형태이면서 대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사이트마다의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선 “漢”을 공통 검색어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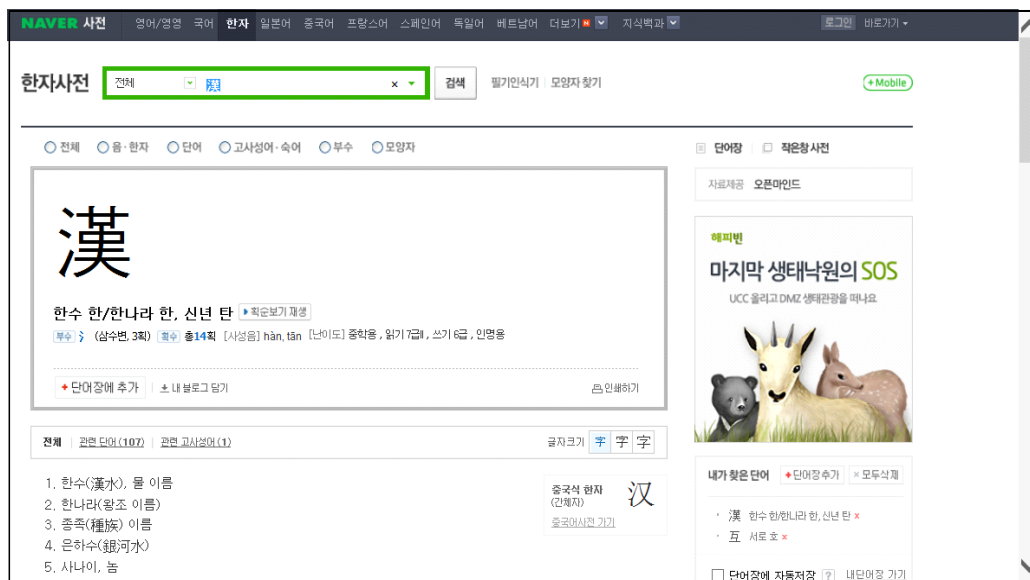
자형	이미지	TTF
	漢	□
유니코드	0FA3A	
부수/획수	水 / 11	
코드영역	호환용 한자	
자음		
자의		
사각호마		
강희자전		
한어대자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KP1-5336	
대만		
베트남		
몽골		
마카오		
Unicode		

①

④



②



③



④

부수(部首)찾기(Click)    한자·음·총획으로 찾기    漢字·음    漢    검색

전자사전 (국립중앙도서관, 대구경북지부, 편)

\* 漢(한) \*

\* 【漢】 (한수 한)  
총14획:水-11획, [翰]  
(中) hàn (日) かん, たん

■ 字解(자해) ■

1. 한수(漢水). 섬서성(陝西省) 영강현(寧羌縣) 파총산(嶓冢山)에서 발원한 강. 嶓冢導漾 東流爲漢<書經>
2. 은하수. 維天有漢<詩經>
3. 사나이.  
①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何物漢子 我與官不肯就<北齊書>  
② 사나이를 기리어 이르는 말. 朕要一好漢任使有乎<舊唐書>
4. 왕조 이름. 유방(劉邦)이 항우(項羽)를 멸하고 세운 왕조.
5. 나라 이름. 유비(劉備)의 촉한(蜀漢).
6. 종족 이름. 한족(漢族). 만주·몽고·회(回)·티베트[西藏]와 함께 5족(族)이라 이름. 漢族.
7. 중국 본토와 중국 본토인을 이름. 沒蕃被囚思漢土<白居易>
8. 지명. 한구(漢口)의 약칭.

■ 用例(용례) ■

[漢家]<한가> 한조(漢朝)의 제실(帝室).  
[漢奸]<한간> 중국 청나라 때에, 한인(漢人)으로서 만주인과 내통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

⑥

위의 여러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 ①과 ④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전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면서도 전자사전 이상의 정보와 함께 다양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③	④	⑥
부수, 획수	○	○	○	○
대표음	○	○	○	○
외국음		○	○	○
의미항과 예문	2. 은하수. 維天有漢 <詩經>	4. 은하수(銀河水)	은하수(天河)	2. 은하수. 維天有漢 <詩經>
의미항개수	9항	6항	4항	8항
필순	○	○ 애니메이션	○	
관련어휘	한양 [漢陽] [역사] 서울의 옛 이름. -브리태니커 사전과 연 동하여 예문 제공	'서울'의 옛 이름		서울의 옛이름, 중국 후 베이성 동쪽...
약자	○			
단어장기능	○	○		
한자급수시험정보	○	○		
기타 한자표 정보 제공			○(중고등, 인명 등)	
제자원리		○	○	



관련한자(이형동의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		
오체정보			○	

이처럼 부가정보의 제공 서비스 또한 각기 다를 뿐 더러, 한자의 의미항이나 예문의 제시 여부 등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인 사전인 한전(<http://www.zdic.net>)의 경우 국내사전들보다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자의 형음의 뿐 아니라 다양한 발음 정보와 문자코드, 이체자, 자형분석, 기본 자의, 설문해자, 광운, 집운, 강희자전 등의 옛 문헌 수록 정보, 字源, 기타 국가와의 자형 비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웹사전들에 비하면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는 다양하고도 상세하지만, 사용자의 사용 측면에서 보면 history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웹사전이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구성되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까지도 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운영자 한 명의 노력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구축 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한어대사전과 같은 스탠드어론 형태의 사전이나 서동문출판사의 전자판 사고전서 안에 포함된 한자사전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과 중국 양국의 디지털사전은 대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민간의 차원에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한 이익 확대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량의 한자정보를 이용하여 제작된 디지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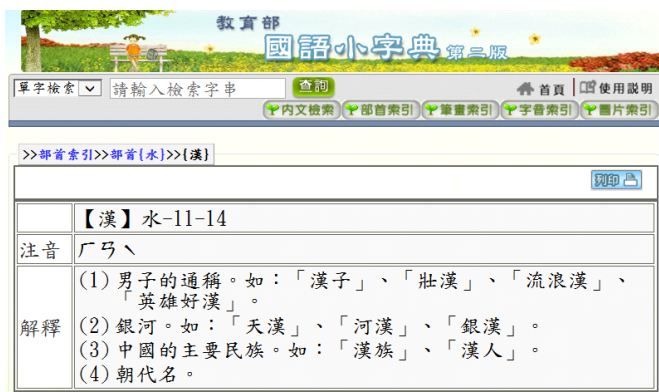
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대상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만의 한자 디지털 자전을 특히 학습자를 위한 한자사전의 개발과 활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경우 디지털 도구가 학습에 활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다음 표와 같은 사전

	標題	公告日期
1	<a href="#">電子辭典簡介</a>	101-11-15
2	<a href="#">國語辭典簡編本</a>	101-11-14
3	<a href="#">國語小字典</a>	101-11-14
4	<a href="#">重編國語辭典修訂本</a>	101-11-14
5	<a href="#">異體字字典</a>	101-11-14
6	<a href="#">成語典</a>	101-11-14
7	<a href="#">臺灣閩南語常用詞辭典</a>	101-11-14
8	<a href="#">臺灣客家語常用詞辭典(試用版)</a>	101-11-12
9	<a href="#">臺灣原住民族歷史語言文化大辭典(試用版)</a>	101-11-11
10	<a href="#">常用國字標準字體筆順學習網</a>	101-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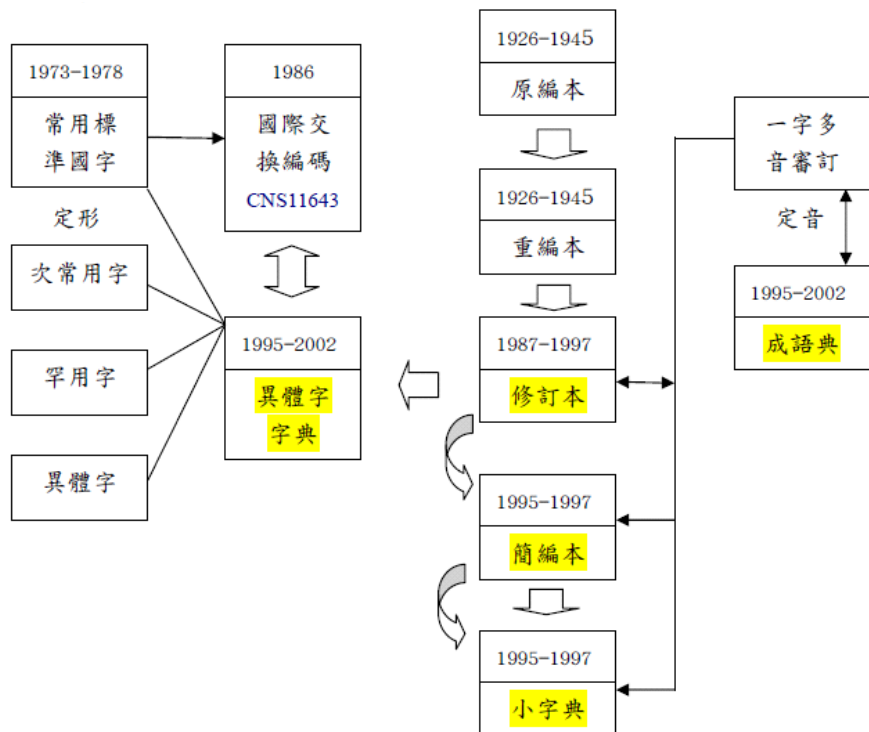
이중 초등을 위한 사전인 국어소사전의 경우 국어사전 등에서 일부 중요 정보만을 수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대상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자의를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만교육부에서는 “표준자체필순학습망”을 따로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정보를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는 것이 사용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볼 수 있다는 장점과 관리의 용이성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대만 디지털 사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각각의 사전과 사전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개발되었으면서도 유기적인 영향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서로간의 정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빅데이터이며 이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호출(protocol)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

결국 대만의 디지털 사전은 여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형과 자음, 자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구축한 후, 이를 다시 사용 목적에 맞는 사전의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만의 경험은 우리에게 향후 디지털 학습 사전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의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18) 이 도표는 대만 국립동화대학교수인 허학인교수의 동아시아 한자사전의 웹정보화 현황과 미래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 일부이다.

어떤 설계를 기초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용 사전과 일반 사전의 차이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전들은 어떤 개별적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그 응용프로그램 속에서 한자를 검색하였다면, 개방형 사전인 lingoies(<http://www.lingoies.net/>)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원하는 사전을 특정 포맷으로 인코딩한 후 링고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난 후부터 사용자는 그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끌기(drag)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호출해주고, 이를 직접 그 본문 안에 넣기 기능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링고스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사전 데이터를 동시에 검색해서 보여준다는 점이다.

곧 특정 한자 사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킨 모든 사전에서 관련 항목을 찾아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링고스는 다른 서책형이나 디지털 사전과는 다르게 기타의 여러 검색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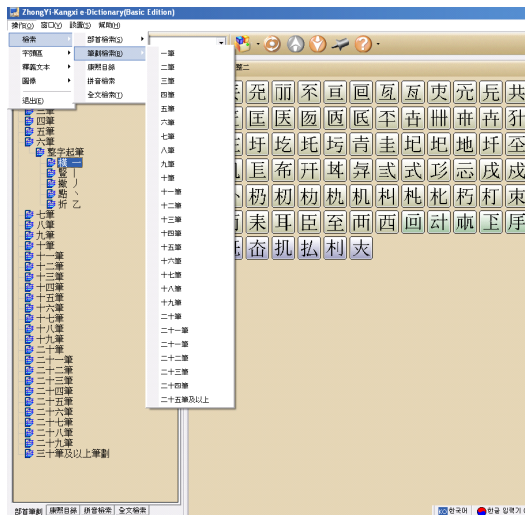


## 2. 사용자의 이용법에 따른 분류(검색을 중심으로)

사용자는 기존에 구축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색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서책형 사전과 동일한 부수와 획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디지털 사전은 입력을 통한 한자 검색 기능이 가능하여 지므로, 사실 부수와 획수가 아닌 잘라 붙여 넣기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자를 검색하고 있는데,

첫번째로 모르는 한자를 입력하여야 할 경우, 중국에서는 한자의 기본필획을 이용하여 한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즉, 一, 丨, 丿, 丶, 乙 등을 이용하여 한자를 입력하는 것이다.



▲ 전자판 康熙字典의 검색방법

두번째 방법은 한자의 構形을 이용한 방법이다. 字根입력법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한자의 일부분만을 이용하여 한자를 검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쓸 경우 한자의 일부분만을 알더라도 쉽게 한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나라 네이버사전의 “모양자 찾기”나 포털 다음의 “한자요소검색”, 일본의 초한자검색(<http://www.chokanji.cpm/ckk>), 홍콩의 iso10646 등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 搜詞尋字 檢字

若有不知如何輸入的部首，請 [download](#) 附件的外字集

A. 部件搜尋	示例
所有含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的字	力 (功、加、勞、荔...)
字首為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的字	力 (加、荔...)
字尾為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的字	力 (功、勞、荔...)

B. 部首筆畫搜尋	示例
部首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筆畫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力部、3畫(功、加)
總筆畫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5畫(功、加、付)

☐ 簡單搜尋    ☒ 複雜搜尋

※ 操作說明：可多重點選輸入 A、B 三種查詢條件。  
 簡單搜尋--列出所有合乎查詢條件之字  
 複雜搜尋--分頁列出合乎查詢條件之字的基本資料(注音、部首、筆畫、字根序)

若您的瀏覽器看不到以下的部件，請 [download](#) 附件的外字集

▲ 中研院語言所「搜詞尋字」사이트의 검색 화면

하지만, 이 방법의 사용에 있어 먼저 구축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는 한문교육에서 다루는 한자를 어떻게 구조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네이버, 다음 등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으로 해서 학습자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

세번째 방법은 한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하는 방법이다. 원문의 종류에 따라 이체자나 간화자, 혹은 다른 자형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검색법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國’字를 검색

하면 이와 연관된 이체, 간번체, 고금자인 国, 國, 国, 圀, 囯, 或까지도 함께 검색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한자에 대한 異體字, 簡繁體, 古今字, 中日字形, 通假字, 正訛字, 新舊字, 形近字에 대한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다. 네트워크판 <사고전서>의 부가기능을 통하여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볼 수 있다.



## ▲ 검색화면

## ▲ 전자판 <사고전서>의 검색 예



## ▲ 한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예

네 번째 방법은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쓰기를 통한 검색의 방법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터치 환경을 제공하는 디바이스나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런 방법은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정확한 한자의 형태를 쓰기해야 하며, 이 쓰기의 경우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식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다음 사전앱의 경우에는 사진 찍기를 통한 검색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자형 정보의 입력이 필요하다.

결국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검색 기술의 발달로, 이제 서책형 교과서와 같이 몇 가지 방법과 이를 통한 시간의 소요가 아닌 즉각적이며 편리한 새로운 기술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든 발전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때로 교육은 가장 후진적이고 오래된 방법, 곧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과 방법을 학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IV. 한문학습용 디지털 한자사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요구

##### 1. 교사의 활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

교사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사전에 수록된 정보들은 표준화된 정보이며 충분한 용례가 포함되어 있는가?
- 디지털 사전에 수록된 다양한 정보들을 다른 정보로 출력(export)하여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가?
- 디지털 사전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가? 부수지도, 필순지도, 음훈의 검색, 한자어의 의미 풀이, 등
- 교사의 임의적 사용 권한 통제가 가능한가?
-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가?
-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즉시이면서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가?

##### 2. 학생의 활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

학생의 측면에서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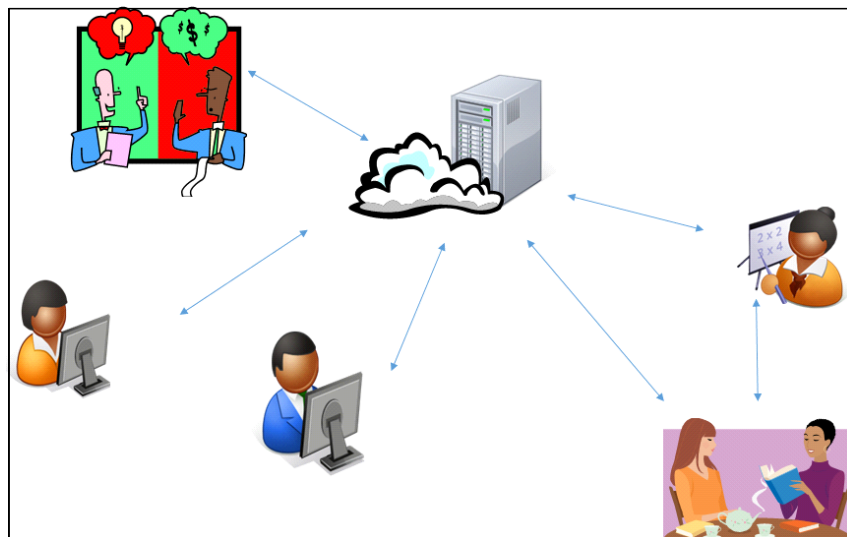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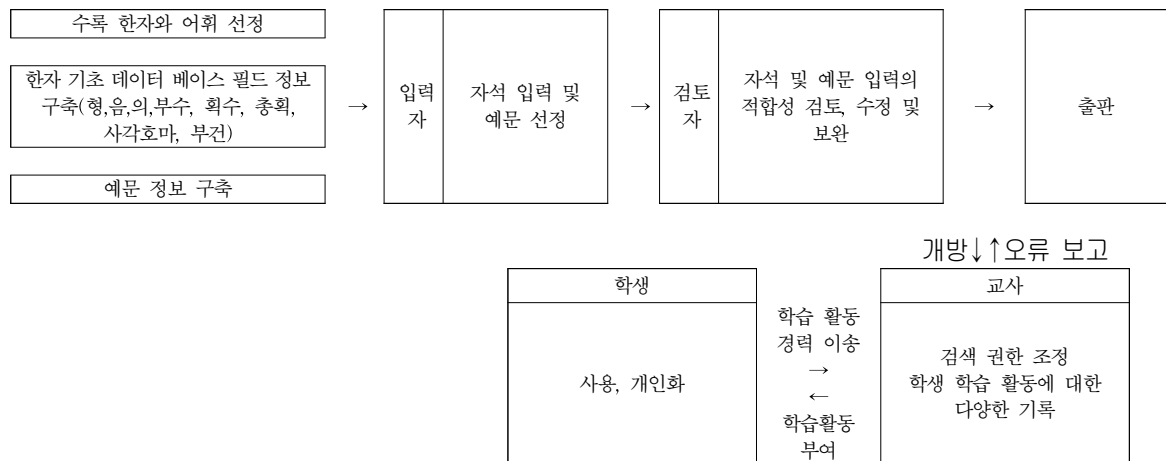
- 제시된 의미항의 풀이의 수준이 적절한가?
- 검색의 방법이 효율적이며, 다양한 검색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
- 검색했던 내용만을 모아사 자신만의 한자학습장 제작이 가능한가?
- 수시로 자신의 학습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가?
- 다양한 한자의 정보를 직접 혹은 외부 링크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가?

##### 3. 개발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

- 학습자와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
- 권한별 관리 기능 계획이 있는가?
- 개별 항목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디지털자전 구축에 참여하는 인력을 위한 별도의 입력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입력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한자의 수량과 어휘의 수량, 예문의 범위와 수준은 무엇인가?
- 향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가?
-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였는가?

곧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부터 활용까지의 열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V. 한문학습용 디지털 한자사전 구축의 기초 설계

### 1. 디지털 사전 구축에 대한 기본적 물음

- 누구를 위한 사전인가?
- 무엇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사전인가?
- 자량과 어휘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폐쇄적 사전인가? 공개형 사전인가?
- 외부자료와 연계되는가? 구축된 자료만 활용할 것인가?

### 2. 항목(item)의 표준화

- 자형 기준은 세웠는가?
- 字釋의 기준 : 서술의 통일성, 풀이 배열의 순위를 정하였는가?
- 예문의 기준과 제시 방법을 정하였는가?

### 3. 테이블(table)의 구성 및 상호 간의 유기성

○부수 마스터 테이블

○한자 인덱스 테이블

○한자 마스터 테이블

○한자의 뜻 갈래 테이블

○어휘 정보 테이블

○예문 정보 테이블

부수 마스터	한자 인덱스	한자 마스터	한자의 뜻 갈래	예문 정보	어휘 정보
부수 ID	고유번호	고유번호	고유번호	고유번호	고유번호
부수 획수	부수 ID	한자자형	자음정보선택	예문	어휘
부수 자형	총획수	진행상태:완료/진행	자석 대갈래	풀이	풀이
부수 음	부수제외획수	등록일	자석 소갈래	출전	예문
사용 유무	자음1	등록자	예문선택	저자	사용유무
	자음2	수정일		사용유무	등록자
	자음3	수정자		등록자	등록일
	유니코드	고문자이미지		등록일	수정자
	입력자HD			수정자	수정일
	검토자HD			수정일	
	진행상태				
	한자급간				
	편집이력				
	자료상태=기존,수정,신규				

#### 4. 사용자에게 따른 항목의 권한 부여

관리자	입력자	검토자	교사
최고 권한	항목 입력 테이블 수정/추가 권한	입력자 입력 분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추가 권한	학교 급간 설정 기능
입력자 승인			검색 기능 항목별 on/off 권한
검토자 승인			개별 학생 등록 권한
작업 분량 확인			각 항목별 개별 다중 선택과 전자과일화
모든 항목에 수정 권한			

#### VI. 결론

## 「한문 학습 디지털 자전 구축의 실제」 토론문

한은수(서울난향초)

한문과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디지털 자전 활용의 중요성과 디지털 자전을 통한 새로운 교육 형태의 가능성에 대한 허철 선생님의 연구 논문을 급히 읽어 보았습니다. 많지 않은 한문 교과 교육 연구자 중에서도 교과 교육의 연구 분야를 공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연구자께서 논의하신 디지털 자전의 효용성 및 한문 교과 교육에서 서적 형태의 자전이 갖는 장점, 디지털 자전을 통한 새로운 교육 형태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며 특별히 논란을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 자전 구축과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IV장과 V장에 전개되리라 보는데 개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연구자의 논의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궁금한 내용을 몇 가지 문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1. 디지털 자전 활용을 통한 한문과 교육을 스마트교육과 연계하여 논의하면서 “디지털 자전의 활용은 학습자의 개별 학습에 있어 수준별 학습과 고등 사고 능력 배양, 협동 학습의 가능성까지 열어 놓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디지털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연구자의 논의에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on line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학습 콘텐츠로 인한 지루함, 학습자의 집중 능력 저하,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소통 문제 등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스마트 교육, 디지털 교육의 장점만을 강조하다보면 현실적 문제를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실 수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수업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수업의 목표를 놓치게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디지털 자전의 구축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대만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민간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라 학습자의 활용면에서 효율성이 적고,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한 대만의 경우 교육적 유용도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대만의 경우 1926년부터 2002년까지 오랜 노력 끝에 빅데이터의 디지털 자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는데 연구자께서 구축하려는 디지털 자전의 형태나 대상 학습자, 실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한문학습용 디지털 한자사전 구축의 기초 설계를 통하여 볼 때 연구자께서는 학교에서의 교육을 목표로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한자 사전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사회 교육 측면에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섯 가지 국내의 디지털 사전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상세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처럼 사전 구축의 기본 테이블만 제공하고 개방형으로 디지털 사전을 구축하면 사용 대상, 사전 구축의 효율성, 구축 기간, 비용 등의 문제를 일부분 덜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이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필순

韓延錫(공주대)

- 
1. 서론
  2. 필획의 생성과 필순
  3. 필순의 생성과 원칙
  4. 異說이 있는 필순과 그 당위성
  5. 결어
- 

### 1. 서론

한자는 筆劃과 筆劃, 部件과 部件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해서체는 필획과 부건을 규명할 수 있지만 古文字 단계의 한자에서는 이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한자가 今文字 단계로 접어들면서 筆形, 筆劃名, 筆劃數 등이 확정되고 이들을 기반으로 ①‘가로에서 세로, 위에서 아래로, 밖 먼저 안 나중’이란 필순의 대원칙과 ②‘받침은 나중예, 戈와 같은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예 찍는다.’ 등과 같은 예외적 필순이 형성되었다.

①, ②와 같은 필순은 한자를 오랫동안 써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특히 서사 도구가 붓과 대나무(비단, 종이)로 바뀌면서 형성된 것으로 절대불변은 아니다. 예컨대 ‘右’와 ‘田’의 경우처럼 개인이나 국가, 또는 그 서체에 따라 ①과 같은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sup>1)</sup>

필순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한자의 장기 사용과정 중 형성된 것으로 대부분의 한자의 書寫에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 단 문제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 글자에 있다.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는 글자, 원칙에 예외적인 글자는 원칙을 적용해도 명확한 필순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1) 김봉환(2012), 「머리말」(쪽수 없음) 참조.

가 있다. 살펴보면, 정론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컨대 王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가로획 먼저 세로획 나중을 적용해도 ‘二 → 干 → 王’이 옳은지, ‘三 → 王’이 옳은지, ‘一 → 丁 → 王’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다음은 개인의 서사습관에 의해 예외를 따른 것이 있다. 田의 ‘十’은 가로 먼저 혹은 세로 먼저 定論이 없다. 세로 먼저는 서예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필순으로 書藝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田의 土형은 초서 혹은 행서에서 세로를 먼저하고 十의 가로획과 마지막 가로획을 ‘ㄴ’처럼 연결 서사함으로 형성되었다. 다음은 특정한 주장을 무조건 따라 하는 경우이다. 左, 右의 ‘ナ’는 필순이 각각 다르다. 그 이유를 ‘ナ’의 字源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과 ‘ノ’의 필획의 길이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 모두 특정 典籍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폐단이다.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왜 필순에 字源을 고려했는지, 거의 느낄 수 없는 필획차이를 왜 이 글자에서는 고려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위 둘째와 셋째 필순은 수정되어야한다. 이렇게 漢字學的 근거가 미약한 예외적 필순이 많아지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필순 원칙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본고는 필순의 생성, 필순의 원칙, 이것이 있는 필순에 대한 당위성 등을 한자학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필획의 생성과 필순

### 1) 필획의 생성

한자의 필획은 필순생산의 기본이다. 필획이란 하나의 한자를 써내려갈 때 한 붓의 起筆에서 收筆까지를 가리킨다. 필획과 필순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필획이 확정된 후 필순이 있다.

古時 한자는 글자를 파거나, 주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갑골문은 파기, 金文은 주로 주물의 방식으로 글자를 이루었는데, 판 문양이나 주물 한 흔적, 혹은 붓으로 썼다면 이들 흔적과 필획이 한자의 書寫單位가 된다.<sup>2)</sup> 刻紋과 鑄迹은 類型을 歸納하거나 數目を 세기가 어렵고, 刻과 鑄의 先後次序도 확정하기가 어렵다.

小篆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書寫上의 線이 상당히 규범화 되었고 線의 양식도 분별할 수 있었으며, 한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선의 숫자 역시 셀 수가 있게 되었다.<sup>3)</sup> 단 소전은 아직도 圖畫性이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線의 書寫 先後次序를 규범화하기가 어렵고, 필순 또한 형성되지 않았다.<sup>4)</sup> 전서의 기본 필획은 點、直、弧의 3종이 있었지만, 대체로 필획을 曲直 두 종류 나눈다. 전서의 기본 필획은 弧筆이 중심이다.<sup>5)</sup>

현재와 같은 필획 형태가 고정되고, 필획의 종류가 다양하고, 필획의 명칭이 확정된 것은 隸變에 의한 것이다. 즉, 예서가 형성된 이후이다.<sup>6)</sup> 필획 방면에서 예서가 전서를 개조한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2) 王寧(1996), 『漢字漢語基礎』, 北京：科學出版社, 1996, 97쪽, 98쪽 참조.

3) 王寧(1996), 『漢字漢語基礎』, 北京：科學出版社, 98쪽 참조.

4) 王寧(1996), 98-99쪽 참조.

5) 何九盈 胡雙寶 張猛(1995), 80쪽, 140쪽, 141쪽 참조. 王寧(1996)은 소전의 필획을 橫、豎、斜、弧、曲、折、封、點(斷)(『王寧(1996), 98쪽)의 8종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첫째, 書寫 筆法에서 不同形態의 點획으로 전서의 단일한 선을 대치하였다. 둘째, 圓曲을 方直으로 써서 篆體를 해산하였고, 소전에 남아 있던 상형의 맛을 철저히 포기 하고, 일종의 從左到右、從上到下、從右到左下、從左上到右下의 주요 運筆方向의 筆勢 습관을 형성 하였다.<sup>7)</sup> 셋째, 글자의 構形에 대해 전면적인 조정을 하였는데 주로 다음과 같다. 전서의 본래부터 서로 다른 국부적인 결구 형태를 합쳐서 混同시켜 새로운 결구형태로 대체하였다.<sup>8)</sup> 예컨대 ‘奉, 春, 奏, 秦, 泰’의 상부 ‘夫(夫)’가 그것인데, 奉은 ‘丰’과 ‘升,’ 春은 ‘+’와 ‘屯,’ 奏는 ‘中’과 ‘升,’ 秦은 ‘午’와 ‘升,’ 泰는 ‘大’와 ‘升’의 결합이다.<sup>9)</sup> 전서의 동일한 部件 형태를 結構에 따라 여러 개의 부동의 部件 형태로 변이 시켰다. 예컨대 辟, 令, 危, 卽, 叕의 卩은 본래 소전에서는 ‘ㄩ’로 동일하였으나 예서에서 卩, 𠂔, 𠂕(𠂕), 𠂖, 𠂗 등으로 서로 다르게 썼다.<sup>10)</sup> 다음은 省變이다. 필획을 省間 하거나 자형의 某 부분을 省略한 것을 포괄한다. 예컨대 靄(靄) 雷로, 𠂔(手)를 扌로, 褰(褰)을 褰으로, 𦍋(善 籀文 善)을 善으로, 𠂔(畀)을 𠂔로 쓴 것이 그것이다.<sup>11)</sup>

隸變 이후 필획은 고정된 形體, 일정한 數目과 일정한 서사순서를 가지고 있다.<sup>12)</sup> 필획은 筆形, 筆向, 筆順, 筆劃數 등을 가지고 있다. 筆形은 필획의 樣式을, 筆向은 書寫時의 運筆의 輕重을, 筆順은 한 개의 한자를 書寫 할 때 각각의 필획의 先後次序를, 筆劃數는 한 개의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필획의 數目を 가리킨다.<sup>13)</sup>

필획 형태의 분류와 명칭은 晉과 唐에서 이루어졌다. 晉나라 때 衛夫人은 최초로 한자 필획의 형태를 분류하였다. 그는 ‘筆陣圖’에서 필획의 명칭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필획의 형태만을 ‘一、ノ、丨、㇏、㇏、㇏、㇏’의 7종으로 나누었다. 당나라 때 張懷瓘은 소위 <永字八法>을 제시하고 側(點), 勒(橫), 努(豎), 趯(鉤), 策(挑), 掠(撇), 啄(短撇), 磔(捺) 등의 8종의 필획과 그 명칭을 제시하였다.<sup>14)</sup>

해서의 기본 필획은 橫、豎、撇、捺、勾、點、轉折 등인데, 예서에서 이미 구비되었던 것이다.<sup>15)</sup> 현대 중국의 한자의 筆形은 일반적으로 ‘橫、豎、撇、捺、折、點’ 등과 같은 6大類로 분류한다.<sup>16)</sup>

6) 王寧은 隸變이후 한자 선의 類型의 기초가 형성되었고, 한 개 글자의 필획수와 서사 순서가 또한 확정되었다. 곧 필획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해서단계에 이르러 한자의 필획은 더욱 규범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王寧(1996), 99쪽 참조.)

7) 王寧(1996), 61쪽 참조.

8) 王寧(1996), 60-61 참조.

9) 한연석(2008), 154쪽 참조.

10) 王寧(1996), 61 참조.

11) 王寧(1996), 62-63 참조.

12) 王寧(1996), 99쪽 참조.

13) 王寧(1996), 99쪽 참조.

14) 현재 중국에서는 필획을 크게 ‘一、丨、ノ、㇏、㇏’ 5종으로 나누고 있다.(何九盈 胡雙寶 張猛(1995), 80쪽 참조.)

15) 何九盈 胡雙寶 張猛(1995), 141쪽 참조. 何九盈 胡雙寶 張猛(1995)은 위와 같은 책의 다른 곳에서는 해서의 기본필획을 ‘橫、豎、撇、捺、點、勾、提、彎戈、曲持’ 9개로 분류하기도 하였다.(何九盈 胡雙寶 張猛(1995), 141 참조.)

16) 王寧(1996), 99 참조.

## 2) 한자의 結構와 필획, 필순

한자는 필획과 필획, 필획과 部件, 부건과 부건의 조합이다. 이들 조합 양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필획과 필획의 조합에서는 相離로 ‘二 八 小 冫’ 등, 相接은 ‘丁 上 匚 人 厂’ 등, 相交는 ‘十 七 力 广 父’ 등과 같은 것이 있고, 筆劃과 部件의 조합은 相離로 ‘ㄷ 太 刃 引 王’ 등, 相接으로 ‘天 灭 千 丩’ 등, 相交로 ‘中 巾 又 本 末’ 등과 같은 것이 있다.<sup>17)</sup>

異說이 있는 한자의 필순을 확정할 때 이들 원칙을 원용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及은 컴퓨터나 자전에 총 4획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丿 → ㇇ → 及’의 3획으로 쓰는 경유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한자가 필획과 부건의 조합이란 기본 상식을 소홀히 여긴 것이다. 及은 ‘人+又’이기 때문에 ‘丿+又’의 4획으로 써야 한다.

필순은 필획의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筆形의 확정과 함께 한자는 장기간의 서사과정 중, 서사의 편리와 한자의 結構시의 美觀을 위해 점점 先上後下, 先外後內 最後封口的 筆順이 형성되었다.<sup>18)</sup> 필형과 필순이 정해진 뒤 한 개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필획수가 확정되었다.

## 3. 필순의 생성과 원칙

### 1) 한자 演變과 필순 생성

필순이란 한 글자의 한자를 완성하위해 한자를 書寫하는 필획순서를 가리킨다. 즉, 한 개의 글자를 어떤 필획을 먼저 쓰고 어느 필획을 뒤에 쓰느냐를 정한 순서를 가리킨다.<sup>19)</sup> 필순은 필획의 형태, 筆道가 고정되거나 확정된 후에 이루어 졌다. 이들이 확정되거나 고정되지 않으면 필순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필순은 書寫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중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아 정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예외도 있으며, 개인이나 국가 또는 서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sup>20)</sup>

일반적으로 통행되고 있는 필순 규칙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필획 사이의 선후로 규칙을 만든 것이다. 예컨대 ‘先橫後豎, 先撇後捺’은 서로 다른 필획 사이의 선후 순서에 의한 규칙이다. 다음은 ‘從上到下, 從左到右, 先外後裏, 先中間後兩邊’은 위치관계로 필순규칙을 만든 것이다.<sup>21)</sup>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자의 필순이 필획 형태의 不同으로 인해서만이 형성된 것이 아니

17) 王寧(1996), 100 참조.

18) 王寧(1996), 99-100참조. 소전은 매우 간단한 자형이라 할지라도 서사 순서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ㄱ(口)’는 어느 것을 먼저 써야 하는지 확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禮書나 楷書의 ‘口’는 ‘丨 → 冂 → 口’의 순서 즉, 필순이 형성되었다.(王寧(1996), 100 참조.)

19) 姜紅(2010), 59쪽 참조.

20) 池載勳(2004), 75쪽 참조.



고 위치변화 즉 결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 언제 어떠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왜 그렇게 따라야 하는가, 필순규칙이 한자 構形의 어떤 인소의 지배를 받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등은 아직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2)</sup>

필순은 한자가 부호화를 지향하면서 필획이 생성되고 그 형태가 고정되면서 규칙의 기초가 닦여졌다.<sup>23)</sup> 소전은 편방의 寫法, 위치, 형태가 고정되면서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즉 필획의 형태가 규범화를 이룬 시기로 필순 형성의 원초적인 기초가 닦인 시기이다. 본격적인 필순 형성은 붓과 대나무가 주 서사 도구로 등장하고, 일반인들까지 문자생활을 하기 시작한 隸變期이다. 隸變은 경천동지의 자형변화를 가져왔다. 彎曲중심의 소전 필획이 平直을 지향하면서 한자를 써내려감에 일정한 순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sup>24)</sup>

秦末 漢初 古隸는 正體가 아닌 俗體로 인식되었지만, 이때 예서의 특징은 철저히 서사의 편리와 빠르기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필순 규칙이 이루어진 形成期이다. 古隸(秦隸)는 西漢 中期 이후 今隸(漢隸)로 演變되었다. 今隸는 동한 시대에 正體로 인정받으면서 더욱 서사의 편리와 빠르기를 지향하였고, 서예학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면서(八分) 필순 규칙이 발전하고 안정된 穩定期로 접어들었다. 한자의 전체 자형 모습이 方形을 지향한 것과 주로 좌우 혹은 상하로 구성된 한자의 구형특징도 필순규칙을 형성시킨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sup>25)</sup>

붓이란 서사공구의 사용과 소전에서 예서로의 字體의 전환은 한자연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필순은 運筆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즉, 붓으로 글씨를 서사하면서 일정한 붓의 진행 방향이 형성되고 이 진행방향은 필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隸變은 소전의 圓曲의 필획을 方直으로 써서 일종의 左에서 右로, 上에서 下로, 右上에서 左下로, 左上에서 右下로의 運筆方向의 筆勢 습관을 형성 하였다.<sup>26)</sup>

## 2) 필순 생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한자는 갑골문부터 현재의 해서까지 끊임없이 演變되었다. 설령 문자의 구성 根據를 상실한다할지라도 연변과정 중 한자는 서사의 편리, 효과적인 서사, 자형의 정형미를 늘 추구하였다.

필획의 형태, 筆道, 筆順은 이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형성된 것인데, 필순과 필순형성에 대한 단편적

21) 孫德金(2006), 32쪽.

22) 孫德金(2006), 32쪽.

23) 孫德金(2006)은 명확한 필획형태의 생성이 필순규칙 형성의 기초가 된다고 하고, 필순규칙의 형성은 자형이 규범화되기 시작한 소전을 原始期, 서사편의와 서사의 빠르기를 목적으로 철저히 상형의 원칙을 포기한 隸變 초기의 形成期, 아름다운 서사형식에 대한 탐색기로, 예서가 俗體의 지위에서 正體내지 雅體로 인정된 發展變化穩定期로 나누었다.(孫德金(2006), 32 -40 참조.)

24) 何九盈 胡雙寶 張猛(1995), 80쪽. 그는 또, 예서는 대량의 弧筆을 모두 平直으로 바꾸었고, 복합적인 것을 간단한 것으로 분할하였으며, 아울러 좌에서 우로의 필획방향을 취하였다. 이는 書寫에 매우 편리하였다.(何九盈 胡雙寶 張猛(1995), 141쪽 참조.)라고 하였다.

25) 孫德金(2006), 41쪽 참조.

26) 王寧(1996), 61쪽 참조.

인 언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사도구로 인해 필순이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周健(2007)은 한자의 서사는 습관과 전통서사공구인 붓 등의 영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필순 방면에 소수의 예외가 존재 한다. 예컨대 女자의 橫, 万자의 撇 모두 최후에 쓴다. 단 절대 다수의 한자는 모두 먼저 좌상의 모퉁이부터 시작하여 우하의 모퉁이에서 끝난다.<sup>27)</sup>고 하였다. 즉, 예외인 경우는 있지만 습관과 붓으로 인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필순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速寫 추구로부터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사람들은 서사의 빠름을 추구하기 위해 서사시 가장 짧은 운필 路線을 선택하고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필순원칙이 형성되었다.<sup>28)</sup>고 한다.

셋째는 서사습관에 의해 필순이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필순 규범은 다수인이 글자를 쓰는 습관에 근거해서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어떤 글자의 필순규정은 개인의 서사습관과 불일치 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小은 어떤 사람의 필순 습관은 點 豎 點인데, 단 《規範》<sup>29)</sup>이 규정한 것은 먼저 양 점을 쓰고 가운데 豎劃을 쓴다.<sup>30)</sup>고 하였다.

넷째는 일부 예외적인 필순은 초서나 옛 습관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필순 규칙에 어긋나는 글자 중 일부는 ‘초서’나 ‘옛 서사 습관’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설이다.<sup>31)</sup> 이는 매우 중요한 언급으로, 필순 원칙에 예외적인 특수한 사항은 초서와 옛날의 습관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사 도구인 붓, 速寫, 습관, 초서에 의해 筆順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근원적 사실은 한자가 小篆에서 예서로 변한 즉, 隸變이란 漢字史에 의해 필순이 형성되었다.

### 3) 필순의 원칙

#### (1) 필순의 원칙

우리와 중국의 필순규칙은 거의 같다. 중국은 원칙으로 가로먼저 세로 나중(十), 뺄침먼저 파임 나중(人), 위에서 아래로(主), 좌에서 우로(川), 밖 먼저, 안 나중(月), 중간 먼저 양변 나중(小), 밖 먼저 안 채움 밑 막음 맨 나중(回)을 제시하였다.<sup>32)</sup> 우리는 위 원칙을 3대원칙 혹은 2대원칙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나머지를 세칙으로 제시하는 형과, 대원칙 없이 위 중국처럼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소개하면 ①위에서 아래로 ②왼쪽에서 오른쪽으로 ③가로에서 세로로 ④가운데를 먼저

27) 周健(2007), 58쪽.

28) 周健(2007), 58쪽.

29) 중국의 언어공작위원회가 공포한 규범을 가리키는 듯하다.

30) 周健(2007), 59쪽. 문복희(1997)는 “필순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랜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습”이라고 하였다.(文福姬(1997), 9쪽.)

31) 鄭國民·馬新國(2010), 325쪽 참조. 鄭國民·馬新國(2010)은 초등학교 1학년 어문교과서 筆順歌에서 “特殊不合規則, 源于從草從古”라 하여, 규칙에 不附合되는 자는 초서 혹은 고문자를 참조하라고 하였다.

32) 周健(2007), 58쪽. 姜紅(2010)도 똑같은 주장을 하였다.(姜紅(2010), 59쪽 참조)

⑤바깥을 먼저 ⑥꺾는 획은 나중에 ⑦빼침을 먼저 ⑧오른쪽 점은 나중에 ⑨ 받침이 독립자일 때는 먼저, 독립자가 아닐 때는 나중에 쓴다.<sup>33)</sup>고 하였다.

이들 7개의 원칙 외에 보충 규칙으로, ①口형 중 위가 터진 글자는 안 먼저, 밖 나중에(凶, 幽) ②口형 중 오른쪽이 터진 글자는 위 먼저 안 나중에, 좌하(厶 巨) ③점이 중앙 위, 혹은 좌상에 있으면 먼저 (六 斗) ④점이 우상에 있으면 나중에(我) ⑤점이 안에 있으면 나중에 쓴다.(又 玉 瓦)<sup>34)</sup>를 제시하였다.

개별 서적마다 그 조밀과 소원 정도가 다르지만 이상이 자전이나 교재, 보충학습지에 제시된 필순의 원칙이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한자의 書寫에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서에 예외적 필순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등장한다.

중국 초등국어(語文)교과서는 필순 교육을 중시한다. 각 학년 교과 진도에 따라 필순을 가르친다. 아래는 北京師範大學編 1학년 어문교과서 교사용지도서에 실린 필순원칙이다. 각과에 개별 진술된 필순원칙을 외우기 쉽게 노래로 만들어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이다.

#### <新編筆順規則歌訣>

從上到下爲主, 從左到右爲輔. : 위에서 아래를 주를 삼고, 좌에서 우로 보충하네.

中央突出先寫, 右上有點後補. : 중앙 돌출 부위 먼저,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橫豎交叉先橫, 撇捺交叉捺收. : 縱橫 교차 시 가로 먼저, 파임과 빼침은 빼침 먼저.

上包下時先外, 下包上時先內. : 위에서 아래를 감쌀 땐 밖을, 반대는 안을 먼저.

三框首橫末折, 大口後封底部. : 匚은 위 먼저 꺾임 나중에, 凵은 맨 나중에 밑 막음.

多重複合結構, 根據層次分組. : 여러 결구가 겹칠 때는 層次에 따라 나눠 쓰네.

特殊不合規則, 源于從草從古. : 규칙에 不附合되는 자는 초서 혹은 고문자를 참조.

熟記規則特例, 筆劃正確無誤. : 규칙과 特例를 외우고 필획은 정확히 틀리지 않게.

寫字流暢美觀, 檢字準確迅速. : 글씨는 예쁘게, 글자 찾기는 신속 정확하게.<sup>35)</sup>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순 원칙 그대로이다. 단, 일반 원칙을 벗어난 특례 필순이 있다는 것과 이들 가운데 원칙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초서나 고문자를 참조하여 필순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이는 사실 필순 생성의 근원을 암시한 것이다. 필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아직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 일부 한자 연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초서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의 경우 초서로부터 필순이 형성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초서는 예서를 기본으로 형성된 書體이기 때문에 초서를 필순 형성의

33) 제일교육(2001), 4쪽 참조. 중학교 한문교과서에서도 위 원칙과 동일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희목·김병건·송요권(2010)은 비교적 필순을 가볍게, 필순의 원칙만을 밝혔다. 아울러 자전류와는 다르게 교과서 각 단위마다 골고루 필순 원칙을 언급하였다. 이희목·김병건·송요권(2010)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획 먼저, 좌우 모양이 같을 때에는 가운데를, 안쪽과 바깥쪽에 있을 때에는 바깥쪽을, 빼침과 파임이 만날 때에는 빼침을,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쓴다.’고 하였다.( 이희목·김병건·송요권(2010), 9-102쪽 참조.)

34) 단 丹 夜와 같은 자는 예외라고 하였다.

35) 鄭國民·馬新國(2010), 325쪽.

근원으로 보는 것은 바른 시각이 아니다.

## (2) 右上 점과 받침의 필순

右上 점과 받침의 필순은 사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의 필순 대원칙에 어긋난다. 왜 이런 필순 규칙이 형성됐는지 살펴본다.

### ① 右上의 점

오른쪽 위 점 쓰기의 先後次序는 필획 쓰기에 해당한다. ‘犬 代 成 威’과 같이 오른쪽 위의 점은 마지막에 찍는다. 점을 마지막 찍는 것은 운필의 절주를 위한 것이다. 물론 이 운필의 절주 역시 서사의 편리, 빨리 쓰기와 관계있다. 戈를 예를 들면, 戈는 위에서 아래로의 筆順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래를 먼저 쓰고 위를 나중에 쓴다. 이는 붓이란 書寫道具와 速寫와 관계되어 형성된 筆順이다. 붓으로 글자를 빨리 쓰기 위해서는 節奏가 필요하다. 자연스런 運筆의 절주로 인해 형성된 필순이다. 戈는 ㉔(小篆), ㉕(古隸), ㉖(今隸) ㉗(楷書)<sup>36)</sup>의 演變과정을 거쳤다. 今隸 ㉖는 어느 것이 먼저 썼는지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楷書 ㉗를 보면 하부를 먼저 썼음이 확연하다. 今隸 ㉖의 제2필과 右上 斜線(點)은 書寫의 節奏와 速寫에 합당한 筆形이 아니기 때문에 ㉗에서는 제2필을 제3필(下部 向左의 斜線)과 자연스럽게 連結書寫하기 위해 파임(捺)의 收筆處를 점점 向上의 갈고리 형태로 써서 제3필과 자연스런 節奏를 이루게 하였다.(ㄱ) 이런 필형과 필순을 택한 것은 右上의 點과 연결 서사를 위한 절주 때문이다. 아울러 右上의 斜線의 점도 向左의 斜線(㉔㉕㉖)에서 向右(㉗)의 짧은 斜線으로 변했다. 이는 速寫를 위한 筆順으로, ‘ㄱ’과 같이 運筆의 節奏를 위해 형성된 필순이다.<sup>37)</sup>

### ② 받침

받침 쓰기의 先後次序는 부건과 부건의 쓰기 순서를 말한다. 필순 원칙은 받침을 나중에 쓴다고 하였지만 走, 免, 是 등이 받침이 될 때 이들을 먼저 쓴다. 왜 그런 필순이 생성됐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隸變과 부건의 獨體字로의 사용여부와 관계있는 듯하다. 예컨대 部件 走는 현재 독체자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부건 辵(辵)은 독체자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 辵(辵)은 소전까지만 해도 상부 辵과 하부의 止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던 字符인데 古隸段階에서, 특히 左右結構의 한자에서 添合되기 시작하고, 止의 마지막 필획을 가로로 길게 빼 썼다. 예컨대 適, 造, 遇, 通 등은 소전에서 辵과 商, 告, 禺, 甬이 左右로 결구되었다. 하지만 古隸段階에서 받침(辵)이 이미 이들 오른쪽 부건의 아래까지 길게 내 쓰고, 辵은 獨體字로는 사용하지 않은 듯하다.<sup>38)</sup> 하지만 走를 부건으로 한 좌우결구의 한자들, 예컨대 ‘起, 趣,

36) ㉔, 許愼(1992), 256쪽.; ㉕, 張守中 撰集(1994), 188쪽.; ㉖, 韓延錫(1997), 伐의 部件, 130쪽.; ㉗, 齊元壽(1998), 110쪽.

37) 한연석(2010), 「隸變과 部首字의 書寫 -異形部首字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42호, 동방한문학회, 331-332쪽 참조. 隸書는 楷書와 거의 근접한 자형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筆形, 筆順, 筆道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38) 張守中(1994), 19-21쪽 참조.

越’ 등은 여전히 부건의 변형 없이 좌우결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走의 마지막 필획을 ‘己, 取, 戌’ 등의 아래로 길게 빼지 않았다.<sup>39)</sup>

이상을 종합해보면 走, 免, 是 등이 받침이 될 때 ㄱ과 달리 먼저 쓰는 것은, 여전히 독체자로 쓰이고 있으며, 소전에서 해서까지 부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듯하다.

#### 4. 異說이 있는 필순과 그 당위성

필순 원칙에 어긋나는 개별 한자에 대한 필순 설명은 수긍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또, 이들 원칙에 벗어난 글자들에 대해 서로 다른 필순을 주장하여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아래 원칙에 벗어난 개별 한자의 필순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고 그 당위성을 검토한다.

##### 1) ㄷ의 필순

진창영(2004)은 왼쪽 ㄷ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고 ‘九 及 刀 力’의 글자를 예로 들고 ‘九 及’은 ㄷ을 먼저, ‘刀 力’은 ㄷ을 나중에 쓴다고 하였다.<sup>40)</sup> 단 왜 이런 필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들 필순은 運筆과 관련 있다. 예컨대 力의 경우 2획의 글자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는 운필과 관련되어 형성된 필순이다. 즉 力은 ‘ㄱ - ㄴ’으로 써야 제 1필의 收筆과 제 2필의 起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반대로 ‘ㄴ - ㄱ’으로 쓰면 1, 2필의 收筆과 起筆이 절주를 이루지 못하여 速寫도, 定型美도 얻을 수 없다. 文福姬(1997)는 ‘에운 획’ 필순의 경우 ①‘위에서 아래로 에워싼 경우는 에운 획을 먼저 쓴다.’고 하고 ‘刀 力 方 司’ 등을 예로 들었다. 또 ②‘아래로 에워싼 경우는 에운 획을 먼저 쓴다.’고 하고 ‘七 世 色’ 등을 예로 들었다.<sup>41)</sup> 이는 같은 에운 획이라도 다음 필획과의 연결 서사를 고려 형성된 것으로 운필과 관련된 필순이다.

##### 2) 가로획과 세로획

文福姬(1997)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될 경우는 보통 가로획을 먼저 쓴다.’고 전제하고 ①‘모든 가로획을 쓰고 세로획을 쓰는 경우(半 手 甲 用)’, ②‘가로획 다음에 세로획, 그리고 나머지 가로획을 쓰는 경우(土 生 主 隹)’ 등을 제시 하고, ③‘세로획을 먼저 쓰는 경우’로 ‘由 王 田 角 再 鬼’ 등을 제시 하였다.<sup>42)</sup> 하지만 ③의 경우 ‘由 田’ 등의 안쪽은 獨體字 ‘土’ 형을 띄고 있고 있음에도 왜 ‘土’와 필순이 다른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국어문연구회(2011)도 ‘田, 王, 土’의 경우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하는 경우, 세로획 먼저 쓰기도

39) 張守中(1994), 16-17쪽 참조.

40) 진창영·전재강·이정옥·장도규(2004), 8쪽.

41) 文福姬(1997), 10쪽.

42) 文福姬(1997), 9쪽 참조.

하나 보통 가로획 먼저 쓴다.’고 하였다. 이외 다수의 전적에서 田의 ‘土’형은 세로를 먼저 쓴다고 하였다.<sup>43)</sup> ‘土’형의 한자를 세로획부터 쓰는 것은 필순의 원칙, 세척 어느 곳에도 없다. 서예의 행서, 초서 쓰기로부터 演變된 것으로 보이는데, 필순 원칙에 따라 써야 한다. 그 이유는 필순은 해서를 ‘가로 - 세로’라는 원칙이 효과적이 書寫가 될 수 있으며, 예외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4)</sup>

또, 한국어문연구회(2011)는 ‘長, 馬’가 들어 있는 글자들은 왼쪽이 먼저인가, 위쪽이 먼저인가에 따라 첫 획을 가로획 먼저 쓰기도 하였으나 본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두 세로획 먼저 쓰는 것(Ⅰ → ㄱ → ㄴ)으로 통일하였다.<sup>45)</sup>고 하였다. 많은 전적에서 이런 필순을 따르고 있는데<sup>46)</sup> 딱히 최선의 필순이 무엇인가 제시하기 어렵다.

단, 필순의 기본 규칙에 의거하여 가로 먼저 세로 나중이 합리적 필순이다. 필순의 원칙 중 ‘가로 먼저 세로 나중, 빼침 먼저 파임 나중’은 서로 다른 필획 사이의 선후순서를 나타내고,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밖 먼저 안 나중’은 위치관계<sup>47)</sup> 즉, 상하결구, 좌우결구 등으로 이루어진 한자의 構件(部件)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를 가리킨 것이다. 이는 馬, 長과 같이 ‘가로 → 세로’ ‘좌 → 우’ ‘상 → 하’란 필순원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자의 쓰기 순서의 확정에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참고 하면 馬의 상부 ‘厶’는 부건과 부건의 쓰기가 아닌 필획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칙인 ‘가로먼저 세로 나중’을 적용하면 좋을 듯하다.

### 3) 가로획과 빼침의 교차

특정 한자에서 가로획과 빼침이 교차할 때에 대한 필순 제시와 그 이유가 다른 경우가 있다. 크게 字源과 필획의 길이 차이에서 찾고 있다.

#### (1) 字源

##### ㉠ 尹善伯

尹善伯(1982)은 가로획과 빼침, 그 가운데에서도 ‘ナ’형에 대한 필순은 字源에 의하여 다르다고 한다. 그는 ‘左, 右’ 등에서 ‘ナ’형은 자원에 의해 字形 차이가 나고, 가로획과 왼쪽 빼치기의 順序가 다르다고 하였다. 그는 右는 소전에서 자형이 𠂇로 ‘ㄱ → ㄴ → 右’로의 필순을, 左는 𠂇로 ‘一 → ㄴ → 左’로의 필순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sup>48)</sup>

43) 民衆書閣辭書編輯部(1995), 1346쪽. 尹善伯(1981), 1169쪽.

44) 金鍾煥(2005)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正字體 筆順과 草書體 筆順을 모두 사용했다.’고 하였다.(81쪽.)

45) 한국어문연구회(2011), 11쪽.

46) 民衆書閣辭書編輯部(1995), 1346쪽. 尹善伯(1981)은 馬의 필순을 두가지 제시하였다.(1007-1291쪽 참조.)

47) 孫德金(2006), 32쪽 참고. 손덕금은 위치관계 쓰기로 ‘先中間後兩邊’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필획관계에도 적용되어 정확한 지적이 아닌듯하다.

## ㉞ 한국어문연구회

한국어문연구회(2011)는 ‘左, 右(有, 布)는 제 1획이 서로 다르다. 이유는 字源에서 찾아야 하는데, 左의 丩는 왼손을 右의 丩는 오른손을 본뜬 것이다. 편의상 오손을 본뜬 것은 오른쪽 빼침을 먼저 쓰고, 왼손을 본뜬 것은 왼쪽의 가로획 먼저 쓴다고 알아두면 될 것이다. 有, 布는 오른손을 본뜬 것으로 右의 필순을 따라 쓴다.’<sup>49)</sup>고 하였다.

## ㉟ 고창식

고창식(1984)은 右의 경우 ‘一보다 丩이 먼저임이 옳다.’고 하였다. 이유는 漢字 製作原理上, ‘丩’가 오른 손(又)에 해당하므로, 오른 손을 그릴 때는 右上에서 左下로 빼치는 획을 먼저 쓰기 때문<sup>50)</sup>이라고 하였다.

고창식은 한자연변을 반대로 이해하였다. 右의 상부 ‘丩’는 오른손을, 左의 상부 ‘丩’는 왼손을 나타내었는데, 이들은 이미 예서 단계에서 同形인 ‘丩’로 변했다. ‘丩’는 向左의 곡선 ‘ㄱ’이 ‘丩’로, ‘ㄱ’이 ‘一’로 변했고, 左의 그것은 이와 정반대로 演變되었다. 동형의 부근을 자원 때문에 필순이 다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그는 字源과는 관계없이 ‘丩’형의 構件 중 ‘右’字의 筆順을 쫓는 것으로는 ‘有, 希’가, ‘左’字의 筆順을 쫓는 것으로는 ‘友, 存, 在’ 따위가 있다.<sup>51)</sup>고 하였다. 궁색한 논리이다. 왜 同形部件인데 어떤 것은 자원을 따르고 어떤 것은 자원과 상관없이 필순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자형을 자원을 고려하여 필순을 달리한다는 것은, 사실 서사습관 혹은 특정 전적으로부터 형성된 필순을 무조건 따라 하면서 한자학을 들어 건강부회한 듯하다.

## (2) 필획의 길이

## ㊱ 文福姬

文福姬(1997)는 ①가로획이 짧고 빼침이 긴 글자, 위와 왼쪽을 싸는 厂(仄, 低, 尸, 戶, 病, 虎)은 가로획을 먼저 쓴다고 하였다. 이런 예에 속하는 글자로 ‘左, 友, 在, 仄, 原, 尾, 病, 底’ 등을 들었다. ②가로획이 길고 빼침이 짧은 글자, 厂에 다른 획이 교차될 때, 빼침이 ‘九, 兄, 乃’ 등과 교차하거나 어우를 때는 빼침을 먼저 쓴다고 하였다. 이런 예에 속하는 글자로 ‘右, 有, 布, 戊, 成, 皮, 九, 先’ 등을 들었다.<sup>52)</sup>

48) 尹善伯(1981), 1171쪽 참조.

49) 한국어문연구회(2011), 12쪽.

50) 고창식(1984), 177쪽 참조.

51) 尹善伯(1981), 1171쪽 참조. 尹善伯(1981)은 及의 필순을 ‘丩 → 乃 → 及’로 제시하였다. 이는 전혀 자원을 무시한 필순이다. 及은 상부 人과 하부 又가 결합된 자부이다. 당연히 필획은 4획으로 써야 되고 필순은 ‘丩 → 乃 → 及’로 써야 된다. 이런 경우는 필순에 자원을 대비하지 않았다. 아마 이런 필순은 일본 자전의 영향인 듯하다. 동 자전은 먼저 쓰는 받침으로 處의 간자체 받침 ‘攴’을 예시 하였다. ‘攴’은 일본의 간체이다.

㉞ 한국어문연구회

한국어문연구회(2011)는 ‘广(广), 虎, 皮, 成(成)’ 등에 보이는 成(广형)은 모두 왼쪽 세로획을 먼저 쓴다. 하지만 ‘广(广), 虎’의 广은 가로획을 먼저 쓴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广은 广의 필순에서 점이 빠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53)</sup>

㉟ 김봉환

김봉환(2012)은 가로획이 길고 왼쪽 빼침이 짧으면 왼쪽 빼침부터 쓴다.(九, 右, 布, 有, 希)<sup>54)</sup>

가로획이 짧고 왼쪽 빼침이 길면 가로획부터 쓴다.(力, 左, 友, 在)<sup>55)</sup>고 하였다. 김봉환은 빼침보다 가로획이 긴 글자로 ‘九’를 들었는데 이는 가로획이 왼쪽 빼침 보다 길지 않다.

㊱ 이상사편집부

이상사편집부(1983)는 ①가로획이 길고 왼쪽 빼침이 짧은 글자는 왼쪽 빼침이 먼저(右, 有, 布, 希) ②가로획이 짧고 왼쪽 빼침이 긴 글자는 가로획이 먼저(左, 友, 在, 存)<sup>56)</sup>라고 하였다.

이상사편집부는 위 例字들을 의도적으로 길고 짧게 써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 하였다.예컨대 右자의 ‘丿’을 매우 짧게 썼다.

㊲ 고창식

고창식(1984)은 皮는 ‘丿’ 먼저 써야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짐승의 가죽을 손(又)으로 벗겨내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좌-우-상-하의 필순 원칙대로 쓰는 것이 옳다<sup>57)</sup>고 하였다. 또, 그는 成의 필순을 皮와 동일하게 제시하고 그 이유를 成이 ‘戈’部이기 때문에 ‘丿 + 戈’로 써야 한다.<sup>58)</sup>고 하였다. 자원을 고려한 필순인데 한자학적인 기본이 거의 무시된 견해이다.

㊳ 이희목(2010)은 ①右는 ‘丿’ 먼저, ②左는 ‘一’먼저, ③成은 ‘丿’ 먼저 쓴다.<sup>59)</sup>고 하였다. 또, 虎는 ‘一’이 먼저 皮는 ‘丿’이 먼저 쓴다.<sup>60)</sup>고 하였다. 虎의 ‘一’과 皮의 ‘一’은 동일한 필형인데 왜

52) 文福姬(1997), 10쪽.

53) 한국어문연구회(2011), 12쪽.

54) 김봉환(2012), 머리말 부분(쪽수 없음).

55) 김봉환(2012), 머리말 부분(쪽수 없음).

56) 이상사편집부(1983), 1031-1038쪽 참조.

57) 고창식(1984), 177쪽 참조.

58) 고창식(1984), 178쪽 참조.

59) 이희목·김병건·송요권(2010), 18쪽, 65쪽.

60) 이희목·김병건·송요권(2011), 68쪽.



선후가 다른지 설명이 없다.<sup>61)</sup>

이상을 살펴보면 한국어문연구회는 厂형의 필순을 가로획 먼저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厂은 广에서 위 점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가로획이 먼저라는 것이다. 문복회는 仄의 厂과 左의 ナ를 한 묶음 동일한 필순으로, 戌의 厂과 右의 ナ를 한 묶음 동일한 필순으로 보았다. 그는 ①仄과 左 ②戌와 右의 유사부건 ‘厂’과 ‘ナ’의 서로 다른 필순의 이유를 가로획과 빼침의 길고 짧음에서 찾았는데 이는 합리적 설명이 될 수 없다. 김봉희, 이상사편집부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희목의 戌의 필순은 ‘㉔고창식’의 戌의 필순과 유사한 발상인데, 이는 오류이다. 필순은 速寫, 美觀, 효과적인 서사를 위해 運筆의 절주를 중시한다. 운필의 절주는 반드시 다음 필획과의 연결서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戌의 필순 중 ‘ㄴ’의 先寫는 ‘ㄴ → 一’의 필순이다. 그렇다면 ‘一’ 다음에 제 3필인 ‘ㄴ’을 써야 되는데 이는 연결 서사가 부자연스러운, 운필의 절주에 맞지 않는다.

동일한 필획이 길고 짧음에 의해 바뀔 수는 없다. 左 友의 ‘ナ’와 右 有의 ‘ナ’는 똑같이 ‘又’의 변형인데(방향이 달랐다.) 이를 ‘어느 것이 길다 짧다.’로 구분하는 것도 또, 설령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 해도 이를 근거로 필순을 다르게 써야 한다는 것은 필순의 대원칙이나 한자학적인 합리성이 결여된다.

‘ナ’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가로 → 세로’의 필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 ‘戌, 戌, 戌’ 등의 한자는 ‘一 → ㄴ’로 쓰고 안을 채워야 다음 ‘ㄴ’과 연결 서사가 자연스럽다.

#### 4) 좌우 대칭

좌우가 대칭되는 글자 중 가운데를 먼저 쓰고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다. 尹善伯(1981)은 ①‘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을 먼저 쓴다.’고 하고 ‘小 水’를, ②‘性 火는 예외적으로 좌우부터 먼저 쓴다.’<sup>62)</sup>고 하였다. 한국어문연구회(2011)는 ‘米, 火, 來’ 등은 좌우 대칭인 글자로 보아 水처럼 가운데 획을 먼저 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글자들은 위와 왼쪽 먼저의 筆順을 따른다. 𠂔(마음심변) 역시 점 먼저 찍는다. 다만 小(마음심밀)은 세로획 먼저 쓴다.<sup>63)</sup>고 하였다. 이상사편집부(1983)는 가운데 획이 먼저로 ‘小 衆’<sup>64)</sup>을 들었다.(衆자의 하부) 衆자의 경우는 인쇄체 중심으로 언급한 것으로 필기체에서는 좌에서 우로 쓴다.

대부분의 전적은 위의 윤선백의 필순을 따른다. 하지만 火와 𠂔의 필순은 좌에서 우로의 필순이 옳을 듯하다. 예서 단계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갈고리(빼침)는 해서단계에서는 완전한 모양으로 발전하였다. 예컨대 ‘小 水’의 豎劃 ‘ㄴ’의 형태는 豎劃을 먼저 썼음을 알려준다. 즉 ‘ㄴ’의 하부 갈고리는 이를 먼저 쓰고 왼쪽의 ‘ㄴ’과 연결 서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火와 性의 𠂔은 나중에 썼기 때문에 특히 𠂔은 나중에 썼기 때문에 豎劃 ‘ㄴ’에 갈고리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필순

61) 정환국 안기봉·황성하 양재훈·이한산 장현곤(2011)도 아무 설명없이 같은 필순을 제시하였다.(45쪽)

62) 尹善伯(1981), 1169쪽.

63) 한국어문연구회(2011), 10쪽.

64) 이상사편집부(1983), 1031-1038쪽.

제시가 일견 옳다.

하지만 이들의 필순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火의 예서 최후의 자형은 ‘灬’이다. ‘灬’의 필순은 순서대로 쓴다. 하지만 隸變에 의해 同形부건의 다량생산으로 문자변별력이 떨어지자 獨體로 쓰일 때의 혼란을 줄이고자 ‘灬’의 자형을 약간 조정하여 생산한 자형이 ‘火’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灬’의 필순을 따라야 한다. 小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써야한다. 小의 예서 최후의 字形은 灬이다. 마찬가지로 同形部件의 다량생산으로 小의 중앙 豎劃을 向右下로 彎曲시킨 것이 ‘心’이다. ‘心’은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쓴다. 그렇다면 ‘小’도 당연히 좌에서 우로 써야 한다. 小은 左右結構의 한자에서 편폭의 제한으로 小에서 오른쪽 점을 생략한 것이다. 물론 左右結構의 한자에서 이렇게 써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성된 자형이다.

秦, 漢의 주 書寫資料는 대나무(簡牘)와 붓이다. 보통 簡牘(대나무)의 편폭은 0,7센티이다. 여기에 보통 두 줄로 서사하였는데, 이럴 경우 한 글자의 가로 편폭의 여유는 3, 35센티미터이고, 여기에 양쪽 여백과 가운데 字間을 고려하면 한 글자의 가로 편폭의 여유는 대략 0, 3센티미터이다. 이렇게 편폭의 제한이 엄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로편폭을 줄일 필요가 있고, 小을 小으로 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小은 아직도 恭과 같이 가로편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글자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다

## 5) 全形을 깨놓는 획

尹善伯(1982)은 ‘手 平’과 같은 全形을 관통하는 세로획은 맨 나중, ‘里 甲’과 같이 上下 어느 쪽으로도 깨놓지 않는 字는 下部의 가로획을 맨 나중에 쓴다고 하였다.<sup>65)</sup> 이들 원칙은 별 무리가 없다. 단 甲의 경우 가로획을 나중에 쓰는 것은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甲은 ‘田 → 甲’으로 쓴다. 또, 이는 가로획 먼저, 위에서 아래로의 원칙과도 부합된다.

### 6) 두 가지 필순이 가능한 例

尹善伯(1981)은 두 가지 필순이 가능한 글자로 ‘止 耳 成 興’을 들었다.<sup>66)</sup> 진창영·전재강·이정옥·장도규(2004)는 두 가지 필순이 있는 글자로 ‘止 耳’<sup>67)</sup>를 들었다.

이들 중 ‘耳’를 제외하고 ‘止 成 興’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필순 원칙을 따라 쓰면 된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좌우 동형인 경우 ‘가운데를 먼저 쓴다.’는 원칙은 사실 ‘水’처럼 완전한 좌우 동형, 필획의 좌우동형을 가리키는 것이지 興, 變 등과 같이 부분 동형, 部件과 部件의 동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sup>68)</sup>

65) 尹善伯(1981),

66) 尹善伯(1981), 1171쪽

67) 진창영·전재강·이정옥·장도규(2004), 9쪽.

68) 한국어문연구회(2011)는 “戀 變 變 등 좌우 대칭인 글자는 가운데 먼저 쓰는 것이 筆法이다. 그런데 이에도 예외는

진창영(2004)은 止의 경우 ‘卜 - 乚 - 止’로의 필순은 같으나, ‘卜’의 오른쪽 가로획을 먼저 쓰느냐, 세로획을 먼저 쓰느냐의 차이로 두 가지 필순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필순 원칙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필순이다.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은 止의 좌우결구의 字符에서 왼쪽에 위치할 때의 모양과 필획 쓰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止의 ‘止’와 같은 자형 쓰기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止’와 같은 자형은 좌우결구에서 왼쪽에 위치 할 때의 자형이다.

‘止’를 오른쪽 부건과 연결서사하기 위해서는 ‘卜’을 먼저, ‘乚’를 나중에 써야 자연스럽게 오른쪽 부건의 제1필과 연결서사 된다. ‘乚’의 하부 筆形이 向上的 斜線인 것은 오른쪽 部件과 연결 서사하기 위해 收筆을 빨리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止’ 한 글자만을 쓴다면 또, 자형이 ‘止’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丨 → 丨 → 乚 → 止’와 같이 써야 한다. 이것이 필순 원칙을 따른 것이고, 書寫에 유리하다. ‘卜 - 乚 - 止’로의 書寫는 필순 원칙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특히 일부 전적의 주장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나 또, 止가 參構한 此, 紫 등의 필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민망하다. 일부 자전에서 아직도 柴 雌 疵 등의 此를 ‘5’획으로 삼고 있다. 5획으로 삼는 것은 바로 왼쪽과 아래 획을 1획의 ‘乚’로 쓰는 것로부터 연유한다.

## 7) 기타

이희목(2010)은 陽의 卩는 ‘丨’을 나중에 쓴다고 하였다.<sup>69)</sup> 이는 좌에서 우로의 필순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경우 丨을 먼저 써야한다. 원칙의 어디에도 없는 필순을 자의적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 필순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제시하려면 가능한 필순 원칙에 맞게 써야 한다.<sup>70)</sup>

이상과 같이 사소한 書寫者의 습관으로 필순원칙을 어긋나는 필순 제시는 학습자의 혼란을 초래한다. 가로 세로, 위에서 아래로의 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인의 서사 습관에 의한 개별 글자의 서로 다른 필순은 개인의 취향에 맡겨둘 일이다. 다수가 필순의 원칙과 다르게 쓰기 때문에 개별글자에 따라 예외적인 필순을 인정하자고 하면 필순원칙이 무색해진다. 개인이 얼마든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글씨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를 예외적 필순의 하나로 제시하여 혼란을 야기 할 필요는 없다.

## 5. 결어

있어 왼쪽부터 차례로 쓰기도 한다. 辛과 臼가 들어 있는 다음 글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辯 辨(辨)(辯) 覺 擧 與 興 譽 學 興(한국어문연구회(2011), 13쪽.)”고 하였다. 필획이 완전 대칭되는 글자는 가운데를 먼저 쓸 수 있지만 부건과 부건으로 대칭이 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의 필순을 따라야 한다. 이래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69) 이희목 · 김병건 · 송요권(2010), 66쪽.

70) 이희목 · 김병건 · 송요권(2010), 102쪽. 이희목(2010)은 與는 전체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썼다. 하지만 안쪽의 ‘与’는 상부 ‘ㄣ’부터 썼다. 이는 전체 글자를 고려하면 ‘ㄣ’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필순규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ㄣ’은(인쇄체, 컴퓨터의 ‘与’가 아님) 필도가 向左下の 斜線이기 때문에 ‘ㄣ’보다 먼저 쓴 것이다. 이는 옳은 필순으로, 필순은 필형, 필도와 관계있음을 나타낸다.

필순은 한자의 교수학습에 중요하다. 필순에 맞춰 한자를 書寫하면 아름답고, 쉽고, 빨리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sup>71)</sup>

중국의 識字教學은 우리와 비교하여 필순을 중히 여긴다. 우리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그리 필순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는 필순 교육의 강조로 본말이 전도된 한자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지만, 실은 필순이 한자교육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에도 식자교학에 한자의 필순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sup>72)</sup> 필순은 이미 쓰여진 글자에서는 그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이나 한자의 교수학습에 소홀이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孫德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내에 현재 존재하는 대형 자전 사서에는 필순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혹 필순규칙은 한자의 構形規律에 부합되기 때문에 찬술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혹 필순은 겨우 서사과정에 존재하고 이미 쓰여진 글자에는 드러나기가 어려워서인지, 혹 필순의 착오는 美醜에만 영향을 끼치고 글씨의 正誤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서예가들에게만 소중하게 여겨진다.<sup>73)</sup>

하지만 필순은 한자 학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필순이 틀리면 글자도 틀리게 쓸 수 있고, 필순이 정확해야 글자를 빨리 예쁘게 쓸 수 있다. 또, 자전 사전 등의 공구서는 정확한 필순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교학 초기 필순에 맞게 한자를 쓰도록 요구해야한다.<sup>74)</sup>

필순은 필획, 필획 명, 筆道가 고정되면서 형성되었다. 서사도구가 붓으로 바뀌면서 필획, 필획 명, 筆道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漢字史에서 예서에 해당한다. 篆書에서 隸書로의 변화를 隸變이라고 한다. 隸變은 한자사에서 경천동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字體가 古文字에서 今文字로 전환되었고, 同字 異形の 部件과 異字 同形の 부건이 생산되었으며, 필획과 필획, 부건과 부건의 脫離, 接合, 演變 등이 일어났고,

71) 林治金(2001)은 寫字教學은 識字教學과 결합하여 筆順教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필순교학은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시작할 때 ‘丨→冂→冂→日→旦→早’ ‘木→木→棉’와 같이 한 획 한 획 나누어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필순을 통해 점점 결구 단위의 분석까지 할 수 있고, 결구 분석을 통해 識字교육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林治金 主編(2001), 49쪽, 70쪽 참조.) 또, 그는 ‘식자교학과 결합하여 한자의 각종 필획의 학습으로부터 한자의 결구단위, 편장까지 알게 하면, 아동들이 점점 글자의 각종 결구형식, 결구 배합 비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필순으로부터 점차 모르는 글자의 서사연습, 한자의 결구단위 분석에 이르도록 하여 한자를 학습하게 한다고 하였다.(林治金(2001), 73쪽 참조.) 우리와 다르게 필획명칭을 알고 이를 통해 결구를 이해하고 한자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창영(2004)은 “漢字를 쓸 때에 筆順을 따르면 쓰기가 쉽고 빠르며, 또 調和있게 쓸 수 있다.”(진창영·전재강·이정옥·장도규(2004), 7쪽)고 하였다.

72) 周健은 한자는 정자로 글자를 옳게 써놓아야 비로소 교제공구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書寫과정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고 단지 학생이 써놓은 글자만을 보고 正誤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이렇게 이미 쓰여진 글씨는 필순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순이 識字教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周健(2007), 59쪽 참조.)

73) 孫德金(2006), 32쪽 참조.

74) 周健(2007), 59쪽 참조.

필획과 필순이 생성되었다. 이들 변화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일어났다. 필획은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 좌상에서 우하, 우상에서 좌하’라는 운필 법칙 즉, 필획의 서사 방향이(갑골 금문은 이런 필획쓰기 방향이 고정되지 않음) 고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필순이 생성되었다. 필순은 速寫, 定型美, 效率性을 고려하여 생성되었다. ‘가로에서 세로, 좌에서 우’ 등의 필순은 이들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모든 한자가 필순의 원칙을 따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필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글자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글자들에 대한 필순 주장이 구구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순원칙을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글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을 적용하여 필순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필순 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느꼈던 글자들은 새롭게 제기된 중국학자의 필순원칙 분석을 눈여겨 볼만하다. 그것은 필순의 원칙을 필획과 필획쓰기 원칙과 부건과 부건 쓰기 원칙으로 분리한 것이다. 예컨대 ‘馬’의 상부 ‘𠂔’는 部件 쓰기가 아닌 필획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칙인 ‘가로먼저 세로나중’을 적용하면 좋을 듯하다. 이렇게 필순에서 필획원칙과 構件(部件)원칙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면 예외적 필순이 감소할 것이다. 아울러 異說이 있는 필순은 漢字學的 기본에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필순 원칙 적용이 어려운 글자는 개인의 서사 습관에 맡겨두었으면 한다. 굳이 세세한 예와 설명으로 異說을 양산하고 학습자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류

- 고창식(1984), 「漢字筆順의 問題點」, 『국어교육』 제48집, 175-183쪽, 175쪽
- 金鍾煥(2005), 「21C 한국을 대표하는 신지성의 지식 교양 정보지 : 기획논단 ; 時急한 漢字의 標準筆順 統一 問題」, 『한글+한자문화』, 제74집, 80-83쪽.
- 池載歡(2004), 「初等學校 『漢字』教材의 內容 比較 考察」, 『漢字漢文教育』(1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연석(2010), 「隸變과 部首字의 書寫 -異形部首字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42호, 동방한문학회, 331-332쪽 참조.

### 2. 저작류

- 김봉환(2012), 『한자바이블』, 서울, 금천구 : 시스컴(ISBN 978-89-6009-504-5 13710).
- 文福姬(1997), 『漢字쓰기敎本』, 서울 종로구 : 弘眞出版社(ISBN 無).
- 民衆書閣辭書編輯部(1995), 『民衆大玉篇』, 民衆書閣.
- 尹善伯(1981), 『漢韓理想大玉篇』, 서울 종로구 : 理想社(1975, 6, 초판. 1981, 10 증판), 이가원 감수.
- 이희목·김병건·송요권(2010), 『중학교 한문1』, 서울 : 천재교육(2010, 3, 1 초판, 2011, 3, 1, 제2판).
- 이희목·김병건·송요권(2011), 『중학교 한문2』, 서울 : 천재교육.
- 이상사편집부(1983), 『漢韓最新理想玉篇』, 종로 : 理想社.
- 제일교육(2001), 『논리한자사전』, 서울 : 民衆書館.
- 진창영·전재강·이정옥·장도규(2004), 『(종합편)교양한자쓰기』, 대구 : 정림사(1998, 9, 초판. 2004, 2, 10 수정5쇄(ISBN89-88062-20-5)).
- 한국어문화(2011), 『3급1817자쓰기노트』, 서울 : 韓國語文敎育研究會(ISBN 978-89-94281-44-5 13700).
- 한연석(2008), 『한자학개론』, 서울 : 보고사.

### 3. 중국

- 姜紅(2010), 『小學語文基礎知識』, 中國延邊 : 延邊大學出版社(ISBN 987-7-5634-2906-6).
- 孫德金 主編(2006), 『對外漢語敎學研究』, 北京 : 商務印書館.
- 王寧(1996), 『漢字漢語基礎』, 北京 : 科學出版社.
- 林治金 主編(2001), 「1956年小學語文敎學大綱(草案)」, 『語文敎學大綱匯編』(20世紀中國小學語文敎育叢書), 中國青島 : 青島出版社.

張守中(1994), 『睡虎地秦簡文字編』, 北京: 文物出版社.

鄭國民·馬新國 主編(2010), 『語文教師教學用書』(一年級 上冊)(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ISBN 978-303-05901-0).

周健(2007), 『漢字教學理論與方法』, 中國北京: 北京大學出版社(ISBN 978-7-301-12792-6/H·1851).

何九盈 胡雙寶 張猛(1995), 『中國漢字文化大觀』,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필순」 토론문

김태수(단국대)

《초중고 한문 학습 사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 기획주제 발표의 일환인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필순>의 발표와 토론이 필순을 체계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자(楷書)는 唐의 歐陽詢에 의해 정립되어 지금까지 거의 자형은 변하지 않았고, 唐이후 공식서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간체자 별도) 붓글씨 해서를 보면 어느 획을 먼저 썼는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異見이 야기되었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서는 그 순서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서예가의 개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약간은 다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필순이 같습니다. 예서나 전서는 해서의 필순의 참고사항이며, 필순은 행서 필순에 준한 듯합니다.

발표에 언급한 ‘①위에서 아래로 ②왼쪽에서 오른쪽으로 ③가로에서 세로로 ④가운데를 먼저 ⑤바깥을 먼저 ⑥꺾는 획은 나중에 ⑦빼침을 먼저 ⑧오른쪽 점은 나중에 ⑨받침이 독립자일 때는 먼저, 독립자가 아닐 때는 나중에 쓴다.’ 등의 중국의 필순은 보편적으로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순에 이견이 있는 글자는 많지 않고, 이러한 이견이 있는 필순으로 인하여 한자를 쓰는데 큰 혼선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견이 있는 한자를 들어 연구가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일부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연구가의 주장에도 의문점이 있으나, 발표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합니다.

▶p1. 王, 田 필순은 수정되어야한다.

질의) \*‘王, 田’의 행서는 반드시 가로 다음 세로를 먼저 쓴다.<‘가로에서 세로로’의 필순에 부합되지 않을런지>

\* 十, 土 → 가로-세로

\* 王, 生, 五 → 가로(맨 위)-세로-가로-가로

\* 隹 → 왼쪽(亅)-오른쪽(점-가로-세로-가로-가로-가로)

\* 田, 由, 曲, → 冂을 가로로 보고 -세로-가로

\* ‘가로에서 세로로’의 필순의 의문점 ‘門’

▶p7. 走, 免, 是 등이 받침이 될 때 辵과 달리 먼저 쓰는 것은 여전히 독체자로 쓰이고 있으며, 소전에서 해서까지 부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듯하다.

질의) \*밑책받침(乚)과 책받침(乚)은 받침이라하지만. ‘走, 免, 是, 支(翅), 毛(毳), 風(飈)’ 등의 앞부분은 받침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서에서 해서로 오면서 두 자를 잘 어울리게 왼쪽 글자가 받침이 되면서 안의 글자를 포용한 자형으로 변했다.

\* ‘𠂇. 讠’ 지금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엄연한 獨體字이다. 독체자 아니라면, ‘𠂇. 讠’ 이 들어가는 글자는 상형이나 지사자란 의미인가.

▶p9. 馬의 상부 “는 부견과 부견의 쓰기가 아닌 필획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칙인 ‘가로먼저 세로 나중’을 적용하면 좋을 듯하다.

\* 일반적으로 馬는 행서는 ‘세로-가로-가로-가로’ 순으로, 초서는 가로를 먼저 쓴다.(長은 가로 세로 먼저 쓰는 경우가 많다.) 가로가 먼저라면 ‘鳥, 隹’ 등의 필순은.

▶p11. 운필의 절주는 반드시 다음 필획과의 연결서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成의 필순 중 ‘丿’의 先寫는 ‘丿 → 一’의 필순이다. 그렇다면 ‘一’ 다음에 제 3필인 ‘㇏’을 써야 되는데 이는 연결 서사가 부자연스러운, 운필의 절주에 맞지 않는다.

질의) \* 成은 丿의 흐름을 이어 一을 하고 丁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운필의 절주이다. 행서는 물론 초서 또한 이에 준한다.

▶p9 ‘丿’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가로 → 세로’의 필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 ‘成, 戌, 戌’ 등의 한자는 ‘一 → 丿’로 쓰고 안을 채워야 다음 “와 연결 서사가 자연스럽다.

질의) \* 運筆은 필순과 불가분의 관계로 진행방향이 곧 필순이다. ‘九, 右, 布, 有, 希, 乃, 及, 方’ 등은 빼침의 방향이 분명히 가로획을 향하고 있으며, ‘刀, 力, 左, 友, 存, 在, 仄’의 경우는 어디로 향하지 않고 거두어들인다. 곧 빼침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행서와 초서는 반드시 이에 준한다.)

▶p11. 火와 𤇀의 필순은 좌에서 우로의 필순이 옳을 듯하다. 火의 예서 최후의 자형은 ‘灬’이다. ‘灬’의 필순은 순서대로 쓴다. 하지만 隸變에 의해 同形부견의 다량생산으로 문자변별력이 떨어지자 獨體로 쓰일 때의 혼란을 줄이고자 ‘灬’의 자형을 약간 조정하여 생산한 자형이 ‘火’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灬’의 필순을 따라야 한다.

질의) \* 점을 먼저 함은 당연하다. 두 점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파임은 맨 나중에 한다. ‘火’의 파임은 먼저라는 의미인가.

· ‘中’처럼 꺾는 획은 맨 나중에 하는 것은 아닌지.

· 참고적으로 ‘火’는 원래자형이며 ‘灬’가 후에 나왔다.

▶ p13. ‘止’ 한 글자만을 쓴다면 또, 자형이 ‘止’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 → 止’와 같이 써야 한다.

질의) \* ‘止’는 좌에서 우로의 필순에 집착한 듯하다. 그러면 ‘正’의 필순은 어떠한가.

▶p11. 좌우대칭 → ‘樂, 率, 變, 戀, 變, 興, 與, 學’ 등에서 좌우 대칭은 가운데 먼저 쓰는데 준하나, ‘興, 與’ 등은 ㇏가 양쪽으로 나뉘어 순서대로 쓰지 않았는지.

▶ p13. 陽의 阝는 ‘丨’을 나중에 쓰는 경우, 이는 좌에서 우로의 필순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경우 丨을 먼저 써야한다.

질의) \*갈고리 획은 항상 어느 획을 받는다. 阝의 오른쪽 나지막 부분이 갈고리의 방향은 분명히 왼쪽 豎획을 향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오른쪽부터 써야 할 것이다.

▶발표 이외의 필순 ‘必 可 將 收 ++ 飛’ 등 필순에 대한 견해

발표의 요지는 필획의 운필을 경시하고 ‘①위에서 아래로 ②왼쪽에서 오른쪽으로 ③가로에서 세로로’ 등의 원칙에 집착하여 획일화 한 점과, 발표에서도 자주 언급하였듯 漢字學的 근거가 미약하고, 위에 질의한 부분 등은 기존 보편적인 필순을 뒤엎는 극히 주관적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 제4부 자유주제 발표

韓國漢文敎育의 方向과 課題(류준경) .....	221
---------------------------	-----



## 韓國漢文教育의 方向과 課題

류준경(성신여대)

- 
1. 들어가며
  2. 한문교육의 이념과 그 방향
    1. 한문교육의 이념
    2. 한문과 교육과정의 변천의 함의
    3. 일본·중국의 한문교육 검토
    4. 한문교육의 방향 모색
  3. 한문과 교육의 실태와 대책
  4. 나가며
- 

### 1. 들어가며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제2외국어/한문 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간담회가 열렸다. 2009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된 이후, 학교 현장의 한문교육은 더욱더 고사 지경에 빠지는 듯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부적으로 한문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한문교육의 방향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한문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문교육의 핵심과 방향에 대해 재점검해 보고, 이어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문과 교육의 현실태를 분석한 뒤에 몇가지 제언을 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2. 한문교육의 이념과 그 방향

#### 1. 한문교육의 이념

필자는 한문교육의 필요성은 주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sup> 물론 수사적인 맥락에서 한

---

1) 류준경(2008 : 98~101)

언급이지만, 한문교육은 그 자체로 함목적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문교육의 함목적성은 ‘한자·한문’의 성격에서부터 유래한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문화에 소속이 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의 판단과 선택이 미치지 전에 선행적으로 소속되고, 그 문화로 인해 문화적 존재로 구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빵이 아니라 밥을 먹고, 스프가 아니라 국을 먹는 것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특히 언어문화는 문화적 존재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선행적으로 주어진, ‘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성찰하며, 창조적으로 활용, 확대함으로써 ‘나’를 새롭게 구성하여 보다 고양된 문화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한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나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언어이며, 지금 현실의 언어는 많은 부분 한자, 한문에서 유래하였다. 이때 한자, 한문은 단순히 표기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언어에 있다. 언어를 통해 사유가 구조화되고, 구조화된 사유와 지식이 전승·발전된다. 그런데 우리의 사유와 지식은 많은 부분 한문문화를 통해 이룩되었다. 기본적인 지식과 사유방식, 태도 등이 한문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우리이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한자, 한문이다. 바로 이 점으로부터 한문교육의 함목적성이 도출된다. 한문은 어떤 사용가치를 위해, 어떤 필요를 위해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나’가 바로 ‘지금’, ‘여기’의 ‘나’이기 위해서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문교육의 이념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 땅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문화의 핵심인 한문을 이해해야만 한다.<sup>2)</sup> 지금 이곳의 나를 구성하는 핵심이 한문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듯이 이미 나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한문이기 때문에 한문을 익히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sup>3)</sup>

문화적 존재인 우리에게 한문교육은 그 자체로 함목적적이지만, 한문교육의 범위와 방향의 설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문이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구성할 핵심적인 바탕임이 분명하다면 한문교육의 범위와 방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한문교육의 이념만을 분명히 하고, 현실의 한문교육을 검토하면서 한문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2. 한문과 교육과정의 변천의 함의

본 연구에서 한문교육의 방향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한문교육의 이념을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한문교육의 역사를 간단하게 점검해보도록 하자. 본고는 우선 현실 학교교육에서 한문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기에, 학교교육의 기본 바탕이 되는 국가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 중등학교에서의 한문과 교육과정의 역사와 변천에 대한 고찰은 한문교육 연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문제시되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그

2) 여기서 이 땅은 ‘우리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핵심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한문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동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3) 여기서 ‘익히고 이해한다’는 말은 자연적으로 나의 몸속에 녹아들어가 한문문화와 이를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아울러 가리키는 것이다.



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한문과 교육과정을 한문과의 독립성, 편제 양상 및 내용 체계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표1: 교과독립성, 편제양상, 내용체계로 본 한문과 교육과정의 특징>

구분	교과독립성	편제 양상	내용 체계
교수요목기	국어 보충 교재 성격의 선택과목	-	-
1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	-	-
2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	-	-
3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필수	-
4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필수	-
5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필수	-
6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선택	한자, 한자어, 한문
7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선택	한자, 한자어, 한문
2007 개정 교육과정	독립교과	선택	한문, 한문지식
2011 개정 교육과정	독립교과	선택	독해, 문화, 한문지식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1973년 3차 교육과정에서 한문과가 국어과에서 분리되어 독립교과가 됨.
- 2)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서 한문과가 필수교과에서 선택교과로 변경되며, 동시에 ‘한자, 한자어, 한문’의 내용체계가 제시됨.
-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자, 한자어, 한문의 내용체계가 한문, 한문지식으로 바뀜.
- 4)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 한문지식의 내용체계가 독해, 문화, 한문지식으로 바뀜.

이제 각각의 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중등학교 한문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첫 번째 변화는 3차 교육과정에서 한문과가 중고등학교에 필수 및 독립교과로 교과 편제에 신설된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 독립교과로의 신설은 한글전용정책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69년 정부는 한글 전용을 위하여 한자 교육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중학교 국어과에서 한자, 한자의 지도 내용을 삭제하였다.<sup>5)</sup> 국민(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국어과의 지도내용 중에서 ‘한자, 한문’ 교육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한자, 한문 교육 부분을 삭제하면서 동시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한문’은 도리어 강화시킨다. 2차 교육과정 상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국어Ⅰ 24단위, 국어Ⅱ 18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국

4) 이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www.ncic.re.kr/>)의 교육과정 원문자료실에서 제공하는 1~9차 교육과정 원문을 참조하였다.

5) 국민(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국어과의 지도내용 중에서 ‘한자, 한문’ 교육 부분을 삭제하였다. 다만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Ⅱ(문법, 한문, 고전, 작문)에서 종래 6단위였던 한문을 8단위로 단위수를 높였다(김왕규, 2004: 131~132).

어II의 18단위는 문법(4), 한문(6), 고전(4), 작문(4)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과에서 한자, 한문 교육 부분을 삭제하면서, 동시에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II의 한문이수 단위를 6단위에서 8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1960년대 당시 일반적으로 국한문으로 표기되던 현실을 한글전용의 표기로 강제하기 위하여 한자, 한자어 교육을 억누르고 다만 한문교육은 일부 전문적인 영역에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음을 보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밑바탕이 되는 한자, 한문의 교육은 약화시키면서, 대신 고전어로서의 한문교육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만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한글전용의 강제적 시행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곧바로 현실의 역풍을 맞게 된다. 현실적인 역풍에 의해, 1972년 2월 28일 중·고등학교의 한문이 독립 교과로 교과 편제에 신설되게 하는 문교부 시행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6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가 확정, 공포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sup>6)</sup>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73년 개정된 3차 교육과정에서 한문 교과는 국어 교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필수 독립교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5차 교육과정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6차 교육과정에서 한문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한문교과의 지위가 필수 독립교과에서 선택교과로 달라진 것이다. 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 데 있다. 학교의 자율 재량권 확대라는 명목 하에 중학교 교과는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로 구성되고,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공통 필수 과목, 과정별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한문은 중학교에서는 선택 교과의 과목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과정별 필수 과목이 된다. 곧 한문 교과는 중학교의 경우 선택되어야만 시행되는 과목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사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과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초는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진다. 한문교과가 중학교에서는 재량활동의 선택 과목 중의 하나가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양과목군의 선택 과목의 하나가 된 것이다.

한문교과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그 지위가 변한 것과 함께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한자-한자어-한문’이라는 내용체계가 제시된다. 이 점이 한문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세 번째 변화라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과목표와 내용 정도까지만 제시되던 한문과 교육과정이 6차에 들어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보다 완비된 체재를 갖추고, 내용에서도 위계성을 고려한 ‘내용체계’가 제시된다. 이러한 내용체계는 한문교육의 목표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 것이다. 다음은 4~6차 교육과정에서 한문과의 교육목표 부분이다.

<표2 : 4~6차 교육과정 한문과 목표>

4차 교육과정 한문과 목표	5차 교육과정 한문과 목표	6차 교육과정 한문과 목표
한문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기초	한자와 한자어를 익혀 언어
이를 습관화함으로써 한문을 독	기능을 길러 한문을 이해하고	생활에서 바르게 읽고 쓰게 하

6)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제정의 과정은 정우상(1994:64~80) 참조.

해할 수 있는 기초 기능을 기르며, 전통 문화를 아끼고 계승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감상하게 하며, 전통 문화를 아끼고 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고,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며,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
--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6차 교육과정에서 4~5차 교육과정 때에 없던 일상적 언어생활을 위한 ‘한자, 한자어’ 교육이 주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이러한 새로운 교육목표에 따라 ‘한자-한자어-한문’이라는 새로운 내용체계가 제시된 것이다.<sup>7)</sup>

그런데 이 한자-한자어-한문의 ‘내용체계’는 한문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한문의 특성과 맞지 않는 ‘한자어’ 영역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교육의 위계성과 계열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8)</sup> ‘한자-한자어-한문’의 내용체계의 모순적 성격 때문에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한문지식’이라는 새로운 내용체계를 제시하게 된다. 이 점이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네 번째 변화라 하겠다. ‘한자어’ 교육을 한자지식의 어휘 안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한문교과의 독립적 성격을 강화한 내용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교과명이 영역의 명칭으로 쓰이는 문제와 한자어 교육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내용체계 안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인해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해’, ‘문화’, ‘한문지식’으로 바꾸게 된다.

이상의 교육과정 변천을 이해하는 핵심은 한문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교수요목기부터 2차 교육과정까지 ‘한문’이 국어과의 보충교재로 사용되거나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이유는 언어생활에서 한자어가 사용되며,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한자어들이 ‘한자’로 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전문어로서의 한문 학습 역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한자어의 한자 학습의 연장으로 파악되어 국어과 안에서 교육되었던 것이다.<sup>9)</sup> 곧 한자를 부분적으로 노출하여 사용하는 국한문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1960년대까지는 국어교육의 일부로서 한자가 교육되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고전문어로서의 한문이 국어과에서 교육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69년 강제적으로 시행된 한글전용 정책으로 인해 ‘한문’이 ‘국어’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교과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무리한 한글전용 정책의 시행으로 ‘한문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그 반대급부로 독립교과로서의 ‘한문’이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사회가 요구하는 ‘한문’교육은 고전문어로서의 한문이 아니라 지식과 사유의 바탕으로서의 한문(한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던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글전용정책에 대한 반대가 요구하는

7) 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이미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예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의 한문과 교육목표의 하위항목에 처음으로 “한자어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동시에 학년별 교육내용이 크게 한자, 한자어, 한문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곧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예비되었던 흐름이 6차 교육과정에서 목표에서부터 체계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8) 이에 대해서는 송병렬(2002), 송병렬(2003) 및 원용석(2009:76~92).

9) 초등학교 한자, 중학교 한자, 평이한 단문 및 간단한 시, 고등학교 국어Ⅱ의 한 과목으로서 한문.

것은 한자, 한문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한자, 한문의 사용은 곧 지식과 사유의 바탕이자 양식인 한자, 한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필수독립교과로 설정된 ‘한문’에게 요구된 것은 한자어와 한문을 모두 통합하는 교육이었으며, 특히 한자어의 교육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3차 교육과정의 ‘한문’에는 언어생활의 바탕이 되는 한자어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국어과에서도 한자, 한자어 교육이 교육내용에서 빠지고, 한문에서도 한자어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5차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서 ‘한자어 교육’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와 내용체계 모두에 반영된 형태로 ‘한자어 교육’이 한문과에 흡수된 것이다. 사회의 현실적인 요구를 늦었지만 한문과에서 다시 반영한 것이다.<sup>10)</sup>

하지만 한자어 교육의 반영은 한문과의 정체성에 혼란을 끼치게 된다. 비록 그 태생이 국어과에 있었지만, 독립교과로서 성립할 때의 교과목표에서 고전문어로서의 한문만을 다루었기에, 갑작스런 한자어 교육의 등장은 정체성에 혼란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전문어로서의 한문을 그 중핵에 놓고, 한자어 교육을 하위단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내용체계의 구성이 변모된 것이다.

이상의 교육과정 변천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문제는 ‘한자어 교육’이다. 최초의 구도는 기본적인 한자, 한자어 교육은 국어과의 보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심화된 고전문어로서의 한문은 국어의 심화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였는데, 한글전용정책의 강제적 시행과 그 여파로 인한 한문이 독립교과로 성립하게 되자, 학교교육에서의 한문교육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교육과정의 변화 맥락 속에서 한문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현실 교육에서 한문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역사적으로 한문과에 부여한 역할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한문교육이 자리를 잡는 과정은 우리나라 문자와 어문생활의 특성 뿐 아니라 한글전용정책의 강제적 시행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굴절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점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한문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자, 한문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참조해 볼 수 있을 터이다.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문교육의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자.

### 3. 일본·중국의 한문교육 검토

일본과 중국의 한자한문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sup>11)</sup> 본고는 일본과 중국의 한자, 한문 교육의 실태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한문교육의 방향을 생각해보는데 필요한 정도로 간단히 특징적인 면만 몇 가지 검토하기로 한다.

10) 국어교과에 한자어 교육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한문교과에 한자어 교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자어 교육’은 한문 교과의 소관이라는 인식과 상대적으로 비주요교과인 ‘한문’의 자구책(?)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일본의 한자한문교육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sup>12)</sup>

- ① 일본에서는 ‘한문’이 독립교과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어 교과에서 한자, 한문을 교육한다.
- ② 일본에서는 무엇보다 ‘한자교육’을 중시한다. 초등학교 1~6학년에는 학년별로 익혀야 할 한자를 배당하여 졸업 때까지 총 1006자를 익히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학년 당 대략 300자 정도로 익히도록 하여, 졸업 때까지 상용한자 1945자를 익히도록 한다.
- ③ 고전문언문으로서의 한문은 중학교 때에 가키쿠다시文과 訓讀文으로 간단한 문장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 고전에서 訓讀文으로 배운다.

이상 세 가지로 정리한 특징은 우리의 2차 교육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보인다. ① 국어에서 한자, 한자어를 배운다는 점이나 ② 중학교에서 간단한 단문이나 짧은 한시를 배운다는 점, ③ 고등학교 선택 심화 과목에서 본격적으로 한문을 배운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 2차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하지만 다른 점 또한 존재한다. 우리와 달리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점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는 동음이의어가 많은 일본어의 현실이나 고유어도 한자로 표현하는 우리와 다른 문자체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II에서 ‘고전’과 ‘한문’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비해 일본은 ‘古典’ 한 과목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도 일본과 우리의 차이로 할 수 있다. 3차 교육과정에서 한문이 국어교과에서 떨어져 독립교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에 비해 한문을 국어와 다른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과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본의 ‘고전’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한문 자료는 이른바 ‘중국고전’이다. 국어 교과의 ‘고전’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문 고전을 다루기보다는 중국 고전을 다룬다는 점은 교과의 정체성과는 어긋나는 독특한 면모라 할 것이다.<sup>13)</sup>

우리와 다른 일본 한자한문교육의 독특한 면모는 무엇보다도 한자교육의 강화에 있으며, 어휘 교육 역시 한자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 ‘和’와 ‘漢字’에 대한 대립적 인식이 약하다. 이러한 면모는 한자를 거의 자국화한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고유어조차도 漢字로 표기하는 일본의 한자 사용 방식이나 많은 개념어-근대 번역어-들을 스스로 만들었던 역사적 경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그런데 고전문언으로서의 한문교육은 이와 좀 다른 면모를 보인다. ‘한자’에 대한 자국어적 인식과 달리 ‘한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모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고전’만을 주요하게 교육할 뿐, 일본 한문고전을 주요 학습 제재에서 배제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한문의 자국문화적 성격을 부각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중국고전’ 교육에 있어서도 고전적 성격을 주요하게 사유하지 않는 듯하다. 주로

12) 일본의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안승덕(1991), 유창석(2000), 심경호(2000), 한예원(2003), 송호빈(2011), 박세진(2011) 및 學習指導要領([www.mext.go.jp](http://www.mext.go.jp)) 참조.

13) 한예원(2003:157) 참조.

14) 이에 대해서는 이연숙(2006) 참조.

관용어휘와 문법 위주로 학습하며, 평가 역시 관용어휘와 문법 위주로 이루어지는데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문어로서의 한문교육은 한자교육과 달리 자국적 전통을 확인하기보다는 ‘한문의 주요한 전통’(중국고전)을 어휘와 문법 위주로 ‘간단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의 한자, 한문교육은 ‘어문’ 교과를 통해 실시된다. 중국의 ‘어문’ 교과에서 실시되는 한자, 한문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sup>15)</sup>

① ‘한문’이 별도의 독립교과로 존재하지 않고, 국어에 해당하는 語文 교과에서 한자, 한문을 교육한다.

② 한자교육은 글자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2500자, 중학교 과정에서 총3500자 정도를 익히도록 한다.

③ 고전문어로서의 한문교육은 중학교의 경우 전체 교과서의 20%가 고전문어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과정의 어문 교과서의 약 35%에 달한다.

④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이루어지는 ‘한문’ 교육은 5계열의 어문 선택 과목 중 “詩歌와 散文”에서 주로 이루어진다.<sup>16)</sup>

중국의 한자-한문교육이 국어[어문]에서 이루어지며, 한자 학습량은 삼국 중 가장 많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표음문자인 한글과 가나를 학습하는데 비해 한자병음부호를 학습하는 점과 한자의 자체가 가장 다른 간체자로 학습한다는 점 등도 주목할 만한 차이이다.

고전문어로서의 한문교육 역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강하게 실시된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문 교과서에서 각각 20%, 35%가 한문 작품이란 것은 상당한 양이다. 일본이나 한국의 ‘고전문학’이 각국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하면 중국에서 고전문학(한문) 교육이 중요시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중국의 고등학교 국어 심화 선택과목에서 ‘(한문)고전’이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문 외에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5계열의 심화선택과목에서 4개를 선택하여 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sup>17)</sup> 5계열 선택과목은 詩歌와 散文(語文選修1), 小說과 戲曲(語文選修2), 新聞과 傳記(語文選修3), 言語文字應用(語文選修4), 文化論著研讀(語文選修5)이다. 이러한 분류는 시기별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장르별 분류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한문, 한문고전 혹은 고전, 고전강독에서 고전문어가 학습되기에 시기를 강조하는 면모가 드러나나, 중국의 경우 시기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장르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럴 경우, 고전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자국문학의 맥락에서 고전과 현대의 연속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에서의 한자, 한문교육의 특징적인 면에 대해 간략히

15) 중국의 한자한문교육에 대해서는 한연석(2000, 2011), 현성준(2003), 양원석(2005) 및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 (<http://www.pep.com.cn>) 참조.

16) 5계열의 선택과목 중 “소설과 희곡”에서도 ‘한문’이 다루어질 수 있으나, 소설과 희곡의 대부분은 백화이기에 대부분의 ‘한문고전’은 “시가와 소설”에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7) 특정 단위나 대학의 요구로 선택과목은 최대 1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한연석, 2011:604)

살펴보았다. 이제 이 점을 바탕으로 우리 한자 한문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4. 한자한문교육의 방향 모색

앞서 우리는 한문교육의 이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문’은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사유와 삶의 양식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확인하고 간직하고 활용하고 확대하는 한문교육은 그 자체로 합목적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한문이 지금의 우리 존재 그 자체라는 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다. 하나는 지금 현재의 우리 언어, 특히 사유의 핵심이 되는 개념어의 대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의 사유 방식의 기저가 되는 문화가 한문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자한문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전자는 주로 ‘한자어’ 교육과 연결되는 것이고, 후자는 주로 고전문어인 ‘한문’ 교육과 연결되는 것이다. 먼저 한자어 교육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문교과의 독립은 한자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그런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한자어 교육’ 부분이 빠지고,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한자어 교육’이 빠지는 특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3차 교육과정의 현실 학교 교육에서는 국어과에서 여전히 한자어 교육[주로 識字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4~7차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면서 한자(어) 교육은 점점 한문 교과로 이전된다.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5차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한자어’가 나타나고,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부터 내용체계까지 한자어 교육을 한문교육의 주요한 영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자어 교육’이 교과의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졌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한자어 교육’을 좀 더 분명하게 내용 영역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문과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위상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한문과가 독립교과로 성립될 때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은 ‘한자어 교육’의 강화였지만, 한문과의 정체성의 맥락에서 마치 ‘계륜’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한자어 교육인 것이다.

우리 사유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한자어라는 점에서 한자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문제는 그 ‘한자어 교육’을 핵심적으로 담당할 교과가 ‘국어’인가 한문’인가이다. 우리들은 살면서 저절로 모국어의 어휘를 익히게 된다. 대부분의 어휘, 특히 개념어는 그 본질적 내용이 한자와 연관된다. 한문교과에서의 교육은 이처럼 이미 우리 몸속에 녹아있는 ‘한자’를 확인, 보전, 확대, 활용하는 데 있다. 우리를 구성하는 ‘한자’를 확인하는 차원의 글자 교육을 통해, 한편으로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보전하고, 나아가 한자 자체의 조어능력 등을 바탕으로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어교육에서도 한문교육과 마찬가지로 국어 어휘를 확인, 보전, 확대, 활용하는 교육을 시행하지만, 한자어 교육 경우는 한문과의 한자 학습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적절히 학습된 한자를 활용하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자를 바탕으로 하는 한자어 교육은 한문에서 담당하고, 국어의 경우는 한문의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인 것이다.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한자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한문교과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한자를 통하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이 ‘우리말[국어]’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국어교과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국어교과에서 한자, 한문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며, 우리 역시 1~2차 교육과정에서 한문은 국어 교과의 한 과목으로 존재하였다. 그렇다고 ‘한문’이 국어교과의 한 과목이 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약 ‘한문’이 국어의 한 과목으로 편입된다면, 전통시대 중국어이자, 한국어이자, 일본어이자, 월남어였던 한문의 역사적 성격은 도외시될 것이다. 동아시아가 공유했던 공동의 성격보다는 자국의 민족문화적 성격만이 중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공동규범적 성격이 강한 ‘한문고전’이 교과서에 수록된다고 하더라도, ‘국어’라는 교과의 성격상 일본에서처럼 그 규범성보다는 어휘나 문법 차원만이 중요시될 가능성이 크다. 공동규범적 성격이 적절히 사유되지 못하고, ‘민족주의’에 의해 배타적으로 인식될 것이 때문이다. 나아가 한문교육에서 민족문화적 성격이 강조되면, 한문으로 민족문화를 학습해야 할 당위성은 점점 약화된다. 이 경우, 한문교육은 전문인 양성에 보다 집중되고 보통교육의 자리에서는 한문 대신 번역문으로 그 내용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한문교과와 국어교과의 관계 문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주요하게 고려할 점은 ‘국어민족주의’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국어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국어민족주의’적 면모가 드러난다.<sup>18)</sup> 이러한 국어민족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어’에 부여된 과도한 근대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를 탈각시켜야 한다. 동아시아 삼국은 한자의 어문질서와 한자문화권에서 이탈하면서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을 기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우는 한자문화를 철저히 자국화한 면모를 보이고, 일본과 우리의 경우 타자화한 면모가 나타난다.<sup>19)</sup> 우리의 경우, 한글중심주의에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나타났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한문교과의 독립은 이러한 한글중심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문교과의 독립이라는 경험을 통해 보통교육 제도 안에서 ‘한글중심주의-국어민족주의’의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수적 민족주의로서의 ‘한글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통적 한자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와 한자한문의 동질적 성격과 이질적 성격을 함께 경험하고, 사유할 필요가 있다. 한문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공동규범을 적절히 참조함으로써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닌 보다 창조적인 민족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어이면서 동시에 국어가 아닌 ‘한문’의 성격을 보통교육에서 철저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존재인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어문질서-공동문어적 성격의 한문을 환기함으로써 평면적인 단순성(국수적 민족주의)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고려할 것은 국어 내부에 한문이 있으면서, 동시에 국어가 아닌 한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곧 국어교과이면서 국어교과가 아닌 한문교과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sup>20)</sup> 타자화되지 않기 위해 내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끊임

18) 진재교(2006)

19) 물론 타자화의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한자를 자국화하는 경로를 걸었다면, 우리는 ‘한글중심주의’의 경로를 걸었다고 할 수 있다.

20) 한문교과는 이미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다. 수능과목에서 한문은 ‘제2외국어/한문’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어/한문’의 영역은 국어와 한문의 동거로 읽힐 수 있다. 이질적인 존재의 동거가 아니라 같으면서도 다



없이 외부를 환기하여 허구적인 단일성의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문교과의 위상은 고전문어인 ‘한문’의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문’은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존재 그 자체의 핵심이다. 따라서 한문교육은 우리가 우리인 이유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 사유와 존재의 기저를 이루는 한문문화를 확인, 보전, 확대, 활용하도록 하는 의식적 행위가 바로 한문교육인 것이다. 그런데 한문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동질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동시에 민족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어교과 내에 위치한 한문교과는 이 이중적 성격과 그것의 관계망을 뚜렷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의 공동규범을 교육하고, 동시에 그 공동규범이 자국화하는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공통적인 성격과 그 공통성의 독자적 개별화를 동시에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논어의 핵심구절을 교육하고, 그 핵심구절을 창조적으로 수용, 변용시킨 과정을 학습하게 하거나, 혹은 대표적인 唐詩와 그 唐風의 자국화의 성과 등을 학습함으로써 동질적인 한문문화적 성격과 그것을 민족문화한 성격을 함께 인지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유와 존재의 기저를 이루는 한문문화의 핵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이다. 한문교육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한문문화의 핵심을 확인, 보전, 확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확인, 보전, 확대, 활용을 위한 핵심,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던져지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사실, 고전문어로서 한문교육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한문보편규범”이다. 전통적 한문교육에서 경전학습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핵심적인 규범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경전과 역사서 및 문학작품 등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한문교육을 참조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암송을 추천하는 고문과 詩詞曲 작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고전의 핵심을 제시하고 익히고, 외우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중국에서 핵심적인 교육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때, 우리 역시 우리를 구성하고, 앞으로 구성할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여야 한다.<sup>22)</sup>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교육용 한자를 제정하여 시행한 경험도 있고, 한문교육학회에서 주요 작품 목록을 선정한 바도 있다.<sup>23)</sup> 따라서 힘들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동아시아의 보편적 한문규범을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문교육의 범위도 선정해야 한다. 기실 교과서에 사용되는 한문 텍스트의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텍스트의 범위 지정의 필요성만 제시될 뿐, 선정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경우는 없었다. 먼저 기준이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의 보편적 규범성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만이라도 동의하는데서 출발한다면, 해당 전공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른 면모로 기호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어(한문 포함)” 정도가 어떨까 한다.

21) 중, 고등학교에서 각각 고문 20편, 시사곡 50수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작품 수가 상당히 많지만, 교육의 핵심을 간추리고 암기하게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작품 목록은 현성준(2003) 및 한연석(2011) 참조.

22) 예컨대, 사서에서 핵심적인 몇 구절, 좌전, 사기, 한서에서 몇 장면, 두보와 이백의 시 몇 수, 한유, 유종원, 소식의 문장 몇 편 등 동아시아와 우리나라 전통한문문화에서 핵심적인 보편규범으로 인식된 작품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23) 김여주(2007)

가 확인, 보전, 확대, 활용할 한문문화의 핵심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생각할 점은, 그 ‘핵심’의 교육 방식은 부분적이라도 암송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이다.<sup>24)</sup> 우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한문문화’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임은 분명하다. 한문교육이 다른 문학, 역사, 철학 교육과 다른 점은 우리 내부에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한문문화’를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몸에 각인시키는 점에 있어야 한다. 이는 지금의 문학, 역사, 철학으로 모두 환원되지 않는 잉여의 영역이 ‘한문’에 존재하고,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 또한 한문교육이 타교과와 다른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sup>25)</sup> 이러한 면모는 특히 한시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문교육에서 한시를 암송해야 하는 이유의 중의 하나는 글의 표현적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의 영역이 언어에 내재한다는 사실을 신체를 통해 기억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sup>26)</sup> 특히 지금 현실의 우리 언어에 없거나, 잊혀진 자질을 한시가 지니고 있기에, 한시교육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요컨대, 한문고전 그 자체가 지닌 주요한 의미는 한문고전을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분과학문의 총합을 넘어서는 그 전체성에 있으며, 한문교육에서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한문교육의 실태와 대책

지금까지 한문교육의 이념과 그 이념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한문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문교육은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한자한문문화를 확인, 보전, 확대, 활용을 위한 의식적인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영역은 한자어 교육과 한문교육인데, 현행 중등학교 교육체계에서는 국어 교과이면서 국어 교과가 아닌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교과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은 점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한문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실시로 학교 교육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특한 운영방식인 ‘교과 집중이수제’는 학교 교육 현장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제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한문과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데, 한문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7~10학년(중1~고1) 교과 재량활동에서 운영된다. 중학교의 경우, 교과재량 과목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등이고, 중1~3학년의 재량활동은 총 306시간이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24) 암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핵심이라고 할 텍스트의 범위와 각 텍스트의 분량이 가능한 한 작아야 할 것이다.

25) 한문고전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인, 보존, 나아가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한문교육의 영역이라면 타교과의 경우는, 한문교육의 이러한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번역문이나, 주요 내용을 다

26) 이처럼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교육은 현대 우리말 노래에 또 다른 가능성을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류준필, 2008:307) 참조.

과정”이 없어지고, 여러 교과(군)로 나누어졌는데, 한문은 선택교과에 편성된다. 이 선택교과(군)는 2007 개정 시기 교과 재량활동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편성된 과목들이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이어서 이전 교과 재량활동 과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 이수시간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2007개정 시기 재량활동은 총 306시간이었으나, 2009 개정 시기 선택교과(군)은 기존 이수시간이 204시간이다. 1/3에 해당하는 102시간의 감소가 일어난 것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편제되었던 과목들의 시간 수는 그대로인데, 다만 선택교과(군)의 기준이수 시간만이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간 중학교 한문 교과의 실질적인 변화를 개설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의 변화를 통해 추적해보자.<sup>27)</sup>

<표3 : 연도별 한문 개설 학교, 학급, 학생수><sup>28)</sup>

구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계	여자
2009	2,907	39,712	1,381,987	649,428
2010	2,991	37,080	1,265,503	598,171
2011	2,840	27,242	918,065	439,623
2012	2,329	15,891	527,553	252,394

위의 표는 교육통계연보(2009~2012) 중에서 연도별 재량활동 선택교과목에서 한문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한문을 개설한 학교 수의 변화만으로 볼 때,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문 선택 학교 수가 578개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1년 151개(5.0%), 2012년 511개(16%)의 감소로 갑작스런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학교 수의 감소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학급수와 학생 수의 감소이다. 2011년에는 학급수와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각각 17.5%, 12.5%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42.7%, 42.6%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의 원인은 선택과목의 기준 이수시간이 306시간에서 204시간으로 1/3이 감소한 점과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된 ‘집중이수제’에 있다. 집중이수제는 국가 교육과정에 교과(군)별·학년군별로 제시된 총 시간수를 특정 학년 및 학기에 집중 배정하여 이수하게 하는 교육과정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통해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강제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통 12~13개씩 편성되는 교과목을 8개 이내로 편성하기 위해, 몇몇 교과목을 한

27) 이하의 표들은 모두 교육통계연보(2008~2012)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것이다. (교육통계연보는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에서 확인하였음)

28) 참고로 2009~2012 중학교의 학교, 학급,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3,106	3,130	3,153	3,162	58,396	58,373	57,830	57,086	2,006,972	1,974,798	1,910,572	1,849,094

학기 혹은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문수업 역시 한 두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토록 함으로써 이수 학급수와 학생 수가 2년 사이에 각각 53%, 58% 정도가 급감하게 된 것이다.<sup>29)</sup>

그런데 특이하게도 중학교 한문교원의 수는 이 기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음은 2009~2012의 자격증 과목별 교원 수의 변화 양상이다.<sup>30)</sup>

<표4 : 자격증 과목별 교원수>

구분	자격증 과목별 교원수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총교원수
2009	15,221	13,119	14,399	2,123	109,075
2010	15,132	13,155	14,440	2,106	108,781
2011	15,388	13,466	13,979	2,189	110,658
2012	15,463	13,460	13,793	2,251	111,004

한문과를 개설하는 학교는 2011년부터, 특히 2012년에 급감하는데 비해 한문 자격증 소지 교원 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의 자격증별 퇴직 교원 수 자료에 의하면, 한문의 경우 2011년 14명, 2012년 24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오는데, 같은 시기 한문 자격증 소지 교원은 각각 83명, 6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퇴직자를 고려한다면, 한문자격증 소지교사수가 2011년과 2012년 각각 97명, 86명 증가한 것이다.<sup>31)</sup>

한문을 개설하는 학교가 감소하고, 이수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며, 이수 단위수 또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한문교원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한문교원이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를 하거나<sup>32)</sup>,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3)</sup> 한문 교과와 한문교원의 위상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이는 예일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 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문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양 과목군”에 편성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

29)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에 1학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1년에 1학년, 2012년에 1,2학년이 집중이수제의 대상이 된다. 2013년부터 집중이수제가 부분적으로 무력화되었기에, 조금은 이수 학생수 감소폭은 완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30) 담당과목별 교원수를 확인해야 하나, 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되는 담당과목별 교원수는 ‘국민기본공통과정’의 과목만 나올 뿐, 선택과목(군)의 과목들에 대한 교원수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 담당과목이 아니라 자격증 과목별 교원수를 제시하였다.

31)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중학교 한문 교원의 증가는 고등학교 한문 교원의 이동도 한가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고등학교 한문담당 교원수는 2011년 58명, 2012년 276명 감소하였다.

32) 최근 91명의 한문교사에게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2, 2013년에 다른 과목의 상치를 요구받은 경우가 31%나 되었다고 한다.(송병렬, 2013:52)

33) 집중이수제에 따라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교원의 숫자가 급등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과목별 기간제 교원의 통계를 확인한다면, 이 점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공통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은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체육 과목군(체육), ④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 ⑤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⑥ 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뉜다. 한문이 속한 ‘⑥교양 과목군’에서는 최소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한다.<sup>34)</sup>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교과 영역을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등과 같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 영역의 필수 이수 단위를 지정하였다. 한문이 속한 생활·교양 영역에 속한 교과(군)는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며, 생활·교양 영역의 필수 이수 단위는 16단위이다.

생활·교양 영역의 필수이수 단위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단위와 동일하도록 맞추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술·과정은 고1 국민 기본 공통과정의 과목으로 6단위였고, 제2외국어에 속한 과목들도 모두 6단위로 1과목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했다. 한문, 교양 과목에서는 최소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했다. 따라서 기술·과정 6단위와 제2외국어 6단위, 교양영역 8~12단위<sup>35)</sup>를 더하면 20~22단위가 된다. 그런데 6단위 과목의 경우 2단위를 감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운영지침이 있기에<sup>36)</sup>, 기술·과정과 제2외국어를 4단위로 운영하면 최소 이수단위는 16단위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교양 영역의 필수이수 단위를 16으로 설정한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한문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수업 시수가 줄었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7)</sup>

그런데 2007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가 다시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변화를 추이를 관찰하기는 쉽지 않다. 2007개정 교육과정은 2009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되었고, 2009개정 교육과정은 2011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되었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1~3학년까지 함께 적용된 적이 없고, 2009개정 교육과정도 올해(2013)부터 1~3학년이 동시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3년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에서 수집, 정리하여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는 각 학년별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학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sup>38)</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2012사이의 교원수의 변화를 통해 한문교과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34) 교양과목군의 과목과 이수단위는 다음과 같다.

한문 I(6), 한문 II(6) 생활과 철학(4), 생활과 논리(4), 생활과 심리(4), 생활과 교육(4), 생활과 종교(4), 생활 경제(4), 안전과 건강(4), 진로와 직업(4), 환경(4)

35) 한문 I II를 이수할 경우 12단위가 되고, 교양 2과목을 이수할 경우 8단위가 된다.

36)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수 단위가 4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하다.”(2009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침)

37) 전국한문교사모임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 이내 수업 시수를 줄인 경험이 있는 경우가 61%에 달하였다. (송병렬, 2013:51)

38) 예컨대, 2012년 한문과 개설현황은 한문 I 과 한문II를 개설한 학교 숫자만 제시된다. 한문, 한문고전으로 개설한 학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lt;표 5: 2009~2012 고등학교 과목별 담당교원수&gt;

연도	과목별담당교원수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총교원수
2009	15,921	14,681	16,782	2,148	125,074
2010	16,132	14,176	15,913	2,302	126,423
2011	16,296	15,663	16,633	2,264	131,083
2012	16,703	16,054	16,691	1,988	132,530

위의 표는 2009~2013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교원수와 한문 교원수를 조사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부터 국영수 교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문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한문교원이 총 276명, 전년대비 12%나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국어, 영어, 수학 교원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한문교원은 지속적인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교양 영역의 최소이수단위를 2007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한 듯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생활·교양 영역의 교과가 학교 교육에서 끝없이 배제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교양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단위로 운영되지 않았다. 실제 선택교과목의 운영지침에서도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감소 뿐 아니라 증가도 열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8과목으로 제한하게 되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8과목이라는 제한이 생기자,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몇 과목을 배제해야만 했다. 배제의 논리에서 ‘입시’가 우선일 수밖에 없고,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과목은 철저히 배제되어 갔다. 특히 새롭게 나누어 놓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영역에서 기초와 탐구는 수능시험의 핵심부분인 “국·영·수/사탐/과탐”이고, “체육·예술”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최소로 이수할 수 있는 단위인 16단위보다 4단위를 늘려 20단위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8과목의 제한’에 따라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교과영역은 “생활·교양”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더해서 “고교선택제”는 생활·교양 소속 과목의 배제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입시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진정 학생들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현장 교사들의 노력은 오로지 “입시”만을 향해 달려가도록 부채질하는 “고교선택제”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공개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현장 고등학교는 입시에 중요한 과목만을 가장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고등학교 담당과목별 교원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011년과 2012년 보통교과 교원수를 나타낸 표이다.

&lt;표 6 : 2011, 2012 보통교과 담당 교원수 및 증감&gt;

구분	국 어	도 덕	사회 (국 사)	수 학	과 학	기술 · 가 정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독 어	불 어	스 페 인 어	중 국 어	일 본 어	노 어	한 문	교 련	교 양
2011	16,296	3,076	14,539	15,663	11,925	4,338	4,901	2,200	1,998	16,633	105	128	1	941	2,401		2,264	10	2,474
2012	16,703	2,995	14,294	16,054	12,650	3,635	5,236	2,276	2,165	16,691	99	119	2	1,175	2,282		1,988	0	2,455
증감	407	-81	-24	391	725	-70	335	76	167	58	-6	-9		234	-11	-	-27	-10	-19
			5			3									9		6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교원수가 줄은 두 과목이 바로 기술과정과 한문이다. 실제 기술·가정의 경우, 고1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었다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필수가 해제되어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교과가 바로 한문이다. 과목의 지위 변동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변화가 교원수의 변동임을 생각할 때, 실제 고등학교에서 한문교과의 위상이 얼마나 크게 하락하였는지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 당장 획기적인 조치가 없다면 고등학교에서 한문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엉망이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집중이수제”이다. 집중이수제의 폐해는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학교 현장에서 끝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당국에서는 선언적으로 집중이수제를 폐지하기는 하였다. 그 폐지는 8과목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예술을 8과목 제한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로 9~11과목 정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sup>39)</sup>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몇몇 과목들이 한 학기에 너무 많은 수업시간을 갖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철저하게 ‘입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8과목 제한이라는 운영지침으로 인해, 입시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과목을 배제한 경험이 각급 학교와 학부모에게 학습된 이상, 이러한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문과나 제2외국어, 교양과 교원들이 진정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혀버렸다. 이미 폐지된 집중이수제라고 할지라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입시’를 최우선의 과제로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학습시키고, 경험시켰다는 것이 집중이수제가 남긴 진정한 폐해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틀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하겠지만, 이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지침의 수정을 통해 현실 교육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른바 ‘주요교과목’에 대한 최대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없는 포식자가 되어가는 ‘국영수’라는 과목을 정책적으로 제한해야만 학교 생태계가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39)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11, 21)

생활·교양 영역은 언제나 최소이수단위인 16단위가 거의 최대 이수단위가 되고 있지만, 15단위가 최소이수단위인 국어, 영어, 수학은 대부분 30단위를 넘게 개설한다. 사실 기초영역의 국어, 영어, 수학에는 최소이수단위의 제한이 필요가 없다. 제한이 필요한 것은 최소가 아니라 최대이다. 인문계, 자연계 고등학교에 가장 적절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이수단위가 얼마인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장 이수단위와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하여, 비대해지는 괴물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요과목에 단위수 제한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이라면,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평가의 문제이다. 한문 교과가 사라지고, 이수 단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문제와 함께 한문과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수업의 문제이다. 앞서 살폈듯이 한문교육은 그 자체로 함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교육이 수업 중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과 평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현행 제도의 문제이다. 학교 평가는 내신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대입 수능 평가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존재할 뿐,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문제는 학교 현장, 대학, 교육청, 교육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에서 한문교과의 성적이 내신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학 입시에서 대학들은 거의 내신으로 전과목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영수, 사탐, 과탐 과목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골라 반영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해, 비주요교과 과목의 수업은 더욱더 부실해지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찬밥 신세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입시에 찌들려, 입시만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유인할 수 가능성마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대교협 등이 각 대학의 내신반영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각 대학이 몇몇 과목에 가중치를 두더라도, 최소한 **전과목의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입시 주요교과가 아닌 **생활·교양 영역 과목에 가중치를 두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과목 반영의 방법이든, 생활·교양 영역 과목에 대한 가중치이든 이른바 ‘비주요과목’ 교육 내 실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대교협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들 과목에 대한 내신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입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한문’의 반영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반영의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대입 수능시험에서 선택으로 되어 있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의 성적을 대학입시에서 사탐의 하나로 대체하거나, 필요한 단과대학에 따라 ‘제2외국어/한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sup>40)</sup> 이런 안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교육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문과’의 정체성 확립과 전체 한국 교육에서의 담당해야할 역할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에서 한문교육의 방향을 검토한 것 역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문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작은 토론거리라도 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앞으로 있을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하여, 한문과가 국어 교과에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0) 진재교(2013:32)



하지만 지금의 교육과정의 틀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일단 중학교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교과(군)’로, 고등학교에서는 ‘기초’ 영역으로 재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폈듯이, 한문은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그 자체이고, 그것을 확인, 보전, 확대, 활용토록 하는 것이 한문교육이기에, 한문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따라서 한문은 중학교의 ‘선택’ 영역이 아닌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야 하며, 고등학교에서도 ‘교양’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립 교과이면서 동시에 국어 교과의 하나인 한문을 성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문교육의 국어교육적 성격을 공유하는 맥락에서 국어 교과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의 공동규범으로서 대타적 성격을 지니기에, 국어이면서 동시에 국어가 아니기에 국어교과 속의 독립 교과로 한문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어교육이 자칫 빠질 수 있는 국수주의적 면모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같으면서도 다른, 하나이면서 개별적인 사유를 구축할 제도적 장치로서도 한문이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구상은 수학능력시험과도 연결된다. 만약 한문이 독립교과로 국어교과에 결합하여 ‘국어(한문 포함)’와 같은 영역이 성립하게 된다면, 지금 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에 한문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문’이 수능시험의 필수과목이 된다면, 국영수와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사교육 열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그토록 비판했던 입시 위주의 한 폐해가 한문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듯이, 한문과 교육에서 고전어로서의 한문교육은 한문문화의 핵심적 규범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핵심 규범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한문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규범들을 선정하고, 목록화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애착을 모두 벗어던지고, 진정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최소한 것만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 학계는 제대로 된 앤솔러지 *anthology*를 만들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번 기회에 진정 한자문화권의 핵심이라고 할 앤솔러지를 선정하고, 그것을 한문교육적 맥락 하에 재구성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용 앤솔러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능시험은 그 중 핵심적인 것을, 지식 위주로 간단히 암기하는 정도에서 출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는 한문문화를 몸에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안승덕(1991), 일본의 한자교육에 대한 연구, 청주교대 논문집28, 청주교대.
- 정우상(1994), 한문과 교육정책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선정, 한자한문교육 1, 한자한문교육학회, 65~80면.
- 심경호(2000), 일본에서의 한자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14, 한문교육학회
- 유창석(2000), 일본의 한자교육정책, 가천길대학 논문집28, 가천길대학.
- 한연석(2000), 중국의 고문교육, 한문교육연구 14, 한문교육학회.
- 송병렬(2002), 한문교육의 한자어 교육문제, 동방한문학23, 동방한문학회
- 한예원(2003), 일본 초중고 학교의 한자한문교육의 특징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21, 한문교육학회.
- 현성준(2003), 중국 초중고등학교 어문교육 교육내용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21, 한문교육학회.
- 송병렬(2003), 한국의 한문과 교육과정 문제와 해결의 방향, 한문교육연구 21, 한문교육학회
- 김왕규(2004), 한문교육과정 개정·변천의 양상과 한문과의 위상, 한문교육연구 22, 한문교육학회
- 양원석(2005), 중국의 한자 교육, 한자한문교육 15, 한자한문교육학회.
- 진재교(2006), 국어기본법과 한문교육의 방향, 한문교육연구 27, 한문교육학회.
- 이연숙(2006),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고영진·임경화 옮김), 소명출판
- 김여주(2007), 임용고사 출제 범위에 대한 개선안, 한문교육연구 29, 한문교육학회.
- 류준필(2008), 중국 小學語文 교과서에서의 한시 교육과 그 특성, 중국문학 54, 중국문학회
- 류준경(2008), 한문교육의 이념과 대학원의 역할, 한문교육연구 30, 98~101면.
- 송호빈(2011), 일본 한문교육연구의 현황과 시사점, 한문교육연구 37, 한문교육학회.
- 박세진(2011), 일본 한자교육의 위상과 한자교육연의 동향, 한문교육연구 37, 한문교육학회
- 송영빈(2011), 일본에서의 한자 교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40, 국어교육학회.
- 한연석(2011), 중국 초중고교의 고문교육, 동방한문학49, 동방한문학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별책)
- 진재교(2013), 문화와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문교육,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간담회 자료집.
- 송병렬(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과 한문과 교사의 위상 변화,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간담회 자료집.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re.kr/>)
- 文部科學省學 (<http://www.mext.go.jp>)
-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 (<http://www.pep.com.cn>)
-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 「韓國漢文教育의 方向과 課題」 토론문

김병철(군포고)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제2외국어/한문 교육 정상화 간담회가 열린 자리에서 많은 정치인과 교육 관료가 한문 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고,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국어 이해력과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2013년 2학기부터 초·중학교 한자교육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한자교육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에 맞추어 한문 교육 담당자들의 내부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의 논문은 한문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의 방향과 문제점 및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발표자께서 밝히신 한문교육의 이념은 이념으로서는 수용 가능하겠지만, 중등학교에서의 한문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발표지에서 말씀하신 ‘이 땅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문화의 핵심인 한문을 이해해야만 한다. 지금 이곳의 나를 구성하는 핵심이 한문이기에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듯이 이미 나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한문이기에 한문을 익히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의 내용은 지나친 당위론으로 중등학교 학교의 학생들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문교육의 이념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발표자께서는 2장에서 한문교육과정의 흐름을 정리하시면서 교육과정 변천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문제는 ‘한자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고, 4장 한자한문교육의 방향 모색에서 한자어 교육을 정체성 맥락에서 ‘계륵’에 비유하였습니다. 한자어 교육을 담당할 교과가 국어인가? 한문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발표자께서는 한자를 바탕으로 하는 한자어 교육은 한문에서 담당하고, 국어의 경우는 한문의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는 한자어라는 개념이 한자 어휘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하는 달리 오히려 어휘 교육이 위축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과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문과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한자어’에 위상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발표자께서는 한문교육의 방향을 국수적 민족주의로서의 ‘한글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국어이면서 동시에 국어가 아닌 ‘한문’의 성격을 보통교육에서 철저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국어 내부에 한문이면서, 동시에 국어가 아닌 한문의 모습을 갖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국어의 내부의 여러 과목 중에 한문 과목으로서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경우 한문교육과 관련한 정체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4. 발표자께서는 한문교육의 핵심은 ‘한문보편규범’이라고 주장하시며, 이를 위해 중국의 한문교육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중학교과 고등학교에서 암송을 추천하는 고문과 詩詞曲 작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한문 교육 방식의 핵심은 부분적 암송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한문보편규범’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한문교육의 여건을 생각했을 때 암송 교육까지 실현 가능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요.

또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한문교육의 방향은 중등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지난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한자 성명을 정확하게 쓰고 뜻을 아는 학생이 50%미만인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등 교육에서 과연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문 교육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 발표자께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의 핵심인 집중이수제로 인한 한문과의 연도별 한문 개설 학교, 학급, 학생 수를 조사하시고 한문 연도별 한문교원수를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집중이수제로 인한 한문 선택 학교 수는 급감하였고, 한문교사 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문과 교수, 한문 교사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요구는 무엇이고, 그 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한문’의 도구교과의 성격을 많이 반영하여, 한자 어휘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과목명을 ‘생활한문’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표자께서는 한문 교육에서 현안의 과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주요교과목’에 대한 최대 이수를 제안하는 방안, 둘째, 대입 수능 평가에서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셋째, 대입에서 내신 성적을 전과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넷째,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중학교에서 선택에서 교과군으로 편성하고, 고등학교는 생활·교양군에서 ‘기초’영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은 한문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부적 방법으로 한문 교육 담당자라면 누구나 환영할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란 쉬운 과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한문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접근이 거시적이며 원대한 부분이 많아 미시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만 한 토론자는 발표자의 안목과 학문적 성찰에 경의를 보내지만 공감 지수가 높지 않은 것을 한문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명분입니다. 그 명분에 가장 합당한 것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선택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선택의 숫자가 한문교육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6. 2009 교육과정은 인성을 잘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어, 사회, 도덕 등 다수의 과목에서 인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문교과 담당자들은 인성 교육이 한문 과목에 매우 부합하는 교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 교육은 도덕, 국어, 사회,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문교육의 방향을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그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YBM 商務漢檢

실용한자 평가시험

‘商務’라는 말은 ‘商業上의 用務’ 즉 ‘비즈니스(Business)’의 漢字語입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한 YBM 商務漢檢은 단순히 ‘한자의 음과 뜻’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漢字와 漢字語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漢字를 정확히 구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실용 한자능력평가 시험**입니다.

▶ 주관 및 시행: YBM

▶ 후원: 한국한문교육학회

▶ YBM 商務漢檢 구성

문제 유형			문항 수		시간	총점
생활 한 자 어	신문 헤드라인 한자어	객관식	10	70 問	70 분	1000 점
	생활한자어 이해		10			
	한자어 변환		10			
	상대어		10			
	동자이음(同字異音)		5			
	약자(略字)		5			
	한자성어(漢字成語)		10			
	그림 한자성어		5			
	한자퍼즐	주관식	5			
실 무 한 자 어	한자어 이해	객관식	10	80 問		
	한자어 완성		10			
	한자어 찾기		10			
	한자어 전환		10			
	한자어 바로 쓰기	주관식	15			
	문장 독해	객관식	15			
	간체자		10			
합계			150 問			

▶ YBM 商務漢檢 특징 및 장점

- 정확한 실력 측정이 가능한 1000 점 만점의 점수 별 급수 부여 방식 (1 급 ~ 5 급)
- 자격증 및 영역별 성적분석표 제공 (국가공인 급수: 1 급 ~ 3 급, 교육급수: 4 급 ~ 5 급)
- 생활 및 실무한자 위주의 문제 출제
- 문장 및 문서로 제시되는 다양한 출제 (간체자 문제 출제)

## YBM 商務漢檢 시험 안내

▶ 정기시험: 일반인 대상 年 5 회 정기일정 시험 (응시료 ₩25,000)

▶ 특별시험: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 단체시험으로, 사전 협의(시간, 장소, 인원)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입니다. 또한, 특별시험 응시결과는 정기시험과 동일한 공인성적표가 제공됩니다.

- 신청인원: 최소 20 명 이상 / 시험일자 기준 15 일 전 유선상으로 신청 협의
- 응시료: 1 인당 ₩12,000 (출장비용 미 청구)

문의 (02) 2280 - 7230, 32 / [www.bizhanja.co.kr](http://www.bizhanja.co.kr)





2013年度 韓國漢文教育學會  
夏季學術大會 發表集

- 발행일 \_ 2013년 7월 6일~7일
- 발행처 \_ 한국한문교육학회
- 후 원 \_ 공국대학교, (재)국제교류진흥회
- 주 소 \_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정재철교수 연구실
- 전 화 \_ 031-8005-3796
- FAX \_ 031-8021-7227
- E-mail \_ l0012@hanmail.net
- Homepage \_ <http://www.hanmunedu.or.kr>



